

2008 본부 정책자료집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존 웨슬리(1703~1791)

하나님께서 감리교인을 불러일으키신 목적은
어떤 새로운 교파를 세움이 아니요 먼저 교회를 개혁하고, 민족을 개혁하고,
성서적 성결을 온 땅에 전파하는 것이다.

The God's design is not to form any new sect;
but to reform the nation, particularly the church;
and to spread scriptural holiness over the 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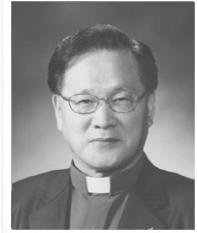
(존 웨슬리, 1789년 감리교 설교자 총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적 선언

1.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오,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오,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2.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3.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신을 믿으며
4. 우리는 사랑과 기도의 생활을 믿으며 죄를 용서하심과 모든 요구에 넉넉하신 은혜를 믿으며
5.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6.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이 된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7.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8.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신실한 사람들, 감리교회가 희망입니다



감독회장 신 경 하

2008년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5,825교회와 153만 4,504명 감리교인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해 영적대각성의 100주년을 보내면서 한국감리교회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성숙과 부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2007년 8월 23일에 부산에서 열린 영남선교대회는 이를 실천하려는 감리교인들의 뜨거운 몸부림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8만여 명의 감리교인들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영남선교대회를 통해 전도의 열심과 부흥의 소망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이날 선언한 비전선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히 13:8)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을 이 시대에 참되게 증언하기 위해 경건히 무릎 끓고, 겸손히 엎드려야 한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섬김의 영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 ‘웨슬리 영성’에 기초한 감리교회의 신앙전통은 희망을 잃은 한국사회와 능력을 상실한 교회를 부흥시킬 소중한 영적 유산이다. 이를 계승해 온 기독교대한감리회 5,825 교회, 153만 감리교인은 다시 “신실한 사람들”로 고백하고,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로 거듭나고자 한다.》

영남선교대회는 감리교회의 영적대각성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영적각성은 한마디로 우리 자신이 신령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감리교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과분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는 더욱 커다란 실망을 주었고, 부적절한 언행은 과대포장 되기 일쑤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앞장서서십자가를 짊어져야 했음에도 섬김의 도를 다하지 않았고, 책임의 짐을 짊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감리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이를 요약하는 한 단어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결과 감리교인들은 ‘신실한 사람들(Faithful Members)’ 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신실한 사람’은 ‘믿음(信)과 삶(實)’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의 모습이고, 존 웨슬리의 영성을 따라 살아가는 감리교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해 연회에서 ‘신실한 사람들- 감리교회의 세 가지 약속’을 선포하고, ‘목회자 윤리강령’, ‘감리교인 생활지침’, ‘사회규약’을 지킬 것을 다짐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일과성 통과의례로 치룬 의식이 아닙니다. 바로 감리교인 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들”로 거듭나고 영적인 능력을 회복함으로써 민족과 사회를 향해 강력한 희망을 제시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의 리더십을 안팎으로 전염시켜 세상을 더욱 바르게 섬기기 위한 복음적 방안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희망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존 웨슬리 회심 270주년의 해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영적각성의 결과로 생겨난 회심의 종교요, 부흥운동으로 시작한 능력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270주년을 맞은 존 웨슬리의 회심을 단지 기억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제2의 회심, 제3의 부흥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웨슬리는 1789년 감리교 설교자 총회에서 감리교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리교인을 불러일으키신 목적은 어떤 새로운 교파를 세움이 아니요 먼저 교회를 개혁하고, 민족을 개혁하고, 성서적 성결을 온 땅에 전파하는 것이다.”

이번에 네 번째로 〈2008 본부 정책자료집〉을 발간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감리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한 몸과 한 마음으로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를 이루어 가려는 비전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발간해온 정책자료집들은 본부가 앞장서서 개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모든 감리교인을 향해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감리교회가 네트워크를 이루어 서로 협력하고, 통합하며, 함께 부흥하려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작년에 이어 2008년에 ‘희망프로젝트’ 제2차 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저는 희망프로젝트가 공약(空約)의 남발에 그치지 않도록 모든 교회가 기도와 참여로, 관심과 뜨거움으로 완성도를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감리교회가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요, 한국 기독교에서 대안의 교회(alternative church)로 거듭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안의 연약한 교회들을 돋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 섬김의 모습으로 봉사합시다. 시민사회가 존경하는 건강한 교회상을 이루며, 세상이 우러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갑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교회,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교회, 민족을 개혁하고 성서적 성결을 온 땅에 전파 하는 감리교회를 만들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감리교회가 나날이 새로워지고, 든든히 서 가며, 세계와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08년 1월 1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신 경 하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호 12:6)

- 2005년 ⇨ 선교120주년
- 2006년 ⇨ 세계감리교대회(WMC)
- 2007년 ⇨ 영적대각성(1903~1907)100주년
- 2008년 ⇨ 존 웨슬리 회심 270주년

3대 정책목표

1. 나날이 새로워지는 감리교회

영적 대각성운동을 전개해 감리교회를 감리교회답게 한다.

2. 든든히 서 가는 감리교회

300만 총력전도운동의 결실화와 사회봉사를 통해 감리교회를 든든히 세워낸다.

3. 세계와 세상으로 나아가는 감리교회

세계감리교대회의 성공을 통해 한국 감리교회가 세계선교를 주도하고,
세상에 흘어져 봉사한다.

10대 실천과제

- 1. 선교 120주년과 민족복음화를 위한 새 비전 창조
- 2. 300만 총력전도운동과 미자립교회의 자립기반 마련
- 3. 세계감리교대회 성공을 통한 세계선교강화
- 4. 미래의 희망-‘청소년 평화세상 만들기’ 운동
- 5. 사회선교와 봉사 및 복지 종합시스템 마련
- 6. 평신도 자원발굴과 참여 확대
- 7. 합리적인 본부행정과 정보전산화
- 8. 미래 목회지도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실시
- 9. 은급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장기적 대안 마련
- 10. 기본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개발 청사진

2008년 본부 주요일정

월	주요교회력	주요행사	준비
	총회제정기념주일		
1	주현절(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프로젝트 제 2차년도 출범(7일) · 「희망의 집」 인증 계속 · 희망봉사단 활동 · 희망대심방 계속(11차) 	「영남선교대회 종합 보고서」 발간 「사순절 묵상집」 발간
	신학대학주일(13일)		
2	성회수요일(6일), 시순절제1주일(10일), 3·1절기념주일(2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남선교대회 후속사업추진 (군위·김해·장유 등) · 국제 평화 컨퍼런스(25-27일, 미국) · 지방별 전도대 발대식 	
	은급주일(3일)		
3	고난주일(16일), 성금요일(21일) 부활주일(2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회개최 서울연회(25-27일), 서울남연회(27-28일), 경기연회(26-27일) 중앙연회(27-28일), 충북연회(25-26일) 	
	학원선교주일·장학주일(9일)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회개최 중부연회(8-9일), 동부연회(9-11일), 남부연회(1-3일) 충청연회(3-4일), 삼남연회(10-11일) · 세계선교대회 	
	선교주일(6일) 장애인선교주일(20일)		
5	어린이주일·아시아주일(4일) 어버이주일·성령강림주일(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회개최 미주특별연회(6-8일), 서부연회(22일) · 존 웨슬리회심 270주년 기념 국제웨슬리 전도대회 	「존 웨슬리 회심주간 예배 자료집」 발간
	존 웨슬리회심주일(18일)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영성훈련원 오픈 · 희망프로젝트 점검회의 · 아시아감리교협의회(24-27일, 말레이지아) 	「순교자기념주일 자료집」 발간
	평신도주일(1일), 환경선교주일(8일), 순교자기념주일(22일)		
7	맥추감사주일(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성경학교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남선교대회 1주년(23일) · 희망대심방 종료(총18차) 	
	남북평화공동기도주일·북한선교주일(10일)		
9	교회연합주일(1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프로젝트 종합보고회 · 제28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25일) 	「감리교회, 성숙과 부흥 을 위한 백서」 실천과 제별 매뉴얼 발간
	교역사보건주일(7일) 기독교교육진흥주일·농촌선교주일(21일), 청년주일(28일)		
10	세계성찬주일(5일) 종교개혁주일(2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회 감독회장배 어린이축구대회(2-3일) · 어린이 WMCI대회(2-5일) · 제28회 총회(29-31일) 	
11	추수감사주일(16일) 대강절제1주일(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정책협의회 	「대강절 묵상집」 발간
12	성서주일(14일)		「2009 본부정책자료집」 발간
	군선교주일(7일)		

총회 제정 기념주일 안내

신학대학주일

참된 주님의 사도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의 신학대학(원)이 깊은 영성과 체계화된 신학 그리고 목회 사역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기관이 되게 기도하며 현금으로 돋기 위해 정한 주일이다.(1월 둘째 주 일).

관련기관 :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 대학교, 미주감리교신학대학

학원선교교육주일, 장학주일

감리교회가 선교초기부터 학교를 세워 청소년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한 전통을 계승하여 학원선교와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감리교 계통학교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였다.(매년 3월 둘째 주 일) 또한 감리교회의 우수한 장학생을 길러내고 장학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주일로 지정하였다.

관련기관 : 교육국 교육행정부, 학원선교회, 계통학교

은급주일

1954년 대전 연합연회에서 제정되었으며 감리교회에서 일생동안 목회하다가 정년 은퇴한 교역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은급주일(2월 첫째 주일)을 정하고 그 현금으로 기금을 마련해 왔다.

관련기관 : 사무국 은급부, 원로원, 안식관

선교주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감리교회의 진취적 선교 사명의 회복과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결단 및 훈련의 출발점을 삼는 주일이다.(4월 첫째 주일)

관련기관 : 선교국 국내선교부, 해외선교기획부

3·1절 기념주일

1919년 감리교회는 독립선언서에 민족대표로 참여하는 등 독립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민족사랑의 의지를 분연하게 보여준 뜻 깊은 날을 기념하여 3·1절에 가까운 주일로 지킨다.(2월 마지막 주일 혹은 3월 첫째 주일)

관련기관 : 행정기획실 역사전산부

장애인선교주일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하여 고통당하는 400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 제정한 주일이다.(4월 셋째 주일)

관련기관 : 선교국 사회농어촌환경부

어린이주일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의 주장으로 어린이 명절을 지켰으며, 교회는 1957년부터 5월 첫 주일을 어린이주일, 꽃주일로 정하고 1964년 전국기독교교육대회에서 기독교어린이 현장을 공포했다.(5월 첫째 주일)

관련기관 : 교육국 교육교재부, 교회학교연합회

어버이주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훈육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효도와 가정을 생각하는 주일이다.(5월 둘째 주일)

관련기관 : 교육국 장년교육부, 사회평신도국 평신도부

존 웨슬리 회심기념주일

존 웨슬리 목사의 회심을 기념하여 감리교회의 영성을 되새기며 감리교회의 일치와 연대를 다짐하는 주일로 회심일에 가까운 주일에 지킨다.(회심일: 1738년 5월 24일)

관련기관 : 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

아시아주일

1974년 창립된 아시아기독교협의회 기념 주일로 아시아 소속 교회와 단체가 다양한 형태의 예배안과 찬양으로 의미있게 지키며, 아시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연대와 일치를 확인한다.(성령강림절 전 주일)

관련기관 : 선교국 해외선교기획부, 아시아교회 협의회

평신도주일

1979년 3월 16일 총회 결의에 따라 매년 6월 첫째 주일을 지킨다. 평신도주일은 하나님 의 백성이며 예수의 제자인 모든 감리교 성도가 소속 교회의 성장과 성숙, 사회와 민족 구원을 위해 쓰임 받는 성도가 되게 평신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인식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주일이다.

관련기관 : 사회평신도국 평신도부

환경선교주일

1992년 6월 둘째 주일을 환경선교주일로 지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보전을 위한 신앙적 다짐을 하고 환경 생태에 관심을 기울여 생명존중과 근검절약, 환경청지기 훈련을 하는 주일이다.

관련기관 : 선교국 사회농어촌환경부

순교자 기념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사업을 전파하기 위해 교회를 지키고, 믿음으로 행하다 순교·순직·납치·고난 받은 감리교인을 추모하기 위해 제26회 총회 실행부위원회(2006. 6. 30)에서 6월 넷째 주일을 기념주일로 지키도록 결의하였다.

관련기관 : 행정기획실 역사전산부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 북한선교주일

1988년 8월 14일 ‘평화통일기도주일’ 연합 예배를 정동제일교회에서 드린 것을 시작으로, 그해 11월 23~25일 스위스 글리온 회의

에 참석한 남북한 그리스도인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글리온 선언’과 ‘한반도 민족통일을 위한 세계기도주일 기도문’을 채택하고 매년 8월 15일 직전 주일을 남북한 교회가 함께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을 지키기로 합의하였다.

관련기관 : 선교국 국내선교부, 서부연회

교역자보건주일

자신의 건강을 돌볼 틈도 없이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애쓰는 교역자들을 위해 연중 한 주일(9월 첫째 주일)을 특별히 지켜 목회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관련기관 : 사회평신도국, 병원선교기관

교회연합주일

1976년 9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9월 둘째 주일을 교회연합주일로 정하고 한국 교회의 일치와 연합, 공동의 과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있다.

관련기관 : 선교국 국내선교부,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기독교교육진흥주일

1933년에 제정하여 9월 셋째 주일에 지킨다. 여름성경학교와 방학으로 약화되었던 교회 학교를 재정비하여 토대를 강화하고, 진흥 운동을 펼쳐 교회학교를 성장시키는데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 제정한 주일이다.

관련기관 : 교육국 교육교재부

청년주일

9월 넷째 주일은 감리교회가 청년주일로 제정(1999년 12월 13일)하고 청년들에게 기독교적인 믿음과 사랑으로 행동하는 인격을 함양시킴은 물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만드는 청년이 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이다.

관련기관 : 교육국 차세대교육부, 청년회전국연합회

농촌선교주일

제 27회 총회(2006년 10월 27일)에서 도시 교회의 모태인 농촌 교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우리의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석 이후 첫 주일을 농촌선교주일로 지키기로 하였다.

관련기관 : 선교국 사회농어촌환경부, 농촌선교 훈련원

세계성찬주일

1982년 폐루의 수도 리마에 모였던 WCC의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가톨릭과 정교회를 포함한 세계 교회의 공감대를 담은 성만찬 예식서를 채택, 성만찬을 통한 일치를 추구 하며 제정한 날이다. 매년 10월 첫째 주일이다.

관련기관 : 선교국 국내선교부

종교개혁주일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城)교회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제시한 날(1517. 10. 31.)에 즈음하여 형식화한 종교의 모습을 타파하고 교회의 본질인 성서와 믿음의 새바람을 일으킨 교회 개혁을 기념하는 날이다.(10월 마지막 주일)

군선교주일

선교의 횡금어장인 군 사회에서 청년을 위한 영적 각성과 위로를 통해 신앙의 길로 이끄는 군종 활동을 지원하고, 군선교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선교에로 연계시킴으로써 교회가 군선교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지원사

업을 위해 매년 12월 첫째 주일에 지킨다.

관련기관 : 선교국 국내선교부, 군선교회

성서주일

전 세계 교회가 성서반포사업을 주관하는 성서공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키는 주일이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성서주일 예배를 드린 것은 1899년으로 처음에는 ‘성서공회주일’ 이었다가 1900년부터는 ‘성서주일’로 불리기 시작했다. 매년 12월 둘째 주일이다.

관련기관 : 대한성서공회

발간사 _ 3**1부.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희망프로젝트’ 제 2차 연도 _	16
본부 · 연회 · 지방 · 개체교회 지침 _	35
10대 실천과제(2005~2008년) _	38
본부 정책과 행사기획 지침 _	70

2부. 각국 정책 및 업무

선교국 _	73
교육국 _	119
사회평신도국 _	161
사무국 _	193
출판국 _	217
연수원 _	235
행정기획실 _	259

3부. 통계자료와 문서

기초 통계자료 _	294
연합기관 파송 현황 _	305
본부 주요업무 일정 _	313
2005~2007년 주요문서 _	327

1부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희망프로젝트’ 제 2차 년도

본부 · 연회 · 지방 · 개체교회 지침

10대 실천과제 (2005~2008년)

본부 정책과 행사기획 지침

‘희망프로젝트’ 제 2차 년도

감리교 ‘희망 프로젝트’ 를 제안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영적으로 쇠퇴하고, 기독교 선교가 힘을 약은 오늘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호 12:6)를 선언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WMC를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한국감리교회의 저력을 세계감리교회에 널리 알렸다면, 이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복음전도에 전심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2006년 통계청의 종교인구 조사보고 자료는 개신교회의 교인수 14만 4천명 감소라는 충격을 던져 주었습니다. 타 종교의 성장과 달리 개신교회의 쇠퇴는 교회의 전도방식과 열심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이를 극복하려는 감리교회의 의지가 담긴 ‘희망 프로젝트’는 영적으로 각성하고, 다시 부흥할 능력을 얻으며, 세상에서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 위한 ‘희망 전략’입니다. 우리는 감리교회의 브랜드 강화와 이미지 개선을 통해 세상을 더욱 바르게 섬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희망 프로젝트’는 장단기발전위원회와 본부 정책협의회를 거쳐 본부 임원회가 입안하였고, 10개 연회와 평신도 단체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제27회 총회에서 모든 감리교회가 참여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지난 2007년에 제 1차 년도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제 제 2차 년도에는 현장 교회의 참여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5,825 교회와 153만 4,504명의 감리교인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열심을 모읍시다.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를 위해 우리가 먼저 희망의 발전소와 용광로가 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뜨거운 가슴으로 이 시대에 영혼구원과 민족구원을 위한 가장 중심된 교회로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1. 비전

‘신실한 사람들 ·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2. 주제성구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호 12:6)

3. 목적

감리교회는 다시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감리교회는 역사를 선도하는 시대를 이끌어 온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현재 감리교회는 시대와 세상에 대한 주도적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내외적 환경과 상황은 기독교인의 감소, 비기독교인의 교회에 대한 반감의 증가 등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타종교에 비해 기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것은 교회가 신뢰를 잃고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리교회는 훌륭한 장점으로 가득합니다.

감리교회는 다른 교파와 달리 하나의 교회요, 유기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적이고 공동체적인 평신도가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 유산과 전통이 있습니다. 이제 웨슬리 영성 회복을 통해 그 뜨거움과 경건함을 회복한다면 이 시대에서 우리를 통해 교회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에너지를 희망으로 모아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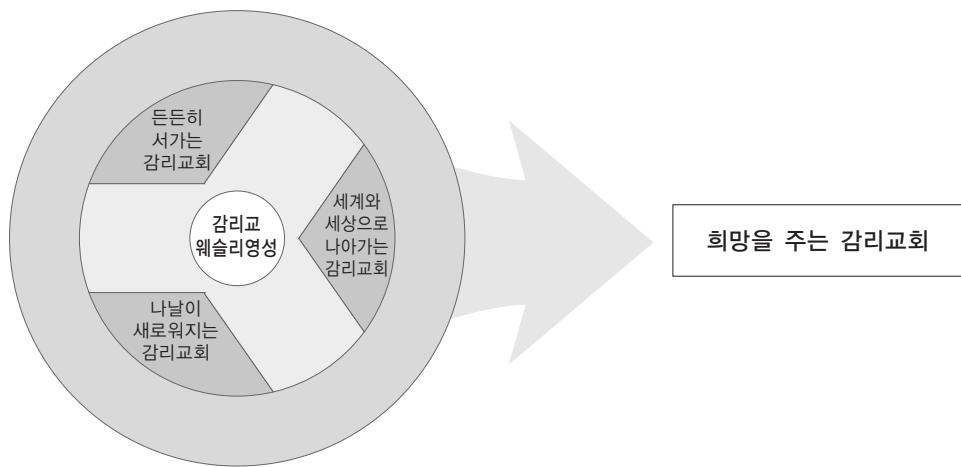
그러나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감리교회의 비전이 구체적이지 못하였고 한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감리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긍정적인 열정과 비판을 하나로 묶어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안될 것이라는 생각을 바꿉시다. 지도자들과 우리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어 봅시다.

감리교회, 희망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감리교회가 합심하고 협력하여 신실함을 회복함으로써 전체 기독교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민족과 사회를 향해 강력한 희망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일과성 행사가 아닌 보다 영적

이고 보다 미래지향적이며 보다 능력 있는 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4. 3대 정책목표



1) 나날이 새로워지는 감리교회

이것은 감리교회가 영적각성과 실천으로 간신되는 영성운동입니다. 감독회장을 비롯해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감리교회의 영적각성의 봄을 일으키고, 모든 교인들이 감리교인 다운 신실한 생활에 참여하며, 영남지역에서 전도의 열기를 불어 넣으려는 것입니다.

2) 든든히 서가는 감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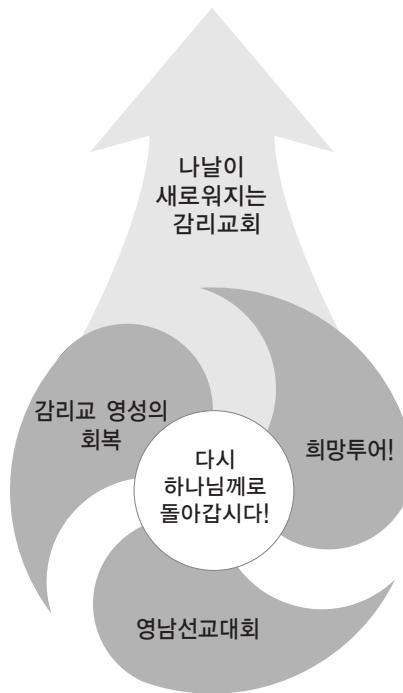
이것은 감리교회가 든든히 서 가기 위한 교회부흥운동입니다. 전도운동과 교회성장, 개체교회 간 협력과 연대를 통해 서로 승리하는 감리교 동역운동입니다. 목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좌절과 패배의식에 빠진 목회현장에 희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3) 세계와 세상으로 나아가는 감리교회

이것은 감리교회가 세계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교전략입니다. WMC의 성공적 개최를 디딤돌로 삼아 복음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개별적인 사회봉사와 복지사업을 감리교회 전체 성과로 한데 묶어내어 감리교회 봉사운동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5. 9대 실천프로그램

I. 나날이 새로워지는 감리교회 :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1-1. 감리교 영성회복!

감리교회다운 신앙정체성을 강화하고, 웨슬리 영성으로 다시 무장합니다.

웨슬리 영성은 감리교회 고유의 영적 브랜드이다. 웨슬리의 영성 회복을 통해 감리교인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이 시대의 영적 대각성과 부흥을 주도하며, 목회자와 감리교인의 삶 속에서 바른 경건의 열매를 맺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감리교회의 영성신학을 정립하고 훈련하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한다.

〈 2007년도 한 일 〉

- 1) 감리교인 생활실천운동 전개 - <목회자 윤리강령> <감리교인 생활수칙> <사회규약> 제정
11개 연회에서 실천결의.

- 2) 장단기발전위를 통해서 웨슬리 영성수련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인 정리와 이것의 현대적 적용 방안 또한 수련회 형태의 영성수련 모범 제시 그리고 교단적 확대시행 방안 등을 제시함.
- 3) 웨슬리 영성수련의 장(場)으로 일영연수원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샬롬유스호스텔과의 통합을 이루고 향후 수도원 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 4) 평신도 지도자들의 연수교육을 제도화하여 이후로 영성수련의 기회를 확보하게 됨.
- 5) 정회원 연수교육에 웨슬리 영성수련과정을 특강으로 실시하고 있음.
- 6) 감리교 영성훈련 프로그램인 ‘엠마오 가는 길’의 활성화로 연회별 분회(分會) 작업 준비 중.
- 7) 청년엠마오(Chrysalis)를 UMC에서 도입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미국현지 연수를 실시하였음.

〈 2008년도 할 일 〉

- 1) 웨슬리 영성회복운동 추진위원회(가칭)를 발족, 웨슬리 영성수련과 제도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작업을 수행케 함.
- 2) 감리교 영성회복을 위하여 〈목회자 윤리강령〉 〈감리교인 생활수칙〉 〈사회규약〉과 웨슬리 영성수련 지침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하여 일상적으로 경건생활훈련을 수행하게 안내 한다.
- 3) 웨슬리 영성수련 과정을 정착 - 정회원연수교육, 사회평신도부총무 연수교육, 목회자 부인신학교육원 등
- 4) 엠마오 가는 길 활성화 및 연회별 분회작업 진행 - 중부(인천), 서울남(강서), 동부(춘천), 경기(안양) 등
- 5) 젊은이들을 위한 청년엠마오(Chrysalis) 실시.
- 6) 사이버(CYBER) 영성수련원 운영
- 7) 상설적인 영성수련을 위하여 웨슬리 수도원 시설 마련 작업.
- 8) 영성수련을 위한 관련세미나 실시.
 - ① 네비게이션 바이블 통독세미나
 - ② 애니어그램 세미나
 - ③ 센터링침묵기도 세미나 등등

1-2. 희망 대심방

감독회장이 앞장서서 전국의 감리교회를 심방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희망 대심방을 실시합니다.

희망대심방은 감독회장을 중심으로 심방팀을 조직하여 매월 1회이상 오지교회, 소외자선교 현장, 미자립교회, 복지시설, 사회적관심현장을 찾아가 격려하고 위로하며 희망을 나누려는 것이다. 희망대심방은 한지역, 인근 지방과 연계하여 감리교회의 연대감을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위상을 강화하며, 감리교회의 정체성과 일치감을 교양시키려는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 2007년도 한 일 〉

차수	일자	장소	내용
제1차	2007. 1. 6~7	전라남도 해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땅끝마을교회 방문(해송교회)② 건축하는 교회 격려(송정교회)③ 지역불우이웃에게 희망의 쌀 전달(180포)④ 해남지역 8교회 연합예배 / 해남새롬교회⑤ 변인숙목사 병원심방 - 격려금전달
제2차	2007. 2. 5~7	금강산 온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온정리마을 직접 방문 - 화덕 2800개 전달② 마을주민과 희망예배
제3차	2007. 3. 5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대전외국이주노동자센터교회 방문② 금산밸델 노숙자 자활센터 방문③ 벤엘의 집 희망센터 1호 인증식④ 대전역광장 노숙자 무료급식(밥퍼)행사
제4차	2007. 4.29	평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수향교회 방문(성전희망건축1호)② 임하교회 방문
제5차	2007. 5.19~20	금산, 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금산밭들교회 방문② 남부연회 농촌목회자들 격려③ 농촌선교훈련원 격려④ 음성농민학교 주일예배
제6차	2007. 6.23~24	울릉도, 독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대구지방 교역자부부 오찬격려② 경북동지방 교역자부부 만찬격려③ 울릉도지역유지와 만찬, 희망의 쌀 전달④ 독도경비대 방문, 위문품 전달⑤ 죽암교회 격려⑥ 동산교회 격려

차수	일자	장소	내용
제7차	2007. 7.22	오산	① 오산평화교회 주일예배(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 예배) ② 사랑의 빵굽기 행사 참여
제8차	2007. 8.12	부산	① 부산샘터교회 주일예배 ② 신나는디딤터, 해뜨는 집, 부산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방문
제9차	2007. 8.18~19	김천, 구미, 대구, 왜관	① 김천충만교회 건축현장 격려 ② 경북서지방 교역자부부 만찬격려 ③ 경북서지방 영남선교대회준비기도회 / 구미제일교회 ④ 왜관교회 주일예배 및 건축격려 ⑤ 대구지방 영남선교대회준비기도회 / 대구제일교회 ⑥ 희망달리기팀 격려
제10차	2007. 12.9	평택	① 평택 외국인 선교교회 주일예배 ② 평택서지방 교역자 격려

〈 2008년도 할 일 〉

행정기획실에서는 더 알차고 내용있는 계획을 세워서 연회와 지방의 협조를 얻어 감독회장을 중심하여 10차례 이상 희망대심방을 통해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를 열어나갈 것이다.

1-3. 영남선교대회와 후속조치

호남선교대회의 전도열기를 이어 받아 영남지역에서 감리교 전도의 봄을 일으킵니다.

8.23 영남선교대회는 참가한 모든 이들이 큰 감동과 은혜를 받는 자리였으며, 감리교인으로서 자부심과 희망, 그리고 감리교회의 힘과 저력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특별히 부산과 영남 지역의 감리교 목회자와 성도들이 큰 힘과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다.

이제 영남선교대회의 목적과 성과를 지속적인 후속조치와 정책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영적대각성과 부흥의 열기를 확산시켜 감리교 300만 총력전도운동의 목표를 반드시 실현하는 것이다.

〈 2007년도 한 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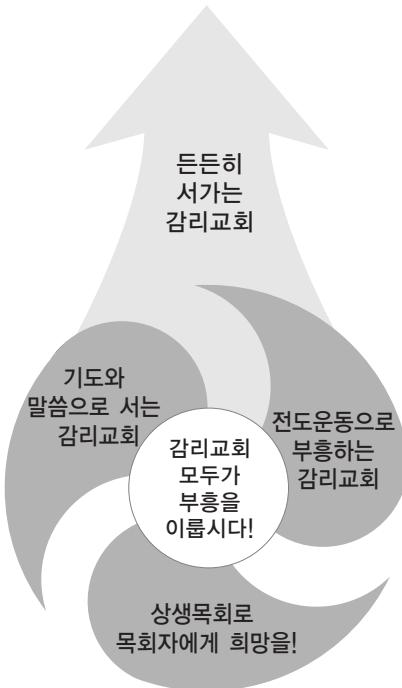
1) 영남선교대회 개최(8.23,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 2) 영적대각성 100주년 기념 희망달리기(8.11-23)
- 3) 2007 청년영남선교대회(8.13-15, 부산 고신대캠퍼스)
- 4) 영남선교대회 젊은이 전야축제(8.22)
- 5) 전국임원대회(5.16-18)
- 6) 영남지역 자매결연운동(삼남연회-서울연회/서울남연회)

〈 2008년도 할 일 〉

- 1) 영남지역 교회개척
 - ① 2008년에는 영남선교대회 성공기념교회(군위군, 장유면) 건립을 우선 추진한다.
 - ② 본부 및 연회는 영남지역 교회개척 추진위원회를 조직한다.
 - ③ 추진방향
 - 가. 영남지역 12개 지방별 개척교회 후보지역 발굴 및 추천 - 각 지방 감리사가 개척 후보지를 2배수 추천한다.
 - 나. 현지답사 및 개척 후보지역 조사 - 접수받은 후보지역을 추진위원회가 현지답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교회규모,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 다. 개척기금 조성 및 담임목회자 선정- 설립될 교회개척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담임목회자를 공개모집하고, 지원기관, 관계자를 연결시킨다.
 - 라. 자립 마스터플랜 - 기공에서 준공시까지 교회 개척 및 자립 마스터플랜을 수립, 관리한다.
 - 2) 자매결연 운동
 - ① 영남선교대회를 통해 감리교인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지원하여 승리하고 감사하는 상생의 풍토가 형성되어 실질적인 상생목회 네트워크 구축한다.
 - ② 영남지역 12개 지방과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 서울남 연회의 결연활동을 독려하고, 나아가 다른 연회까지도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시켜 희망(상생)목회 운동을 전개한다.
 - ③ 추진방향
 - 가. 영남지역 교회와 서울/ 서울남 연회 결연활동 독려
 - 나. 도시와 농촌 / 대형교회와 미자립교회 결연운동 전개
 - 다. 구체적 결연활동 모델 제시 및 상생목회 포럼 개최

II. 든든히 서가는 감리교회 : 감리교회 모두가 부흥을 이룹시다!



2-1. 기독과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감리교회!

감리교회 부흥의 본질적 동력을 회복합시다.

기독과 말씀운동은 교회사적으로 부흥의 중심에 항상 자리잡고 있었고, 목회의 중심사역 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영성의 토대가 된다. 감리교회 부흥의 본질적인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교회력을 기초로 한 목회와 신앙교육을 전개하고, 모든 교회가 한 말씀으로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감리교회를 이루어 간다.

〈 2007년도 한 일 〉

- 1) 2007년 강림절 묵상집과 어린이 강림절 묵상집을 제작, 공급하여 감리교인들에게 웨슬리의 영성에 기초한 신앙교육을 하였다.
- 2) 웨슬리 회심 269주년을 맞이하여 예배자료집을 제작, 공급하였다.
- 3) ‘책만 읽어도’를 통하여 153만 감리교회 독서운동과 기독교세계에 도서를 추천하여 감리

교인의 영적 성장을 가져오게 하였다.

- 4)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한 영성훈련 교재로 ‘부흥’(저자 : 최선순 목사)을 출판하였다.
- 5) 8.23 영남선교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국 릴레이 기도 및 연회별, 지방별 기도회를 실시하도록 독려하였다.
- 6) 8.23 영남선교대회를 앞두고 출판국에서 ‘희망전도지’를 제작하여 전국감리교회에 발송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 7) 속회공과를 웨슬리 신앙전통인 ‘중생과 칭의’(돌봄) ‘그리스도인의 성화’(세움), ‘그리스도인의 완전’(나눔)에 입각하여 제작 보급하였다.
- 8) 감리교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 감리교회의 신학을 설명한 ‘감리교회 신학’(저자 : 클라이버, 마르쿠바르트, 역자: 조경철)을 출판하여 보급하고 있다.
- 9) 감리교인으로서의 올바른 지도력을 위하여 웨슬리안 영성에 근거한 ‘웨슬리안 리더십’(저자 : 워즈, 역자: 원종국)을 출판하여 보급하고 있다.

〈 2008년도 할 일 〉

- 1) 사순절 묵상집을 제작, 발행한다.
- 2) 웨슬리회심기념 주일 전에 웨슬리 바로 알기 운동으로 웨슬리 도서를 추천하여 그 도서를 중심으로 ‘웨슬리 바로 알기 퀴즈대회’를 실시한다.
- 3) 감리교인의 체계적인 양육을 위하여 첫째, 사경회 교재의 대대적인 개편작업과 둘째, 새 신자 양육교재로 부터 임원양육 교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양육교재를 수정 보완 한다. 세째 웨슬리 영성훈련으로 개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서출판 KMC의 ‘웨슬리 영성수련프로그램’(저자: 권희순)을 소개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 4) 하나님 말씀을 통한 영적 성장을 위하여 성경 통독 운동으로 ‘네비게이션 성경통독법’을 배워서 실천하게 한다.
- 5) 감리교회의 정체성 회복과 감리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감리교회 교재 사용하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교회학교 아동부, 청소년 교재, 속회공과, 하늘양식 등)
- 6) 출판국의 독서운동인 ‘책만 읽어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감리교인의 신앙성숙을 위하여 노력한다.

2-2. 전도운동으로 부흥하는 감리교회!

300만 총력전도운동을 계승하여 개체교회 전도운동으로 뿌리내립니다.

교회성장 정책의 핵심은 300만 총력전도운동을 계승하여 개체교회 전도운동으로 뿌리내리는 일이다. 이는 5천교회 100만 신도운동, 7천교회 200만 신도운동에 이어 추진하고 있는 내 교회 부흥을 위한 운동이요, 교인 배가 운동이요, 감리교회 성장과 부흥운동의 중점사업이다. 연회와 지방 중심의 지역 전도대회와 실제적인 전도교육 및 전도훈련을 통한 교회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속회 및 소그룹운동을 활성화시켜 전략적인 전도활동 및 교회성장을 도모한다.

〈 2007년도 한 일 〉

1) 영남선교대회를 통하여 전도운동을 활성화 하였다.

- ① 부산 및 영남지역의 감리교 복음화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② 전 감리교회를 대상으로 전도교육(전도 핸드북 배포)을 하였고, 두 차례 대규모 전도 훈련(1차 : 7.9-10 서울 베다니교회, 2차 : 8.6-7 대전 천성교회)을 하였다.
- ③ 부산 동 · 서지방 전 지역(부산, 김해, 양산)에서 196개 지방이 집중적으로 전도하였다.
- ④ 153만장의 지방별 감리교 전도지가 만들어져 전국에 배포되어 전도에 활용되었다.

2) 속회를 살리기 위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 ① 속회의 본래 목적을 살리기 위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한 연구원(CMI)을 만들어 구체적으로 연구와 실천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3) 전략적인 전도운동을 실천하였다.

- ① 감독회장배 전국 어린이축구대회가 정착되어 전도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 ② 미자립교회를 살리기 위한 대책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 되었다.
- ③ 연회별 맞춤형 미자립교회 세미나를 실시하였다.(호남선교연회: 11.29-30. 화순 금호 리조트, 동부연회 : 12.10-11 속초 마레몬스호텔)
- ④ 책설명회를 통하여 각 지방 선교부총무들에게 지방차원의 전도강화와 미자립교회를 위한 정책수립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 2008년도 할 일 〉

1) 개체교회 전도운동을 강화한다.

- ① 교인 배가운동을 꾸준히 실시해 나간다. 관계전도를 통한 일반적인 전도운동과 더불어 총력전도주일(총동원주일, 태신자결신주일) 등의 행사를 병행해 나간다.
- ② 개체교마다 전도대를 조직, 운용한다. 전도훈련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
- ③ 감리교 전도법, 감리교 전도지, 감리교 전도 물품 등을 계속 개발하여 보급한다.

- ④ 각 선교회 활동도 전도와 연결시킴으로써 교회 성장을 도모한다.
- 2) 감리교 소그룹 운동을 활성화 해 나간다.
- ① 웨슬리 부흥운동의 기초인 속회의 전통을 회복해 나간다.
 - ② 속회가 공과공부 중심에서 영성운동과 전도를 위한 조직으로 개선되도록 한다.
 - ③ 모범적인 속회 운영, 부흥하는 속회 운영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한다.
 - ④ 스포츠, 취미활동 등 다양한 소그룹, 선교회 활동을 통하여 전도의 문을 연다.
- 3) 전략적인 전도활동 및 교회 성장을 도모한다.
- ① 지방마다 모두 전도대를 조직하여 희망봉사단과 함께 효과적인 전도와 봉사활동을 펼쳐나간다. 2008년 지방회는 모든 지방이 전도대 발대식을 가지도록 한다.
 - ② 본부, 연회, 지방회가 연계하여 미자립교회와 관련한 대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 ③ 영남선교대회 이후 후속조치를 통해 영남지역 교회개척 후보지를 선정하고 지방마다 2교회씩 개척하도록 한다.(2008년에 1교회 이상)
 - ④ 호남선교연회 10교회 개척(부담금 0.5%)이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가 되도록 한다.
 - ⑤ 차세대교육을 강화하고 청년리더십 비전을 키워 나간다.
 - ⑥ 교회학교의 부흥은 감리교회의 미래의 담보이다. 교회학교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전문 강사(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를 육성해 나간다.
 - ⑦ 국내 영호남지역 미자립교회 중심으로 단기선교운동을 유도하고, 해외 단기 선교는 선교사들과의 연계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한다.

2-3. 희망(상생)목회로 목회자에게 희망을!

서로 격려하고 지원하여 모두가 승리하고 감사하는 상생의 풍토를 만들어 나가려는 것입니다.

희망목회는 개체교회들이 서로 격려하고 지원하여 모두가 승리하고 감사하는 상생의 풍토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감리교회의 희망운동이다. 도시 - 농어촌교회, 자립 - 미자립 교회, 작은교회 - 큰교회를 연결하여 실질적인 상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대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목회 패러다임을 연구, 개발하는 희망목회 포럼을 정착시켜 미래지향적인 감리교회로 발전시켜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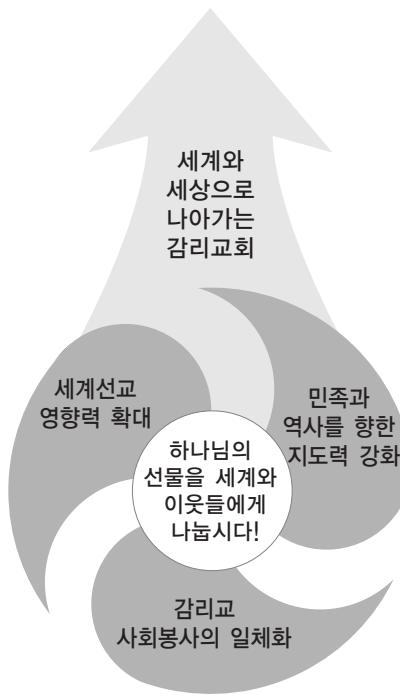
〈 2007년도 한 일 〉

- 1)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1教1村운동” 의 청년들의 실천 - 감리교 청년 농촌, 도시 사랑나눔 선교체험 수련회
- 2) 희망프로젝트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온누리안 케어시스템 선포
- 3) 녹색가게, 태양광발전소 설치 환경운동전개
- 4) 일상 생활속에서의 이산화탄소배출 줄이기 운동 서약식 - 환경선교주일
- 5)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 매년 여름방학 중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우와 함께
- 6) 희망봉사단 발대식 - 2007년 8월23일 영남선교대회
- 7) 사회봉사인증서 발급과 출연재산 처리 및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법인화 지원
- 8) 사회복지 에큐메니칼운동 참가 및 해외복지시설 견학교육 - 일본 복지선교시설 참관
- 9) 감리교생명농업인대회 - 목회자와 평신도간의 지역적 연대

〈 2008년도 할 일 〉

- 1) 사회선교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시설장협의회등이 연합하여 정례모임 및 연구모임등 을 통하여 상호보완 협력하는 체제를 갖춘다.
- 2) 감리교사회복지선교 포럼과 사회복지선교박람회를 기획, 실시한다.
- 3) 감리교 희망봉사단의 사회참여 영역의 확대와 더욱 전문화되고 심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한다.
- 4) 복지부는 지역교회가 복지시설을 운영하기위한 제반의 행정 절차와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 책자로 발간하고 상하반기 지역교회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 5) 사회복지선교홈페이지 운영과 사회복지선교 인재양성 및 재교육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마련.

III. 세계와 세상으로 나아가는 감리교회 : 하나님의 선물을 세계와 이웃들에게 나눕시다.



3-1. 세계선교 영향력 확대!

전략적으로 세계선교를 주도합니다.

제19차 세계감리교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한국 감리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선교의 주도적인 역할과 비전을 주었다. 희망 프로젝트의 3대 목표인 “세계(세상)으로 나아가는 감리교회”가 바로 이 역할의 목표이며 중심과제이다. 세계감리교협의회와 132개국 세계감리교회들과의 선교적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글로벌 지도력을 개발하며, 선교 비전과 의지들을 통합하여 전국 감리교회들이 세계선교 활성화를 이루도록 독려한다. 세계선교의 동향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선교사 관리 종합시스템을 보완하여 세계선교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 2007년도 한 일 〉

- 1) 확대되는 선교사들의 정보관리와 효율적인 사무행정을 위하여 선교사 전산관리 프로그

램(On-Line System Program)을 도입하였다.

- 2) 현장성을 중심으로 한 선교정책 입안과 선교사역별 전략 모색, 그리고 선교사 행정, 인사 관리를 위하여 지역별 감리교선교사대회를 개최하였다. (중앙아시아선교사대회, 서남아시아선교사대회(스리랑카), 시니어선교사 선교정책 포럼(홍콩))
- 3) 선교사 복지기금 마련과 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본부·연회 행정협의회와 본부 선교국 정책설명회를 통하여 연회별 의료팀을 구성과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를 마련을 독려하였다.
- 4) 현지인 지도력 개발과 선교지 제자화 사역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루마니아와 카자흐스탄, 캄보디아에서 목사 안수식을 집례하였다.
- 5) 파송 선교사 행정서류 접수, 처리를 위하여 각 연회 소속 선교사들의 모든 행정서류는 필히 선교국을 경유한 후 접수, 처리하도록 하며 오류 없는 인사행정으로 체계적인 선교사 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독려하였다.
- 6) 선교사의 정책적 파송과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하여 우선 선교사 철수지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선교사 재배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파송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선교사 철수지역을 토대로 선교지를 개발 확대하여 선교국 정책에 따른 파송 추천지역을 설정하였다.
- 7) 선교사 인준심사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선교사인준서류를 간소화하고 제도를 개선하였다.
- 8) 대외 선교 협력의 강화하기 위하여 세계감리협의회와 132개국 세계감리교회들과의 선교 협력을 확대하여 선교협약을 체결하였다. (캐나다감리교회, 영국감리교회, CCC와의 교단장 간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선교협약 논의)

〈 2008년도 할 일 〉

- 1) 2008 감리교 세계선교대회 개최 - 감리교세계선교의 미래의 변화를 모색을 위한 전략
- 2) 대외선교협약 체결 확대 -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중남미지역
- 3) “2008 어린이 WMC” 개최 - WMC의 역량을 확대, “세계 감리교 어린이 축구대회”, 유관 기관과 협의
- 4) 해외선교부서가 확대에 따른 종합적인 선교사 관리 시스템 재정비
- 5) 해외 교민 선교활성화 - 해외 한인교회 개척을 확대, 교포선교를 위한 사역자를 발굴 양성, 지방별로 지원 파송정책 마련
- 6) 선교사훈련 시스템을 재정비 - 세계선교동향과 선교지의 필요에 부응, 선교지도력 개발

과 선교자원 극대화, 훈련 프로그램의 획기적인 변화 추구

- 7) 포괄적인 선교사 건강관리를 위한 복지제도 확충 - 국내 의료기관과의 연계 서비스, 지방 차원에서 확대하고 활성화, 해외 의료기관과의 연계 서비스(국제의료기관, NGO단체와의 협력 모색)
- 8) 선교사 위기관리기구공식설립 - 선교사들의 신변안전에 따른 위기상황 적극대처, 선교사 위기관리 시스템 도입, 위기상황 관리 지침서,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 조직
- 9) 선교사 자녀 장학금을 지원 - 선교사 자녀가 자국인으로서 정체감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있는 신앙인으로의 성장, 지방별 선교사자녀 장학금 위원회를 구성, 장학금모금을 위한 정책을 수립
- 10) 세계선교 센터 건립 추진 - 선교센터 건립위원회 재조직, 미연합감리교회 및 GBGM과의 협의 구체화, 세계교회들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참여추진
- 11) 창의적 접근 지역 선교를 위한 NGO 설립을 추진한다.
- 12) 해외교민 선교 정책적 강화 - 해외 유학생과 이민 2세 세계선교자원 개발, 미주지역 선교 사훈련원 설립
- 13) 지방 차원의 선교사 파송 및 지원정책 수립 - 개체교회 선교활성화와 선교 역량 극대화, 각 지방별로 1가정의 선교사를 파송지원 연계
- 14)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세계선교 100도 온도 올리기 운동” 전개 - 지역교회의 세계선교 참여 확대, 선교뉴스레터, 선교기도운동, 세계선교 정책 포럼
- 15) 선교후원교회 발굴과 관리 시스템 개발 - 선교 후원교회 모델과 사례 제시, 선교대회, 선교사역보고회, 사역별 선교전략 포럼
- 16) 선교사역에 대한 예측을 하고 평가 - 지역별, 국가별 선교사역에 대한 분석과 통계 자료, 선교사 관리 시스템 강화
- 17) 외국인근로자 선교 전문 인력 교육(훈련) - 국내 외국인근로자선교를 하는 지역교회 및 선교단체와 연계, 파송지원

3-2. 민족과 역사를 향한 감리교회 지도력 강화!

이 시대와 세상속에서 교회의 소명을 감당합니다.

민족과 역사를 향한 감리교회 지도력 강화는 희망프로젝트를 통해 세상을 향하여 책임적인 교회로서의 감리교회를 드러내고, 민족을 향한 감리교회의 지도력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다. 이를 위해 감리교회의 사회적 도덕성을 회복해야 하고, 비전과 목표가 분명해야 하며, 하나의 운동이 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확장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감리교회의 연대성을 통해 효율성을 피해야 한다.

〈 2007년도 한 일 〉

- 1) 남북한 성경비교 전개 - 남/북한 성경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통일이후 공동으로 사용하는 성경 편찬을 위한 기초작업.
- 2) 온정리 희망대심방 - 연탄보일러 지원과 아울러 심방한 북한 땅도 우리의 희망심방 대상 지역임.
- 3) 북한 물자지원 - 북한선교주일과 사순절, 성탄절 모금을 통해 봉수 빵공장 후원(기계, 설비 등)/ 밀가루 및 식료품, 생활용품 지원
- 4) 제 3차 금강산 평화통일기도회 - NCCK 와 함께 남, 북한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 함.
- 5) 평양신학원 후원 -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교역자를 양성하기 위해 평양 신학원을 재건, 학생들을 후원하는 의미와 동시에 광복이후 평양소재 신학원을 복원하는 의미가 있음.

〈 2008년도 할 일 〉

- 1) 평양신학원 후원
- 2) 모금을 통한 대북지원 및 대북사업의 활성화
- 3) 봉수 빵공장 지원 - 탑차, 반죽기 등
- 4) 제 4차 금강산 평화통일기도회
- 5) 온정리교회 및 평양 칠골교회 복원을 위한 건축계획
- 6) 개성 IVEY 소아병원 지원 - 의료기, 약품 지원
- 7) 북한 사회개발 컨소시엄 - 독일, 영국, 싱가폴 등 여러 나라와 함께 북한사회 개발: 단순한 북한사회 구제를 넘어 전력 공급 등 사회간접 자본시설 개발 프로젝트
- 8) 제 2회 평화통일 국제포럼 - 미국 시카고, UMC 북일리노이드 연회 주관.

3-3. 감리교회 사회봉사의 일체화!

감리교회 전체가 전국적인 범위와 지역에서 사회봉사운동을 벌입니다.

사회봉사 일체화는 이미 개체교회별로 전개되어 온 사회봉사사업을 감리교회 전체의 조직체계에 따라 하나로 묶어(희망봉사단) 전국적인 범위로 네트워크화하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을 이루어 감리교회의 사회적 신뢰와 이미지를 높인다.

〈2007년도 한 일〉

- 1) 감리교 희망봉사단규칙 제정(2006년 12월 총회실행부위원회 인준)
- 2) 연회별 희망봉사단 발대식 개최(2007년 연회시)
 - ① 희망봉사단 단복 샘플을 맞춰 연회본부로 우송 및 인터넷 게시
 - ② 희망봉사단 발대식 순서지 작성
- 3) 전국 희망봉사단 발대식을 영남선교대회시 실시함.(2007. 8.23)
- 4) 자원봉사자 교육
 - ① 중부연회 : 2007년 10월 웨슬리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 ② 동부연회 : 2007년 10월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 ③ 충북연회 : 2007년 11월에 자원봉사전진대회 실시
- 5) 감리교 희망봉사단 모임
 - ① 2007년 6월에 연회 총무 및 연회 사회평신도부 협동총무와 함께 전국 희망봉사단 발대식에 대해 논의 함.
 - ② 2007년 8월에 전국 감리교 희망봉사단 후원회 조직 및 운영
- 6) 희망봉사단 자원봉사 실시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

본부 사회평신도국에서는 태안반도 청장년선교회 회원들이 중앙연회(여주), 삼남연회(마산), 중부연회(강화), 동부연회(영월), 충북연회(진천)에서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주택신축 3채, 교회신축 1채, 주택 개보수 1채, 화장실 1개를 건축함.
- 7) 기술자원봉사 실시 (저소득가정 집수리)

청장년선교회 회원들이 중앙연회(여주), 삼남연회(마산), 중부연회(강화), 동부연회(영월), 충북연회(진천)에서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주택신축 3채, 교회신축 1채, 주택 개보수 1채, 화장실 1개를 건축함.
- 8) 감리교인 생활수칙 리플렛을 전국교회에 보급함.
- 9) 감리교인 생활수칙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도록 함.

- 10) 평신도주일 자료집에 감리교인 생활수칙을 게재하여 전국교회에 보급함.
- 11) 2008년도 평신도월례회 공과에 감리교인 생활수칙 첨부하여 발간 전국교회에 보급 함.

〈 2008년도 할 일 〉

- 1) 연회와 협력하여 희망봉사단 교육 실시
 - ① 연회 및 지방 희망봉사단 운영 사례 발표 함.
 - ② 자원봉사교육 수료증 및 희망봉사 단원증 수여 함.
- 2) 감리교 사회복지시설 현황 정리
 - ① 감리교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도록 유도.
 - ② 감리교회 사회복지 시설 홍보.
- 3) 자원봉사자 관리 및 자원봉사 실시
 - ① 자원봉사자 인력을 등록 관리하는 인력뱅크 시스템 구축
 - ② 국·내외 재해재난 발생시 긴급 복구지원 자원봉사 실시
- 4) 평신도선교단체 생활실천운동 세미나 개최
- 5) 감리교인 생활실천 프로그램 개발
- 6) 평신도단체 수련회에서 감리교인 생활수칙 실천을 위해 다짐의 시간을 갖도록 함.
- 7) 평신도단체연합 신년하례회에서 감리교인 생활수칙 실천 결의대회를 갖는다.

‘희망프로젝트’ 실천을 위한 본부 · 연회 · 지방회 · 개체교회 지침

* ○) 지침은 제27회 총회 정책분과위원회(2006. 10)와 정책대회 분과모임(2006. 11), 본부 세미나(2006. 11)를 통해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희망프로젝트 TF와 제 1차년도 보고회(2007.12.17)를 통해 보완한 것입니다.

〈본부〉

1. 본부 각국과 연회의 희망프로젝트 실천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갖춘다.
2. 4대 우선과제(영남선교대회 후속조치, 희망(상생)목회, 희망봉사단, 희망대심방)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실행한다.
3. “신실한 사람들”을 위한 3대 생활실천(목회자윤리강령, 감리교인생활지침, 사회규약)운동을 전개한다.
4. 감리교회 정체성 정립을 위한 웨슬리 영성을 체계화하고, 각 분야별로 신양훈련과 교육과정을 체계화한다.
5. 존 웨슬리 회심 270주년 기념주간에 전국 감리교회가 일치된 영성, 하나의 말씀으로 공통된 프로그램을 갖도록 준비한다.(웨슬리 전도컨퍼런스)
6. 감리교회의 브랜드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대외적 활동을 강화한다.
7. 본부 21개 부서가 9가지 실천 프로그램을 업무 성격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한다.
8. 제19차 세계감리교대회(WMC)의 성과와 유산을 이어 세계감리교회와 선교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세계선교사들과 연계하여 어린이 WMC를 개최한다.
9. 감리교회 인재양성과 차세대 교육을 위한 장학사업과 D/B체계를 갖춘다.
10. 언론과 인터넷 매체, 각종 자료를 통해 감리교회를 내외적으로 홍보한다.
11. 감리교회 지속발전과 부흥을 위한 장기적 대안을 준비한다. 감리교회 표준화(모델화) 작업을 진행한다.

〈연회〉

1. 2008년도 연회를 통해 희망프로젝트 성과와 제 2차 년도 참여를 결의한다.
2. 연회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행정과 사업에서 희망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하고, 실천한다.
3. 목회자윤리강령이 실효화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에 적용시킨다.
4. 연회 차원의 집회 및 준회원영성훈련, 목회세미나 등 교육프로그램마다 웨슬리 영성회복 을 집중 훈련한다.
5. 영남선교대회 후속조치활동에 적극 지원하는 체계를 갖춘다. 영남지역 12개 지방과 연계 하여 전도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 결연활동을 한다.
6. 연회 내 미자립교회의 자립화를 위한 대책을 지방회와 함께 마련한다.
7. 연회 단위의 전도학교를 실시하여 전도자를 양성한다. 모범 전도자를 발굴하여 표창한다.
8. 존 웨슬리 회심 270주년 기념주간에 계획된 웨슬리 전도컨퍼런스에 적극 협력한다.
9. 목회 유형과 패러다임에 따라 희망(상생)목회를 네트워크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0. 연회 단위의 감리교회망봉사단 활동을 전개한다.
11. 희망대심방을 공동기획하고 연회별로 특화된 프로그램과 행사, 인적 자원을 지원한다.

〈지방회〉

1. 2008년 지방회에서 희망프로젝트 성과와 제 2차년도 참여를 결의한다.
2. 희망프로젝트의 내실화와 제도화를 위해 장정에 따라 정직한 부담금 납부, 선거풍토 개선, 감리사의 구역회 주관을 준수한다.
3. 각종 평신도 교육프로그램(장로고시, 임원교육, 속장세미나, 교사훈련, 평신도대학 등)을 통해 웨슬리영성교육을 강화한다.
4. 존 웨슬리 회심 270주년 기념주간에 계획된 웨슬리 전도컨퍼런스에 적극 참여한다.
5. 선교부는 영남선교대회 후속조치에 적극 지원하고 참여한다.
6. 교육부는 희망(상생)목회운동을 위한 선발과 연결, 참여를 조직화한다.
7. 사회평신도부는 지방 희망봉사단을 조직하여 운영한다. 각 지방에 맞는 운영지침을 작성

하여 활동을 전개한다.

8. 해당 지방에서는 감리교회 봉사센터로 인증받은 ‘희망의 집’, 사랑의 집짓기 ‘희망 보금 자리’ 운동을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도서관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9. 지역 교회협의체, 지역 사회봉사기관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평신도의 리더십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에서 지도적 역할 할 수 있도록 돋는다.
10. 지방 별로 전도운동을 실시한다. 지방 전도대를 조직하여 전도대원을 양성한다. 지방 공동전도지를 제작하여 지역사회에 감리교회를 알리고, 미자립교회 전도를 지원한다.
11. 지방 차원에서 역사적인 감리교회, 모범이 되는 개체교회 프로그램, 자랑스런 웨슬리안을 발굴하여, 본부에 추천한다.
12. 지역의 새터민, 외국인이주민, 쪽방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
13. 지방 예산의 합리적 사용, 목회자 간 학연갈등 극복을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

〈개체교회〉

1. 2008년 목회계획에 희망프로젝트 성과와 의미를 반영하여 참여한다.
2. 감리교인이란 정체성을 강화하고, 웨슬리 영성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모든 감리교회가 공통된 예배와 영성, 교회력, 상징물 사용으로 감리교회다운 일치된 분위기를 갖도록 힘쓴다.
3. 개체교회 부흥을 위해 전도운동을 강화한다. 교인, 가정, 속회 배가운동인 ‘1+1’ 운동을 전개한다.
4. 존 웨슬리 회심 270주년 기념주간에 계획된 웨슬리 전도컨퍼런스에 적극 참여한다.
5. 감리교인으로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하며, 이웃사랑과 사회봉사에 앞장 서 전도환경을 최적화한다.
6. 감리교인 생활지침을 적극 홍보하여 교인들이 감리교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한다.
7. 영남선교대회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알리고, 교인들이 전도운동에 참여하게 한다.
8. 본부의 안내에 따라 감리교인 필독서 운동(웨슬리안 라이브러리)에 참여한다.

10대 실천과제(2005~2008년)

1. 선교 120주년과 민족복음화를 위한 새 비전 창조

▶ 기획홍보부

1) 목표

선교 120주년과 광복 60주년을 맞아 천명한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는 역사적 의미와 미래적 역할을 담고 있다. 특히 영적대각성운동 100주년을 맞아 영적각성운동을 전개하여 과거에 대한 회개와 정체성 강화를 통한 감리교회의 거듭남과 부흥을 지향한다. 이것은 외적으로 실추되었던 한국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내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전도환경의 활력을 모색하는 일이다. 특히 한국교계에서 감리교회의 선도적 역할과 민족복음화에 대한 통합적인 선교비전을 강화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2) 내용

- ①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라는 주제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을 점검한다.
- ② 영적각성운동을 통해 감리교회의 역사적 회개와 감리교인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한다.
- ③ 감리교회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과정으로서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작업을 활성화 한다.
- ④ 선교 120주년을 맞아 자료 및 역사 정리와 통합적 보존 작업을 한다.
- ⑤ 한국 교회 연합운동에서 감리교회의 책임과 주도적 역할을 강화한다.
- ⑥ 감리교회 이미지통합(Church Integration)과 본부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
- ⑦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참여과정을 통해 민족복음화의 기틀을 마련한다.
- ⑧ 북한교회와 아시아교회 및 세계교회와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

3) 실행한 일 (2005~2007. 11)

- ① “희망” 정책을 담은 2005년-2007년 본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것은 본부의 정책과 업무를 시스템화 하는 것으로 현장교회의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정책 TF를 운영하고 있다.
- ②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라는 목표에 따라 10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를 계획하고, 집행하며 평가하기 위한 10대 실천과제 TF를 운영하고 있다.

- ③ 영적대각성 100주년을 맞아 제26회 총회 감독회의가 영적각성선언문을 발표하였다 (2005. 3). 하디선교사 영적대각성운동기념비를 양화진 가족묘역에 건립하였다(2006. 5). 2007년에 한국교회 대부홍 100주년 행사를 공동으로 기획, 집행하였다. 영적각성 운동의 실천차원에서 목회자윤리강령, 감리교인 생활수칙, 사회규약등을 제정하였고,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 ④ 제26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장정개정을 통해 감독회장 직속기구로 장단기발전위원회 (위원장 권오서)를 출범하였고, 5개 연구소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7년 12월 <감리교회 성숙과 부흥을 위한 백서>를 발간하였고, 5개 분과 연구결과, 감리교 교회실태 및 목회자 의식에 관한 조사연구(이원규), 통계 및 복음화 지도를로 구성되었다.
- ⑤ 광복 60주년 기념예배자료집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를 제작, 배포하였다 (2005. 8). 이준열사 순국 99주년을 맞아 기념주일예배자료집을 제작, 배포하였다 (2006. 7). 이준 열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중앙연회가 주관하여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준기념교회를 설립하였다(2007.7). 철원제일교회 복원을 위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추진중이다(2007.11).
- ⑥ 감리교 정체성 강화를 위해 <존 웨슬리 회심 269주년 예배 자료집>을 제작하였다 (2007.5). 장단기발전위원회 1분과와 희망프로젝트 1-1 분과를 통해 진행 중이다.
- ⑦ 감독회장이 NCC 제53회 총회 회장, 2005년 1월부터 교단장협의회 상임회장을 맡아 학 국 교회 일치와 연합운동에서 주도적으로 화해, 중재,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⑧ 중앙일간지와 교계언론(신문, 방송, 인터넷)에 감리교회의 지면이 확장되고 있다. 이를 지속하기 위해 출입기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례적으로 교계언론초청 홍보세미나를 열고 있다. 홍보 영상물(임원대회 영화, 광복 60주년, 역사와 비전, WMC 기념주일, 희망프로젝트, 영남선교대회)을 제작하였다. 홍보리플렛(한/영) 2차례와 WMC 용·영문홍보집(80면)을 제작, 배포하였다. 감리회 주관과 후원으로 전국 주요도시에서 세계의 십자가전을 9차례 개최하였다.
- ⑨ 서부연회가 북한 조그련과 관계를 통해 교류, 지원, 신학교육 후원 등을 계속하며, 사업이 확대 중이다. 제1회 평화통일국제포럼(2006. 4)을 미국 UMC 북일리노이연회와 협력하여 개최하였다. 조그련의 요청에 따라 칠골교회 건축을 총회실행위원회가 결의하였고, 곧 진행될 예정이다.
- ⑩ 제19차 세계감리교대회를 개최하였고, 감독회장이 제19차 WMC 총회 공동의장을 맡았다. 아시아감독회의(FAMB), 아시아감리교협의회(AMC) 등 아시아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WCC 중앙위원과 실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정해선). WCC 총

무 샘 코비야 목사를 초청하여 관계를 증진하고 있다.

4) 추진할 일 (2006.10~2008.10)

- ① '희망 프로젝트' 제 2차 년도를 실천한다. 10대 실천과제를 더욱 집중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낸다.
- ② 존 웨슬리 회심 270주년을 맞아 감리교회와 감리교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강화한다.
- ③ 장단기발전위원회의 <감리교회 성숙과 부흥을 위한 백서> 발간에 따른 실천과제별 매뉴얼을 마련한다.
- ④ 철원제일교회 복원을 지원하며, 감리교 역사 및 문화순례지(국내 12, 해외 3)를 발굴하여 순례지도화 한다. 역사 영상물(아펜젤러, 이준, 평화통일선교 등)을 추진한다.
- ⑤ 가톨릭, 루터교와 칭의론 합의서명을 계기로 가톨릭과 관계와 프로그램(공동예배, 세계기도일, 지역교류)을 확대한다.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감리교회 참여를 제도적으로 증진한다.
- ⑥ 감리회 브랜드 파워를 높인다. 본부와 현장교회, 인물발굴 등 종합적 홍보전략을 세워 감리교회 인지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한다. 참 감리교회 모델을 개발하고, 참 감리교인을 모범화 한다.
- ⑦ 2008년 2월, UMC 북일리노이연회와 연합하여 미국에서 평화포럼을 계속한다. 북한 칠골교회의 신축을 추진한다(서부연회). 북한선교를 위한 화해와 평화의 환경을 조성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든다. 2008년 손정도 목사 77주기 사업을 전개한다.
- ⑧ UMC와 세계감리교회 외에 국제기관 참여와 협력관계를 모색하여 추진한다. 2008년 10월, 어린이 WMC 대회를 감독회장배 축구대회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5) 평가

- ①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란 슬로건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희망프로젝트를 힘 있게 추진하여 감리교회의 대외적 브랜드를 높여내야 한다.
- ② 영적각성운동이 위로부터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다. 2007년 영적각성 100주년을 평가하면서 현장교회가 참여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3대 규약 등을 범 감리교회적으로 실천하도록 한다.
- ③ 본부의 정책과 업무가 일의 결과 보다 과정과 단계를 중요시 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 ④ 역사적으로 획을 긋는 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⑤ 민족복음화의 과제가 현실적으로 후퇴하고 있으며, 시류에 따라 선교적 과제가 퇴보 할 우려가 있다.
- ⑥ 세계교회와 협력할 인적 자원이 발굴, 훈련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 파송이 필요하다.
- ⑦ 감리교회의 비전이 희망사항에 머물러 있다.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2. 300만 총력전도운동과 미자립교회의 자립기반 마련

▶ 국내선교부

〈300만총력전도운동〉

1) 목표

300만 총력전도운동을 통하여 현재 1~2%의 성장률에 머무르고 있는 교인 수 및 교회 수를 5% 이상으로 유도한다

2) 내용

- ① 300만 총력전도운동(배가운동)을 교회성장정책의 핵심으로 삼는다.
- ② 꾸준한 전도교육 및 전도훈련을 통하여 전도를 강조함으로써 교회성장을 이루어간다.
- ③ 모든 지방마다 웨슬리전도대를 조직하고 실제적인 전도운동을 펼쳐 나간다.
- ④ 감리교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선교활동을 펼쳐 나간다.

3) 실행한 일 (2005~2007.11)

- ① 300만 총력전도운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홍보하여 교회마다 교인 배가운동, 한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기 운동으로 정착되도록 유도하였다.
- ② 웨슬리전도학교의 계속적인 전도교육, 훈련을 통하여 전도운동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도록 하였다. 연회 차원의 전도운동(지역별 선교대회) 및 전도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 ③ 교육국과 함께 어린이 30만 전도운동, 속회 부흥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 ④ 영남선교대회와 관련하여 부산지역에 전도학교를 개설하였다.
- ⑤ 영남선교대회 참가자 전도교육을 실시하였다.

- 1차 : 2007.7.9-10(월-화) 베다니교회/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연회
- 2차 : 2007.8.6-7(월-화) 천성교회/ 충북, 남부, 충청, 삼남, 호남선교연회 대상

4) 추진할 일 (2007.12~2008.10)

- ① 300만 총력전도운동을 계속 교회성장 프로그램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② 2008년에는 모든 지방마다 전도대를 구성하여 전도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 ③ 영남선교대회 이후 후속조치를 통하여 영남지역 부흥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 ④ 2008년 웨슬리 회심 27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적인 전도컨퍼런스를 개최할 것이다.
- ⑤ 정책적인 중형교회 개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성장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 ⑥ 웨슬리전도학교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전도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 한다.
- ⑦ 전도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개체교회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다.

5) 평가

임원대회, 영남선교대회 등으로 분주했던 것에서 이제는 내실있게 교회부흥과 전도운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 300만 전도운동은 교회성장정책의 중심에 있으며 계속 내 교회 부흥 운동이라는 차원으로 지속할 것이다. 전도, 부흥, 개척에 힘을 싣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미자립교회 성장정책〉

1) 목표

미자립교회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성장계획을 수립한다

2) 내용

- ① 미자립교회에 대한 규정을 정리하고, 실태에 대한 조사를 정확하게 한다.
- ② 미자립교회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는 선교전략을 수립한다.
- ③ 미자립교회와 관련한 전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3) 실행한 일 (2005~2007.11)

- ① 미자립교회의 경상비 결산기준을 2500만원 미만으로 정하였다. (2006.1.26 총실위)
- ② 2006년 5월에 미자립교회 관련 자료집을 발간하였다.(정책, 사례, 현황, 통계 수록)

③ M-Project : 실협교회 운영을 통한 미자립교회 극복 프로젝트 (2006.5-2007.12)

- 5/17(수) 11:30. 감신대. 컨설팅 준비모임
- 6/1-2(목-금). 포천 광림세미나하우스, 세미나 (32명 참석)
주요 강사: 최승호, 김형래, 이성민, 박해정, 장성배, 태동화
- 6월말: 각 분야별(설교 동영상포함) 자료 검토, 최종 7개 교회 선정
- 8/25 이후: 출범예배, 현판수여식, 세미나, 각 교회 방문 컨설팅
- 계속사업: 정기 웍샵, 후원교회 연결, 교회별 특화 성장전략 추진, 세미나 실시
- 2008년 초에 결과 자료집 발간, 연회 및 지방 배포

④ 연회별 미자립교회 맞춤형 세미나 실시

- 호남선교연회/ 2007. 11.29-30(목-금). 화순 금호리조트
- 동부연회/ 2007. 12. 10-11(월-화). 속초 마레몬스호텔

4) 추진할 일 (2007.12~2008.10)

- ① M-Project 자료 정리 및 연회 홍보
- ② 지방, 연회, 본부 대책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 대책위원회 선교국으로 업무 이관.
- ③ 여건적인 미자립교회, 침체된 미자립교회를 위한 세미나 및 웍샵 실시. 자료집 발행.
- ④ 미자립교회 경상비 결산 기준 상향 조정
- ⑤ 타교단 또는 기타 관련 기관의 자료 비교 검토 및 정리

5) 평가

미자립교회 대책위원회가 선교국으로 업무 이관되어 실제적으로 탄력을 받게 되었다. 발전적 미자립교회 프로그램인 M-Project 정리와 지속적인 활동은 과제이다. 여건적인 미자립 교회를 위한 세미나 및 웍샵을 통하여 정주목회 및 안정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침체된 미자립교회의 성장 동기부여는 여전히 과제이다.

<미자립교회 최저생활비정책>

1) 목표

미자립교회 교역자의 최저생활비 문제에 대하여 정책을 수립한다.

2) 내용

- ①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구체적인 최저생활비 기준을 제시한다.
- ②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최저생활비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 나간다.
- ③ 정책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추진해 나간다.

3) 실행한 일 (2005~2007.11)

- ① 2006년 5월에 미자립교회 관련 자료집을 발간하여 구체적인 교역자의 신상 및 자료정리를 하였다.
- ② 미자립교회를 위한 부담금 책정안이 입법의회에서 부결된 후 지방 및 연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유도하였다.
- ③ 본부 차원의 미자립교회 대책위원회와 함께 정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
- ④ 선교국 정책설명회를 통하여 각 지방 선교부 총무들에게 지방 차원의 최저생활비 예산 수립 및 춘천복지방을 통한 구체적인 사례교육 실시.

4) 추진할 일 (2007.12~2008.10)

- ① 더욱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연회 및 지방에 제공한다.
- ② 1차적으로 지방, 2차적으로 연회 차원에서 소속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정확한 생활실태 및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한다.(미자립교회 대책위원회 중심)
- ③ 본부 및 연회, 지방 대책위원회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5) 평가

각 지방마다 최저생활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그러나 교회개척이 곧 미자립교회 양산이라는 도식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결국 현재로서는 각 지방의 역할이 중요하다. 제1차 안전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연회 차원(미자립교회 대책위원회)에서의 활동이고 또한 본부 차원의 정책 수립이다.

3. 세계감리교대회 성공을 통한 세계선교강화

▶ 해외선교기획부 · 선교사관리부

1) 목표

제19차 세계감리교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한국 감리교회에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었고 세계선교의 주도적인 역할과 비전을 주었다.

희망 프로젝트의 3대 목표인 “세계와 세상으로 나아가는 감리교회”가 바로 이 역할의 목표이며 중심과제이다. 세계감리교협의회와 132개국 세계감리교회들과의 선교적 네트워크를 이루어 글로벌 지도력을 개발하며, 선교 비전과 의지들을 통합하여 교단 내 전 교회들이 세계선교 활성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세계선교의 동향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선교사 관리 종합시스템을 보완하여 세계선교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2) 내용

- ① 세계교회들과 선교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수립하며, 선교협약을 체결한다.
- ② 세계선교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역을 개발하고 평신도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제도를 활성화한다.
- ③ 선교사 관리와 후원 시스템을 확립하고, 급증하는 선교사와 세계선교 과제에 부응하기 위한 해외선교부서의 확장과 독립을 추진한다.
- ④ 선교훈련 시스템을 강화하고 현지인 지도자 훈련과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⑤ 세계선교를 위한 자원을 개발하고 개체교회의 참여를 통한 선교를 동력화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3) 실행한 일 (2005~2007.11)

- ① 제19차 세계감리교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한국감리교회의 선교적 역량과 위상이 증대됨으로, 아시아감독회의, WMC 실행부위원회에서 21세기 세계선교의 주도적 역할 수행하였다.
- ② 점증하는 선교사들의 정보관리와 사무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교사 전산관리 프로그램(On-Line System Program)을 도입하여 선교사들이 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 ③ 선교사 행정, 인사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선교사회를 강화하고 선교사역보고와 선교전략 모색을 위하여 선교사 간의 협력과 관리를 위하여 중앙아시아선교사대회, 서남아시아선교사대회(스리랑카), 그리고 시니어선교사 선교정책 포럼(홍콩)을 개최하여 선교영성회복과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능동적으로 참여케 하였다.
- ④ 선교사 복지기금 마련과 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부-연회 행정협의회와 본부 선교국 정책설명회를 통하여 각 연회별 소속 선교사들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연회별 의료팀을 구성하여 선교사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였고 소속연회 선교사 귀국 시 사용할 수 있는 각 연회별 선교사 게스트하우스 마련을 독려하였다.
- ⑤ 현지인 목사 안수와 관리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외에 있는 선교사가 운영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현지인 목사안수는 감독회장 또는 선교국 위원장, 선교국 총무가 수행하도록 하며 이에 지방 또는 연회에서 현지인 목사안수 요청을 받을 시에는 필히 선교국과 상의하여 법적 절차를 필한 후 집행 할 수 있도록 협조 안내 하였다.
- ⑥ 외국인 목사 안수자들에 대한 통일된 관리규정이 불명확함에 따라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수자 관리규정을 선교국과 협의하여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 ⑦ 파송 선교사 행정서류 접수, 처리를 위하여 각 연회 소속 선교사들의 모든 행정서류는 필히 선교국을 경유한 후 접수, 처리하도록 하며 오류 없는 인사행정으로 체계적인 선교사 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독려하였다.
- ⑧ 선교사의 정책적 파송과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하여 우선 선교사 철수지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선교 훈련원과 선교단체 및 후원교회에 홍보하며 선교사 파송과 후원을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선교사 재배치를 실현하였다. 이와 더불어 선교사 철수지역을 토대로 선교지를 개발 확대하여 선교국 정책에 따른 파송 추천지역을 설정하였다. (선교지개발 : 폐루, 과테말라(중미)/ 슬로베니아(동유럽)/ 알제리(아프리카)/ 아랍에메리트(중동))
- (정책적 재배치 우선 추천나라 : 아프가니/ 튀니지/ 알바니아/ 수와질랜드/ 잠비아/ 우간다/ 하와이/ 알래스카/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한인목표(아일랜드/ 스위스/파라과이/ 스페인))
- ⑨ 선교사 인준심사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선교사인준서류를 간소화하고 제도를 개선 하였다.
- ⑩ 대외 선교 협력의 강화하기 위하여 세계감리협의회와 132개국 세계감리교회들과의 선

교협력을 확대하여 선교협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카나다감리교회, 영국감리교회와의 선교협약을 이루어냈고 중국교회와의 협력을 위해 CCC와의 교단장 간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선교협약 논의가 있었다.

4) 추진할 일 (2007.12~2008.10)

- ① 감리교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한다. “감리교세계선교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 하에 후원교회와 선교단체, 국가별 선교사회를 통하여 최대 규모의 선교사가 동원되어 감리교 세계선교의 미래의 변화를 모색을 위한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하여 포괄적인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히 준비하도록 할 것이다.
- ② “희망”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인 ‘희망 프로젝트’를 위한 3대 정책목표, “세계와 세상으로 나아가는 감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으로 대외선교협약을 체결해 나간다.
- ③ WMC의 역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8 어린이 WMC”를 개최하고자 한다.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세계 감리교 어린이 축구대회”를 기획하고 필요한 기관과 협의체를 이루어 진행하고자 한다.
- ④ 해외선교부서가 확대됨에 따라 선교사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21세기 세계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종합적인 선교사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 나간다.
- ⑤ 해외 교민 선교활성화를 이룩한다. 중국정부는 해외교민정책 하에 세계 각지로 교민 사회를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인 교포사회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나라별 해외교민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인교회 개척 우선지역을 파악하여 단계적으로 한인 교회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교포선교를 위한 사역자를 발굴하고 양성하여 지방별로 지원 파송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⑥ 선교자원을 개발하고 선교 지도력을 강화해 나간다. 10여 년 간의 선교사훈련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선교지도력 개발과 선교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훈련 프로그램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글로벌 체질을 겸비하고 다원화 채널을 소화할 수 있는 선교사 자원을 양성해야 한다.
- ⑦ 포괄적인 선교사 건강관리를 위한 복지제도를 확충한다. 우선 국내 의료기관과의 연계 서비스를 본부, 연회, 지방 차원에서 확대하고 활성화시키고 해외 의료기관과의 연계 서비스를 위해 국제의료기관, NGO단체와의 협력을 모색한다.
- ⑧ 선교사 위기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선교사들의 신변안전에 관련하여 갖가지 위기상황에 적극대처하기 위하여 선교사 위기관리기구를 공식적으로 설립하여 선교단체와 정

부와 공동대처해 나가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위기관리 지침서를 마련하고 상임위원회와 위기관리팀, 비상대책위원회 및 Member Care Team를 두어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한다.

- ⑨ 선교사 자녀 장학금을 지원한다. 선교사 자녀가 자국인으로서 정체감을 갖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국제인으로서 차세대 선교 주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기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지방별 선교사 자녀 장학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장학금 모금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⑩ 세계선교 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선교 120주년을 넘어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는 1,203명의 선교사 파송으로 인하여 한국교회에서 두 번째로 큰 선교교회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걸맞는 감리교 세계 선교의 종합청사로서의 선교센터가 마련되기 위하여 선교 센터 건립위원회를 재조직하고 미연합감리교회 및 GBGM과의 협의를 구체화하고 세계 교회들과도 협력하여 공동 참여를 추진해야 한다.
- ⑪ 창의적 접근 지역 선교를 위한 NGO 설립을 추진한다.
- ⑫ 미주지역 선교사훈련원을 설립한다. 해외교민 선교를 정책적으로 강화하고, 해외 유학생과 이민 2세를 세계선교자원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 ⑬ 지방별 선교사 파송 및 지원정책 수립한다. 연회별/지방별 선교사 파송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203개(미주선교연회 제외)지방 중 14개 지방만이 해외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선교가 폭넓고 안정적인 선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선 연회와 지방에서의 정책으로 선교사를 지원하고 파송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해외 선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1개 지방/1개 연회/1명 선교사 파송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 ⑭ 지역교회의 세계선교 참여 확대 및 선교활성화를 이루어 간다. 한국교회의 80%가 세계 선교에 소극적이라는 통계자료가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세계선교 100도 온도 올리기 운동을 점진적으로 확산시켜서 전 감리교회의 선교 동력화를 이루어 선교비전과 참여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선교기도운동, 세계선교정책 포럼 등을 위한 프로그램과 안내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 ⑮ Senior선교사 선교전략포럼을 개최한다. 희망 프로젝트를 선교지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선교지의 다양한 선교프로젝트가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전략적인 선교프로젝트 마련을 위하여 Senior 선교사들의 사역별 선교보고와 선교전략모색은 감리교 세계선교를 극대화하는 전략적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 ⑯ 선교후원교회 발굴과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선교 후원교회 모델과 사례를 제시하고 선교 현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선교대회, 선교 사역보고회, 사역별 선교전략 포럼, 선교뉴스레터 등을 통해 선교후원교회를 발굴하고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나간다.

5) 평가

- ① ‘세계와 세상으로 나아가는 감리교회’를 추진함으로 희망프로젝트의 브랜드의 가치를 향상시켜야 한다.
- ② 현장성이 중심이 된 해외선교 정책을 수립하고 선교사관리 정책을 수립하며 선교사행정 관리를 위한 전산관리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 ③ 한국감리교회는 세계적 선교 동향을 직감적으로 감지하고 해외교회와의 선교협력과 협약을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중남미, 아프리카의 감리교회들, 그리고 호주, 캐나다 연합교회와의 선교 협력과 협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1967년 일본기독교단과의 선교협약 이후 현재까지의 선교협약들을 재검토하고 갱신과 발전을 위한 방안도 모색되어져야 한다.
- ④ 중국교회와의 교류를 다원화 채널에 맞추어 확대하고 선교협약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 ⑤ 선교사 파송 시 선교지 교회와의 협의를 통해 전략적으로 파송할 필요가 있다.
- ⑥ 지역별, 국가별 선교사역에 대한 분석과 통계 자료를 근거로 선교사역에 대한 예측을 하고 평가하여 선교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⑦ 선교지별(국가별, 지역별)로 선교사 관리 시스템과 네트워킹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고 선교사와 후원단체를 묶어 창구를 일원화하면 세계선교의 구심점이 형성되어 조직적이고 통리된 선교정책이 수립될 것이다.
- ⑧ 선교사 훈련, 후원, 복지를 위한 종합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입법회의에 상정하여 종합적인 선교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⑨ 현지인 지도자 훈련과 양성 프로그램(현지 교육과 한국 초청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한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조선족 가운데 선교 지도자를 발굴하여 교육(훈련), 파송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⑩ 국내 외국인근로자선교를 하는 지역교회 및 선교단체와 연계하여 외국인근로자 선교 전문 인력을 교육(훈련)하여 파송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 ⑪ 선교사 게스트 하우스 마련을 위해 시설을 갖춘 개체교회에 대한 명세서를 파악하고 연결하고 소개를 확대하며, 연회와 본부 차원에서도 시설을 확보해 나간다.

- ⑯ 세계선교센타 건립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범감리교회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 ⑰ 개 교회에 감리교회 세계선교 현황과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본부와 연회, 지방 차원의 세계 선교 프로그램에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 ⑱ 선교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선교뉴스레터를 통하여 홍보하고 개 교회 선교 활성화를 이루어 감리교 세계선교 동력화를 이룩한다.
- ⑲ MK 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선교사자녀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교사 자녀 명세서를 우선 파악하고 선교사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과 MK교사 훈련과 파송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차세대 선교사로 양육되도록 지원정책 수립한다.
- ⑳ 싱글선교사와 여성선교사에 대한 관리를 위한 제반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성선교사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 ㉑ 평신도 및 다양한 전문인 선교사 발굴 및 협력선교 강화하며 평신도 선교사의 역할과 사역에 관한 관리와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평신도선교사 세미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 ㉒ 전문인 선교사와 평신도 선교사의 사역의 역할이 크게 요구됨에 따라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와 교과 과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타 전문인 선교훈련기관과의 선교협의를 통하여 선교훈련의 질적향상과 훈련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세계선교 사역을 희망하는 조기 은퇴 목회자들에 대한선교훈련과정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 ㉓ 선교국의 인준제도는 많은 부분 수정, 보완의 과정을 통하여 정착이 되었다. 앞으로는 선교자원을 개발하고 세계선교의 지도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선교인력을 인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각 훈련원에서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실무인력을 배치하여 담당케 하는 것이 필요하며, 선교국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으며, 향후 선교 훈련 시스템의 통일과 전문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필요하다. 이에따라 분산된 본부 선교훈련 위탁기관의 커리큘럼과 훈련원 운영세칙 등을 통합하여 점차적으로 본부 주도 하의 통폐합된 선교훈련원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한 교과과정 세칙을 마련하고 통일된 매뉴얼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미래의 희망 - '청소년 평화세상 만들기' 운동

▶ 교육행정부 · 차세대교육부 · 제 2연수부

1) 목표

① 청소년 납치 폭력 예방

미래 이 나라와 민족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납치와 폭력에서 보호받아 안전하게 호연지기를 키워나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지향한다.

② 청소년 상호간의 화해와 사랑

청소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청소년 자신들 간의 화해와 사랑으로 왕따와 폭력이 없는 청소년 스스로의 평화 세상을 지향한다.

③ 지역사회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는 이미지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위상 정립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해 나가는 우리 감리교회를 긍정적 의미로 선전하여 감리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 선교를 지향한다.

2) 내용

① 배경

청소년 납치, 폭력 등의 청소년 유·위해 사건 발생의 양적증가와 젊 연령화, 흥포화, 집단화 현상 등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청소년 문제로 전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청소년 문제가 감리교회가 가장 우선 해결해 나갈 과제라고 판단하여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② 방법

가. 청소년 안전망 구축 : 교회와 학교 주변 등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지역의 업소들에 “청소년 도움의 집”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청소년들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하도록 한다. 청소년의 유·위해 상황 시 도움을 줄 차량과 개인에게 “청소년 도우미”라는 스티커를 차량 앞유리 우측 상단에 부착하거나 가슴에 “청소년 도우미” 뱃지를 부착하여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청소년들 사이의 평화세상 조성 : 모범적이고 리더쉽을 갖춘 청소년들을 청소년 자체 상담 도움이로 교육하고 지역단위의 청소년 자치조직을 활성화 하여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왕따와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 교회의 역할 :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소 확보하여 “청소년 도움의 집” 스티커를

부착하게 하고, 온 교우들의 차량에 “청소년 도우미” 스티커를 부착하여 이 운동에 참여하고, 모든 교인은 전도대원들을 중심으로 “청소년 도우미” 뱃지를 부착하여 청소년 도우미가 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지인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③ 전략

가. 홍보

- 모든 교회는 ‘청소년 평화세상 만들기’ 현수막을 교회 정문에 부착한다.
- 온 교우들의 차량 뒷창에 ‘청소년 평화세상 만들기’ 스티커를 부착한다.
- 온 교우들이 운영하는 업소에 ‘청소년 도움의 집’ 스티커를 부착한다.
- ‘청소년 평화세상 만들기’ 포스터를 부착하고, 신한 아름다운평화세상 카드를 발급 받는다.

나. 실행

[청소년 안전망]

- 각 교회는 업소를 방문하여 “청소년 도움의 집” 스티커를, 차량은 “청소년 도우미” 스티커를, 개인은 “청소년 도우미” 뱃지를 부착하게 한다.
- 각 교회는 이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을 교회에 모아 참여함을 감사하고, 청소년 유 위해 사건 발생 시 행동 요령을 교육한다.
- 정기적으로 이들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청소년 자체 평화세상]

- 이 운동을 홍보하여 참여할 교목, 교사, 학원선교사를 모집한다.
- 이들이 청소년 리더들에게 이 운동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도록 한다.
- 청소년 스스로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 범위 이상의 것은 교목, 교사, 학원선교사 가 함께 해결해 나간다.
- 리더들을 모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결집력과 운동력을 키운다.

[청소년 위기관리센터 구축]

- 센터에 참여할 법조계, 의료계, 상담계 전문가들을 모집한다.
- 피해자 및加害者 모임 및 학부모 모임 등을 구성하고 지원한다.
- 지역별 센터를 구축하고 병원 등과 연계하여 운동력을 키운다.

3) 실행한 일 (2005~2007.11)

- ① 청소년 평화세상 만들기 기자회견을 통하여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됨을 언론 보도하다.
- ② 2005년 연회별 남선교회 수련회에서 남선교회가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기로 의

결하여 전국남선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 ③ 2005년 9월 3일 천안지역 지역 발대식 가졌다. 이 발대식 전, 후 천안지역 1,000여 개 업소에 “청소년 도움의 집”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 ④ 2005년 10월 4일 사단법인 한국운전기사선교연합회가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하고, 연합회 소속 약 6,000대가 전국에서 운행 중이다.
- ⑤ 2006년 4월 12일 주)신한카드와 청소년 평화세상 만들기 운동 조인식을 갖고 신한아름다운평화세상카드를 발급을 시작하였다.
- ⑥ 2006년 4월 12일 방송인 이혁재 집사를 범인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 ⑦ 2006년 7월 29일 청소년 평화세상 만들기 Step by step 정부최초 3호 인증을 받다.
- ⑧ 2006년 8월 12일 광화문 광장과 종로2가 피아노거리에서 제3회「세계 청소년의 날, 거리 축제」공연을 실시하였다.
- ⑨ 2006년 9월 사단법인 「아름다운 청소년들」 철원, 화천지회를 설립하였다.
- ⑩ 2007년 3월 노는 토요일(놀토) 프로그램 체험 학습 강화도 선교체험 활동 실시하였다.(강화지회)
- ⑪ 2007년 4월 6일 화천군으로부터 수탁한 화천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하고 관장 최현영 목사를 중심으로 지역 청소년 수련 활동의 중심지로 자리하고 있다.(화천지회)
- ⑫ 정부 최초 인증프로그램인 ‘청소년 평화세상 만들기 Step by step’(8월 10일~8월 23일)을 실시하여 대 사회적 이미지를 고양하였다.
- ⑬ 청소년 110명이 위 국토대장정을 통하여 전국 10개 도시에서 청소년 평화세상 만들기 운동을 홍보하고 시행하였다.
- ⑭ 부산, 울산, 경주, 대전, 대구, 청주, 천안, 수원, 인천, 서울에서 시?도지자체와 연계한 지역 발대식을 실시하여 대 사회적 감리교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였으나 인적자원부족으로 서울, 부산, 천안지역에서만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 ⑮ 2007년 8월 11일(서울), 15일(천안), 22일(부산)에서 제4회 세계청소년축제를 통하여 국내외에 청소년 평화세상 만들기 운동을 알리고 청소년 평화를 이루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였다.
- ⑯ 2007년 8월 22일 부산 광안리에서의 영남선교대회 전야 짊은이 축제를 개최하였다.
- ⑰ 2007년 8월 23일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열린 영남선교회에서 차세대비전 선포식을 거행하였다.
- ⑱ 2007년 9월 24일 뉴욕 카네기 홀에서 김포 청소년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가졌다.(김포지회)

- ⑯ 2007년 연중 청소년 자치 위원회와 기획단을 구성하여 월별 정기모임과 기획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4) 추진할 일 (2007.12~2008.10)

- ① 약 200,000대가 소속한 전국 개인택시조합과 이 운동(차량스티커 부착)을 함께 전개해 나가도록 협력하고, 경찰청,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각 학교와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교육한다.
- ② 5월 “청소년의 달”에 참여 교회, 청소년 도움의 집, 청소년 도우미 차량, 청소년 도우미 등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 운동의 시너지 효과를 올리게 한다.
- ③ 지역별 청소년 위기관리 센터를 구성하여 학교 폭력 피해자 학부모 모임 및 가해자 학부모 모임, 피해 및 가해 학생 모임 등을 구성하여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전개하여 이 운동이 중단되거나 미약해지지 않도록 지도해 나간다.
- ④ 신한 아름다운평화세상 카드를 발급을 확산하여 청소년 평화세상 만들기 기금을 조성하고 청소년 평화세상 만들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홍보한다.
- ⑤ 수탁한 청소년 수련 시설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들과 지역사회에 감리교회가 미래 세대 비전세우기의 주역임을 알리며 청소년 수련시설 및 관련 시설 수탁을 계속 추진한다.
- ⑥ 청소년 자체 평화 운동에 대한 정책 개발에 더욱 힘을 기울인다.
- ⑦ 남북 청소년 교류 등 국제화 청소년 평화 운동을 실시한다.
- ⑧ 청소년 지도사 및 자체 리더 양성에 힘을 기울인다.

5) 평가

- ①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의 이미지를 대사회적으로 높이는데 있어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청소년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일이라고 판단된다.
- ② 전 감리교회가 개체교회를 포함하여 지방회와 연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 지역별로 참여의 차이가 있다. 전국적으로 지역의 특별 청소년 문제 이슈와 함께 청소년 평화세상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 ③ 신한 아름다운 청소년 카드 만들기 운동이 홍보 부족으로 실적이 저조한 상태이다. 전 교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 ④ 현재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단법인 「아름다운 청소년들」은 인력과 재력에 있어 열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다. 인원 충원과 사무실 공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⑤ 사단법인 「아름다운 청소년들」 활동은 교회 후원금과 본부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아직 충분치 않다. 본부에서의 예산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

5. 희망을 주는 사회선교와 봉사 및 복지 시스템 정착

▶ 사회농어촌환경부 · 사회봉사부 · 사회복지부

1) 목표

- ①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의 대 사회적 참여를 위해 분산되어진 사회복지선교적 힘을 통합하여 더욱 구체화되어진 영향력으로 효과적인 사회선교와 사회복지 확장에 앞장선다.
- ② 감리교회의 인적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여 여러 가지의 사회적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인 사회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의 본부행정의 상호협력 시스템 마련을 위한 선교국과 사회평신도국간의 사회복지 선교 업무를 통합 조정한다.

2) 내용

- ① 사회선교협의회와 사회복지협의회 및 시설장협의회 소속 각 기관의 긴밀한 상호 협력과 보완 시스템을 마련한다.
- ② 제27차 입법총회에서 선교국 사회농어촌환경부로 확대 · 개칭되면서 농어촌, 환경선교적 중요성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생명농촌선교, 생명환경선교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일상생활속에서 실천하는 환경운동, 도시와 농촌이 형제처럼 오가며 진정한 신앙공동체로 거듭나는 상생운동을 전개하도록 한다.
- ③ 사회평신도국 사회봉사부는 2007년 8월 영남선교대회에서 발대한 희망봉사단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봉사를 이끌어 내도록 한다. 특별히 각 연회와 지방단위와 각 지역교회들간의 봉사단과의 상호 유기적 협력 관계를 안내하고 조정하여 가장 극대화된 영향력으로 사회봉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④ 제27차 입법총회 본부 부서 개편에 따라 사무국에서 사회평신도국으로 이관된 사회복지부는 그동안 꾸준히 지원해왔던 지역교회의 복지법인을 위한 제반 행정 도우미의

역할을 지속하되 현장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수렴하여 지역교회가 그 지역에서 많은 복지 사업을 수탁할 수 있도록 하며 감리교회의 복지법인 현황을 편람화하여 적극 홍보한다.

3) 실행한 일 (2005~2007.11)

- ①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1教1村운동” 의 청년들의 실천-감리교 청년 농촌.도시 사랑나눔선교체험 수련회
- ② 희망프로젝트:다문화 가정을 위한 온누리안 케어시스템 선포
- ③ 녹색가게, 태양광발전소 설치 환경운동전개
- ④ 일상생활속에서의 이산화탄소배출 줄이기 운동 서약식-환경선교주일
- ⑤ 감리교 희망봉사단 규칙 제정(2006년 12월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인준)
- ⑥ 감리교 희망봉사단 발대식 실시
 - 전국 감리교 희망봉사단 발대식 : 2007년 8월23일 영남선교대회 시 개최
 - 연회 감리교 희망봉사단 발대식 : 2007년 4월 연회에서 개최
- ⑦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매년 여름방학 중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우와 함께
- ⑧ 연회와 자원봉사자 교육 협력 실시
- ⑨ 태안 기름유출사고 지역에 2007년 12월 12일부터 희망봉사단을 파송 자원봉사 실시
- ⑩ 저소득가구 주택수리봉사 기술자원봉사 실시 : 교회 1채 신축, 주택 3채 신축, 주택 수리 1채, 화장실 1개 건물 건축(중앙연회, 삼남연회, 중부연회, 동부연회, 충북연회)
- ⑪ 사회봉사인증서 발급과 출연재산 처리 및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범인화 지원
- ⑫ 사회복지에큐메니칼운동 참가 및 해외복지시설 견학교육-일본 복지선교시설 참관
- ⑬ 감리교생명농업인대회-목회자와 평신도간의 지역적 연대

4) 추진할 일 (2007.12~2008.10)

- ① 사회선교협의회,사회복지협의회,시설장협의회등이 연합하여 정례모임 및 연구모임등을 통하여 상호보완 협력하는 체제를 갖춘다.
- ② 감리교사회복지선교 포럼과 사회복지선교박람회를 기획 실시 한다.
- ③ 감리교 희망봉사단의 사회참여 영역의 확대와 더욱 전문화되고 심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④ 복지부는 지역교회가 복지시설을 운영하기위한 제반의 행정 절차와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 책자로 발간하고 상하반기 지역교회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 ⑤ 사회복지선교홈페이지 운영과 사회복지선교 인재양성 및 재교육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마련.

5) 평가

“감리교회 희망프로젝트” 결산의 해를 앞두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은 각 부서가 자신의 고유 영역에서만 열심히 함으로 인하여 서로가 협력했을 때의 시너지 효과를 낭비하고 있거나 않은가 하는 부분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감리교 사회복지 봉사 선교 각 부서들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감리교사회복지선교 프로그램들도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일을 통하여 사회복지선교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의 대 사회적 복지선교적 영역의 확대와 영향력의 증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6. 평신도 자원발굴과 참여 확대

▶ 평신도부 · 사회봉사부

1) 목표

- ① 인력자원 관리의 시스템화를 통해 유능하고 적절한 인력이 정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평신도단체들의 유기적인 활동을 통해 평신도단체들이 정책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평신도지도자들의 영적 각성과 평생 배움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④ 평신도단체들이 앞장서서 차세대 평신도지도자 양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후원하도록 한다.
- ⑤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방 사회평신도부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 간의 정책에 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 내용

- ① 평신도대학을 계속 운영하여 감리회 사업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평신도지도자들이 신학적, 영적으로 훈련하고 재무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한다.
- ② 전국적인 감리교 평신도들의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③ 평신도 연합신년하례회나 연합영성세미나 같은 연합사업을 시행하고 모든 평신도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협력한다.
- ④ 청장년선교회 미조직 지방을 독려하여 지방청장년선교회를 조직하도록 함으로써 평신도단체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3) 실행한 일 (2005~2007.11)

① 평신도대학 개강 및 1·2학기 수업

가. 개강 일시 : 2006년 5월 3일(수)

나. 등록인원 : 총 40명 (남 22명, 여 18명 / 장로 22명, 권사 15명, 집사 2명, 사모 1명)

다. 강의 시간 : 1학기(5월), 2학기(9월)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5시

② 지방 사회평신도부총무 정책협의회

가. 전국

· 2005. 5. 9~10 횡성 현대성우리조트 100명(194지방) 참석

· 2006. 4. 24~25 천안 상록리조트 107명(194지방) 참석

나. 연회별 : 10개 연회별로 순회 개최(2005년 9월~12월)

③ 평신도단체 연합신년하례회

· 2005. 1. 4 정동제일교회 약 700명 참석

· 2006. 1. 10 정동제일교회 약 720명 참석

④ 평신도단체 전국 · 연회연합회장 수련회

· 2005. 10. 7~8 평창휘닉스파크 전국 · 연회연합회장 29명

- 선교단체 사업 협의 및 연합사업 토의

- 남 · 여 · 청장년선교회가 함께 1천만원을 모아제주선교대회시 제주도 사회복지시설 10곳 지원

⑤ 평신도단체연합 가정세미나

· 2006. 10. 9~11 공주 변화산기도원 평신도지도자 150여 명

- 선교단체연합 영성훈련 및 가정세미나

⑥ 세계감리교(WMC)대회 준비기도회 :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첫째 월요일에 정동제일교회에서 평신도단체 연합으로 WMC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개최.

- ⑦ 지방 청장년선교회 신규 조직 : 2005년 15개 지방, 2006년 4개 지방
- ⑧ 평신도 인력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정책TF 내에 별도 팀을 구성하여 세부 계획을 협의 중임.
- ⑨ 평신도대학 3·4학기 수업
- 등록 인원 : 총 40명 (남 22명, 여 17명)
 - 강의 시간 : 3학기(5월), 4학기(9월 · 10월)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5시
 - 졸업 예상 : 2007년 10월 10일 오후 5시 (39명 졸업)
- ⑩ 지방 사회평신도부총무 정책협의회
- 전국

일시	장소	참석인원
2007. 4. 16~17	온양관광호텔	143명

- 연회별 : 10개 연회별로 순회 개최(2007년 10월~12월)

연회	일시	장소	참석인원
서울	2007. 10. 17	사회평신도국	10
서울남	2007. 10. 30	사회평신도국	11
중부	2007. 11. 19	중부연회본부	19
경기	2007. 11. 27	경기연회본부	14
중앙	2007. 11. 2	이천중앙교회	15
동부	2007. 12. 11	동부연회본부	18
충북	2007. 10. 16	단양 매포교회	13
남부	2007. 11. 20	남부연회본부	11
충청	2007. 11. 22	덕산관광호텔	14
합계			125

- ⑪ 평신도단체 연합신년하례회 : 2007. 1. 8
- ⑫ 지방 청장년선교회 신규 조직 : 2007년 7개 지방(2006년 4개 지방)

4) 추진할 일 (2007.12~2008.10)

① 평신도대학 2기 개설

- 평신도대학 개설 : 지역을 2~3개 권역으로 나눠 평신도대학을 개설
- 수강생 모집 : 2008년 3월
- 1학기 개강 : 2008년 5월

② 지방 사회평신도부총무 정책협의회

- 전국 : 2008년 5월

- 연회별 : 2008년 10월~12월

③ 평신도단체협의회 : 연 3회 이상 개최하여 정책과 연합사업 협의

④ 평신도지도자 영적대각성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

- 전국 · 연회연합회장 영성수련회

⑤ 평신도 인력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 계속 진행.

⑥ 평신도단체 연합신년하례회 등 연합사업 계속 실시

- 평신도단체 연합 신년하례회 : 2008년 1월 8일 , 정동제일교회

⑦ 지방 사회평신도부총무, 평신도단체와 협력하여 청장년선교회 미조직 지방에 신규 조직도록 독려 및 협조 계속 실시

5) 평가

① 2006년 5월 개강한 평신도대학이 2년 4학기과정을 마치고 2007년 10월에 3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졸업생들로부터 좋은 강사진으로부터 정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접하게 되었다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

② 남 · 여 · 청장년선교회, 장로회, 여성로회, 원로장로회 등 평신도단체가 협의하고 연합사업을 토의하여, 영남선교대회의 성공을 위해 인원동원으로 적극 도왔을 뿐 아니라, 영남선교대회시 3,700만원을 모아 부산지역 사회복지시설 34곳을 지원하는 등 협력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7. 합리적인 본부행정과 정보전산화

▶ 역사전산부 · 서무행정부

1) 목표

①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통해 본부조직을 합리화한다.

②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③ 감리회 행정서식의 통일과 통계의 표준화작업을 실시한다.

- ④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본부 정책 및 프로그램을 홍보한다.
- ⑤ 역사자료와 전산업무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2) 내용

- ① 감리회 본부의 조직을 전임감독제에 걸맞고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체제로 개편하며 직원의 개별적 직무 분석을 통해 과업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인원의 배치와 직원 인사의 공정성을 도모한다.
- ② 전국교회와 교역자의 데이터베이스로 각종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할 수 있으며 개체교회와 연회 및 총회위원들에게 팩스 이메일 문자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 ③ 감리교회 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문서와 자료에 대한 통일성을 기한다. 발간되는 모든 서적은 일련번호를 갖추어 목록과 색인을 통한 자료활용이 가능하게 한다.
- ④ 본부의 각종 회의자료(총회회의록, 입법의회록, 감독회의록, 총회실행부 회의록)를 공개하여 감리교회의 행정을 투명하게 하도록 한다.
- ⑤ 홈페이지를 통해 본부 정책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며 감리교회 주소록과 인물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서비스한다. 또 홈페이지 리모델링과 각 국별 홈페이지내용을 강화하여 성도들에게 친근한 감리교회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 ⑥ 문서와 영상, 음성 및 감리교 역사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제공한다. 목회자들을 위한 무료FTP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도용 신앙 교육 페이지를 신설하여 역사와 신앙교육의 산실이 되게 한다.

3) 실행한 일 (2005~2007.11)

- ① 2005년 7월부터 3개월 동안, 전문 컨설팅 업체인 와이즈포스트에 본부 직무분석 및 조직 인사 컨설팅을 의뢰하여 그 결과물을 2006년 1월 26일 제5차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본부임직원에 대한 연봉제 실시하였고 제27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본부 조직개편에 대한 장정을 개정하였다.
- ② 2006년 6월 “기독교대한감리회”라는 명칭의 사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위해 감리회 로고와 함께 특허청에 업무표장등록을 출원하여 1년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마침내 2007년 8월 16일 등록이 결정되었다. 이제는 “기독교대한감리회”라는 명칭을 감리회 소속 교회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최근 선교지역에 교단을 알 수 없는 감리교회가 난립하면서 지역 목회자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참고로 장로회(통합)의 경우 교단 로고만 표장등록을 하여 사용하고 있다.

- ③ 각 국 감사 자료의 통합화와 일원화로 효율적 감사에 일조하였으며, 감사지적 사항에 따라 4년제 감독회장 제도에 맞추어 미비한 서류를 보충하고, 각종 문서서식을 정비하였다.
- ④ 역사자료 중 인물사전, 선교사사전 역사자료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컨텐츠 개발을 위해 먼저 설교 및 예화자료가 가능한 하늘양식 1991-2006년분을 데이터베이스개발을 위한 콘텐츠 입력 작업을 완료했으며, 1970년~ 2006년까지의 데이터 입력 작업을 마친 상태이다. 또한 하늘양식 일부는 감리회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공한다.
- ⑤ 영문홈페이지의 내용을 강화하고 리모델링 작업을 마쳤으며, 세계화된 감리교회의 위상을 드높이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4) 추진할 일(2007.12~2008.10)

① 감리회 행정서식 통일

가. 본부 사용 행정서류 목록

1. 기안문서 2. 품의서 3. 협조전 4. 대외발송 공문(본부 각국 실 원) 5. 결근계(휴가신청서 출장보고서) 6. 표창장(감사장 상장) 7. 공직조서(징계의결요구서 징계의결서) 8. 각 국의 헤드레터지 9. 임직원의 명함(접자포함) 10. 추천서

나. 본부 및 연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서류 목록

1. 기안문서 및 대외발송 공문 2. 재직증명서 한글 영문 3. 경력증명서한글 영문 4. 소속증명서한글 영문 5. 안수증명서 6. 소속이동청원서한글 영문 7. 담임자증명서 8. 직인증명서 9. 교회통계표 및 개체교회 행정서류 10. 부담금완납증명서

② 행정 제도의 연구와 개선

본부 내규를 장정에 맞게 개정할 뿐 아니라 본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행정 관리를 위해 내규를 연구하고 개선한다. 또한 본부와 연회의 행정과 제도에 관해총회 행정제도 개선위원회를 통해 연구개선하고 발전시킨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제도 교회통계표 및 각종보고서에 대한 연구와 개발 감리사 지도 치침서 연회보고서의 통일화와 지방 및 연회회의록의 형식통일안을 마련하고 네트워크를 통한효과적인 감리교회의 행정시스템을 연구 개발한다.

③ 본부 임직원직무교육 실시

본부 직무교육 실천 방안을 수립하여 신규채용 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과 지존 직원의 연수 교육을 통해 새로운 능력을 향상하고 연봉제 시행에 따른 임직원의 인사고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에 따라 직원의 업무실적을 분석하여 기강을 확립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사무자동화기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무상으로 교육하는 정보화교육 기초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여 임직원의 정보화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④ 역사정보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검색

역사자료 관리 및 각 연회의 감리교회 문서관리 표준화작업을 목적으로 박스화일링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베이스하였으며, 만 건 이상의 목록자료를 접속해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⑤ 홈페이지를 통한 신속한 정보의 제공

각 국 홈페이지 선교국, 교육국, 출판국의 서비스강화로 신속한 정보제공과 중요한정책자료 및 신간 출판도서의 정보를 제공하고, 신앙교육, 초신자, 속회지도자, 임원, 장로 교육을 위한 인터넷 사이버교육 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해 교육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5) 평가

제27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본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됨에 따라 본부 각국 부서의 인사사항을 정리하고, 새로운 본부 체계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어서 본부 직원의 직무 능력을 강화하고 동기부여를 위해 단체 연수 및 휴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행정관련 문서 서식과 통계 자료의 표준화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컨텐츠 개발에 관심을 증진시켜 감리교회의 자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8. 미래 목회지도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실시

▶ 총회행정부 · 차세대교육부 · 제 1연수부

1) 목표

① 전문목회 지도력 양성: 급변하는 세상에서 전문목회 지도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하 3

개 신학대학교 및 대학원의 교육 과정을 점검하여 감리교회가 요구하는 필수과목들을 이수하도록 한다.

- ② 교역자 수급 조절: 포화 상태를 넘은 감리교 목회자 수급에 대하여 각 신학대학원의 정원 감축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 한다.
- ③ 예비목회자 연수교육 실시: 양질의 전문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목회자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 ④ 정회원 연수 교육 강화: 현재 목회 현장에서 시무하고 있는 정회원들에 대하여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과목과 영성 훈련을 실시하여 시대 상황에 맞는 목회 전문가로 서게 한다.

2) 내용

- ① 전문목회 지도력 양성을 위하여 감리교 목회자가 되기 위한 통일된 신학 기본 과목, 감리교 목회자로서의 정체성 정립을 위한 과목, 영성 수련 과정 확충과 함께 각 학교 별 특성화 된 과목 등을 조화롭게 구성하여 신학교육 기관인 3개 신학대학이 목회자 양성을 위한 통일된 과목을 가르치도록 하며, 아울러 각 학교가 요구하는 각 학교에 특화된 과목을 배치하여 통일과 조화를 이룬 신학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 ② 교역자 수급 조절을 위하여 각 신학대학교 신학부와 대학원 졸업생의 수는 제한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등록금이 주 수입이 되는 현재의 재정적 상황에서는 학교가 그 수를 조절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각 학교의 의견과 상황을 수렴하여 교역자 수를 조절하는 여러 방법들을 연구한다.
- ③ 각 신학대학원 졸업 후 목회 현장에 나가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각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내용과 교회 사역에서 실제로 필요한 과목과 지식을 배우고 목회적 영성을 배양하는 전문 목회자 양성을 위한 예비목회자 연수교육 과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한다.
- ④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회원 연수과정의 과목을 실제 교회 상황에서 필요한 과목과 목회자들이 요구하는 과목들을 중심으로 재조정하고, 특강 등을 통해 정회원 연수 교육을 강화하여 현재 목회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

3) 실행한 일 (2005~2007.11)

- ① 전문 목회 지도력 향상과 예비목회자 연수교육을 위하여 각 신학대학의 신학부 및 대학원 과목들에 대한 리서치를 실시하였다.

- ② 정회원 연수교육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정회원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들을 현장 목회자들의 소리를 들어 결정하고 있다.
- ③ 정회원 5년차 교육을 마쳐야 지방의 임원이 될 수 있으며, 정회원 10년 차 교육을 마쳐야 감리사가 될 수 있게 하는 장정을 개정하여 현재 일영연수원에서 2006년 및 2007년 교육을 실시하였다.
- ④ 2007년 1월 정회원 연수교육 과다 신청자에 따른 번외 특별 교육을 실시하였다.
- ⑤ 2007년 2월 장단기발전위원회 3분과 '교역자 수급 및 신학교육 대책' 위원회와 함께 교역자 수급 조절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⑥ 2007년 5월 1일 장단기발전위원회 3분과 '교역자 수급 및 신학교육 대책' 위원회와 함께 교역자 수급 조절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공개 포럼을 실시하였다.
- ⑦ 목회 전문가 양성을 위한 예비목회자 연수 교육 과정에 대한 장정 개정안을 제출 하였으나 지난 10월 제27차 입법의회에서 부결되었다.
- ⑧ 정회원 연수교육에 관한 과목 배정에 있어 과목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안을 장정개정 위원회에 제출하여 통과되었다.
- ⑨ 2007년 12월 장단기발전위원회 3분과 '교역자 수급 및 신학교육 대책' 위원회와 함께 목회자 양성에 대한 대책을 백서로 발간하였다.

4) 추진할 일 (2007.12~2008.10)

- ① 교역자 수급 조절을 위한 각 신학대학교 총장 및 대학원장 연석회의를 계속한다.
- ② 감리교 전문목회자 지도력 양성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한다.
- ③ 교역자 수급 조절 방안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 ④ 수급 조절을 위한 장기 계획을 실행하는 기초를 마련한다.
- ⑤ 신학대학원 간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점 교류 및 교수 교류 등 학교 간 간격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한다.

5) 평가

- ① 고등성직 관련 업무에 있어 현재의 체계로는 교육국과 교역자수급대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분명히 규정하여야 하나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다.
- ② 교역자 수급 문제에 있어 각 신학대학원의 인원 조절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에 공감하고 있으나 등록금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신학대학원의 반발로 인하여 지난 입법의회에서 예비 목회자 교육 안 등이 부결되었다. 각 신학대학원에 대한 재정적 지

원과 운영 체계에 대한 특별한 연구와 조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각 신학대학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③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가 되기 위하여 전체 교역자의 화합과 협조가 필요한바 학연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통합대학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
- ④ 목호를 시작하는 이, 수련목회자, 교육사, 심방전도사, 부담임목사, 기관목사, 담임목사 등 각 기능과 연령, 목회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과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9. 은급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장기적 대안

▶ 은급부

1) 목표

- ① 사업 시행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대한다.
- ② 수입확대와 지출억제를 위해 노력한다.
- ③ 사업의 항구적 지속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한다.

2) 내용

- ① 은급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여론의 해소를 위해 교역자 대표와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현장의 요구와 여론,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협의하여 은급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 ② 효율적인 기금관리로 보다 많은 이자수익을 창출하고 적극적인 수익사업의 전개로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교역자의 철저한 인사관리를 유도하여 탈법적 지출을 봉쇄하는 일과 부담금을 바로 내도록 유도하는 일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③ 2000년 정회원기여금 수납이 시행되면서 교회은급부담금으로 시행되던 은급사업의 성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 같은 목소리는 은급제도의 항구성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더욱 증폭되었고 이는 일정 부분 정당성을 갖는 견해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은급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해 볼 때,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서는 계속적인 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은급사업의 합리성과 항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범사회적으로 시행이 시작된 ‘퇴직연금제도’ 성격을 도입한 감리교만의 특화된 연금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3) 실행한 일 (2005~2007.11)

- ① 자문위원회의 협력과 정책협의회, 운영위원회와 이사회 그리고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한 공청회를 거쳐 마련한 신(新)은급제도가 2008년 1월 1일 부로 시행된다.
- ② 은급재단 홈페이지 운영이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이를 통한 교역자 본인 관련 기록의 열람과 공지사항 전달 그리고 문의 및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은급사업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 ③ Fund상품을 이용한 기금관리를 통해 이자수입이 2005년 307,786,846원에서 2006년 957,428,572원, 2007년 10월말 현재 2,693,137,909원으로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진하나마 ‘삼성 070 인터넷 전화 보급사업’을 통해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4) 추진할 일 (2007.12~2008.10)

- ① 신(新)은급제도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 유도를 위해 노력하며, 감리교회 교역자를 위한 특화된 상품을 주문하여 선택함으로 가장 효율이 높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 ② 탈법적 지출 방지와 은급사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위장사역자 파악과 관리를 위한 조사 작업을 추진한다.
- ③ 새로운 수입 창출을 위해 e-Business 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 ④ 교회은급부담금을 연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납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을 연구·시행해 나간다.

5) 평가

- ① 신 은급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미자립교회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한 교역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② 위장사역자와 부담금 불성실 납부교회를 철저히 관리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

10. 기본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개발 청사진

▶ 재산관리부 · 회관관리부

1) 목표

① 기본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인재 양성과 교육으로 장·단기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증대하여 고유목적 사업의 확장을 이루어 희망의 감리교회 지경을 넓히는데 그 목표를 둔다.

2) 내용

- ① 감리회관(본부) 건물의 노후화된 시설과 설비를 21세기 첨단 시설로 교체하여 서울 중심의 최고 빌딩으로 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인력관리 시스템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금촌묘지의 사용권자와 협의하여 장·단기 사용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 ③ 본부(광화문빌딩) 사무실이 단독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연구한다.

3) 실행한 일 (2005~2007.11)

- ① 기본재산 전체에 대해 세부적인 관리계획을 검토 수립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며 건물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임대운영 관리를 위하여 노후된 시설을 점차적으로 교체하여 첨단 시설의 건물 상태로 유지, 운전, 보수하고, 전문인력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 ② 광화문빌딩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계약 중도 해지로 발생한 공실을 증평하여 즉시 태입주사와 계약하여 수익을 최대로 이끌어 내었다.
- ③ 금촌묘지 관리를 위한 관리인을 채용하여 묘지 전반에 대한 묘지 사용을 불허하며, 사용된 묘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개발에 대해 연구한다.
- ④ 중구 회현동 2가 2-1번지 회현상가를 매각하고 현재 임차인과 법적으로 화해하여 퇴거를 진행 중에 있다.

4) 추진할 일 (2007.11~2008.10)

감리회관(본부) 본부의 운영 방법으로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독립된 단독 감리회본부 건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평가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는 본부가 광화문에 있어야할 이유는 없다. 본부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감리교의 상징이 단독건물을 교통이 편리한 서울의 외곽지역에 단독 본부 건물을 세워 본부 사무실 및 각종 기관과 단체, 감리교박물관, 선교센터, 회의실을 개방하여 21세기 선교와 감리교회 지경을 넓혀 그 효과를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단독건물 마련을 위한 재원 마련은 정우빌딩 매각과 서울 중심에 임대료 관리비가 가장 비싼 감리교본부(광화문빌딩) 16층과 연회본부 및 기관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13층을 전세로 임대하여 그 비용을 마련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부 정책과 행사기획 지침

1.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먼저 기도로 준비한다.
2.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한다.
3.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에 맞추어 일체감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4. 모든 행사는 연회와 협력을 통해 조화를 이룬다.
5. 부서간에 정보를 공유하며, 적극적인 협력 시스템을 갖춘다.
6. 개체교회의 요구를 수렴하며, 현장 상황과 현실성을 적극 고려한다.
7. 주요행사는 교회력과 기념주일에 따른다.
8. 일과성 사업을 지향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9. 예산은 합리적으로 세우고 효율적으로 운용한다.
10.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종 매체와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11. 감리교회 시설과 인적자원을 우선 활용하며, 유관행사는 통합하여 성과를 극대화한다.
12. 행사보고와 평가를 명확하게 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공과에 따라 포상한다.

각국 정책 및 업무

선교국

국내선교부 | 사회농어촌환경부 | 해외선교기획부 | 선교사관리부

교육국

교육행정부 | 장년교육부 | 차세대교육부 | 교육교재부

사회평신도국

평신도부 | 사회봉사부 | 사회복지부

사무국

재산관리부 | 회관관리부 | 은급부 | 재단회계부 | 민원부

출판국

기독교세계부 | 출판부

연수원

제 1연수부(일영) | 제 2연수부(입식)

행정기획실

총회행정부 | 기획홍보부 | 역사전산부 | 서무행정부 | 본부회계부

선교국



국내선교부

사회농어촌환경부

해외선교기획부

선교사관리부

총무 인사



총무 이원재 목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화가 감리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저희 선교국을 위하여 항상 기도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2007년은 영적 대각성 100주년 기념의 해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희망프로젝트 실천과 영남선교대회의 성공적 개최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차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특히 8월 23일, 부산지역을 뜨겁게 달구었던 영남선교대회의 성공과 열기는 부산과 영남지역은 물론 전국의 감리교인 모두에게 큰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남선교대회의 성공이 일회적인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08년도는 영남선교대회의 정신과 목적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연구와 선교 전략의 개발을 통하여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의 목표를 완수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웨슬리 탄생 270주년을 맞이하여 국제적인 전도캠퍼런스와 전도박람회를 통하여 지역교회들이 전도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직접 체험하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선교국은 2007년 한 해 동안 희망프로젝트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세계로 나아가는 감리교회를 실현하고자 해외교회와의 선교 협력을 확대시키고 종합적인 선교사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위하여 선교사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제 27차 임법회의를 통하여 해외선교를 담당하는 국외부서가 부총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해외선교기획부와 선교사관리부로 조직과 인력이 확대된 것은 향후 감리교 세계선교 발전에 유의미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향후 효과적인 세계선교를 위해 독립적인 조직이 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해외선교부서의 확대와 발맞추어 선교국은 2008년 4월 연회기간 중 감리교세계선교사대회를 개최하여 본부, 선교사, 후원교회 간의 선교협력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형성할 것이며, 나아가 세계 선교협력에서도 보다 정책적인 대안과 효과적인 전략으로 선교협력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기존의 사회선교부가 사회농어촌환경부로 개칭하여 그 영역이 확대 심화되었으므로 이에 부응하는 선교정책을 수립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농촌선교와 생명환경선교를 지향하며 감리교생명농업인대회, 농촌선교한마당, 녹색가게운동, 이산화탄소줄이기 서약운동 등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들을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이주민 100만명이 넘어서는 시대에 외국인이주노동자들과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어렵고 고달픈 삶을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가 선한 사마리안인의 심정으로 보듬어 안고 위로하며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각 교회에 이주민 돌봄센터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본부에서는 정책과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여 온누리안 케어시스템을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선교국은 이로써 세상을 향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변함없는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정책 개요

1) 희망프로젝트의 결실과 영남선교대회 후속 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지난 2006년 10월, 제 27회 총회에서 결의된 ‘희망프로젝트’는 우리 감리교회가 향후 2년 동안 추진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이다. 지난 해 영남선교대회도 희망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서 개최된 것이다. 이제 2008년에는 희망프로젝트가 결실을 맺도록, 특히 영남선교대회의 기본 목적과 향후 추진 계획이 그 후속 조치들을 통해서 열매 맺도록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경북 군위군 기념교회 설립과 부산 장유지역 선교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영남 지역에 교회 개척과 설립을 확대하고, 300만 총력전도운동의 가속화, 영남지역 자매결연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상생목회 운동을 추진할 것이다.

2) 2008년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와 연결된 정책을 수립한다.

2007년이 영적 대각성 100주년의 해였다면, 2008년은 존 웨슬리 회심 2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또 100년 전에는, 평양 대 부흥운동이 전도운동으로 이어져 1910년 ‘100만 명 구령운동’으로 이어지는 서막을 열었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 대각성 운동과 마찬가지로, 100만 명 구령운동도 우리 감리교인에 의해서 처음 불이 붙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를 되살려 2008년도에는 감리교회가 웨슬리의 뜨거운 가슴과 이에 바탕을 둔 전도와 봉사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재도약하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에 따라 웨슬리 회심주간(2008. 5. 19~24)에 국제 전도대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본부, 연회에 웨슬리 전도운동본부와 각 지방에 웨슬리 전도대가 조직되어 웨슬리 사회봉사대와 함께 활동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3) 감리교회 현안과 선교현장의 요구에 우선 응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감리교회에 시급한 현안과 요구가 많다. 그 가운데서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세계선교와 선교사 관리 문제, 미자립교회 문제, 농어촌 환경선교 문제 등은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난 입법의회에서도 장정개정을 통해 그 시급성이 반영된 바 있다. 따라서 2008년에는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과 중장기 추진 계획 개발에 집중할 것이다.

4) 본부와 개 교회간의 소통을 위한 정책의 홍보와 캠페인화에 추진한다.

아무리 본부에서 정책이 개발되고 수립되어도 이것이 개 지방과 교회 차원에서 인지되고 시행되지 않는다면, 나아가 전 감리교회적으로 동력화와 운동화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따라서 선교국에서는 정책 내용에 대해 소식지 발간, 홈페이지 활성화, 정책 포럼 내지는 세미나 실시,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개교회들과 소통 및 네트워킹 확대에 힘쓸 것이며, 감리교회 내 캠페인과 동력화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5) 정책 평가 시스템을 확립한다.

정책 수립과 시행 못지 않게 평가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더욱 현장의 소리를 듣고, 선교국 내에 상반기와 하반기 정책 시행 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착 시켜 나갈 것이다.

중점 실천 목표

- 1) 영남선교대회 후속조치와 군위군 교회 개척
- 2) 선교 네트워크 수립과 감리교세계선교사대회 실시
- 3) 선교사 관리시스템의 확립 (전산관리, 영적관리, 멤버케어 관리)
- 4) 지방과 연회 차원의 선교사 파송과 후원강화
- 5) 지방별 전도대 조직을 통한 300만 총력전도운동의 지속적 추진
- 6) 구체적인 미자립교회 정책 및 교회 개척 성장학교의 활성화
- 7) 온누리안 어울림 케어 시스템을 통한 다문화 가정 선교
- 8) 농어촌 환경 선교 정책의 수립 및 일교일촌운동을 통한 상생목회 추진

2. 국 위원 및 이사

위원장	한정석 감독		
위원	연 회	교역자	평신도
	서 울	오도근 (국내)	신정수 (국내)
	서울남	정상복 (사회)	홍기수 (국내)
	중 부	안승우 (국외)	장석동 (사회)
	경 기	이정찬 (국외)	신은영 (국외)
	중 앙	장인선 (국외)	방원섭 (사회)
	동 부	방 현 (사회)	이영규 (국내)
	충 북	강석근 (국내)	이상구 (사회)
	남 부	윤석일 (국외)	주낙천 (국외)
	충 청	송청광 (국외)	정재걸 (사회)
	삼 남	권영화 (국내)	성인숙 (국외)
전문위원	이천희 목사	조재진 목사	신성부 장로

※ ()는 소속 분과입니다.

3. 업무 구분

부서	업무
총무	1. 선교국 제반 업무 총괄 2. 선교신학 정책 3. 교회연합, 에큐메니칼 업무 4. 희망프로젝트 실천본부
부총무	1. 해외선교 부서 및 업무관리 2. 선교자원 및 전략개발 3. 후원교회 및 단체 개발관리
국내선교부	1. 감리회 300만 총력전도운동 2. 교회부흥 성장 정책 - 교회성장, 부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목회자 훈련, 차세대 선교 3. 미자립교회 정책 4. 교회개척 정책 5. 군선교정책 - 군목후보생, 군목 및 군인교회 전담목회자 선발, 파송, 교육 및 관리 6. 신앙과 직제정책 - 감리교 예배, 예식과 예문, 예복과 직제 7. 북한선교 정책 8. 홀사모 사역 9. 웨슬리 전도학교

부서	업무
사회농어촌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회일치정책 (에큐메니칼 운동) 2. 농촌과 환경 정책 - 농·어·광산촌 선교, 농도생협, 환경선교 3. 기관 선교정책 - 경찰, 교도소, 병원, 직장선교 4. 소외자 선교정책 외국인근로자, 노숙자, 도시빈민, 장애인, 쉼터, 기지촌, 알코올 의존자 5. 교회와 사회 - 맞들기운동, 인권 및 사회문제, 스포츠선교, 생명나눔운동 6. 사회선교정책 수립 사회선교 전반에 대한 새로운 선교전략 수립 및 효과적 대응
해외선교기획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계선교정책 연구 2. 선교자원개발 양성 3. 대외선교협력 정책 4. 국외선교 홍보 및 활성화 정책 5. 해외교민 선교정책
선교사관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교사 관리 정책 2. 선교사 후원 및 복지정책 3. 선교지 개발 및 선교사 파송정책 4. 선교후원교회 및 단체 관리 정책 5. 선교사 인준 관련업무 6. 집중훈련 관련업무 7. 수련선교사 관련업무 8. 선교사 행정관련 업무 9. 선교현지교회 관련업무 10. 지역별 선교사관리(아시아/러시아, 미주, 유럽/중동, 아프리카)

4. 발간 자료

1) 2007년 발간 자료

구분	제목	내용	비고
영상물	영남선교대회 홍보영상물	영남선교대회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 (지방회/연회 배포)	희망프로젝트
자료집	M-Project 사역보고서	M-Project 사역보고 및 비전 제시 자료집	국내선교부
소식지	희망프로젝트 실천 리플릿	희망프로젝트 실천을 위한 지침서	희망프로젝트
영상물	신실한 사람들	희망프로젝트 및 영남선교대회 홍보영상물	희망프로젝트
자료집	존웨슬리 회심 269주년 예배자료집	영적대각성 실천을 위한 웨슬리회심기념 자료집	희망프로젝트

구분	제목	내용	비고
핸드북	영남선교대회를 위한 전도핸드북	영남선교대회 전도대 훈련을 위한 핸드북	희망프로젝트
핸드북	영남선교대회 핸드북(초고)		희망프로젝트
핸드북	2-영남선교대회 핸드북	영남선교대회 행사 일정 및 행사 안내, 역할분담, 준비상황표 등 수록	희망프로젝트
자료집	2007년도 감리교세계선교사 보고서	지역별 선교보고 자료집	국외선교부
자료집	본부선교국 정책자료집	선교국 정책설명	선교국

2) 기존 발간 자료

구분	제목	내용	비고
자료집 영상물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 회보 Mission. com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 2002년 사업보고와 계획, 조직, 국외선교정책 및 업무 등 수록 바른 선교에 대한 확고한 개념 정리를 위해 제작	감리교 세계선교협의회 / 국외선교부
자료집	“다시 일어나 빛을 빌하는 감리교회” - 9월 총력전도의 달 자료집	총력전도의 달 안내, 전도설교, 전도 결단 기도문 등 수록 300만 총력전도운동을 실시하면서 필요한 기초자료	300만 총력전도운동 본부
영상물	선교국 News Letter	선교국 각 부서의 소개와 업무, 행사 수록 300만 총력전도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시점에서 사업의 홍보를 위해 제작	선교국
자료집	300만 총력전도운동을 위한 전국지도자대회	전국지도자대회 주제설명, 예배 및 특강 순서 300만 총력전도운동 전략과 추진계획 등 수록 전국지도자대회 자료집	국내선교부 / 300만 총력전도운동 본부
자료집	2004년도 선교국 정책 자료집	선교국 주요 정책 및 업무 수록	선교국
핸드북	호남선교대회 핸드북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감리교회	호남선교대회 표어, 목적, 조직, 행사 일정 및 행사 안내, 역할 분담, 준비상황표 등 수록	300만 총력전도운동 본부
영상물	300만 총력전도 운동	300만 총력전도운동 소개 CD,VIDEO 제작	
영상물	호남선교대회 주제영상	CD - “감리교회! 호남선교 도약을 향한 첫 걸음!”	
영상물	호남선교대회 대회기록용 영상	VIDEO - 행사당일 녹화	
영상물	임원대회 영상물	대회 전체 프로그램 VIDEO	

구분	제목	내용	비고
자료집	2005년 임원대회 자료집	2005년 임원대회 모든 준비상황, 대회자료, 주요 결의사항, 선언문, 대회 사진자료	국내선교부
자료집	감리교 교세현황 및 미자립교회 현황	감리교 교세현황 및 교세변동 현황 미자립교회 관련 정책, 현황, 자료	국내선교부
영상물	임원대회 영상물	대회 전체 프로그램 VIDEO	국내선교부
자료집	WMC 한국준비위원회 활동 자료집	WMC 활동에 대한 보고자료 및 회의자료	WMC 준비위원회
영상물	제주선교대회 영상물	제주선교대회 전체 프로그램 VIDEO	국내선교부
자료집	제주선교대회 자료집, 평가집	제주선교대회 활동에 대한 보고자료 및 평가자료	국내선교부
자료집	2006 미자립교회 현황 및 자료집	2006년 기준 미자립교회 현황 및 대책	국내선교부
자료집	감리교회 교세변동 현황 자료집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연회, 지방별 현황	국내선교부
자료집	2006 선교사백서	국외 선교사 현황 및 선교 정책	국외선교부
자료집	21세기 사회선교회 새 패러다임	감리교 사회선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망하는 자료집	사회선교부
서적	전세계야서도 못쓰면서 교회개척 하시렵니까?	초기목회자 및 교회개척을 준비하려는 사람들 을 위한 안내책	국내선교부

5. 각부 정책

국내선교부

· 부장 태동화 목사

① 업무 추진 방향

교회 성장이 최우선 목표이다. 300만 총력전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하여 영남선교대회 이후의 전도 열기를 이어 나갈 것이다. 그 중심에 지방전도대가 있다. 지방마다 전도대를 조직하여 전도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이는 정책소고 내용이다. 연회와 지방 중심의 지역 전도대회와 실체적인 전도교육 및 전도훈련을 통한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전도운동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과 대상, 계층에 따른 다양한 전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도되는 인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고무적인 것은 어린이 전도와 관련하여 30만 어린이 전도운동을 해 나가는 것은 우리 감리교회의 큰 희망이다. 또한 속회와 각 선교회도 전도 중심의 조직과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자립교회와 관련한 정책이다. 현재, 경상비 결산액 2,500만 원 미만인 미자립 교회가 37.1%이다. 그러나 2008년에는 기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계속 미자립교회의 성장을 위한 부분과 미자립교회 교역자의 최저생활비 문제로 나누어 접근해 나가고 있다. 미자립교회의 성장과 관리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각각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대상별, 연회별 맞춤형 세미나를 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우리 교회가 달라졌어요!”라는 주제로 2년 동안에 실험교회 운영을 통한 미자립극복 프로젝트(M-Project)는 연회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화하고 있다. 이 일은 국내선교부와 감리교 선교학연구소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최저생활비와 관련해서는 지방과 연회 차원의 정확한 실태 조사와 그에 따른 지원을 해 나가도록 유도할 것이다. 물론 정확한 현황과 통계 근거를 가지고 시행할 것이며 지방 및 연회, 본부 차원의 대책위원회가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2008년에는 선교국으로 업무가 이관된 미자립교회 대책위원회를 통하여 종합적인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교회개척과 관련한 문제는 분명한 원칙과 대안이 절실하다. 특히 개척이 곧 미자립교회 양산이 되어온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개척 성장학교의 운영이 꼭 필요하다. 전체적인 초기 목회자 교육과 기존목회자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CRM Korea(최승호 목사)와 신학대학의 전문 교수진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본부 또는 연회 차원에서 전국의 개척 후보지역을 파악하여 땅을 매입하고 교회를 신축하여 검증된 목회자를 파송하는 중형교회 개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기금 마련이 꼭 필요하다. 개척된 중형교회는 장기적으로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계속적인 순환 개척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호남선교대회 이후 호남선교연회의 10개 교회 개척(부담금 0.5%)과 영남선교대회 이후 군위군 교회개척 및 장유지역 교회(복지센터) 건립 문제는 전 감리교회의 희망을 담아내는 교회개척이 될 것이다.

2 현황

1) 연도별 교회수와 미자립교회 수

2005년 이후 경상비 2500만원 미만 기준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①전체 교회수	4,238	4,373	4,463	4,569	4,666	4,772	5,188	5,262	5,337	5,386	5,489	5,620	5,692	5,825
②미자립 교회수	1,897	1,858	1,859	1,773	1,565	1,935	1,910	2,020	2,081	1,961	1,935	2,159	2,152	2,160
②/① %	44.8	42.5	41.7	38.8	33.5	40.5	36.8	38.4	39.0	36.4	38.4	38.4	37.8	37.1
전년대비 증감수		-39	+1	-86	-208	+370	-25	+110	+61	-120	-26	+224	-7	+8
비고												미주연회포함		미주 불포함

2) 교회개척 및 폐지 현황

구분	교회 수			개척 수			폐지 수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서 울	344	346	354	3	6	11	2	4	2
서울남	384	387	385	14	10	8	8	7	6
중 부	859	878	909	15	27	37	14	7	3
경 기	627	639	670	22	18	32	6	5	3
중 앙	514	527	535	10	17	18	7	7	2
동 부	605	604	618	8	5	7	2	1	1
충 북	351	356	363	6	6	7	2	1	0
남 부	484	499	515	12	22	24	7	8	5
충 청	564	573	577	14	11	7	2	1	3
삼 남	560	569	581	14	11	13	1	1	3
미주특별	328	314	318	33	21		15	2	
합 계	5,620	5,692	5,825	151	154		66	44	

3) 1998-2007년도 교세 변동 현황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교인수	1,329,439	1,365,444	1,377,954	1,394,515	1,408,253	1,417,213	1,455,539	1,495,887	1,508,434	1,534,504
변동율	0.5% (6,759)	2.7% (36,005)	0.9% (12,510)	1.2% (16,561)	1.0% (13,738)	0.6% (8,960)	2.7% (38,326)	2.8% (40,348)	0.8% (12,547)	1.7% (26,070)
교회수	4,666	4,772	5,188	5,262	5,337	5,386	5,489	5,619	5,692	5,825
변동율	2.1% (97)	2.3% (106)	8.7% (416)	1.4% (74)	1.4% (75)	0.9% (49)	1.9% (103)	2.4% (130)	1.3% (73)	2.3% (133)
교역자수	6,114	6,778	미파악	7,298	7,521	7,810	8,225	8,306	8,415	8,930
변동율	-1.2% (-73)	10.9% (664)		3.0% (520)	3.1% (223)	3.8% (289)	5.3% (415)	0.9% (81)	1.3% (109)	6.1% (515)

4) 각 군별 군목 현황

구분	육군	해군	공군	계
영관	8명(소령)	2명(대령1,소령1)	.	10
위관	28명(대위13,중위15)	6명(대위2,중위4)	5명(중위5)	39
계	36	8	5	49

5) 연도별 군목 후보생 현황

편입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인원	2(7)	11	4	10	9	9	6	1	52
임관연도	2008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2000년 후보생 9명 중에서 7명은 2007년 입대, 2명은 내년 입대로 연기되었음.

6) 연회별 군인교회 전담목회자 현황

소속연회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미주	계
특별파송	10	14	5	5	7	4	6	1	2	1	2	57

③ 주요업무

1) 교회성장 정책 (전도운동)

감리교회의 교회성장에 대해 분석하고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② 현황 3) 1998-2007년 교세 변동 현황 참조). 분명한 것은 전도운동을 강력하게 펼칠 때에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회의 대사회적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영적, 도덕적 부분에 대한 각성 그리고 사회봉사적인 측면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감리교회의 지난 5년간 교인 평균증가율은 1.72%이고 교회 평균 증가율은 1.76%이며 교역자의 평균증가율은 3.48%이다(교회와 교역자 수의 증가는 정확한 자료라고 여길 수 있으나 교인 수의 증가 부분은 통계표에 의한 것으로 실제적인 성장으로 여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정확한 교적 정리를 한다면 오히려 감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교역자의 증가가 교회 및 교인수의 증가보다 월등히 앞서다 보니 당연히 수급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에 미파자와 명목적인 부교역자 등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교역자 1인당 교인 수는 계속 줄어 2003년에 182명이던 것이 2005년 180명, 2007년에는 172명이 되었다. (이는 원로목사를 포함한 것이고 원로목사를 제외하면 2007년의 경우 187명이다).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인구 증가율, 그리고 교회학교의 현황을 감안해 볼 때 교회성장의 기대치를 높히 잡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5%의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 교인 수 5% 증가 그리고 교회개척은 각 지방마다 1교회씩에 삼남연회 지방에서 2곳 이상이 이루어 진다면 이 또한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된다면 교역자 수급에 여유가 생길 것이다.

감리교회의 300만 전도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내 교회 부흥을 위한 운동이요, 교인 배가 운동이요, 감리교회 성장과 부흥운동의 중점사업이기 때문이다. 2007년의 핵심은 영남선교대회였으며, 삼남연회 지역은 감리교회의 미래요, 희망이다. 영남선교대회 이후 후속조치를 통하여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경북 군위와 경남 김해 장유의 상징적인 교회개척과 영남 각 지방마다 2교회씩 교회개척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다. 전략지역에 대한 접근도 병행될 것이다. 2008년의 교회성장 핵심은 '지방 전도대'이다.

① 감리교회 215개 모든 지방이 전도대를 조직하여 개체 교회만이 아닌 지방차원의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부흥의 열기를 고취시키며 작은 규모의 교회들에게 힘을 실어 주도록 한다. 지방 전도대가 희망봉사단과 함께 연합하여 활동을 펼친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전도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과 대상, 계층에 따른 다양한 전도교육 및 훈련을 실시 한다. 평신도 강사 양성과 더불어 전문화된 전도교육을 강화한다.

③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전도지향적이 되도록 한다. 남·여선교회 조직을 통한 전도, 전도 지향적인 속회 그리고 교회학교의 발전을 통한 교회 부흥을 위해 다각적으로 접근해 나간다. 나아가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열린교회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④ 웨슬리회심 270주년 기념 특별행사를 통하여 교회부흥과 영적각성의 기회로 삼는다.

2) 미자립교회 정책

2005년 초에 2500만 원으로 기준이 정리된 이후 미자립교회는 계속 줄어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정확한 통계와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❷ 현황 1) 년도별 교회수와 미자립교회 수 참조)

현실적으로 2500만 원은 자립기준에 부족하다. 3000만 원정도가 적정하다. 그리고 경상비 결산을 기준으로 하기에 농촌과 도시의 지역적인 구분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감리교회는 미자립교회와 관련한 문제를 시혜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측면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계속 미자립교회의 성장을 위한 부분과 미자립교회 교역자의 최저생계비 확보를 위한 문제로 나누어 접근해 나갈 것이다. 이는 실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미자립교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현재의 개척이 대부분 미자립교회인 점을 감안하여 초기 목회자 및 미자립교회 목회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개척성장학교와 같은 기관을 만들어 실제적인 훈련을 받은 후 목회에 임하도록 할 것이다.

① 미자립교회의 성장과 관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미자립교회의 정의를 세운다. 지역과 환경상 자립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여건적인 미자립교회, 성장되지 못하고 오랜 시기를 정체상태로 머무는 침체된 미자립교회, 조금씩 성장되어 나가고 있는 발전적인 미자립교회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② 미자립교회 목회자가 안정적으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최저생활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지방 차원의 기금 확보는 그 구체적인 첫 발걸음인 것이다. 다음으로 연회 차원의 기금 확보가 필요하며 본부에서도 정확한 통계 조사와 자료집을 발간하여 전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③ 2006년에 시작한 미자립교회의 자립화를 위한 성장 컨설팅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이는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되고 있으며 연회 및 지방에 매뉴얼을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M-Project)

④ 이 모든 일을 본부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연회 및 지방 위원회와 함

께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3) 군선교 정책

군선교는 여전히 많은 결실을 거두고 있는 황금어장이며 선교의 최전방이다. 현재 감리교회는 어느 교단보다도 군선교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다. 그러나 군인교회 신자의 전역 후 감리교회 연결을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군선교회와 군목단과 함께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군목 파송 11개 교단 중 가장 앞서가는 군선교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할 것이다.

① 군종사관후보생 : 우선 매년 7월에 치르고 있는 국방부 주관의 군종사관선발고사를 통하여 많은 후보생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며 이들을 잘 교육하고 관리하여 준비된 군목으로 파송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방학기간 중 집체교육과 특별교육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② 군종목사 : 가장 많은 수의 군목이 우수한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매년 수련회와 특별세미나, 군선교대회를 개최하고 3년마다 성지순례 등의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장기 선발과 진급을 위한 문제, 전역 후의 임지 문제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이다.

③ 군인교회 전담목회자: 특별 파송된 전담목회자와 관련하여 인준, 파송, 교육, 관리를 위하여 군선교회와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자체 관리 규정을 계속 보완하고 파송된 이후에는 매월 활동보고서와 연 2회 집체교육 등을 통하여 자질 향상 및 실태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군선 교연합회와 국방부와의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공조활동을 펴 나갈 것이다.

4) 교회개척 정책

교회개척에 대한 원칙과 대안이 절실하다. 특히 미자립교회가 양산되어온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개척 성장학교의 운영이 꼭 필요하다. 전체적인 초기목회자 교육과 기존목회자의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예를 들면 수련목회자 및 진급중인 교역자의 필수과정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장정개정안에도 담겨 있는 내용이다.

또한 전국의 개척 후보지역을 파악하여 땅을 매입하고 교회를 신축하여 목회자를 파송하는 중형교회 개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기금을 마련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는 장기적으로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계속적인 중형교회 개척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개척될 호남선교연회의 10개 교회와 더불어 영남지역에도 집중적인 교회개척이 필요하다. 감리교회가 없는 군위군의 교회개척도 곧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5) 북한선교 정책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북한선교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다. 이는 서부연회와의 협조를 통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 탈북자 교회(은암선교교회, 평화통일교회, 부천평화교회) 및 좋은 씨앗을 중심으로 탈북자 사역에 힘을 쓸 것이다. 아울러 관련 협의회를 준비할 계획이다.

6) 목회연구 및 신앙과 직제 정책

현대인의 변화되는 삶의 패턴에 따른 새로운 목회현장의 요구에 적극 부응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특별히 출산율 저하에 따른 교회학교 학생의 감소문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 들어가는 현실에서 노인선교와 관련한 문제, 주 5일 근무 정착에 따른 교회의 목회변화 등 현실적인 문제와 미래목회에 대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신앙과 직제위원회를 통한 예배, 예전, 교리 등의 문제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교육국과 관련 부분에 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다.

7) 별세목회자 가족돕기 정책

예수자랑사모선교회가 복지재단에 편입되었기에 그 활동을 더욱 공식화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기본 재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상태에 있다. 봄에는 창립기념 감사예배를 가을에는 영성훈련과 위로회를 겸한 수련회를 기본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자활 활동의 강화와 후원회 조직을 확대하도록 하여 생활안정을 꾀하도록 할 것이다. 이는 원로원, 안식관과 더불어 3대 사역이 되도록 할 것이다. 본부 안에서 공동대책위원회(은급재단, 사회평신도국, 교육국)를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8) 웨슬리전도학교

① 주요정책 및 계획

가. '300만 총력전도운동' 을 위한 전도운동 및 전도훈련

연회 및 지방회에 전도운동과 전도훈련을 지속화하고, 전도훈련이 안 된 연회나 지방회들은 기초전도 훈련을 실시하며, 반복되는 연회나 지방회들은 심화된 전도훈련을 실시하여 '300만 총력전도운동' 이 성사되는 데 주력하도록 한다.

나. 전도지 및 전도교재 개발

기존 전도지를 활용하면서 현장에 맞는 보다 발전된 전도지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다. 청년, 청소년, 어린이 웨슬리전도학교 운영

청년, 청소년, 어린이 웨슬리전도학교를 활성화하여 실제적인 성장이 되도록 해 나갈 것이다. 청년 웨슬리전도학교를 조직 운영하여 청년들을 전도하고 청년들의 전도훈련을 실시하여 청년 부흥에 기여한다.

라. 강사 발굴 및 양성

교역자 및 평신도 전도강사를 계속 발굴하고 양성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마. 전도의 날

- 배경 : 개체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도하도록 분위기 조성 및 격려
- 내용 : 매달 1회를 첫째 주일을 전도하는 날로 정하여 관계 전도 및 섬김의 전도

바. 신학대, 신학대학원 전도훈련 실시

- 배경 : 전도훈련을 배우게 하여 현장에서 목회 전문성이 강화
- 내용 : 3개 신학대학교(감신, 목원, 협성)와 협의하여 전도훈련을 실시.

사. 전도 우수자 간담회

- 배경 : 전도우수자 격려, 전도경험 공유
- 내용 : 연회와 웨슬리전도학교에서 추천, 표창

아. 각 부서 활성화

- 배경 : 차세대지도자를 발굴 육성하지 못하면 개체교회가 감소하는 침체 현상
- 내용 : 자료집 발간, 강의 활성화, 강의 및 집회 활성화

자. 해외지역 전도훈련

- 배경 : 해외지역의 교역자 및 평신도를 전도 훈련하여 부흥과 성장을 도모
- 내용 : 해외지역(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기타지역) 전도훈련

4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위원	
전도학교정책연구 교 감 : 박용호	이사장 : 이기우 교 장 : 조재진	전영배 김상현 유영완 이현식 이영태 홍준기 태동화	
감리교 신앙과 직제정책	신문구	박은규 신문구 황문찬 유승훈 김준형 안희선 한연수 이송관 가홍순 남 호 리보철 나형석 박종천 이원규 김홍수 최성봉	
감리교 군선교회 총 무 : 백창현	이사장 : 김국도 회 장 : 박경천	정의선 이기우 박정일 이천식 전용재 원종국 김양수 오민평 김영호 손호익 태동화 박종규 신문구 류인덕	
미자립대책위원회 서 기 : 류학선	위원장 : 최승호	교역자	평신도
		여우훈 방규희 최상용 유해영 이오규 방인순 안상준 김관수 여상호	홍성렬 이윤근 강휘철 최상용 권규민 변장훈 성우제 설동치 유병춘

5 정책소고

“지방 전도대 조직과 운영”

태동화 목사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4대 우선과제 중의 하나로 각 지방마다 희망봉사단을 결성하였다. 희망봉사단 조직은 감리교회의 대사회 봉사적인 측면에서 실체적인 희망을 주는 획기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는 지방마다 전도대를 조직하려 한다. 이미 지방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음을 알고 있다. 전 감리교회와 지방이 다 참여하여 효과적인 전도운동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영남선교대회 이후 각 지방마다 전도의 뜨거운 바람이 불게 될 것이다. 이는 교회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며 특별히 미자립교회 전도지원을 통한 소형교회의 성장을 도모하도록 할 것이다. 소형교회는 전도를 하려고 해도 인적인 자원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전도대의 명칭은 ‘○○지방 웨슬리전도대’로 할 것이다. 연회와 본부에는 전도운동본부를 설치할 것이다. 2007년 12월에 가진 2008년 본부 선교

국 정책설명회에서부터 시작되어 나갈 것이다.

조직은 감리사가 중심이 되어 각 교회에서 30-50명 정도를 구성한다.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1) 12월 중에 선교국에서 전국 각 지방에 안내 자료를 발송하여 홍보할 것이다.

2) 1월에 선교부 총무가 중심이 되어 각 교회 추천자를 중심으로 30-50명 정도를 확정 한다.

3) 감리사와 선교부 총무의 지도 아래 전도대장과 총무(부총무) 그리고 3개 팀장으로 구성한다.

4) 전도대장과 총무는 교역자, 평신도를 구별할 필요가 없으며 소명감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5) 지방회 때 발대식을 거행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안내 자료는 선교국에서 제공할 것이다.

운영은 전도대장이 주관하여 매달 1회(2회)를 지방 내 작은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전도지, 전도용품을 준비하여 전도대상교회의 교역자와 함께 전도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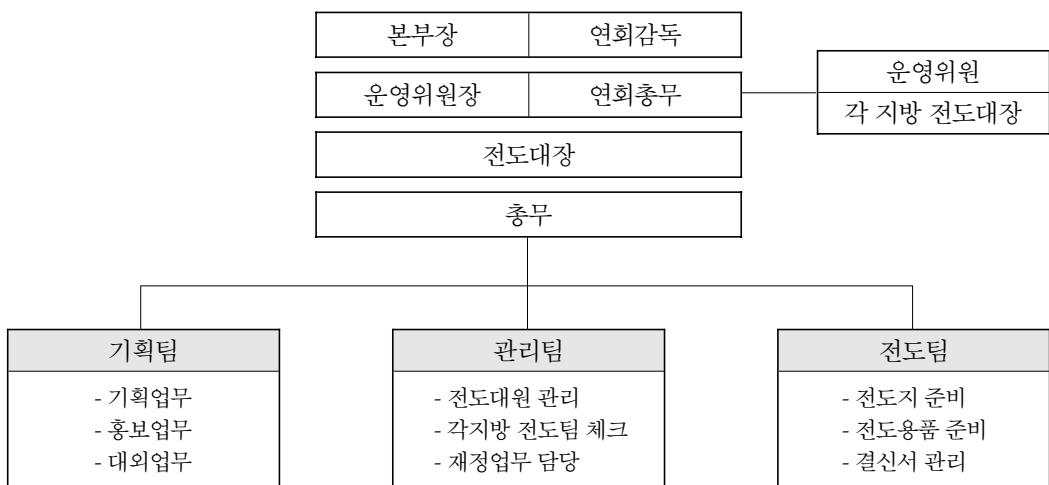
전도대상교회로 전도대가 모이면 기도회를 30분간 하고, 지역 안내를 받은 후에 전도지, 용품, 보고서를 지참하여 팀 단위로 지역을 할당하고 2인 1조로 하여 전도를 한다.

지방 내에서 제일 작은 교회를 시작으로 하고 1년에 1회 이상씩 순회하며 전도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전도대에서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전도대상 교역자와 협의한다. 전도 후에는 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도대상교회 담임교역자가 1부, 전도대가 1부, 개인이 1부를 보관하며 지속적인 접촉 자료로 삼고 결심을 유도한다. 기타 사항은 발송할 자료집을 참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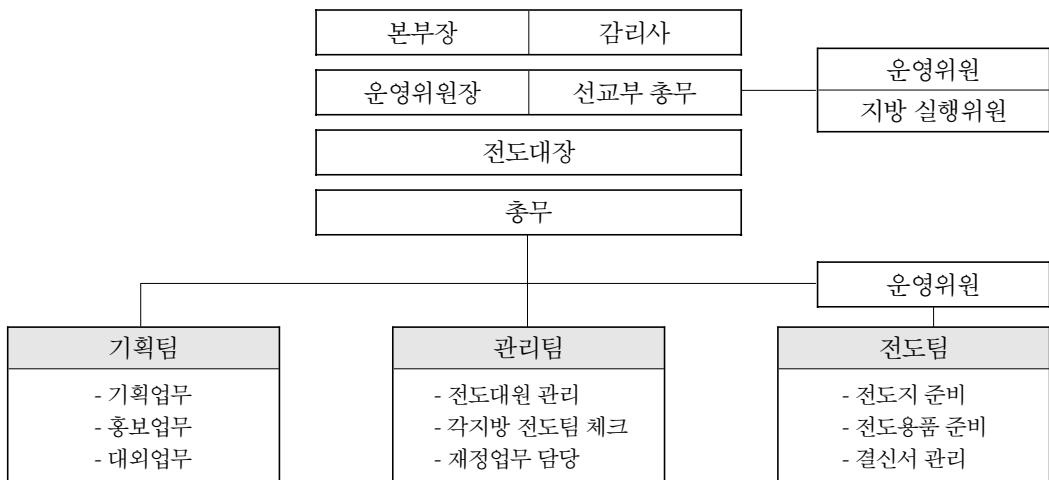
지방회에서는 각 교회를 독려하여 지방 전도대가 잘 운영되게 한다. 지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합니다. 지방 차원의 전도지 및 전도용품을 제작한다. 지방회 때 전도 대를 초청하여 전도대원들을 격려하며 우수 전도대원은 감리사가 표창을 하게 한다.

연회에서는 연회 전도운동본부를 조직(본부장/ 감독, 운영위원장/ 연회총무, 운영위원/ 각 지방 전도대장)하여 각 지방 전도대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연회회의록에 기록하게 한다. 아울러 연회 때 우수 지방전도대를 표창한다. 전략적인 지역에는 연회 차원에서 전도를 하며 연회 전도대회 등의 행사에 지방 전도대를 활용한다. 연회 및 본부에는 전도특공대를 구성할 계획이다.

연회조직



지방조직



1 업무 추진방향

지난 27차 입법총회에서 사회선교부는 농촌, 환경선교의 중요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농어촌환경부로 명칭을 개칭하고 그 선교활동영역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도록 결정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의 고유 업무 중 농촌과 환경 분야의 선교적 가치 지향이 더욱 고양되어야 할 상황이다. 농촌은 한·미 FTA의 타결 이후 더욱 피폐해지고 있는 바 이제는 도시와 농촌이 형제지애로서의 연합과 생명지향으로서의 연대를 통한 새로운 선교 메시지를 듣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평가와 환경운동의 중요성은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그 영향력을 심대하게 넓혀가고 있다. 이제 환경선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생명선교로서의 자기 위상을 돋독히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생명농촌선교정책은 일교일촌운동의 지속적 확대와 감리교 생명농업인들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범교회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일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의 환경운동이 감리교 선교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교회와 지방 및 연회단위의 환경선교운동이 환경선교정책의 중심 방향이 될 것이다.

외국인 이주민이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한국은 한민족국가에서 다민족국가로의 사회문화적, 정치적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그러나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이주여성들에 대한 인권과 배려는 너무나 형편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책협의회 (공동대표 : 이철승 목사, 김봉구 목사, 사무국장 : 우삼열 목사)의 그간의 꾸준한 노력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사회적 배려는 많이 향상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등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한 외국이주민여성 돋기 프로그램들은 소외된 그들을 양지로 이끌어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감리교회는 희망프로젝트 차원에서 온누리안 어울림 케어시스템 정착과 다문화 가정 국제심포지엄을 2008년도 주요 사회선교정책으로 삼고자 한다.

2 현황

1) 농촌 및 환경선교

단체	대표	기능	비고
농촌선교훈련원	이사장 : 조영민	정주목회훈련, 생명농업	
농도 생협	이사장 : 차홍도	유기농산물 장려, 매장운영	
환경선교위원회	위원장 : 권종호	연구, 정책수립	사회선교부 조직

2) 기관선교

구분	파송단체	특별파송
경찰선교(4)	경찰청, 서울경찰청, 인천경찰청, 경찰대학	4
교도소선교(3)	교정선교회, 공주치료감호소, 기독교 청소년 선도회	3
병원선교(15)	용인세브란스, 서울대학병원, 동원병원, 인천기독병원, 인천사랑병원, 축령복음병원, 원주기독병원, 대전중앙병원, 사북연세병원, 부여노인병원, 이화의료원목동병원, 한양대학병원, 연세의료원, 성애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15
직장선교(1)	직장선교회	1

3) 소외자선교

구분	교회와 단체	비고
외국인근로자 (18)	금촌 외국인 노동자선교교회, 열방교회, 사랑의 교회, 승의교회, 금파 교회, 왕십리교회, 시온교회, 월곡교회, 새지구촌교회, 한사랑교회, 선 린교회, 작전동교회, 소망교회, 오산평화교회, 오산제자교회, 대전외국 인선교교회, 서평택중앙외국인 선교교회, 정릉인도네시아교회	외국인 근로자 선교 협의회
장애인교회 (18)	인천미문교회, 강화미문교회, 한뜻맹인선교교회, 서울농아교회, 농 아사랑교회, 인천농아교회, 부평농아교회, 계산농아인교회, 화성농 아교회, 원주농아교회, 청주농아교회, 논산농아교회, 응진농아교회, 서산농아교회, 전남서 실로암교회, 부산시온농아교회, 사랑나눔교 회, 영동포농교회	농아교회 선교 연합회
노숙자쉼터(12)	벧엘의 집, 노숙자선교회(노숙자의 전화)	.
여성쉼터 (8)	새날여성쉼터(서울), 새날을 여는 청소녀쉼터(구로), 열린 청소녀쉼 터(일산), 기지촌 여성쉼터(평택), 안산살림여성쉼터,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성남), 맑은샘 쉼터(강릉), 여성장애인 쉼터(대전)	.
빈민선교(3)	나눔교회, 희망교회, 가능소망교회	.
특수선교(2)	햇살선교센터, 알코올의존자 선교회	.

4) 교회와 사회

구분	활동 및 임원	비고
생명나눔운동(1)	장기기증운동본부 및 생명나눔운동본부	
인권(1)	고난모임(양심수 지원), 이사장 : 윤문자, 총무 : 진광수	
맞들기운동	연회조직 및 자원봉사학교(서울, 동부, 충부, 남부)	선교국 주요사업
사회선교협의회	회장 : 채기화, 총무 : 편추자	
스포츠선교회	이사장 : 임준택, 회장 : 최이우, 사무총장 : 김성기	사회농어촌환경부 조직

③ 주요업무

1) 교회와 대 사회선교

- ① 감리교회망봉사단이 적극적으로 대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교회의 대 사회선교적 관점에서 선교정책과 구체적 실천방법을 제시한다.
- ② 이주민 100만 명이 넘어서는 시대에 차별받고 소외당한 이주민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들을 위한 온누리안 케어시스템을 전국교회가 적극 확산 실시하도록 한다.
- ③ 〈희망의 집〉 인증 운동을 계속하여 감리교회의 대 사회적 브랜드를 높여나간다.

2) 생명농촌 및 생명환경선교

제 27차 입법총회에서 기존의 사회선교부는 사회농어촌환경부로 부서명이 확대 개칭되었다.

이는 농촌과 환경선교의 중요성을 총회가 인정하여 더욱 심화된 정책개발과 지원이 실린 선교업무 실행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① 생명농촌선교

영남선교대회 시 도시와 농촌간 지방단위의 자매결연이 시작되었는데 개교회별로 농촌과 도시의 일교일촌운동이 확산되도록 할 것이다. 꾸준히 지속되어 왔던 도시 청년들의 여름 농촌 봉사활동도 그 규모와 참여의 폭을 넓혀서 명실 상부와 농촌·도시 사랑나눔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다. 특별히 감리교생명농업인대회를 통해서 유기농을 하는 농촌목회자와 평신도의 네트워크는 물론이거나와 도시의 직거래 운동도 조직화하여 감리교 내의 상호 유기적인 농·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② 생명환경선교

모든 감리교회가 그 지역적 특성에 맞게 녹색가게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정책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할 것이다. 특별히 상반기에는 생명환경선교 심포지엄과 환경선교 박람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가 실천하고 있거나 새롭게 구상하고 지향하는 환경선교 정책과 실행 방안 등을 서로간에 공유하도록 할 것이다. 연회와 지방 및 교회의 부서 구조 속에 환경부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 모든 절차를 강구할 것이다.

3) 에큐메니칼선교의 활성화

에큐메니칼선교의 지향은 열린 생각으로 서로를 포용하고 협력하는 상생적 목회와 평신도 운동이다. 이를 위해 연회와 지방 및 지역교회가 이와 같은 정책적 연대의 틀을 가질 수 있도록 각 단위간 에큐메니칼 정책세미나와 에큐메니칼 선교박람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고자 한다. 특별히 동북아에 1명뿐이 없는 WCC실행위원 겸 중앙위원이 감리교회의 에큐메니칼 활동가임을 백분 활용하여 국제적 에큐메니칼 선교의 영역 확장에도 힘쓸 것이다.

4) 평화통일선교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평화통일의 제반 상황은 더욱 고무되어가고 있다. 정의 · 평화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평화통일의 인식을 교회가 샬롬의 예수정신으로 재 해석하여 선교적으로 선포하고 실천적으로 앞장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5) 기관선교

감리교 기관선교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모든 기관에 사회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감리교회 파송자들이 연합하여 자신들 기관을 소개하고 그 기관의 선교적 특성을 함께 나누고 비전을 고민하고 서로간에 협력하고 네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희망의 집〉 인증 운동을 계속해 나감으로서 감리교의 대 사회적 브랜드를 고양시킬 것이다.

6) 소외자선교

지역적소외, 계층적소외, 신체적소외 등의 구체적 소외 현상들을 구분하고 각 소외 현장을 감리교 희망봉사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연결하고 봉사헌신하는 감리교회의 희망과 상생모델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특별히 장애인선교와 병원선교의 상호보완적 연결을 통해 두 위원회가 상생협력하여 그 선교적 효과를 더욱 크게 해 나갈 것이다.

4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위원
농촌선교 위원회	김고광	차홍도, 이현, 홍순일, 각 연회 2명(추천증)
환경선교 위원회	권종호	문선경, 박순웅, 이광섭, 김정권, 이종철, 안인철, 신석현, 유요열, 김영웅, 이동원, 한성훈, 양재성, 송무자, 서범석, 장석근, 임춘희, 황대성
장애인선교 위원회	추연호	이상원, 김종순, 구자경, 유흥주, 김종훈, 지성래, 장병호, 최대원
에큐메니칼 위원회	황문찬	방원철, 진광수, 최소영, 정해선, 박만규, 최종호, 이충재, 이홍규, 안정균, 신복현

5 정책소고

“다문화가정 온누리안 어울림케어시스템 정착과 외국인 이주노동자 후원 계획”

신복현 목사

1. 배경

외국인 이주민이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한국은 한민족 국가에서 다민족 국가로의 사회 문화적, 정치적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특별히 3D업종의 경우에는 외국인노동자가 전체 업종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들이 없이는 한국기초산업의 위기마저 초래할 상황이다. 외국이주민 여성들은 농촌농작물의 배우자로서 농촌 4~5가 정당 한 가정꼴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그들 또한 새로운 한민족으로서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이주여성들에 대한 인권과 배려는 너무나 형편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공동대표 : 이철승 목사, 사무국장 : 우삼열 목사)의 그간의 꾸준한 노력으로 외국인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사회적 배려는 많이 향상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등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한 외국이주민여성 돋기 프로그램들은 소외된 그들을 양지로 이끌어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신교단에서 어느 교단도 이들을 위한 본부차원의 주력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감리교단이 희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들을 위한 전폭적인 정책지원을 실시한다면

감리교회의 사회선교적 위상은 물론이거니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진정성을 모든 이들이 감동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2. 설명

1) 외국인이주여성들을 위한 정책 지원 – 온누리안 어울림케어시스템 정착

① 목표

첫째, 세계화시대에 한민족국가를 넘어서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감리교회가 앞장서는 것.

둘째, 새로운 소외계층인 온누리안과 감리교회가 함께 어울림으로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

셋째, 감리교 해외단기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룻선교 사역운동.

룻선교 사역운동이란 다문화 가정 외국인이주민여성들의 친정방문 및 해당 지역에서의 구체적 단기선교 사역을 펼치는 것.

② 프로그램

첫째, 어울림다문화센터 설치를 위한 기초조사

둘째, 지역교회 부설 어울림다문화센터 설립 지원

셋째, 어울림자매결연운동 - 지역교회 가정들과 그 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정과 자매결연을 맺음.

넷째, 룻선교 사역운동

2)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지원

① 목표

첫째, 외국인이주노동자들에게 선한사마리아인으로서의 감리교회.

둘째,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인권지킴이.

셋째,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을 통한 외국인 선교.

② 프로그램

첫째, 외국인이주노동자 돌봄 센터 설치.

둘째, 외국인이주노동자 교육 센터 설치.

셋째,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귀국 후의 선교사역 위한 민간 선교사 훈련.

3) 연도별 계획

① 2008년도 - 기초자료조사 및 각 지역별 다문화센터 네트워킹.

1월-3월 : 기초자료조사

4월-5월 : 다문화 심포지엄을 위한 지역 세미나

6월-7월 : 다문화 심포지엄

8월-10월 : 각 지역 다문화센터 설립 후원

11월-12월 : 감리교회와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

② 2009년도 - 외국인이주노동자를 위한 인권사회교육센터 지역별 설치.

③ 2010년도 - 외국인이주노동자 민간인 선교사 파송.

해외선교기획부

· 부장 김영주 목사

1 업무 추진방향

기독교대한감리교회는 선교 120주년을 맞이하여 14개 지역, 83개국에 1,203명(미주특별연회, 해외선교지방 포함)의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한국교회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가 되었다. 비대해지는 선교사들의 규모와 비례하여 선교지의 다양한 선결과제와 요구에 부응한 국외선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선교지를 세분화하고 선교지 토양 조사연구가 선행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선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선교지와 종족별 선교사 상황을 조사하여 현장과 본부를 연결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감리교 신학과 영성을 토대로 선교지 현장성을 중시하는 감리교적인 세계선교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선교자원을 개발하고 지도력을 강화하는 것은 미래 감리교 세계선교의 성패가 달려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선교 인력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정책은 세계선교 동력화를 극대화하는 모토이다. 실현과제로 우선 선교사훈련정책위원회를 통하여 개 선교훈련기관의 훈련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사역별, 선교지역별로 모집요강과 커리큘럼을 검토하고 국내훈련과 국외훈련을 가능성을 타진하며 동시에 집중훈련을 강화하여 선교지 상황과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그리고 다각적인 선교사 자원을 양성하고 있다.

감리교 세계선교운동을 한국적인 체제와 제도에서 전개하는 것에서 글로벌한 차원으로

승화시켜서 세계교회들과 동반자적인 협력선교를 강화하고, 글로벌 선교 네트워크를 확립하여 세계선교의 주도적인 역할과 영향력과 효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아시아 감리교회들 간의 선교교류와 지도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교사가 파송된 국가들에 대한 선교협약을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08년에는 감리교회 내에 세계선교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교회를 동원하여 활성화를 이루고자 한다. 미주특별연회를 제외하고 지방회 차원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비율은 10%도 채 못 미치는 상황이다. 감리교회의 선교 영성을 품고 세계선교의 비전과 참여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해외선교 홍보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에 선교뉴스레터와 선교기도달력을 발간하여 개 교회 선교활성화를 이룩할 예정이다. 연회 경계에 따라 구분된 해외 선교지방 내에 속한 한인교회에 대한 실태와 목회자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교포사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교민 현황을 국가별, 지역별로 조사하여 해외 한인교회 개척예상지역을 도식화하여 해외교민 선교정책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지방회 차원에서 해외교포사역을 지원하고 한인교회 사역자를 훈련, 양성, 파송하도록 협력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② 현황

1) 선교 훈련기관 현황

	훈련원명	원장	담당자	훈련과정
1	감리교신학대학교 선교훈련원	장성배	이영미 황은경	1년 매주(월)
2	목원대학교 선교훈련원	윤석일	남근모	1년 매주(월)
3	협성대학교 선교훈련원	이후천	박은지	1년 매주(화)
4	인천세계선교훈련원	이호문	박성일	1년 매주(화)
5	MMTC 선교훈련원	김종수	김재희	1년 매주(월)
6	국제선교훈련원	이동주	최윤화 신경자	1년 매주(토)
7	중국선교훈련원	김의중	김정혜	1년 매주(화)

2) 대외선교협약 및 교단교류 연도별 현황

연도	협력교회	비고
1967	일본기독교단	제1차 선교협정서 / 한일4개교단협의회
1968	미연합감리교회	온양선교협의회
1983	독일감리교회	한독감리교협의회 구성
	미연합감리교회	한미선교협의회
1985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연합교회	나진균 목사 파송의 건
1986	일본기독교단	제2차 선교협정서 (개정)
	필리핀연합감리교회	필리핀 UMC와 협약 체결
1988	호주연합교회	선교협약서 체결
1991	미연합감리교회	스토니포인트 선교협약공동선언문
1992	미연합감리교회	한미공동전략위원회 구성
	오스트리아연합교회	선교협약 논의
1993	캐나다감리교회	선교협약서 체결
	브룬디감리교회	선교협약논의
	미연합감리교회	제1차 공동선교전략위원회
1994	페지감리교회	선교협약서 체결
1996	미연합감리교회	제2차 공동선교전략위원회
1998	러시아연합감리교회	선교협약 논의
	중국교회	선교협약 체결
1999	미연합감리교회	제3차 공동선교전략위원회
2002	뉴질랜드감리교회	협의논의
	미연합감리교회	제4차 공동선교전략위원회
2003	캐나다감리교회	선교센터 건립 양해각서
	미연합감리교회	제5차 공동선교전략위원회
2006	쿠바감리교회	선교협약서 체결
2007	인도네시아 감리교회	정릉교회 인도네시아예배에 관한 선교협약서 체결
	영국감리교회	선교협약서 체결
현재	말레이시아 감리교회	내년 중 협약 계획
	캐나다감리교회	협의 진행 중
	네팔 감리교회	협의 진행 중
	스리랑카 감리교회	협의 진행 중
	방글라데시 감리교회	협의 진행 중

3) 감리교 세계선교단체 현황

번호	선교단체명	대표자(회장)	번호	선교단체명	대표자(회장)
1	Open Mission선교회	조규준	31	영원한복음선교회	김옥순
2	개척선교회	김영호	32	예영선교회	이영태
3	경영선교전략연구소	이근호	33	오메가선교회	최홍석
4	구소련CIS선교회	박용식	34	요한선교회	김태식
5	남태평양선교회	정의선	35	우크라이나선교회	강홍복
6	넓은땅선교회	조재진	36	월드선교회	전명구
7	네팔선교회	우병설	37	웨슬리세계선교부	이종준
8	낫시선교회	심광섭	38	웨슬리중국선교회	강석주
9	대륙선교회	박명재	39	온암선교회	박용완
10	동남아선교회	박성호	40	인도네시아선교회	서병락
11	동남아세아선교회	진인문	41	인도선교회	심원보
12	동양선교회	지국찬	42	인도차이나선교회	박영준
13	말라위선교회	박종화	43	인천남지방중국선교회	이용율
14	몽골선교회	이승호	44	인천아시아선교회	유도열
15	몽골의료선교회	권용각	45	일본선교회	윤병조
16	미국인디언선교회	전용재	46	제자선교회	서만권
17	미얀마선교회	김한옥	47	중국복지후원회	김의중
18	베트남복지선교회	백문현	48	중부연회동북아선교회	한인수
19	북방선교회	원종희	49	중앙아시아선교회	김영봉
20	별립선교회	한욱전	50	청장년전국연합회	박선규
21	사이판선교회	이천식	51	카자흐의료선교회	임용의
22	세계복음선교회	성훈기	52	쿠바선교회	권오현
23	승의교회해외선교국	신정기	53	태국선교회	이재현
24	스리랑카선교회	오일영	54	필리핀선교회	황요한
25	아랍선교회	전광석	55	한국세계선교전략연구소	김종수
26	아시아선교동문회	이정구	56	한중선교회	박상철
27	아시아선교회	김동걸	57	형제사랑선교회	김진호
28	아시아태평양복음선교회	조창환	58	형제선교회	김재찬
29	아프리카선교회	한재봉	59	화경선교회	김영철
30	여선교회전국연합회	임성이	59개 선교회		

③ 주요업무

1) 해외선교 정책수립

① 해외선교 전반에 관한 장단기 기본 정책 수립

향후 2년간의 종합적인 장단기 정책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② 지역별, 국가별 선교정책 연구 및 정책 수립

각 지역별과 국가별 상황에 맞는 선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선교사역보고와 선교지와 종족별 선교 현황을 조사하여 현장과 본부를 연결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선교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선교사역별 선교전략세미나와 지역선교사대회를 개최한다.

③ 주요 업무 및 행사

가. 2008 감리교세계선교대회 개최

선교국과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가 격년으로 개최하던 감리교세계선교대회를 선교인력과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력하여 3년마다 개최하도록 한다.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하여 포괄적인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히 준비하도록 할 것이다. 금번 선교사대회를 통하여 본부는 최대한 선교현장과 후원교회의 요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생산할 뿐 아니라 감리교선교의 역사를 회고하고 향후 진로와 비전을 전망하는 대회가 되고자 한다.

■ 단계별 추진 내용

- 1단계 : 나라별 대표자회의 (2008년 2월)

- 2단계 : 홍보 및 설명회 (2008년 3월)

- 대회일정 : 2008년 4월 셋째 주

- 동원인원 : 500명(예상)

나. 지역별선교사대회 개최

연 3~4 지역에서 선교사대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다. 선교사역별 선교전략 세미나 개최

국가별선교사회를 중심으로 선교사 현황과 사역보고를 통하여 선교전략을 모색하고 사역예상분석표를 작성한다.

라. 선교정책 포럼 개최

선교국위원, 선교후원교회 및 단체 대표, 지방 감리사 및 선교부 총무를 대상으로 선교훈련정책, 대외선교협력정책, 선교복지정책을 위한 포럼을 월별 업무추진계획서에 따라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2) 선교자원 개발과 양성정책

세계선교를 동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력 개발과 선교자원의 극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송 전에 선교사 후보생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선발하는 과정을 통하여 훈련된 양질의 그리고 다각적인 선교사 자원을 양성하여 파송하고자 한다.

■ 단계별 추진 내용

- 1단계 : 선교훈련정책 재정리
- 2단계 : 선교훈련정책 포럼 개최
- 3단계 : 선교훈련의 통일된 지침서 확정
- 4단계 :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의료, 어린이 교육, 행정, 기술, 스포츠 등) 훈련 제도 확립을 위한 방안 모색

3) 대외선교협력정책

대외선교협력 강화와 글로벌 선교 네트워크 확립 (연락 시스템, 파송에 관한 협의)

“세계로 나아가는 감리교회”의 모토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한국 감리교회는 복음의 세계화와 세계선교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세계의 교회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선교 네트워크를 확립해야 한다. 이에 선교협약 시행을 재점검한 후 현실에 적합한 선교협약을 재계약하여 동반자적인 세계선교의 파트너로서의 중장기 선교계획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 ① 대외 선교협력 주력국가 선별 및 선교협력체제 관리
- ② 세계교회의 정황 및 지역적, 교단적 특징과 경향 연구
- ③ 대외선교협력정책의 광범위한 공유와 홍보
- ④ 대외선교협력 창구의 단일화와 연회·본부 간의 긴밀한 공조 체제 확립
- ⑤ 보다 적극적인 대외선교협력을 통한 광범위한 선교협력네트워크 구성

■ 연도별 추진 내용

2008년 : 대외선교협력을 위한 폭넓은 자문위원회 구성

 대외선교협력 대상교회와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과 자료집 제작

 대외선교협력 정책 포럼 개최

 대외선교협력의 주력국가 선별 및 등급화 작업

2009년 : 대외선교협력을 위한 정책 자료집 발간

 창의적 접근지역을 위한 선교협력방안 연구

 국제 선교단체 및 NGO 기구 사역 현황 파악 및 실태 연구 조사

국제 선교단체 및 NGO 기구와 정례적 회의 채널 개발 및 참여

4) 해외선교 홍보 활성화 정책

■ 단계별 추진 내용

- 1단계 : 선교뉴스레터 발간
- 2단계 : 선교기도달력 제작 및 배포
- 3단계 : 선교교육, 선교기도운동, 선교지 단기 방문 등을 위한 프로그램과 자료 제공
- 4단계 :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 멤버 참여를 독려하고 세계선교 참여하는 교회들와 단체들 간의 네트워킹과 협력 확대

5) 해외교민 선교정책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500 여 개의 교민교회가 있고 감리교회도 254개에 이르고 있다. 이 교민 교회들은 세계선교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선교기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위기에 따른 국내교회들의 어려운 상황은 상대적으로 해외교민교회들의 적극적인 세계선교 동참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리교회는 해외교민교회가 세계선교에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유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간다.

- ① 교민교회에 대한 선교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통해 선교참여를 지원한다.
- ② 선교사와 선교 프로젝트에 대한 후원 연결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한 채널을 구성한다.
- ③ 선교사와 교민교회 간의 원활한 관계 형성을 통해 교민교회가 현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 단계별 추진 내용

- 1단계 : 한인교회 활성화 방안 모색
- 2단계 : 나라별 해외교민 실태 및 교민선교 현황 파악
- 3단계 : 교민교회 설립 요청 지 조사 및 교회설립 예산안 작성
- 4단계 : 교민선교를 위한 연차별 파송계획서 작성
- 5단계 : 한인교민선교 정책 재정비

6) 세계감리교 어린이 WMC

제 19차 세계감리교대회 성공적 개최로 인하여 세계의 중심에서 그 역량을 확대하고 세계선교를 주도적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세계감리교 어린이 WMC”를 개최하여 제19차 세계감리교대회 후속사업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세계 감리교 어

린이 축구대회”를 기획하고 세계감리교회의 각 나라별 축구팀 단위로 초청하여 Sports 선교 대회를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① 개최일자 : 2008년 10월 3일

② 주관부서 : 연회, 교육국, 청장년연합회, 교회학교 연합회, 스포츠 선교회

■ 단계별 추진 내용

- 1단계 : 본 대회 Task Force Team 조직
- 2단계 : 대회 준비위원회 조직
- 3단계 : 연회 총무, 지방 감리사 대회 설명회 개최
- 4단계 : 대회 장소(경기장, 컨퍼런스) 섭외
- 5단계 : 세계감리교회 초청 공문 및 포스터 발송
- 6단계 : 한국 감리교회 어린이 축구대표단 창단
- 7단계 : 대회 관련 기자회견 및 각종 브로셔, 전도용품 제작
- 8단계 : 참가국가 및 인원파악, 숙박시설 확보(호텔, 민박), 공항영접차량 준비
- 9단계 : 주일 교회 및 감리교계통학교 방문 계획 섭외
- 10단계 : 공항 영접

4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활동보고
훈련정책위원회	윤석일	장성배 이후천 임향자 이동주 김의중
대외선교협력위원회	전용재	정병한 김홍규 박상철 김주성 박상칠 안성옥 김진두 주낙천 지성래

5 정책소고

“대외선교협약을 통한 감리교 세계선교 글로벌화”

김영주 목사

I. 서론

스탠 거쓰리(Stan Guthrie)는 자신의 책『21세기 선교』에서 21세기 선교의 전망과 경향을

제시하면서, 21가지의 세계선교 주요 경향 중에 ‘협력관계’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것은 사회가 점점 세계화되듯이 교회도 점차 세계화되고 있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를 비롯한 비서구 교회들이 점차 성장하면서 해외교회들의 존재와 은사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교회도 예외일 수 없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선교후발국이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선교대국이기 때문이다. 세계의 교회들은 한국교회가 보다 성숙한 시각과 입장으로 세계선교에 이바지하고 세계화의 추세에 적합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II. 본론

1) 대외선교협력 현황

한국감리교회는 199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해외교회 및 교단과의 선교협력을 시작하였고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한국감리교회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고 선교역량이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선교협력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특별히 한국감리교회는 WMC를 중심으로 세계의 감리교회들과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수행하였고 그 성과도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20여 개국의 교회와 선교협력 및 협약을 진행한 상태이나 앞으로는 선교협력 대상국가가 더욱 확대되고 협력의 내용들도 심화 발전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선교협력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과 자원의 부족과 정책과 연구의 부재는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외선교협력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위하여 해외현지교회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대외선교협력을 위한 정책과 전략들이 제시되어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나아가 지금까지 세계감리교회와의 선교협력과 교류에 머물렀던 대외선교협력이 더욱 다양한 협력내용과 협력창구의 개발을 통하여 확대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2) 대외선교협력 주요추진계획

2008년 한해는 희망프로젝트의 3대 과제 중 세 번째 과제인 ‘세계로 나아가는 감리교회’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대외선교협력 부문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민과 정책의 생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08년 대외선교협력의 주요 추진내용과 역점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세계교회의 협력요청에 대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선교국은 최근 들어 대외선교협력부분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쿠바, 영국, 인도네시아 감리교회와 선교협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며, 현재 캐나다, 호주, 말레이시아, 캐나다 감리교회와의 협

약체결 및 갱신을 논의 중이다. 무엇보다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협약 논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현재 담보상태에 있는 해외현지교회들의 상황을 분석하고 새롭게 회의채널을 개설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로 대외선교협력에 효율성과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대외선교협력 주력국가를 선정하고 주력국가 및 단체에 한하여 선교협력체제의 유지와 관리에 특별히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세계교회들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연구를 기반으로 대륙별, 지역별로 영향력 있는 교회들을 선별하고 그것을 등급화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외선교협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대외선교협력을 위하여 세계교회와 선교단체, 나아가 국제구호기구단체 등에 대한 사전 연구와 조사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타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협력관계의 존속을 봉괴시키거나 초기의 의도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별히 중동을 비롯한 창의적 접근지역의 경우 효과적인 선교협력의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상이한 선교적 환경과 제반 제도와 법규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로 대외선교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생산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교국과 총회기획실, 대외선교협력위원회 등 대외선교협력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과 인력들이 함께 모여 폭넓은 의견과 정보를 수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나아가 대외선교협력 정책 포럼과 같은 정례적인 정책회의가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III. 결론

이제 일방적이고 개별적인 선교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환영받을 수 없다. 오히려 선교 현장에서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감리교회는 세계선교 시대적 흐름과 기준에 발맞추어 해외교회 및 국내외의 선교단체, 나아가 NGO단체와의 선교협력을 확대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요청이며 기준인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 업무 추진방향

세계선교 104주년을 맞이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세계로 나아가는 감리교회”의 역할과 수행능력을 증대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선교사 파송 1,000명을 넘어서면서 현재 미흡한 선교행정 인력으로 선교사들의 정보관리와 사무행정의 효율성 극대화는 선교사 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교사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현하고 있다. 2008년에는 선교사 전산관리 프로그램이 정착되어 선교사 행정관리의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강화할 예정이다. 이미 교단 내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단체와 단독 선교사 파송 교회의 목회자가 연합하여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선교사역과 관리를 지양하고 전국교회의 선교역량을 집약하여 선교사 관리와 사역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선교사 관리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선교사와 후원교회 및 선교단체, 선교국, 선교지 교회 등 4자 간의 선교 네트워킹의 교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 산하에 있는 선교단체가 구심점이 되어서 선교후원 및 개 교회 선교동원을 위하여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선교 현지에서의 선교사 간의 협력과 선교국과의 선교 네트워킹을 위하여 조직된 선교사회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별 선교사대회와 격년제로 실시하는 감리교선교사대회를 통하여 선교사 관리를 위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루마니아 선교사간담회, 중앙아시아선교사대회, 2007 감리교선교사대회(세선협), 서남아시아선교사대회)

선교사 복지 제도 개선과 확대는 절실하다. 파송선교사 건강검진을 부부선교사에 한해 1년에 1회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선교사 진료비는 시행세칙에 따라 지원되고 있고 선교사 개인과 상황의 요구에 따라 선교비가 미미하게 지원되고 있으며 선교사업 모금 혹은 선교사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한국 방문 중에 사용해야 할 선교사 게스트 하우스가 급박하게 요구되고 있어서 본부-연회 행정협의회와 지방회를 통하여 협력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선교사관리의 또 다른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선교사 자녀에 대한 종합검진에 따른 지원과 제도는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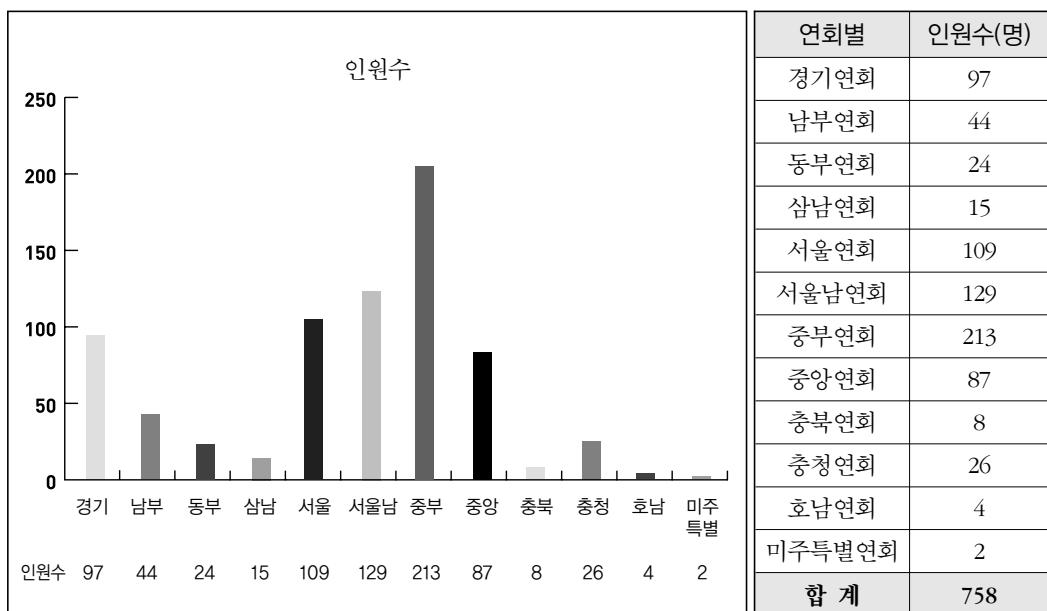
1) KMC 소속 선교사 현황

교역자				평신도				전문인		
남	여	남(명)	여(명)	남	여	남(협/명)	여(협/명)	교사	의료	기타
371	45	5	0	24	290	5	4	6	5	3
14개 지역 / 69개국 / 758명										

2) 지역별 선교사 현황

지역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필리핀	인도차이나	서남아시아	중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중남미	북미	동유럽	서유럽	합계
선교사수	72	227	66	61	87	28	21	27	50	30	20	12	21	36	758
비율	9.5%	30%	8.7%	8%	11.5%	3.7%	2.8%	3.6%	6.6%	4.0%	2.6%	1.6%	2.7%	4.7%	100%

3) 2007년도 연회별 선교사 파송현황



4) 연회 및 지방 차원 해외선교사 파송 및 후원현황

연회	지방	교회명	선교사파송현황(2007년 10월말 현재)				2008년도 해외선교사 파송계획 및 정책				Remarks
			선교사	선교지	후원금 (기간)	후원 내용	인원	선교지명	예산액	기간	
서울 [4개]	강 북	새생명	3명	아시아/괌	30만원씩 /1인당	선교비	3명	아시아/괌	90만원	무한	
		우 이									
	서대문	섬김의					1명	필리핀	2,500만원	2008년 봉헌	교회건축 (바콜로드)
		대 신									
	은평동	광 현	1명	말레이지아	200불/월	선교비	1	아시아	800\$	4년	
	강남동	나눔									
		안디옥	1명	피지	2,000만원 750만원	고등학교 생활비	1명	피지	2,000만원 750만원	무한	
		영 동									
서울 남 [1개]	관 악	방 주	1명	베트남	35만원	교회 지원	7개교회	베트남	35만원/월	2007년 9월 창립	
		신림제일						①현지인교회 ②세미나개최	35만원/월 1회/년		
중부 [2개]	인천북	계양중앙	1명	아시아		현금10년 격년 방문	1개교회	아시아	300만원		
		계산제일						①신학교건축 ②장학금지원	1,500만원 300만원	건축비 장학금	
	부천동	영 광	1명	아프리카 선교회 (토고)	150만원	생활비					
		큰 빛									
경기 [1개]	군 포	안디옥									
		혜 림	4명	필리핀	400만원	생활비	4명	필리핀	400만원	생활비	
중앙 [2개]	광주	섬기는					1명		20만원		서북선교회
		도마리					1명	아시아	30만원		
	광주동	한우리	1명	말레이시아	50만원	선교비	1명	말레이시아	50만원	무한	
		시내산	1명	태국	20만원	선교비	1명	태국	20만원		
동부 [1개]	춘천북	강 북	1명	필리핀	360만원/연	생활비	1명	필리핀	360만원/연	무한	
남부 [1개]	공 주	공주제일	1명	대만	200 ~300만원	매년 다름					
충청 [1개]	천 안	부 흥					1명	아시아	50만원		
		성 광					1명	말레이시아	해외개척예정		
삼남 [1개]	마산서	희 성	장다슬	자메이카	300만원/월		1명	자메이카	300만원 (월)	무한	

③ 주요업무

1) 선교사 관리정책

① 선교사 관리제도 정립 (네트워킹, 창구일원화, 연락망 수립)

선교사 관리 문제는 근래에 서구 선교계 뿐만 아니라 비서구 선교계에서도 관심을 집중시켜온 이슈이다. 일반 조직사회에서도 인적자원 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이나, 직원 지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이니 하는 식으로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다. 세계로 나아가는 감리교회 세계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선교사 관리 모델의 변화와 획기적인 구조가 필요하다.

■ 단계별 추진 내용

- 1단계 : 나라별 선교사회 활성화 방안 모색 및 운영관리 체제 정립
- 2단계 : 시니어선교사(15년 차) 모임을 개최하여 국외선교 정책 수립을 위한 창구 개설
- 3단계 : 연회와 지방회 차원의 지역별, 국가별 선교전략 정책포럼개최
- 4단계 : 선교사와 선교국 간의 신뢰 형성과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한다.

2) 선교사 후원 및 복지정책

① 선교사 건강관리 네트워크 강화

선교사들은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않은 채 사역에 몰두하여 병을 더 키울 때가 많다. 이에 선교사들은 파송 전 종합검진과 인성검사를 위한 받고, 기본적인 예방접종은 필수로 받아 지역에 따른 풍토병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철저한 건강교육을 통해 병이 걸렸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다음, 선교지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들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 그때그때 질병에 대해 민감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정기검진을 적극 제도화하도록 권장하여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 단계별 추진 내용

- 1단계 : 국내 의료 기관 연계 서비스를 본부, 연회, 지방 차원에서 확대, 활성화한다.
 - 종합대학병원과의 교류를 통한 협력 서비스 체결(세브란스병원(신촌, 영동)/ 한양대학병원, 이대병원, 인천기독교병원, 인하대병원 지방대학병원으로 점차 확대)
 - 선교사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검진,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경비는 실비 또는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질병 발생 시,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하고 진료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 2단계 : 해외 의료기관 연계 서비스 네트워크를 국제의료기관, NGO 단체와 협력 교류 자료를 수집한다.

② 선교사 복지지원제도 확대 - 선교사 자녀 장학금 지원

한 선교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선교사의 75%가 자녀들의 교육 및 양육 문제로 인하여 사역지 이동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이러한 자녀 문제가 사역에 결정적인 변인이라고 인식하며 또한 자녀복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선교 사역의 결실을 높이는 한편, 선교사 자녀가 탁월한 현지어 구사와 문화 적응 능력을 갖춘 최정예 선교 자원으로 적극 개발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 단계별 추진 내용

- 1단계 : 선교사 자녀 실태조사
자녀장학금 지원제도 확립
- 2단계 :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홍보 (ex. '장학 예산 10% 기금' 조성 운동 전개)
장학기금 모금 방안 모색

③ 선교사 위기관리 시스템 도입

최근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같이 분쟁지역이 증가하고, 타종교의 원리주의가 드세하며, 항공이나 교통사고의 위험, 테러, 강절도사건이 급증함으로 선교사에게 미치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선교사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성하여 위기에 대한 대비와 교육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확대 강화하기 위한 위기팀을 두어 상호 유기적으로 활동하도록 제도화하고자 한다.

■ 단계별 추진 내용

- 1단계 :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산하에 상임위원회, 위기관리팀, 비상대책위원회, Member Care Team을 구성한다.
- 2단계 : 위기관리 지침서를 마련한다.
(유언장, 비상연락망, 비상사태 발생 시 보고라인과 처리 방법 등)
- 3단계 : 위기관리팀을 국가별 선교사회에 조직한다.
- 4단계 : 개 교회 및 선교단체를 대상으로 위기관리 지침서에 따라 위기관리 훈련을 시행한다.
- 5단계 : 위기관리 기금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 6단계 : 위기로 인하여 철수한 선교사들에 대한 사역 유예기간과 후원교회 지원

④ 연회차원의 선교복지제도 입안

■ 단계별 추진 내용

- 1단계 : 연회별 복지시설 및 지원 현황 파악
- 2단계 : 선교사복지위원회 운영 활성화
- 3단계 : 선교사 복지지원제도 홍보 및 정책 포럼 개최
- 4단계 : 연회 선교사 복지제도 정립

3) 선교지 개발 및 선교사 파송정책

개 교회와 선교단체 중심의 선교사 파송에 따른 선교후원이 한정적이다. 그러므로 감리교회세계선교현황과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선교 기도운동, 선교교육을 통하여 개 교회가 선교활성화를 이루어 선교사 파송과 그에 따른 후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 연도별 추진 내용

2008년 : 지방차원의 선교사 파송 정책 수립 (목표 : 1연회/1지방1명 파송)

- 지방회별 선교후원교회 현황파악
- 선교 지원자 발굴 및 선정
- 선교국-연회 선교사 파송

2009년 : 지방차원의 선교사 파송관리

- 선교국을 통한 선교사 재정 창구일원화
- 연차적 파송추진 평가
- 선교사 파송 주력국가 및 우선국가 선별 및 연차계획서 작성

4) “감리교세계선교센터” 건립추진

한국교회 123주년을 맞이하여 범 감리교회적으로 감리교세계선교의 요람이며 선교사들의 염원인 ‘감리교세계선교센터’ 건립계획이 이미 실행위원회의 통과를 거쳐 추진하였으나 진행 사항이 미진함에 그 간의 진행된 자료를 토대로 건립 추진을 재개하게 되었다.

■ 단계별 추진 내용

- 1단계 : 감리교세계선교센터 건립추진위원회 재조직
- 2단계 : 건립 추진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 3단계 : 미연합감리교회 소속 미선교부 산하 사직동 남감리교 부지 사용권 획득을 적

극 추진

- 4단계 : 선교센타 건립계획과 모금 방안 수립

5) 창의적 선교전략을 위한 선교 접근 및 N.G.O 운영 방안 모색

선교사들은 점차 종교적, 정치적 이념의 갈등 및 물질주의의 심화로 인하여 오히려 선교 사역의 장벽은 높아지고 있다. 신변 안전, 비자, 현지인 접촉점 마련은 선교사들에게 시급한 필요이며 동시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월드비전, 유니세프, 국제기아대책부 등과 같은 국제적 NGO 단체를 통한 사역을 모색하고 KMC가 중심이 된 NGO 선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

■ 단계별 추진 내용

- 1단계 : KMC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국제적 NGO 설립을 추진한다. (중동 및 중앙아시아)
- 2단계 : 국제 NGO들과의 협력 교류 및 대 정부, 대 국가 차원의 활동을 추진한다.
- 3단계 : 해외 의료기관 연계 서비스 네트워크를 국제의료기관, NGO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4 위원회

(2007년 11월 말 현재)

위원회	위원장	활동보고
인준위원회	이규학	김동걸 김진홍 이정일 이천희 이종만 장인선 금성호 정진삼
행정관리위원회	전양철	임정덕 황관하 이승호 윤병조 이원규 황요한 김종수 송청광 권영화 방 현 김태성
복지위원회	김종수	유기성 윤보환 박용완 이영태 우병설 이정찬 안승우 신은영 성인숙 유영완 김영원 임제택 안승철 이 철 김경태 이현택 지광식 송대선

5 정책소고

“KMC 선교현지 법인설립을 통한 해외 선교지 재산관리 정착”

I. 서론

그동안 해외선교지 재산(교회, 병원, 학교, 선교센타 등 각종 부동산 및 동산)은 소유주가 대부분 현지에 파송된 선교사 명의 혹은 선교 현지에서의 선교활동의 필요에 따라 현지 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체 명의로 되어 유사시 해당 재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그 이유는 첫째로, 연 1회 선교지 재산에 대해 선교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극히 미흡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둘째로, 이원화된 선교사 관리 체제로 인하여 보고계통이 불분명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셋째는 선교지에 있는 모든 재산은 선교국 산하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를 시행하고 구속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국내외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다. 넷째로는 해외선교지 재산관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위원회 혹은 기구가 선교국 산하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 다섯째로는 선교국의지도 감독 하에 해외선교지 재산을 관리해 오고 있지만 선교사 및 선교지에 대한 정보 부족과 선교사들의 협조 미비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로는 선교지 재산을 매각 혹은 매입할 경우, 필히 선교후원교회 혹은 선교단체 그리고 선교국과 협의한 후, 결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선교사와 선교후원교회 및 선교단체와 선교국 간의 네트워킹의 부조화로 인하여 신뢰성이 실추되고 있다.

해외선교지 재산관리가 이상과 같은 이유로 소홀해 질 경우, 야기되는 문제들은 무엇인가? 첫째는 선교사가 독단적으로 사역을 하게 된다. 둘째는 해외선교지 재산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선교사와 후원교회 및 선교단체 간의 신뢰성이 저하되어서 선교후원의 지속성이 단절된다. 셋째로는 선교사 개인이나 선교사회에 유발될 수 있는 사고와 위험에서 보호대책이 소원해 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교지에서 타 선교사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최근 선교사 파송추이와 선교지 교회의 재산규모 증가에 따라 선교지 재산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선교사가 선교활동을 위하여 취득하게 되는 선교지 재산을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제도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것은 비단, 선교사와 선교지 법령을 무시할 수도 없다. 후원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선교현장, 선교사들의 견해와 입장은 고려하여 공통

분모를 토대로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세계선교를 위한 해외 선교지 재산관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I. 본론

1) 선교지 재산관리 원칙과 행정관리

①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지에 있는 모든 재산은 선교국 산하에 두며 선교지 특성상 선교사가 관리토록 하나 선교사가 임의로 처분, 정리, 매각, 중여, 교환할 수 없다. 단, 선교지 재산과 관련하여 변경 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의 협의 하에 선교국의 승인을 받은 후 처리토록 하고 있다. 만약 이를 불이행할 시에는 선교국은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행정처리 방안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속교회와 연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에 통보하여 정리한다. 또한 선교사가 선교활동과 관련해 구입하는 모든 재산은 개인 명의로 구입할 수 없으며 현지법인 선교단체 명의로 구입하여야 하며 선교사는 재산등록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복사하여 선교사회와 선교국에 각각 1부씩 제출하여 보관, 관리토록 한다. 그리고 선교사가 안식년과 본국 귀국 그리고 병가 인하여 임지를 이동 또는 변경할 시에는 인수, 인계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선교단체, 선교국에 각각 1부씩 제출하여 보관, 관리하고 있다.

② 타 교단

예장 합동총회 세계선교부(GMS)는 지역선교부나 지부가 현지 사역에 필요한 합법적 기관으로 총회세계선교회를 현지법인으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한 접근 지역 등에서는 본부의 지도를 따라 다른 이름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선교지에서 구입하는 건물(교회, 사택, 선교센타, 신학교, 기숙사, 교육관, 훈련원) 및 건물 대지와 이에 관련되어 매입된 땅과 기타 건물은 지역선교부나 지부, 총회세계선교회가 인정하는 법인명으로 등록하며 개인명으로 등록할 수 없다. 단, 사정상 개인 명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각서를 써서 본부와 지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짓고 있다.

예장 통합총회 세계선교부는 제 88회 총회에서 해외선교지 재산관리 업무가 총회 세계선교부에서 유지재단으로 넘어감에 따라, 그동안 선교사 관리는 세계선교부에서 그리고 선교사들의 재산은 유지재단에서 관리하는 이원화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총회 재산을 총회유지재단이 관리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 아래 2007년부터 총회 유지재단이 세계선교부의 해외선교지 재산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관리하고 있다.

침례교 해외선교회는 부동산의 매입과 소유권 등기, 매매 등에 대해서 침례교 해외선교

회가 적극적으로 선교회의 자산으로 관리하며, 선교사 개인의 투자가 아닌 한 개인 재산처럼 이용될 수 없도록 한다. 또 선교사가 후원을 받아 구입한 자동차나, 컴퓨터나 액정비전과 같은 일정금액 이상의 첨단장비 등 고가의 장비들도 분명히 등록하게 하여 침례교 해외선교회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2) 합법적 기관으로 KMC 선교국 현지법인 등록 추진과정

① 선교국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감리교 해외선교지 재산관리'를 위한 설명회에 관련한 공문을 선교국위원장과 총무의 명의로 발송하여 선교지 재산관리의 실태와 현안에 대한 심각성을 시사하고 후원교회와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전국교회 확산을 위한 협력을 제안한다.

②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 산하에 후원교회 및 선교단체와 연회별 선교분과위원회 지방별 선교부총무들로 구성된 해외선교지 재산관리 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회칙과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세칙을 선교국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의한다.

③ 현지 재산관리 실사를 위한 답사가 선교사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실사를 추진하고 그 외 지역과 국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선교지재산보고서 양식에 준하여 재산상황과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현장 방문 시 해외선교지 재산 관리 조사위원회의 재산관리 정책과 규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설명회를 추진하고 선교사들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한다.

④ 지역별, 국가별 선교사회 대표선교사들과 후원교회 및 선교단체,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관계자 및 연회별 선교분과위원, 지방회 선교부 총무가 참석하는 해외선교지 재산 관리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⑤ 선교지 법령에 따라 선교지 교단(교회)들과의 법인화 선교협약을 체결한다.

⑥ KMC 선교국 현지법인 등록을 위한 절차를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를 통해 강구하고 선교국위원회에 상정하여 추진한다. 선교국의 행정관리와 선교사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조직된 국가별 선교사회에 KMC 선교국 현지법인을 두고 재산관리와 업무를 진행한다.

III. 결 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교사적 사명을 계승받아 웨슬리의 영성과 모범을 실천하는 감리교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며, 세상에서 감리교회의 희망을 실현함을 통해 투명한 삶과 사역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선교지에서 사전 보고나 협의 없이 선교지 재산을 선교사 임의로 매입, 매각했을 경우, 시급하게 조사위원회를 가동하여 선교지 재산 매각 과정과 재산처리 등의 문제를 조사하지만,

선교 사역관리를 위한 정책적 구조와 시스템상의 문제점과 재산관리에 대한 큰 오점을 지울 길이 없게 된다.

특히 이러한 상황을 가정해 볼 때 최근 선교지 교회의 재산규모 증가에 따라 선교지 재산 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될 것이다. 또 선교사 추방과 임의 매각에 대해 선교지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은 ‘세계(세상)로 나아가는 감리교회’의 세계선교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대책이다.

타 교단 세계선교부(회)들은 해외선교지 재산관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도적인 마련을 강구하기 하기 위해 관련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선교사 상황과 선교사들의 고충을 수렴하면서 시행착오를 계속하고 있다. 투명한 선교지 재산관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교지 법인체와 후원교회 및 선교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체제에서 KMC 현선교지 법인을 설립하는 제도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재산 관리 대상은 69개국에 758명 선이다. 선교사 행정관리위원회는 전체 선교사 파송 지역을 일일이 방문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14개 지역별로 나누어 방문하여 선교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추구하고 희망을 실천하는 감리교회의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게 되면, 투명한 선교지 재산관리와 선교사역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감리교회의 세계선교의 시너지 효과가 보다 더 증대될 것이다.

교육국



교육행정부

장년교육부

차세대교육부

교육교재부

총무 인사



총무 김두범 목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감리회 5,800여 교회와 153만 성도님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2007년 한 해에도 교육국을 위해 헌신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교육국은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장년부의 “속회연구원”(CMI) 설립하였고, 차세대 교육부의 ‘차세대 지도자 교육과정’과 ‘청년 지도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나아가 교육교재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새로운 교과 과정을 연구하여 새 교재를 쓸 준비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한해를 보냈습니다. 더욱이 신실한 사람들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국에서는 사단법인 ‘아름다운 청소년’을 통해 청소년 평화 세상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8·23 영남선교대회와 연계하여 국토순례를 행하며 감리교 청소년들의 기상을 드높이기도 하였습니다.

2008년도는 “섬김으로 부흥하는 교회; 희망 공동체”로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왔고, 섬김을 위해 목숨을 주러 왔다.”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교회의 현실은 섬기려는 사람들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교육은 “섬기는 성품”을 육성하여,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데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일반교육이 산업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경쟁 교육”이며 “신분상승의 수단이 된 교육”으로 하나님과 참된 인간존중의 정신을 망각한 채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회교육이 일반교육의 희망이요 대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교육은 더 이상 세상의 지식을 쌓고, 기술을 쌓고, 학위를 따고, 지위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낮은 자리에 처하여, 남 섬기기를 사모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며 섬기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2008년은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며, 섬김을 통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신실한 사람들의 모임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후원으로 도와주신 교육국 국위원들과 모든 정책 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1. 정책 개요

2008년도는 교육국 정책 부서간의 보다 효율적인 업무 분담과 생산적인 정책 활동을 위해 교육 행정부를 신설하게 되었다. 앞으로 교육행정부에는 첫째, 각 정책부서의 회계 업무 및 기타 행정업무를 통합 지원하여 각 정책부서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둘째, 각 정책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실시간 홍보하고 그 진행과정을 기록하고 보관 하여 정리하는 일을 할 것이다. 셋째, 해당되는 교육기관 및 대외 기관에 대한 관리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여러모로 연관 되어 있었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하게 될 것이다. 넷째, 교육국이 당연히 해야 할임에도 어느 한 정책부서에 두기 어려운 교육정책들을 담당하여 감리교 교육정책의 질을 높일 것이다.

2007년도는 속회 정책위원회의 열정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속회연구원’이라는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 2008년도에는 속회연구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속회공과의 개발 뿐 아니라 감리교 전통과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형식의 속회를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등급사 경회 정책위원회에서는 우선 사경회 교재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 또는 새로운 교재개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나아가 전통적인 성경공부 위주의 사경회를 보다 폭넓은 신앙양육을 위한 사경회로 바꾸도록 제안하였다. 이에 2008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사경회 교재 개발을 위한 팀을 구성하고 그 팀을 중심으로 새로운 양육형 등급사경회 교재를 개발할 것이다. 또한 등급사경회의 진행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등급사경회가 감리교회 뿐 아니라 교파를 넘어 전국 교회에 꼭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 되도록 준비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고령화 되어 간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제는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때에 감리교회가 앞장서서 노년목회의 비전을 제시한다면 한국 교회에서 감리교회의 위상은 높아질 것이다. 2008년은 노년목회를 하기 원하는 모든 감리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2007년 실시 한 제 1기 훈련과정을 바탕으로 청년목회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을 통하여 청년교회들을 세워 청년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학교교육부 소고 참조) 아울러 청년 리더십 훈련 실시하여 중소형의 작은 교회들의 청년 지도자들이 질 좋은 훈련을 받아 교회 성장에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또한 국가 인증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험과 화천 청소년 수련관을 수탁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단법인 아름다운 청소년들」의 지부 활동을 강화하여 ① 청소년 문화 센터 운영을 통한 청소년선교, ② 청소년 체험학습 실시(국가청소년위원회 수련활동 인증 연계), ③ 청소년 조직 활동 강화(천안, 부산, 서울, 강화 등), ④ 청소년 지도사 양성을 위한 청소년 지도자

아카데미 실시하려고 한다.

2008년에는 모범적으로 성장하는 교회학교 모델을 발굴하여, 홍보함으로 모든 교회에게 용기를 주며, 한편 그 특징적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성공적인 교회학교 부흥운동을 전개하는데 도움을 주려 한다.

2008년에는 2007년 교육국이 개발한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회학교 교재의 전면적 재 집필이 이루어질 것이다. 새 주일 공과의 개발(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주말-주중 교재 개발(아동부 통합 사용)로 이루어질 것이다.

중점 실천 목표

- 1) 교육행정 지원 업무의 전문화 정책수립 및 실행
- 2) 속회연구원의 활성화 방안수립 및 실행
- 3) 장년 신앙 강화를 위한 양육 정책수립 및 실행
- 4) 차세대 교육을 통한 미래 부흥 전략 수립 및 실행
- 5) 차세대 담당 사역자 및 차세대 지도자 훈련 정책수립 및 실행
- 6) 교회 학교 부흥 전략 정책 및 실행
- 7) 새 교육 교재 개발 정책 및 실행

2. 국 위원 및 이사

1) 교육국 국위원회

위원장	이기복		
위원	연회	교역자	평신도
	서 울	유창진	박희로
	서울남	오봉근	박효진
	중 부	황관하	고희영
	경 기	김철한	권기호
	중 앙	김종인	조영흠
	동 부	최선길	김복출
	충 북	소화춘	한봉수
	남 부	안승철	김진규
	충 청	유재천	홍원표
	삼 남	김진수	황두진
전문위원			

2) 장학재단 이사회

이사장	신경하	
위원	교역자	평신도
	김종순	김진한
	한영제	문경자
	전명구	홍현풍
	봉명종	김춘자
	정승희	안상현
	김두범	
	김영동	
전문위원(감사)	이복규	심기택

3. 업무 구분

부서	업무
총무	1. 교육국 업무 총괄 2. 교육국 홈페이지 관리 및 정책홍보 3. 본부 통합적 지원 업무 4. 각종 회의 관계 5. 각 교육단체 및 연합기관 관계 업무(청년관 포함) 6. 감리교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 업무 7. 신학대학원, 연희신학원 및 목회 아카데미 지도 관리 (계통학교 56개 중 · 고, 7개 대학 포함) 8. 고등성직 교육 및 훈련 정책 9. 목사 후보생 훈련 정책 10. 교역자 수급에 대한 장단기 정책 수립 11. 심방전도사 교육 정책 및 자격관리 12. 장학 정책 및 재단 이사회 관리 13. 몽골후례대학 이사회 관리 업무
교육 행정부	1. 청장년, 장년, 노년층에 대한 교육정책 및 교재개발 2. 양육 훈련 정책 및 교재 개발 3. 속회교육 정책 및 속회연구원(CMI) 관리 4. 등급사경회 정책 및 교재 개발 5. 평신도 전문 사역자 훈련 정책 6. 임원 재교육 정책 7. 노년부 교회학교 및 계절학교 정책 개발 8. 기독교 문화교육정책 9. 해외 한인교회 교육정책 및 훈련 10. 장년교육부 장단기 부흥전략 수립
장년 교육부	1. 중 · 고 · 청년층 연령에 대한 교육정책 수립 2. 중 · 고 · 청년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3. 중 · 고 · 청년 전문 사역자 훈련 4. 청년 리더십 양성훈련 5. 해외 유학생 신앙지도 훈련 6. 청소년 단기선교 체험 프로그램 7. 해외 교환 학생 프로그램 8. 해외 크리스천 스쿨 유학 안내 및 지도 8. 사단법인 '아름다운 청소년들' 관리 9. 교회 청소년 교육의 국가 인증 정책 10. 영어교육프로그램 개발 11. 청소년 주말 및 방학 프로그램 개발 12. 차세대 기독교 문화교육 정책
차세대 교육부	1. 영 · 유아 · 유치 · 아동부에 대한 교육정책 수립 2. 영 · 유아 · 유치 · 아동부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3. 영 · 유아 · 유치 · 아동부 계절학교 교재 및 캠프 개발 4. 영 · 유아 · 유치 · 아동부 영어예배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5. 아동부 해외 교환체험 프로그램 6. 교육전문 사역자 및 교사 양성 정책 및 교재 개발 7. 교회학교 프로그램 개발 8. '신앙과 교육' 정기 간행물 편집 9. 아동부에 대한 장단기 부흥전략 수립 10. 특별질기 교육자료 개발
교육교재부	1. 영 · 유아 · 유치 · 아동부에 대한 교육정책 수립 2. 영 · 유아 · 유치 · 아동부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3. 영 · 유아 · 유치 · 아동부 계절학교 교재 및 캠프 개발 4. 영 · 유아 · 유치 · 아동부 영어예배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5. 아동부 해외 교환체험 프로그램 6. 교육전문 사역자 및 교사 양성 정책 및 교재 개발 7. 교회학교 프로그램 개발 8. '신앙과 교육' 정기 간행물 편집 9. 아동부에 대한 장단기 부흥전략 수립 10. 특별질기 교육자료 개발

4. 발간 자료

1) 2007년 발간 자료

번호	구분	제목	구성	비고
1	영아부	짝꿍예수님 1학기 2학기	교사용	
2	유아부	짝꿍예수님 1분기(1권발행)	학생용, 교사용, 학부모용	1년 과정
3	유치부	짝꿍예수님 4분기(4권발행)	학생용, 교사용	2년 과정
4	아동부	짝꿍예수님 8분기(총 24권발행)	학생용, 교사용, 설교집	2년 과정
		주기도문(1권발행)	학생용, 교사용, 설교집(cd포함)	3개월 과정
		짝꿍예수님 설교집 발간	단권 발행(52주 설교)	1년용
5	어린이	어린이 설교집 신약 52편 구약 52편	교사용	3년 과정
6	아동부	사도신경	학생용, 교사용	1년 과정
7	여름성경 학교	하나님의 멋진 세상 (유치, 아동, 중·고등)	학생용, 교사용	4일 과정
8	노년부	아름다운 사람, 일하는 노년	교사용	2일 과정
9	어린이	강림절	어린이용	절기용
10	장년	부흥	전교인용	새벽기도용
11	장년	속회공과	전교인용	1년 과정
12	장년	사순절 묵상집	전교인용	사순절기간
13	장년	강림절 묵상집	전교인용	강림절기간
14	장년	믿음의 길(확신편, 성장편)	학생용, 교사용	1년 과정

자료집

1	속회공청회자료집	모델교회 현황	2007.3
2	속회컨퍼런스자료집	속회정책과 소그룹운동	2007.10
3	노인목회컨퍼런스	노인목회계획 및 노인복지	2007.10
4	전국교육국 총무협의회자료집	각부소개 및 협력사항	2007.10
5	청소년교사 훈련학교 자료집	청소년전문사역자 양성	2007.11

리플렛

1	몽골후례대학 소개	몽골후례대학 후원	2007.9
2	어린이 전국 축구잔치	감독회장배 축구 대진일정	2007.10
3	청소년사역자 훈련학교	세미나 일정 안내	2007.11
4	청소년교사 훈련학교	세미나 일정 안내	2007.11

2) 기준 발간 자료

2006년 발간 자료

번호	구분	제 목	내 용	비 고
1	교회학교	작꿈예수님 1분기	학생용, 교사용, 학부모용	영유아부
2	교회학교	작꿈예수님 4분기	학생용, 교사용	유치부
3	교회학교	주님의 기도	교사용, 학생용, 설교집	아동부
4	교회학교	작꿈예수님 시리즈 설교집 발간	설교집, PPT CD	아동부
5	교회학교	2006 여름성경학교 “색동 예수님, 색동 마을”	지도자 매뉴얼	여름성경학교 기획자용 교재
6	교회학교		유치부	유치부 교사용 교재 설교자료집 유치부 학생용 교재
7	교회학교		아동부	아동부 교사용 교재 아동부 학생용 교재
8	교회학교		중·고등부	중고등부 교사용 교재 중고등부 학생용 교재
9	교회학교	파워스톰8 파워 크리스천	파워스톰시리즈II 예수와신약④	중고등부
10	노년부	아름다운 화해 “죽음과의 화해”	노년부 교사용 교재 노년부 학생용 교재	교사용 학생용
11	일반교인	신앙을 성숙시키는 믿음의 길(성장편)	기초신앙교육교재 지도안 성도들의 기초신앙교육교재	교사용
12	일반교인	사순절 묵상집	사순절40일간의 묵상집	전교인
13	일반교인	강림절 묵상집	강림절기간의 묵상집	전교인
14	속회 교육	2006속회공과 주제 : 하나님 백성의 삶	속회 인도 시 사용하는 교재 속회 모임 시 사용하는 교재	인도자용
15	자료집	파워 스톰 세미나 자료집	세미나 시 교육자료	참석자 교육용
16	자료집	2006년 여름성경학교 정책 자료집	세미나 시 교육자료	참석자 교육용
17	자료집	기독교교육진흥주일 자료집	기독교교육진흥주일 예배 순서와 자료	목회자료
18	자료집	청년주일 자료집	청년주일 예배순서와 자료	목회자료
19	자료집	성탄절 자료집	세미나 시 교육 자료	참석자 교육용
20	자료집	양성평등지수 통계 자료집	장년	2007.10
21	정기간행물	신앙과 교육	교회교육 자료	교회학교 교사

2004~2005년 발간 자료

번호	구 분	제 목	내 용	비고
1	교회학교	유치부 짹꿍 예수님	狎꿍예수님 시리즈 제1학기	각각 교사용·학생용
2	교회학교	유치부 짹꿍 예수님	狎꿍예수님 시리즈 제2학기	각각 교사용·학생용
3	교회학교	유치부 짹꿍 예수님	狎꿍예수님 시리즈 제3학기	각각 교사용·학생용
4	교회학교	유치부 짹꿍 예수님	狎꿍예수님 시리즈 제4학기	각각 교사용·학생용
5	교회학교	예수님이야기	狎꿍예수님 시리즈 1분기	각각 교사용·학생용
6	교회학교	창세기이야기	狎꿍예수님 시리즈 2분기	각각 교사용·학생용
7	교회학교	예수님의 비유	狎꿍예수님 시리즈 3분기	각각 교사용·학생용
8	교회학교	출애굽이야기	狎꿍예수님 시리즈 4분기	각각 교사용·학생용
9	교회학교	성령의 교회	狎꿍예수님 시리즈 5분기	각각 교사용·학생용
10	교회학교	새로운 세상을 향한 삶	狎꿍예수님 시리즈 6분기	각각 교사용·학생용
11	교회학교	하나님과 함께 희노애락	狎꿍예수님 시리즈 7분기	각각 교사용·학생용
12	교회학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狎꿍예수님 시리즈 8분기	각각 교사용·학생용
13	계절학교	여름성경학교 교재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노년부)	당해 연도 발행	교사용·학생용
14	중·고등부	파워스톰1 후엠아이	파워스톰 시리즈 I 정체성과 비전 ①	학생용
15	중·고등부	파워스톰2 사용설명서	파워스톰 시리즈 I 정체성과 비전 ②	학생용
16	중·고등부	파워스톰3 문화.com	파워스톰 시리즈 I 정체성과 비전 ③	학생용
17	중·고등부	파워스톰4 꿈	파워스톰 시리즈 I 정체성과 비전 ④	학생용
18	중·고등부	파워스톰5 예수를 만난 사람들	파워스톰 시리즈II 예수와 신약 ①	학생용
19	중·고등부	파워스톰6 예수를 찾아서	파워스톰 시리즈II 예수와 신약 ②	학생용
20	중·고등부	파워스톰7 예수코드	파워스톰 시리즈II 예수와 신약 ③	학생용
21	일반교인	신앙을 성숙시키는 믿음의길(확신편)	성도들의 기초신앙교육교재	학생용, 교사용
22	일반교인 교육	알고가는 믿음의 길	새신자 교육을 위한 교재	
		세례문답집	세례 문답할 내용	
		세례문답 해설서	세례자 교육 교재	
23	임원교육	섬기며 봉사하는 집사와 권사	신천 집사 교육용 교재	
		섬기며 본이 되는 장로	신천 장로 교육용 교재	
		장로고시 문제집	신천 장로 고시용 문제집	
		임원 지침	임원에 대한 일반적 교육 교재	
24	성경교육	제자	성경공부를 통한 제자훈련교재	
25	등급사경회 교육	말씀과 함께(성경연급1-6)		교사용·학생용
		말씀과 함께(특별반1-3)	사경회 성경연급후 특별반교재	
		말씀과 함께(전도 특별반 교재)	사경회 전도 특별반 교육교재	
26	속회교육	속회공파	속회 모임 시 사용하는 교재	

5. 각 부 정책

교육행정부

1 업무 추진 방향

2008년도는 교육국 정책부서간의 보다 효율적인 업무 분담과 생산적인 정책 활동을 위해 교육행정부를 신설하게 되었다. 교육행정부의 역할은 각 정책부서의 회계 업무 및 기타 행정업무를 지원함으로서 각 정책부서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여러모로 연관 되어 있었던 업무를 교육행정부가 총괄하여 집행하므로 각 정책 부서가 보다 더 생산적인 일에 총력을 기우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2 현황

1) 연회별 교육사업 현황 통계 (2006.12 기준)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호남	합계
유치원	교사	100	26	21	9	39	23	5	28	14	10	0	275
	학생	477	300	268	104	696	352	87	223	451	168	0	3,126
선교원	교사	40	48	27	29	17	3	3	15	2	0	5	189
	학생	552	530	298	297	190	60	38	193	14	0	44	2,216
어린이집	교사	773	152	237	180	110	106	69	55	108	42	38	1,870
	학생	2,289	1,545	2,089	1,951	1,008	1,257	837	622	1,476	399	352	13,825
노인대학	교사	134	149	198	106	96	224	34	40	94	24	48	1,147
	학생	1,496	1,279	3,051	1,170	723	2,939	3,074	470	855	177	393	15,627

2) 계통학교 현황

감리교 계통 중·고등학교와 교목 현황

	학교 수	교목 수
중학교	24	24
고등학교	32	34
계	56	58

청년관 현황

지역	주소	관장	전화
서울	120-290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4 하나로빌딩 1층	김명기	02-734-8501 F)737-5997
경기	441-84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교동 209-14 동부교회	윤정호	031-233-5642
원주	220-050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61-12		033-742-3763 F)033-744-5763
대전	301-050 대전시 중구 선화2동 85-1 감리교회관 3층		042-256-4408 F)042-222-2573
부산	611-071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09 삼남연회 본부	박봉규	051-507-6577
인천	405-221 인천남구 구월1동 1135-12 인천기독교회관 804호	나선희	032-432-8121 Fax 432-8128
충청	330-220 충남 천안시 백석동 11-12 충청연회 본부	김준희	041-567-0856 F)041-558-9197
경남	630-819 경남 마산시 회원구 합성동 845 합성교회 내	최정규	055-252-8229 Fax 252-8223

③ 주요 업무

1) 교육행정 지원업무

체계적인 회계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전진 배치함은 물론이고 아래와 같은 업무를 행함으로 각 정책부서의 업무효율이 배가되도록 돋는다.

① 교육 행정 및 재정 지원업무

② 본부 통합적 지원업무(총회, 연회 및 본부 정책 자료 준비 및 정리)

2) 홍보 및 각종 회위 지원업무

홍보 및 기록정리업무 각 정책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실시간 홍보하고 그 진행

과정을 기록하고 보관 하여 정리하는 일을 할 것이다.

- ① 교육국 홈페이지 관리 및 정책홍보
- ② 정책회의 및 각종 회의 관계 자료준비 및 정리

3) 교육정책 연관업무

교육국과 연관된 단체 및 계통학교를 하나의 창구인 교육행정부가 관할함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한다.

- ① 각 교육단체 및 연합기관 관계 업무
 - 각 교단교육국
 -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 기타
- ② 감리교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 업무
- ③ 신학대학원, 감리교 신학원 및 목회 아카데미 지도 관리
 - 신학대학원 원장 협의회
 - 신학대학원학생협의회
 - 감리교신학원협의회
 - 목회 아카데미
- ④ 감리교계통학교 업무
 - * 감리교 계통학교 운영자협의회 전체 회의 2회
 - 임원회 분기 별로 총 4회 정기모임을 갖는다.
 - * 학교장, 교목의 선교 협력 방안 모색:
 - 계통학교 총 · 학장 연석회의 상 · 하반기 각 1회 연중 2회 개최
 - 중등학교 교목 수련회 개최 : 1월 22일(화)~26일(토)
 - 중등학교 교장 수련회 개최 : 연 1회
 - 대학교목회 수련회 개최 : 연 1회
 - 계통학교 협의회 : 전체 모임 1회, 임원회 연중 2회
- ⑤ 청년관 관리 감독 임무
- ⑥ 몽골후례 대학 이사회 관리 업무

4) 특별 교육정책

교재 및 연령별 교육정책과 관련이 없는 각 정책부서에 흩어져있던 특별 주제의 정책들

을 하나로 모아 교육행정부가 대하여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을 하도록 한다.

- ① 고등성직 교육 및 훈련 정책
- ② 목사 후보생 훈련 정책
- ③ 교역자 수급에 대한 장단기 정책 수립
- ④ 심방전도사 교육 정책 및 자격관리
- ⑤ 장학 정책 및 재단 이사회 관리

4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이사장/회장)	위원	비고
감리교계통 설립자 및 이사장 협의회	백문현	이재식, 황방남, 김득연, 김유숙 최애도, 박준구, 박우승, 서 철 외 설립자 및 이사장	
감리교계통학교 협의회	박준구	중등교장회, 중등교목회, 대학교목회, 대학총·학장회 등 협의체	
감리교계통학교 교목회	이종용	중등교목	
감리교계통대학 교목회	장춘식	대학교목	
감리교계통학교 교장회	박준구	중등학교 교장	
몽골후례대학이사회	신경하	김두범, 김영동, 이승호, 김여일, 최이우 장영철, 이인선, 김영권, 임효순, 장철수 정의승, 유동호, 정우송, 문 억, 이상규	

5 정책소고

효율적인 교육정책을 위한 업무구분

I. 서론

2008년도는 교육국 정책부서간의 보다 효율적인 업무 분담과 생산적인 정책 활동을 위해 교육행정부를 신설하게 되었다. 교육행정부의 역할은 각 정책부서의 회계 업무 및 기타 행정업무를 지원함으로서 각 정책부서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돋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여러모로 연관 되어 있었던 업무를 교육행정부가 총괄하여 집행하므로 각 정책 부서가 보다 더 생산적인 일에 총력을 기우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II. 본론

업무 구분의 기준은 첫째 ‘효율성’이다. 업무는 가장 작은 노력으로 가장 큰 효과를 이루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오랜 시간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 일을 있다고 그 일이 반드시 잘되는 것은 아니다. 즉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인원이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효율’은 효과와 능률을 합한 말이다. 업무구분을 통해 효과가 나타나며 나아가 능률도 올라야 한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종종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다. 더 나아가 방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동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업무구분을 하는데 염두에 두어야 할 두 번째 기준은 ‘생산성’이다. 일을 하고 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결과물인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좋은 인력을 가지고도 막대한 물량을 투여하고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경우 조사해 보면 조직의 업무구분의 시스템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업무구분, 중복되어 일하는 업무구분은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다.

업무구분의 세 번째 기준은 ‘상호보완성’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상대방에 기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실수를 하면 나만의 피해가 아니라 나와 맞물려있는 사람이 함께 피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구분하여 일을 해야 한다.

업무구분의 네 번째 기준은 ‘연속성’이다. 사람의 입사와 퇴사에 따라 혹은 승진 이동에

다라 업무분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가급적 업무구분은 사람에 따라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부서의 고유업무가 되어야 한다. 그간 사람의 이동에 따라 업무 구분이 순식간에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관행처럼 종종 있어왔다. 이제는 이러한 업무관행에서 벗어나 사람은 바뀌어도 그 부서의 일은 변함없이 이어져 가는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금번 교육국이 새로운 업무 구분을 하게 되었다. 위 네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구분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미비한 점이 너무 많이 노출되고 있다. 점차 문제들이 사라지고 가장 효율성을 가지 업무구분이 생길 때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것이다.

III. 결론

신실한 사람들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를 만들어 가는 데 교육국이 한발 앞서 가기 위해 몸부림을 쳐본다. 특별히 이번에 신설된 교육 행정부를 통하여 각 정책부서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은 향후 그 실적에서 예년에 비해 현격한 차이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모든 교재 개발을 각 정책부서장의 책임하에 두어 교재를 개발하게 함으로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한 것은 향후 교재개발에 발전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재개발은 정책과는 달리 일종의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각부의 교재를 담당하는 서기나 과장을 두고, 그들을 한데 모아 ‘교재 개발원’으로 향후 업무구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장년교육부

· 부장 황건원 목사

① 업무 추진 방향

장년 교육부의 업무는 ‘신실한 사람들,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정책을 세울 것이다. 즉 진정한 감리교인(규칙쟁이)을 만드는 것이 곧 이 세상에 필요한 신실한 사람을 만드는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몇몇의 신실한 규칙쟁이(감리교인)들이 그 혼탁한 영국사회를 폭력과 피 바람 없이 조용히 건강한 사회로 변화시켰듯이 오늘 우리 사회에도 신실한 감리교인이 필요한 때이다.

이를 위하여 장년정책부에서는 모든 정책과 교재 개발에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반드시 지켜 나갈 것이다. 첫째, 모든 감리교인들이 성경과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스스로 규칙을 만들

어 그 규칙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정책과 교재를 개발할 것이다. 둘째, 모든 감리교인들이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넘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자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정책과 교재를 개발할 것이다. 셋째, 모든 감리교인들이 신실한 사람의 시작은 개인에서가 아니라 둘셋이 모인 소그룹에서 시작됨을 자각할 수 있는 정책과 교재를 개발할 것이다.

2 현황

연회별	원입인	세례인	입교인	장로	권사	집사	속회	속원
서 울	47,768	28,173	118,812	1,459	15,840	26,840	6,439	58,014
서울남	94,078	10,378	83,054	1,092	14,052	24,774	7,845	51,566
중 부	118,588	23,985	152,878	1,813	23,798	51,877	15,695	161,795
경 기	20,430	11,346	72,277	984	10,551	24,991	6,444	42,949
중 앙	21,849	7,356	49,663	690	6,916	17,153	4,279	33,363
동 부	25,264	7,720	58,583	911	8,761	18,930	5,490	43,129
충 북	11,515	3,646	26,391	393	4,285	8,383	2,554	22,644
남 부	23,087	9,195	51,567	907	7,088	17,794	4,716	44,827
충 청	16,649	7,154	53,720	867	7,195	17,514	5,097	35,710
삼 남	6,656	6,294	20,139	361	2,670	7,376	1,834	14,452
호 남	4,790	2,408	14,861	210	1,793	5,244	1,243	11,079
미 주	2,188	1,864	12,547					
합 계	390,674	117,655	701,945	9,687	102,949	220,876	61,636	519,528

③ 주요 업무

1) 청장년, 장년, 노년층에 대한 교육정책 수립

청년부 이후의 세대는 교육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이다. 최근에 노인목회 정책을 중심으로 노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미미한 상태에 있다. 청장년과 장년층에 대한 교육의 관심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교회에서 가장 활동력 있고 힘이 있는 청장년과 장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소비만하다 지쳐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다. 장년교육부의 관심은 그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하여 재충전을 받아 더욱 힘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낼 것이다.

- ① 3월 중 청장년, 및 장년 교육정책위원회 소집
- ② 8월 교과과정 확정

2) 각급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각 연령대에 맞는 양육 교육교재를 개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아동부에서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인들이 주일예배를 드리고 일정 부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교육받을 수 있는 12주짜리 양육형 교재를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 ① 9월 각급 교재 집필시작
- ② 11월 각급 교재 집필완료

3) 양육훈련 및 교재개발

일반인에서 시작하여 새신자, 임원에 이르는 단계마다 꼭 필요한 신앙의 지침을 배우고 익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한 예로 감리교 신학과 교리와 장정은 입교인이 될 때와 임원이 될 때 반드시 거쳐야 할 과목임에도 너무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감리교인 뿐 아니라 모든 이들이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감리교 신학과 교리와 장정을 개발하는 것이 양육훈련과정의 한 예가 될 것이다.

- ① 연회 전 3월 중 전문위원회 소집
- ② 5월 중 기본 자료 수집
- ③ 7월 중 발간

기존의 양육교재로 개발된 성경공부 교재들을 적극 홍보하여 교육받도록 한다.

- ④ 4차원 성지 신학세미나(2월 중)

- ⑤ ‘제자’ 세미나(5월과 9월 중)
- ⑥ ‘예수님의 사람’ 세미나(저자 재량)
- ⑦ ‘믿음의 길’ 세미나(저자 재량)

4) 속회교육 정책 및 속회연구원(CMI) 관리

2007년의 장년교육은 속회의 활성화와 공과 개발을 중심으로 진행하여 속회연구원(CMI)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앞으로 속회연구원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속회연구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연구 성과물을 모든 감리교회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볼 것이다. 아울러 목회자를 위한 속회 컨퍼런스와 평신도를 위한 목회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개체 교회들이 속회 중심 목회로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컨설팅은 물론이고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함으로 적극 협력할 것이다.

- ① 목회자를 위한 속회 컨퍼런스 5월 중 개최
- ② 평신도를 위한 속회 컨퍼런스 10월 중 개최
- ③ 2009년도 속회공과 10월 발간 예정

5) 등급사경회 정책 및 교재 개발

장년교육부의 2007년도의 화두가 ‘속회’ 였다면 2008년도의 화두는 ‘등급사경회’가 될 것이다. 지방별로 함께 모여 하는 성경연구라는 기본 틀을 흔들지 않고 그 시스템과 교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 ① 1월 중 등급사경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 ② 3월 안으로 등급사경회 개정을 위한 공청회 4회 이상 실시
- ③ 4월 중 교재 개편 위원회 구성
- ④ 10월중 교재 개편마감

6) 평신도 전문 사역자 훈련 정책

교회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일어서지만 부름을 받고 일어선 그들을, 교회를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걷고 뛰게 하는 것은 훈련이다. 훈련 받지 않는 군인들을 상상할 수 없듯이 평신도 사역자로 자원한 이들이 더욱 충만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돋는 훈련 과정을 개설할 것이다.

- ① 평신도를 위한 전문 과정 연구

- ② 일영연수원과 협의하여 평신도들에게 필요한 전문 교육과정을 설치 공동운영한다.

7) 임원 재교육 정책

교회임원 교육의 목표를 ‘책임적 신앙인’ (responsible Christian),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 (true disciple), ‘선한 청지기’ (good steward), ‘성실한 교인’ (faithful church man), ‘목회협력자’ (ministry - coordinator), ‘조화롭게 협력하는 임원’ (cooperative officer), ‘철저한 감리교인’ (thorough Methodist)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 ① 임원 되기 이전 교육 정책(신천임원)
- ② 임원 된 이후의 임원(집사, 권사, 장로) 교육정책
- ③ 모든 임원 교육교재의 개편작업-3월

8) 노년부 교회학교 및 계절학교 정책 개발

2007년도에는 노인목회정책 연구를 위해 제 1회 노인목회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향후 감리교 목회자들에게 노인목회를 계획하고 실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2008년도는 더욱 구체적으로 노년목회에 관심을 두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고령화 되어 간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제는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때에 감리교회가 앞장서서 노년목회의 비전을 제시한다면 한국 교회에서 감리교회의 위상은 높아질 것이다.

2008년은 노년목회를 하기 원하는 모든 감리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 ① 노년목회컨퍼런스의 정례화(9월 중)
- ② 노년 목회 가이드북 편찬(6월 중)
- ③ 노년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9월 중)
- ④ 노년 성경학교의 확산을 위한 연구(연중 수시)

9) 기독교 문화교육정책

현재 감리교인들이 즐겨 부르고 있는 찬송 이외의 복음송을 한 데 묶어 보급하려 한다.

- ① 2월 중 전문 위원 위촉 및 구성
- ② 5월 중 편집회의
- ③ 7월 중 인쇄 보급

10) 해외 한인교회 교육정책 및 훈련

이민 혹은 해외 장기 체류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해외 거주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정책을 세우려고 한다.

① 3월 중 해외 거주 KMC 설문조사

② 9월 중 해외 거주자를 위한 단기 교육프로그램 개최

11) 장년교육부 장단기 부흥전략 수립

장년부 교육정책 중 1년 안에 할 수 있는 정책과 3년 안에 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5년 이상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정책을 분류하여 점검하는 위원회를 조직하려 한다. 장년부 모든 정책과 활동을 옆에서 돋고 감찰의 기능까지 감당하게 될 것이다.

① 1월 중 장년부 장단기 부흥전략위원회 구성

② 연중 수시로 회의 개최

4 위원회

구분	위원장	위원	비고
양육정책위원회	최호순	이현식, 이창훈, 장이규, 송상면, 박희권, 임제택 김종순, 강유형, 고문석, 김진수, 한영제, 유기성 이성우, 임일우, 박수락, 황광민, 허준영	
속회정책위원회	한정호	김의신, 원진희, 최이우, 홍철표, 곽주환, 김보영 김영래, 윤철환, 장이규, 최효석, 김철한, 김현수 박용호, 안희선, 이성우, 박동찬, 천성환, 한상호 송대선, 박신진, 김영봉, 최종원, 김종필, 배종화 유광조, 지성업, 박인호, 백용현	
제자위원회	허원배	박상철, 남강현, 공기현, 김 철, 남기동	
노년목회정책위원회	소화춘	박용보, 조명구, 지성래, 최완규, 권영규, 윤바울 송민섭, 이기우, 김치수, 서석근, 전영섭, 박삼열 최범선, 남문화	
양성평등위원회	김순영 김고광	전은호, 성봉희, 이명화, 이재희, 이기순, 최은영 김종복, 김철한, 민영진, 박거종, 이정배, 장영철	

5 정책소고

사경회 전통의 계승과 체계적인 양육정책 세우기

(사경회 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황건원 목사

I. 서론

2007년도는 감리교정체성 강화를 위한 속회쇄신 정책 및 속회교재개발에 힘을 모았다. 이에 속회정책에 대해서는 ‘속회연구원’(C.M.I.)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속회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교회에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사경회는 성경연구의 본류를 자체하는 감리교회의 자랑이었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그 자부심은 점차 사라지고 오히려 부담만 가중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시행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자니 감리교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 같고, 막상 사경회를 시행하자니 시대의 흐름에 너무 뒤처지는 것 같아 고민을 하다가 변혁의 시기를 놓쳐 결국 형식적인 답습에 그치고 있는 중이다. 이에 교육국에서는 희망프로젝트의 일환인 ‘신실한 감리교인’을 만들기 위해 2008년도는 신앙 강화를 위한 사경회 정책 및 교재 개발에 박차 가하여 보다 폭넓고 깊은 성경공부와 양육을 위한 정책과 교재를 만들 것이다.

II. 본론

2008년도 무엇보다도 사경회의 구조와 그 교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경회의 현실을 보다 더욱 직시하기 위해 지난 2007년 4월 11일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하여 본부 교육국에 있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국 195개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와 통화를 시도하였다. 반드시 한 교회와 통화를 시도하기 위해 가급적 부목사가 있는 교회와 사무원이 있는 교회에 전화를 하였다. 전화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차별 없이 사경회에 대한 몇 가지 설문을 하였다.

지면 관계상 질문은 반복되기에 대답과 함께 적었으며 아울러 평가도 그 아래 ‘*’로 구분하여 보기 쉽게 하였다.

■ 조사대상 지방 및 참여지방

연회	지방 수	참여지방
서울연회	13 지방	13 지방
서울남연회	14 지방	14 지방
중부연회	29 지방	29 지방
경기연회	23 지방	23 지방
중앙연회	19 지방	19 지방
동부연회	23 지방	23 지방
충북연회	13 지방	13 지방
남부연회	19 지방	19 지방
충청연회	21 지방	21 지방
삼남연회	12 지방	12 지방
호남선교연회	9 지방	9 지방
계	195 지방	195 지방

* 2006년 주소록 기준으로 10개 연회 195지방에 소속된 교회를 무작위로 전화하되 한 지방에 한 교회와는 반드시 통화하여 조사하였다.(미주특별연회와 해외지방은 생략하였다.)

■ 응답자의 직분

① 귀하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교역자	사모	사무원	평신도	계
107	18	29	41	195
54.9%	9.2%	14.9%	21.0%	100%

* 전화 받는 대상을 반드시 교역자로 한정짓지 않았다. 그 이유는 목회자만을 고집할 경우 전화 통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역자 이외의 다른 분들은 지방사정이 어두워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 사경회 실시여부

② 귀 지방에서 올해 사경회를 실시하셨습니까?

예	아니오	계
175	20	195
89.7%	10.3%	100%

* 예상보다 사경회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 그래도 10%의 지방은 사경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사경회를 실시하였다고 대답한 경우

② -1 몇 월에 실시하셨습니까?

지난해 후반기에 실시한 경우도 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86	58	10	1	1	0	0	0	1	8	5	5	175
49.1%	33.1%	5.6%	0.6%	0.6%	0	0	0	0.6%	4.6%	2.9%	2.9%	100%

* 대부분 지방 사경회는 1월과 2월에 몰려(82.2%) 있었다.

* 의외로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하는 교회(10.4%)도 있었다.

올해 사경회 실시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경우

② -2 언제부터 사경회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1년 전	2년 전	3년 전	모름	계
2	13	0	5	20
10%	55%	0	25%	100%

* 사경회를 폐지한 교회가 최근 사이에 점점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사경회를 실시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셨습니까?

전통적인 등급사경회 방법 (1년급 ~6년급, 특별반)	부흥사경회 방법 (년급없이 일괄 수업방식)	기타 방법 (세미나식)	혼합식 (전통+부흥)	모름	계
129	38	2	20	6	175
73.7%	21.7%	1.1%	11.5%	3.4%	100%

* 사경회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사경회라는 이름을 걸고는 아예 부흥성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21.7%). 부흥사경회방법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대부분 지방회자체내에 등급사경회관리대장이 분실 혹은 망실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서대문 지방처럼 철저하게 사경회에 등록된 명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쉽게 등급사경회를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들리는 말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사경회를 개최하기는 했어도 등급을 무시하고 그저 6년간 아무 과목이나 듣기만 하면 수료를 인정해주는 지방도 있다. 또 이미 6년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 방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다. 특별반이 있기는 하지만 그 특별반도 이미 수료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그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다.

■ 교재 사용여부

④ 귀 지방의 사경회 시 본부에서 발간하는 교재를 사용하셨습니까?

사용한 경우

④ -1 교재를 구입하셨습니까? 혹은 판매하셨습니까?

예	아니오	계
118	77	195
60.5%	39.5%	100%

* 60.5%의 교회가 교단 교재를 사용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사경회 교재 판매 부수를 홍보출판국 판매부에 확인을 하였다.

2005년도 2006년도 사경회교재 판매부수

	2005년 교사	2006년 교사	2005년 학생	2006년 학생
1년급	230	255	1,515	1,449
2년급	206	229	1,212	1,210
3년급	220	184	969	888
4년급	180	230	1,027	595
5년급	195	151	825	658
6년급	184	206	832	809
소계	1,215	1,255	6,380	5,609
전도특별반			50	50
특별반1년급			368	329
특별반 2년급			175	272
특별반 3년급			242	202
소계			835	853
총계	1,215	1,255	7,215	6,462

연도별로 다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	학생	계
2005년	1,215	7,215	8,430
2006년	1,255	6,462	7,717

- * 확인 결과 전통적 방법으로 사경회를 실시한 129지방 중 교재를 구입하였다고 대답한 118개 지방의 평균 참석인원을 약 300명으로 볼 때 교재 사용빈도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18\text{지방} \times 300\text{명} = 35,400\text{명(예상참석인원)}$$

$$2005\text{년} : 7,215\text{권(팔린 책)} \div 35,400\text{명(예상참석인원)} \times 100\% = 23.8\%$$

$$2006\text{년} : 6,462\text{권(팔린 책)} \div 35,400\text{명(예상참석인원)} \times 100\% = 18.3\%$$

(참고 - 평균 참석 200명을 볼 때 : 23,600명 2005년(30.5%), 2006년(27.4%))

- * 이로 보건대 교재를 구입하였다고는 하나 참고용으로 구입하였거나 한 반에 10명 중 2-3명 만 교재를 구입하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나머지는 교재를 구입하지 않았고 아마도 강사들이 준비해 온 강의안을 복사해서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사경회를 개최하였으나 교재를 사용하지 않은 지방까지 포함하면 그 수치는 더 낮아진다.

평균출석 300명으로 볼 때 2005년 13.7%, 2006년 12.3%

- * 교사용 교재는 학생용 교재보다 그 사용빈도가 훨씬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아직도 많은 강사들이 참고용이나 강의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8\text{지방} \times 6\text{년급} = 708\text{강좌(개설된 강좌 수)}$$

$$2005\text{년 } 1,215 \div 708 \times 100\% = 171.6\%$$

$$2006\text{년 } 1,255 \div 708 \times 100\% = 177.3\%$$

- * 즉 교사용 교재는 2005년에는 한 강좌를 기준으로 볼 때 1.7권의 책이 팔렸고 2006년에는 1.8권이 팔렸다는 것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지방교육국 총무가 자신이 참고할 ‘전집’과 강사들에게 참고로 나누어줄 각 학년별 1권씩으로 본다면 거의 비슷한 수치이다.(교육부 총무나 강사들 중에는 이미 사경회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④ -2 교재는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자체제작	지방강사재량	메인 강사설교	셀 교육	무응답	계
18	12	38	1	8	77

- * ‘자체제작’이나 ‘지방강사 재량’이라는 말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결국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방강사의 강의내용을 미리 받아 편집하여 내놓으면 자체제작이고, 강사들이 당일 자신의 강의 내용을 각자 알아서 내놓으면 강사 재량이기 때문이다.

- * 무응답은 사경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무원 중에서 사경회 사정을 잘 알 수 없어 대답한 수치인 것 같다. 무응답 8곳도 자체제작이나 지방강사 재량으로 넣어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된다.

다. 그 이유는 사경회를 진행하려면 어떤 모양이든지 교안이나 교재는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보건대 교재를 ‘자체 제작’ 하여 사용하는 지방은 모두 38개 지방임을 알 수 있다.

* 지금과 같은 교재를 계속 발간하는 한 앞으로 본부가 개발한 교재를 사용하는 빈도는 점차 줄어들고 ‘자체제작’ 한 강의안들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III. 결론

사경회실태조사를 통해 새로운 각오를 가지게 된다. 아직도 감리교회를 사랑하고 그 전통을 지키려는 많은 교회와 교역자 그리고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침체되어 있는 감리교회에 부흥과 성장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중 장년 교육부는 2007년도 ‘속회연구원’(C.M.I.)을 통한 속회의 활성화로 감리교회에 작은 희망을 전달하였다.

이제 2008년도에는 감리교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장년교육부는 이제 새로운 사경회의 운영방법과 교재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차세대 교육부

· 부장 이용윤 목사

1 업무 추진 방향

제 27회 총회 입법의회의 결의에 따라 감리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부흥케 하기 위한 특별한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하여 출발하는 차세대교육부는 2008년을 그 원년으로 삼아 다음의 세 가지의 정책을 주요 목표로 삼는다.

첫째 개체교회 청년부 부흥을 위한 정책 : 다음 세대 감리교회는 청년 선교와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해 청년정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수차례의 위원회와 워크숍을 통해 얻은 결과로 가장 시급한 청년목회전문훈련과정을 만들어 제 1기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치었으며, 나아가 인천과 서울 지역에서 청년 리더들을 훈련하는 청년 리더십 학교도 성황 중에 마쳤었다. 위 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올해는 좀 더 다양하고 현장의 필요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한다. 따라서 제 2기 청년 목회 전문훈련과정 제 2기와 연장 교육, 지방 단위로 찾아가는 청년 리더십 학교 등을 실시하며 청년 연합활동과 문화 활동에 관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나아가 청년부에서 사용

할 성경공부 및 제자 양육 교재 개발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둘째 청소년 교육: 사단법인『아름다운 청소년들』을 통하여 펼친 [청소년 평화 세상 만들기] 운동은 지난 해 국토대장정과 영남선교대회 젊은이 축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특별히 화천지회가 수탁한 청소년 수련관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간접선교에 힘을 기울였다. 올해는 사단법인『아름다운 청소년들』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양성에 주력할 것이다.

셋째 개체교회 중고등부 부흥을 위한 정책 : 청소년 인구 감소와 그들에게 매력을 잃어 가는 교회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전환하여 재미있고 매력 있는 개체교회의 중고등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사역자들에 대한 영적 힘의 충전과 교사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치중하기 위하여 지난 해 말 ‘부흥하는 중고등부 전략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감리교 중고등부 교사 훈련학교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2008년도에는 개체교회 중고등부 부흥을 위하여 사역자 및 교사 훈련을 강화하며, 아울러 교회 중고등부 프로그램을 봉사 및 청소년 인증활동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사단법인 아름다운 청소년들과 함께 그 방법과 구체적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② 현황

1) 연회별 교역자 및 개체교회 사역자 현황 (2006.12. 기준)

연회별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전도사	심방전도사	교육사	은퇴회원
서 울	606	95	5	49	209	150	99
서울남	574	69	5	45	195	210	64
중 부	1,104	125	5	83	289	311	86
경 기	720	81	3	76	103	127	47
중 앙	531	77	8	36	92	125	37
동 부	657	68	7	23	42	33	62
충 북	328	38	4	30	22	40	25
남 부	562	72	4	54	91	102	35
충 청	591	49	0	30	37	67	42
삼 남	296	39	0	25	23	30	22
호 남	230	34	3	22	18	12	11
합 계	6,199	747	44	473	1,121	1,207	530

2) 연회별 M.Y.F. 현황 통계 (2006.12 기준)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호남	합계
중등부회	교사	881	890	1,555	791	547	576	293	535	499	302	220	7,089
	학생	7,527	6,887	12,848	6,603	4,989	5,296	2,655	5,766	4,851	2,499	1,855	61,776
고등부회	교사	892	813	1,207	600	448	419	214	426	413	243	154	5,829
	학생	7,137	5,491	9,241	4,836	3,675	3,468	2,027	4,705	3,209	1,826	1,238	46,853
청년회	교사	833	686	650	391	253	250	322	402	347	174	136	4,444
	학생	13,663	12,646	17,210	8,169	5,484	5,364	3,242	7,635	4,365	2,625	2,014	82,417

③ 주요 업무

1) 청년교육

- ① 지난해 새롭게 구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교육정책위원회 연 4회, 워크숍 1회 개최하여 청년목회 전문훈련과 청년 리더쉽 훈련학교을 준비하고 개최한다.
- ② 제 1기 청년목회 전문훈련 과정 이수자 연장 교육 실시; 2008년 2월
- ③ 제 2기 청년목회 전문훈련 과정 실시; 11월 초
- ④ 청년 리더십 학교 확대 실시; 인천지역과 서울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한 2007년 교육에 이어 11월 중 인천, 서울 지역 제 2차 리더십 학교를 실시한다.
- ⑤ 청년 리더십 학교 확대 실시; 2008년 10월 중 원주, 대전 지역 청년 리더십학교 확대 실시한다.
- ⑥ 청년 및 청소년 사역자 훈련을 위한 신학대학원생 세미나 개최; 봄학기- 감신대, 가을학기- 목원대, 협성대
- ⑦ 감리교청년회(감청)과 개체교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지방회와 연회에 감리교 청년 연합회가 조직되고 협력하여 감청 활동이 대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
- ⑧ 청년 교육교재(성경공부, 제자 훈련, 양육 훈련)를 준비하여 2009년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한다.
- ⑨ 감청이 주관하는 제 3회 농촌 체험 수련회 “내 생애 완전 아름다운 일주일” 지원한다. 8월초 실시
- ⑩ 개체교회 청년부에서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그램 준비한다.

2) 청소년 교육 정책

- ① 청소년 사회 안전망과 청소년 자체의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청소년평화 세상 만들기」 운동을 계속 추진한다.
- ② 사단법인 「아름다운 청소년들」을 통해 국가가 인정하는 청소년 지도사 양성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사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연 2회
- ③ 사단법인 「아름다운 청소년들」을 통해 개체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와 활동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1월 중순 1회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반 시설 확보와 방법론을 전국 교회에 홍보한다.
- ④ 화천 청소년 수련관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화천 산천어 축제를 통해 지역 청소년 활동 지원과 감리교회 및 감리교회 청소년 활동을 알리는 홍보 작업을 실시한다. 1월 중
- ⑤ 제 1기 실사한 결과에 따라 전반기(5월 예정) 제 2기, 후반기(10월 예정) 제 3기 중고등부 교사 훈련 학교를 실시한다.
- ⑥ 중고등부교사 훈련학교 지방 개최를 검토하여 연 1회 대전 지역에서 실시한다. 11월 예정
- ⑦ 청소년 단기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⑧ 청소년 주말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한다.
- ⑨ 영어 교육 교재를 개발한다.
- ⑩ 중고등부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체교회에 제공한다.

3) 유학생 신앙 지도

- ① 미래 평신도 전문 지도력 양성을 위한 KOMESA 지역대회를 지원한다.
제 3회 유럽대회 로마(혹은 베니스) 2008년 7월 28일(월) - 31(목)

4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회장)	위원	비고
학원선교회	김종훈	56개 회원교회 담임목사	
청년정책위원회	정병한	양민호, 김경호, 김규현, 김동녁, 김동준, 김영석 노광현, 문상욱, 정현영, 조세영, 현철호	
청소년정책위원회	박명홍	김제봉, 김완수, 류지현, 문대식, 박정민, 박상규 양원석, 양희만, 오성우, 우민수, 함창진	
청년관장협의회	나선호	김명기, 윤정호, 박봉규, 김준희, 최정규	

5 정책소고

“청년목회 전문사역자 훈련과 청년교회세우기”

이용윤 목사

I. 서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청년 선교 현장의 변화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 변화는 청년들이 교회에 매력을 잃고 떠나가고 있으며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청년들의 교회에 대한 적대적 의식도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변화는 어느 정도 지난 역사 동안의 교회의 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함과 젊은이들에게 다소 폐쇄적 경향을 보인 측면도 없지 않다. 또한 교회에 남아 있는 교회에 대한 열정과 애정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교회의 가중한 일에 지쳐가고 있다. 우리 감리교회는 지난 역사 동안 청년운동의 핵심의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현재 에큐메니칼 진영이나 복음주의 교회 중심의 어떤 경향에도 전과 같은 선도적인 위치에 있지 못함은 물론 그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나아가 청년목회 전문가를 이야기할 때 감리교회를 대표할 만한 청년목회 전문사역자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우리 감리교회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며 청년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관심, 열정을 지닌 목회자들을 양육하는 것이다. 청년목회 전문 사역자들을 양육해 나가기 위하여 짜임새 있는 교육과 훈련이 절실하다.

이렇게 양육된 청년목회 전문 사역자들은 개체교회에서 청년들의 성향과 비전, 특성과 동류 의식을 기본으로 하는 자신들만으로 구성된 청년 특성화 교회를 세워 감리교회의 신기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리교회의 미래는 청년들이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받고 교회의 허리를 튼튼히 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차세대 교육부의 2008년 야심찬 계획은 청년목회 전문 사역자를 양성하고 네트워킹 하는 일과 이들을 통한 청년 특성화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실행 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가도록 하려고 한다.

II. 본론

지난 2007년 초에 청년목회에 관심과 실력 있는 목회자들로 ‘청년목회 정책위원회(위원장 : 정병한 목사)’를 재구성하였다. 4차에 걸친 정책회의와 2차에 걸쳐 워크숍을 실시하여

‘현재 개체교회에서 청년부흥을 위하여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였다. 이에 ①교재개발 문제 ②청년리더 양육훈련부재 ③청년부 영성 수련회 ④청년전문 목회자 양육 등의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결과 그 첫째는 청년전문 목회자 양육이었고, 둘째는 청년리더 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지난 2007년 11월 19일(월)~22일(목), 홍천 대명 비발디파크에서 유기성, 하정완, 김병삼, 고직한, 전경호, 장완익, 조세영, 김동녁, 임재웅, 현철호 외 국내 최고의 강사를 모시고 청년목회 전문 훈련과정 제 1기를 실시하였다. 총 9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참석한 이들은 많은 도전과 충격을 받았다.

이제 2008년에는 이를 더욱 보강하고 개선하여 진행한다. 첫째, 청년목회 전문 훈련과정 제 1기 참가자에 대한 네트워킹을 개설하여 자체적으로 양육하여 훈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다. 즉 위 청년목회 전문 훈련과정 1기를 수료한 74명의 수료자와 15명의 정책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청년목회 사역자들의 정보교환과 상호 협력을 위하여 청년목회 사역자들 네트워크를 요청한 바 2008년 1월 중 일단 인터넷 상의 네트워킹을 실시한다.

둘째, 청년목회 전문 훈련과정 제 1기 참가자 연장 교육 및 워크숍을 개설한다. 제 1기 훈련과정 후 설문한 결과 연장 교육에 참석하겠다는 응답자가 100%에 달하므로 그 필요는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이들을 위한 연장 교육을 2008년 2월 중 실시한다. 나아가 이들을 포함하여 현재 청년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워크숍도 4월 중 실시한다.

셋째, 청년목회 전문 훈련과정 제 2기 실시한다. 설문 조사에 위하면 2007년 실시한 것과 같은 11월 중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그 결과를 내어 11월 중에 제 2기 훈련을 실시한다.

넷째, 청년목회를 위한 신학대학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청년목회와 아울러 청소년(개체교회 중 · 고등부)사역도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이들을 지도하고 영향력이 있는 것은 목회를 준비하고 개체교회에서 견습하고 있는 신학대학원생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2008년 봄 학기 중 감신대학원에서, 가을 학기에는 목원대학원과 협성대학원에서 신학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학대학원생 대상의 청년(청소년) 목회 세미나를 실시한다.

다섯째, ‘청년 교회 세우기’ 세미나 개최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현재 청년부가 괄목상대하게 부흥하는 교회는 청년 특성화 교회(이하 청년교회)를 교회 자체 내에서 분리하여 청년들만의 교회를 세운 선한목자교회, 용두동교회, 아현교회, 정동제일교회 등이다. 위 교회들의 청년 담당 목회자들은 모두 우리 교육국 정책위원들이며 이들이 지난 제 1기 청년목회 전문 훈련과정에서의 컨설팅은 가장 인기가 좋았으며 더 깊고 넓은 자문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청년 교회 세우기’ 세미나를 5월 중 개최하고 그 이후 ‘청년 교회’ 창립과 운영 등 모든 것을 계속 컨설팅해 나갈 것이다.

본부와 교육국의 장단기 계획과 관련하여 첫째, ‘청년목회 전문 훈련과정’이 매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청년목회 전문 훈련과정은 1회성으로 끝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없다. 그러므로 적어도 10년 이상 매해 이 훈련과정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둘째,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청년목회 전문 훈련과정 참가자 연장 교육 및 네트워킹은 반드시 필요하다. 위 청년목회 전문 훈련과정을 마친 이들에 대하여는 이론 및 방법론에 대한 계속적인 연장 교육이 필요하여 이들에 대한 연장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이들이 현장 교회에서 경험하고 실시하여 성공 혹은 실패한 일들을 나누는 정보교환을 위한 네트워킹도 반드시 지속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또한 지난 제 1기 교육의 2/3의 강사는 타 교단 청년 전문 목회자들이었다. 청년전문 목회자 훈련과정과 연장 교육, 네트워킹을 실시하여 우리 감리교회 안에서 청년부를 부흥케 하는 목회자는 물론 이론 전문 훈련과정의 강사로 참여할 수 있는 인재도 발굴하여 나갈 것이다.

셋째, ‘청년 교회 세우기’ 세미나 및 컨설팅이 지속되어야 한다. 청년목회 전문가 양성에 있어 가장 큰 장애는 개체교회 담임목사들의 의식이다. 청년부를 따로 떼어 내면 이들로 인하여 교회의 비토 그룹이 되거나 교회 헌신하는 일에 대하여 헌신하지 않을 것을 우려한다. 이러한 잘못된 의식을 극복하고 청년 교회를 세워 청년 부흥의 초석을 다지는 일은 ‘청년 교회 세우기’ 세미나의 지속과 컨설팅을 계속해 나감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다.

III. 결론

교회의 허리가 되는 청년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그들의 고민과 현실적인 아픔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 그들의 특성을 알고 대처하는 청년목회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청년목회 미래에 대한 제 일의 과제이다. 이미 2007년도는 청년목회 전문 사역자 훈련을 시작으로 그 초석을 놓은 해라 할 수 있다. 장정 개정에 따라 차세대교육부로 세분한 교육국 업무 분화는 더 치밀하게 더 조직적으로 청년목회에 대한 비전 실현을 위한 것으로 위 계획대로 2008년을 실행한다면 청년목회에 대한 인식을 고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양육된 청년목회 전문가들은 개체교회에서 청년들 특유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교회의 시스템을 청년부 부흥에 맞추는 청년교회를 세워 결국 미래 지향적인 모습을 갖추어 나갈 것이다.

교육교재부

· 부장 이화식 목사

① 업무 추진 방향

21세기 선교의 새 패러다임으로서의 어린이 교육

19세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여 20세기를 거쳐, 선교의 제 3세기를 맞고 있는 한국개신교회는 이제 그 선교정책에서 방향전환의 새로운 결단을 하여야 할 때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선교의 구조에서, 지금까지는 수평적 선교에 치중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수직적 선교에 힘을 집중하여야 할 때인 것이다. 수직적 선교란 다름 아닌 어린이 선교, 곧 교육선교를 뜻하는 것이다. 어린이 교육이 곧 교회의 미래 선교이다. 복음의 공간적 확대가 지난 세기 한국교회의 중점과제였다면 이 새로운 세기에는 시간적 확대로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에 교육은 미래조성 능력을 의미한다. 교육이 없다면 미래도 없다. 올바른 교회교육이 없다면 교회의 미래는 없다.

오늘의 세계는 소위 급속한 세계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경제, 하나의 문명, 하나의 문화로 통합되어 가고 있거니와 이 하나의 미래세계가 어떤 종교와 문화로 정리될지는 오늘의 교회가 지니고 있는 가장 중대한 선교적 과제라고 생각된다. 오늘의 교회는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하나의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전력을 다해 선교를 계획하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 교육은 우리 시대에 주어진 새로운 희망 선교이다.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세상이, 어린이 교육을 통해서 복음에 기초한 건강하고 희망찬 새 세상이 되도록 교회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지금은 어린이 교육을 교회의 선교 제 1순위에 놓아야 할 때이다.

② 현황

1) 1998-2007년도 별 교회학교 현황

연도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영아부	학생	14,905	15,990	15,990	16,515	19,313	19,101	20,998	20,801	17,200	15,564
	교사	1,823	2,229	2,035	2,229	2,181	2,360	2,534	2,593	2,652	2,706
유치부	학생	56,646	58,294	58,294	58,727	59,825	58,346	59,587	58,965	51,120	50,904
	교사	7,471	6,091	6,091	8,114	8,270	8,132	8,244	8,338	8,621	8,548
유년부	학생	84,217	85,804	85,804	84,509	90,459	89,249	70,450	74,229	69,463	69,198
	교사	12,040	12,051	12,051	12,206	12,474	12,316	9,755	10,381	10,893	10,968
초등부	학생	87,328	88,139	88,139	87,188	92,932	91,931	84,961	85,620	77,650	75,681
	교사	12,802	12,864	12,864	14,166	13,121	12,961	11,268	11,283	11,261	11,311
소년부	학생	243,096	248,227	248,227	246,939	262,529	258,627	235,996	32,307	34,249	32,667
	교사	34,136	27,150	33,041	36,715	36,046	35,769	22,056	4,228	4,761	4,725
소계	학생	243,096	248,227	248,227	246,939	261,790	257,879	235,795	271,922	249,682	244,014
	교사	34,136	33,041	33,041	36,715	35,775	41,028	31,763	36,823	38,188	38,258
중등부	학생	66,120	63,417	63,417	58,245	57,041	57,700	58,829	60,914	61,948	61,776
	교사	6,850	6,535	6,535	6,387	6,430	6,255	6,436	6,603	6,909	7,089
고등부	학생	74,779	53,391	53,391	50,452	51,608	48,387	46,948	47,764	47,923	46,853
	교사	5,605	5,788	5,788	5,490	5,560	6,168	5,431	5,556	5,832	5,829
청년부	학생	60,197	63,197	63,197	64,597	67,915	69,412	72,324	77,132	77,941	82,417
	교사	3,036	3,122	3,122	3,148	3,019	3,618	3,256	3,276	3,533	4,444
소계	학생	201,096	180,005	180,005	173,294	175,426	174,465	178,128	185,810	187,812	191,046
	교사	15,491	15,445	15,445	15,025	15,007	16,030	15,753	15,435	16,265	17,362
청장년부	학생	43,997	38,950	38,950	37,060	37,606	39,315	51,985	47,538	47,636	48,989
	교사	1,456	1,462	1,462	1,581	1,548	1,849	1,823	1,986	2,191	2,268
장년부	학생	132,408	163,607	163,607	129,846	135,357	149,806	136,764	131,698	122,384	134,463
	교사	3,743	5,801	5,801	5,417	6,015	5,962	3,826	5,311	4,235	4,748
노년부	학생										28,126
	교사										1,054
소계	학생	176,405	202,557	202,557	166,906	172,963	184,579	188,393	179,236	170,020	211,578
	교사	5,199	7,263	7,263	6,998	7,565	7,820	5,650	7,297	6,426	8,070
총계	학생	641,287	630,789	630,789	587,139	610,179	616,923	602,316	636,968	607,514	646,638
	교사	54,826	55,738	55,722	58,738	58,347	64,878	53,166	59,555	60,879	63,690

③ 주요업무

1) 아동교육정책

어린이를 교회의 중심에 세우므로 교육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져서,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려는 것이다. 어린이를 단지 피교육자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선교와 봉사 사역의 주체로 세우며, 어린이들의 찬양과 율동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동하는 힘이 공동체의 진정한 희망이 되게 한다.

- ① 교회학교 운영에 어린이들이 단지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주체로서 참여하게 한다.
- ② 분반교실 운영을 교사 중심이 아니라, 어린이 중심으로 운영하게 한다.
- ③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 단계에서부터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여 이끌어 가도록 돕는다.
- ④ 아동교육정책위원회의 운영 : 아동교육 관련 학자, 전문가, 실무자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최근 교회들의 아동교육현황을 분석하고, 새로운 방향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게 한다.
- ⑤ 놀이를 통한 어린이 공동체 영성 훈련의 프로그램 개발.
- ⑥ 영유아를 위한 예배 프로그램의 개발.
- ⑦ 주 5일 수업제의 확대로 주말.

2) 교사교육정책

한 조사 연구에 의하면, 교회학교 학생 수 감소요인으로 교사 48%, 주변 환경 47%, 프로그램 42%, 교회시설 17%, 학부모 16%로 나타나고 있어 교사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동교육정책에는 교사교육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학습자 주도의 교육을 한다고 해도 교사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다.

- ① 교사 영성수련회 : 1월에 전국 단위 교사 영성수련회를 교회학교 전국연합회가 주관하여 하고, 상반기 동안에 각 연회교회학교 연합회가 연회단위로 영성수련회를 주관하여 개최하게 한다.
- ② 교회학교 교사양성 프로그램 (교사대학) : 교사대학교육 과정은 2 단계로 하되, 기본과정 10과목, 전문 과정 10과목으로 구성한다. 지방교육부가 주관하는 연합 교사대학을 적극 권장하고, 개 교회와 연회 연합 교사대학도 지원한다.
- ③ 교사 강습회 : 하반기에 부흥하는 교회의 성공적인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는 교회의 실용적인 강습회를 연회 또는 권역별로 준비하게 한다.

- ④ 모범교사 수련회 : 9월 중순,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전후하여, 각 연회에서 선발된 25년 이상 교회학교 모범 장기근속 교사들을 모아서 여행프로그램으로 격려하며, 그들의 고백적 경험담을 모아서, 자료화하고, 정책에 반영도록 한다.

3) 교육과정연구 정책

교육과정은 교육의 내적 설계도(software)이다. 그러므로 교육을 혁신하려면 교육과정에 대한 끝임 없는 연구와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과정의 개발에는 크게 총론 부분과 각론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총론 부분은 전체 교회교육의 목적과 신학적 기초, 교육 내용의 범주 구성과 교육의 방법 및 평가의 문제를 다루고, 각론의 경우는 교회학교 각 부서 별 교육 목표와 연령층에 맞는 교육방법, 및 연도별 학습 주제와 성서 본문의 배열 등을 다루게 된다. 2007년에는 감리교교육과정의 총론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2008년에는 각론 부분을 부서 별로 전면 개정해 나갈 것이다. 우선 유년부와 초등부의 교과 과정을 만들어 2009년부터 사용될 새 교재의 개발에 대비할 것이며, 영유아부와 중고등부의 교육과정도 새롭게 만들어 갈 계획이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한 번 만들어진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평가와 반성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전면적으로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교육프로그램 개발 정책

① 모델교회학교 자료집 발간 및 교회학교 부흥 박람회

예견되는 교회학교의 지속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성장하는 교회학교 모델을 발굴하여, 홍보함으로 모든 교회들에게 용기를 주며, 한편 그 특징적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성공적인 교회학교 부흥운동을 전개하는 데 도움을 주려 한다. 앞서가는 교회들의 성공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다른 교회들이 배우고, 꼭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교회에 맞게 고쳐서 적용할 기회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 2007년, 지방교육부 총무들을 통한 대상교회 선정을 위한 자료 수집.
- 대상 교회 확정. 취재원 확보. 예산 확보.
- 2008년 1월~12월 : 신앙과 교육 편집기획과 연계하여, 매월 한 교회를 집중 취재 소개한다.
- 2008년 10월, 12개 모델교회, 교회교육 프로그램 자료집 발간.
- 2008년 11월, 출판 감사예배 및 교회학교 부흥 박람회 개최

② 주말- 주중 교육 프로그램

본격적 주말 휴무 시대를 맞아, 토요일과 주일을 이어 사회적 체험과 신앙의 체험을 연결 시킬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여 보급한다. 현재 개발 중인 “성품교실 교재”를 중심으로 한 주말 성품학교 프로그램과 체험 위주의 “주말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한다.

③ 방과 후 교실 운영프로그램

현재 많은 교회들이 방과 후 교실 운영으로 전도의 효과를 올리고 있다. 보다 체계적인 운영프로그램을 설계하여 교회들에 보급한다.

5) 계절학교 정책

여름성경학교는 여전히 교회교육에 가장 비중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비록 3-5일 간의 짧은 기간의 행사라도 오랜 기간의 준비와 전 교회적인 관심과 참여, 상당한 예산이 투여되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연중교육 사업의 하나이다. 여름성경학교는 전통성이 매우 강한 교회의 사업이지만 시대적 요구에 따라 여름성경학교를 운영하는 방법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호남 선교연회 등 농어촌 지방의 경우에는 개 교회 행사보다는 지방적인 연합행사로 기획, 캠프 여름성경학교로 진행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① 여름성경학교 정책 설명회

- 일시 : 5월 10-11일
- 장소 : 일영 연수원
- 참석자 : 지방 교육부 총부, 교육목사, 교육사, 강사급 교사 등 160명
- 목적 : 2007년 여름성경학교의 정책을 지방 강습회 주체자인 교육부 총무들과 강사급 교사들에게 알리고, 기본 학습의 내용으로 강사를 육성하려 함.
- 2008년에는 정책 설명회를 중부, 남부 등 권역 별 분산 개최 계획 중이다.

②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여름성경학교 준비를 위한 교사강습회는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서는 비교적 권역별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삼남연회 지역에서는 참석하기 어려운 지방이나 교회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정책 설명회를 수도권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분산해서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지방의 교사들 중에 유능한 강사를 발굴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③ 여름성경학교 평가회

보통 9월 초에 여름성경학교 평가회를 갖게 되는데, 좋은 의견들이 광범위하게 수렴되기는 하나 정책에 반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 예를 들자면 교회들은 더 많은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육 자료와 교재를 요청하지만, 예산과 기술면에서의 한계도 있다.

6) 신앙과 교육 정책

“신앙과 교육”은 잡지 성향을 최대한 덜고, 전문 교육 자료집 형태로 발행하기로 하였다. 격월간으로 년 6회 발행할 것이다.

주요 구성은 1)어린이 2)청소년 3)교사 4)집중 기획 5)광고 및 기타로 한다.

4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위원	비고
유아교육정책	김석순	김윤자, 하은희, 김선민, 양윤지 민소영, 나희정	유아교육정책 연구 개발
아동교육정책	손원영	조은하, 최은아, 배 준, 이요섭 박혜선, 김문영	아동교육 정책 연구개발
교사교육정책	여성훈	이상득 한주희, 조영훈, 이상백 이진용, 이효준	교사교육의 정책 연구개발
교육과정 정책	임영택	여성훈, 김홍기, 한동구, 신용대 김형석, 조은하, 손원영, 김철환 이지성,	교육과정 정책 개발연구
계절학교정책	김광일	홍준기, 고현종, 박연훈, 김형석 김영대, 임제택, 박세영, 김은교 황대성	여름성경학교 교육정책 연구
프로그램개발	현인호	손은영, 윤정화, 정연수, 추기화 이영미, 문지희, 박경애, 유민정	교회학교 각종 프로그램 개발연구
율동위원회	한은실	손은영, 안은경, 이경희, 신영옥 송혜진, 지장원, 최영희, 고영희 이세영	각종 율동 안무 창작 및 보급
음악위원회	이보철	이천진, 김용준, 김용화, 심명복 최수민, 함소영, 이은정, 안유리	노래와 친양 창작 및 보급
교재개발실 운영위원회	정판수	권종호, 김승룡, 김진홍, 김형석 김철한, 남근형, 오근종, 원종휘 임준택, 현인호, 최상용	

5 정책소고

“감리교 새 교육과정의 개발과 그에 따른 새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이화식 목사

I. 서론

감리교회가 다시 세상의 희망이 되려면, 감리교 신앙의 정체성과 웨슬리 영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 초기 감리교 부흥의 본질적 역동력을 회복하려는 희망프로젝트는 2006년 11월 횡성에서 모인 “희망프로젝트를 위한 정책대회”에서, 희망프로젝트의 교육부분 정책을 채택하였다. 그중에서도 1) 영적각성과 영성회복에 중점을 둔 새 교육과정의 개발 2) 영적각성과 영성회복을 강조한 교육 주제와 교육정책의 수립 등이 교육국의 새로운 정책과제로서 전면에 부각되었다.

2007년 교회교육부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주력하였다. 감리교 3개 신학대학의 관련 교수들을 비롯하여 전문적 소양을 갖춘 목회자들로 구성된 교육과정정책위원회는 계속된 연구 발제와 장시간의 토의를 거쳐서, 감리교교육의 신학적 기초와 교회교육의 목적과 목표, 구조와 내용들을 정리하였고, 연령층별, 부서별 교육목표와 방법들을 정리하였다. 교육과정의 총론 부분을 완성한 것이다.

감리교 새 교육과정은 2009년부터 적용될 감리교 교육의 종합적 설계도이다. 앞으로 개발될 모든 감리교 교육의 정책과 교재와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지침서로서 역할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새 교육과정을 만드는 일은 그리 간단한 작업만은 아니다. 2008년에는 연령층별로 이루어진, 교회교육의 각 부서별 교과과정을 만들어 가면서, 2009년부터 본격 적용될 감리교 새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들을 적극 개발하게 될 것이다.

II. 본론

1) 새 교육과정의 의미

교육과정은 교육의 내적 설계도(software)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질적 개선은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의 한국감리교교육은 대략 3차의 교육과정을 거쳤다고 정리해 볼 수 있다.

제 1차 교육과정은 교회연합(ecumenical) 교육과정 시기(~1979)이다. 이 시기는 한국감리교회가 대한기독교교육협회와 공동으로 개발한 교육과정 곧 통일공과 및 계단공과를 사용하던 시기이다. 제 2차 교육과정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신학에 근거하여 개발된 <하나님-세계-교회> 교육과정 시기(1980-1996)이다. 그리고 제 3차 교육과정은 성서 및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중시하면서 개발된 <말씀과 성화> 교육과정 시기(1997-2007)이다.

이제 한국감리교회는 21세기라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맞이하여 감리교회의 신학적 특성을 반영한 새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금번 새로 개발된 교육과정은 감리교 제 4차 교육과정으로서, 21세기 한국감리교회가 다시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하여, 감리교 신앙의 정체성과 웨슬리 영성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종합교육설계라고 할 것이다.

2) 새 감리교 교육과정의 교육목적과 표제, 목표

새 감리교 교육과정의 교육목적은 웨슬리가 의도하였던, “완전한 그리스도인”을 육성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새 교육과정의 표제를 “은총과 성화의 교육과정”이라 명명하였다.

“은총과 성화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 ①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교재 등 교회교육의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다.
- ② 교육방법을 혁신하는 것이다.
- ③ 감리교교육을 받은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사람들”로서, 감리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다시 세우게 하는 것이다.
- ④ 감리교회가 신뢰와 호감을 회복하여, 부흥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힘차게 확장된다.

3) 2008년 주요 실천 계획

- ① 새 교육과정 해설서(총론 부분) 출판 보급

가. 각 지방 감리사, 교육부 총무, 교회학교 연합회.

 220개 지방(미주연회 포함)X3=660권

나. 연회 감독, 총무, 교육협동총무, 교회학교 연합회장

 12개 연회(미주연회 포함)X4= 48권

다. 정책위원 및 해설서 집필자용 20권

라. 교재 집필자 교육용 300권

마. 홍보 및 보관용 172권

바. 합계 1,200권

② 연령층별 · 부서별 교육과정의 개발

각 연령층별 · 부서별 교육과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연령층별 · 부서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체 교육과정 위원들이 모여서 함께 정리한다.

가. 영아부 교육과정의 개발

나. 유아부 교육과정의 개발

다. 유치부 교육과정의 개발

라. 유년부 교육과정의 개발

마. 초등부 교육과정의 개발

③ 새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각 연령층별 · 부서별 프로그램 개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연령층별 · 부서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위원들이 모여서 함께 정리한다.

가. 영아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나. 유아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 유치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라. 유년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마. 초등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바. 영유아부 통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 아동부 통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④ 각 부서별 교육교재의 개발

가. 아동부용 주일공과의 개발 계획 - 2008년

나. 아동부용 주말-주중 교재의 개발 - 2008년

다. 유치부용 주일공과의 개발 - 2008년

라. 영유아부용 주일공과의 개발 - 2009년

4) 새 교육과정 해설서(각론 부분) 출판 보급

각 연령층별 · 부서별 교육과정의 개발이 완성되고, 새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일부 이루어지고, 각 부서별 교육교재의 개발이 이루어진 후에, 지속적인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을 위하여, 새 교육과정 해설서(각론 부분)를 출판 보급한다.

- ① 각 지방 감리사, 교육부 총무, 교회학교 연합회.
220개 지방(미주연회 포함)X3=660권
- ② 연회 감독, 총무, 교육협동총무, 교회학교 연합회장
12개 연회(미주연회 포함)X4= 48권
- ③ 정책위원 및 해설서 집필자용 20권
- ④ 교재 집필자 교육용 300권
- ⑤ 홍보 및 보관용 172권
- ⑥ 합계 1,200권

III. 결론

교회공동체는 어린이를 인격체로서 형성시키는 어머니의 태와 같다. 어머니의 태는 부모를닮은 아기의 몸을 형성해 내듯이, 교회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닮은 어린의 인격을 만들어낸다. 나무가 자라면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자라면서 종교의 잎, 문화의 꽃을 피우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어린이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형성시키는 것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 형성된 어린이의 인격이 새로운 세상의 성격, 곧 우리의 미래사회의 모습을 만들어 낼 것이다. 어린이 교육은 교회의 가장 궁극적 사명이다. 지금은 교회들이 어린이 교육에 관심을 집중하고 투자를 모을 때이다. 우리가 어떤 성격의 어린이를 양육해 내느냐에 교회의 미래만이 아니라, 세상의 미래가 달려 있다. 유태인들의 메시아 대망의 신앙은 유대인 어머니들의 자녀 교육에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 어린이 교육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의 실천이다.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자리 잡게 하기 위하여 교회는 존재 하는 것이다.

우리가 새롭게 준비하고, 시작하려는 “은총과 성화의 교육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자신의 성품으로 받아들이게 돋는 모든 활동과 체험 속으로 어린이들을 인도해 줄 것이다. 오직 감사와 기도로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믿고 따라갈 것이다.

사회평신도국



평신도부

사회봉사부

사회복지부

총무 인사



총무 엄마리 장로

“신실한 사람들,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로 자리 매김하기 위하여 오늘도 전국 각처에서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교역자님들과 평신도 지도자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부족한 교제가 새 임기를 시작한 후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충실한 일군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회평신도국은 “영적 각성으로 거듭나는 평신도”라는 주제 아래 감리회 전체가 모이기에 힘쓴 부산 ‘영남선교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국의 평신도들이 앞장서서 협력해 주시도록 노력하였고 이를 위해 전국의 평신도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신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평신도 선교 단체들이 성금을 모아 현장에서 불우 이웃돕기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였고, 자원 봉사자 발대식은 우리 평신도들의 봉사 마인드를 다짐하는 귀한 일이었습니다. 기존의 정책 위에 발전된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의 실천을 위하여 진지한 각오로 전국 평신도가 마음의 무장을 새롭게 하고 감리교인으로서 생활 실천 운동을 통하여 신실한 사람들, 사회가 인정하는 정의롭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훈련하고 교육하는 실제적인 일들로 지난 2년 동안 사회평신도국이 개설한 평신도대학에서 39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것도 귀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008년을 맞아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평신도”라는 주제를 세워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평신도가 우리 사회에서 주님의 사역에 능력있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사회평신도국 신년 정책을 여러분께 내어 놓습니다. 기존의 정책 위에 필요한 부분을 보강한 정책으로 자리 매김 하기를 희망합니다. 우선 급선무가 자원 봉사자 발대식을 통하여 결단한 평신도들을 자원 봉사자 학교를 통하여 훈련받도록 10개 연회가 시행을 맡아 주기를 협의하고 도울 것입니다. 또한 서울에서만 공부했던 평신도 대학을 권역별로 열어 수혜 범위를 넓혀 갈 것입니다. 2007년 10월에 열린 입법의회에서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 사무국에서 사회평신도국으로 직제 개편이 되어 옴에 따라 감리교회가 사회복지를 감당하는 부분도 우리 사회평신도국을 통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특히 원로원을 건축하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내어야 하는 중한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전국의 감리교회가 기도하고 협력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법인은

설립 당시 노인복지로 출발하였기에 더욱 급증하는 노인 인구들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사회봉사부에서 하던 노인대학 강사 세미나를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기도록 연구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더 좋은 정책들을 만들고 또 전국에 인재들인 감리회 소속 사회복지사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더욱 향상된 정책들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항상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일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로, 격려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희망을 주는 신실한 감리교인이 되도록 노력하기를 다짐합니다.

1. 정책 개요

사회평신도국은 평신도들의 신앙실천운동과 평신도운동의 활성화, 평신도단체간의 협력, 평신도단체와 본부와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감리교회의 사회봉사 및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여 감리교회들이 사회복지사업과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서 평신도들이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평신도국에서는 감리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전도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바르고 신실한 믿음생활을 사회생활 속에 적용하기 위해 ‘감리교인 생활 수칙을 제정하고 이를 전국에 공포하고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6년 5월에 개강했던 평신도대학은 2년의 학습과정을 마치고 2007년 10월에 제 1기 졸업생 39명을 배출하였다. 졸업생들은 우수한 교수진에게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훌륭한 강의였다는 좋은 평가를 내렸다. 또한 2007년에도 평신도단체들의 연합과 협력에 많은 성과가 있어서, 본부에서 주관했던 영남선교대회의 안내도우미와 현금도우미로 평신도단체가 봉사하였고, 특히 영남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돋기 위해 남·여·청장년선교회, 장로회, 여장로회가 성금을 모아 영남선교대회에서 전달식을 가짐으로 영남선교대회를 더욱 빛나게 하였다.

사회봉사부는 청장년선교회와 협력하여 장애인가정, 독거노인, 미자립교회 등 저소득가정 집수리 봉사활동을 지난 4년 동안 실시하여 지역사회에서 전도환경을 조성하여 선교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다. 2007년에는 주택 3채 신축, 교회 1채 건축, 주택 개보수 1채, 화장실 1채를 건축하는 기술자원봉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희망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봉사단’의 조직과 활성화를 위해 희망봉사단 규칙을 제정하였고 2007년 연회 시 연회별 희망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영남선교대회 시 ‘전국 희망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여 전국적으로 희망봉사단의 출범을 알림으로 연회와 지방의 희망봉사단 조직 활성화와 자원봉사의 봄을 조성할 수 있었다.

2008년에 사회평신도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평신도’라는 주제 아래 평신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교회와 가정과 사회속에서 감리교인들이 생활수칙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할 것이며, 평신도지도자 육성을 위한 ‘평신도대학’도 권역별로 실시하여 많은 평신도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희망프로젝트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희망봉사단 조직’과 지방 활성화를 위해 연회와 협력하여 연회별 희망봉사학교를 개설해 희망봉사단 조직과 운영방안과 사례교육, 자원봉사 기본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한다.

① 주제

총 주제 : 화평의 복음을 지키고 행하는 평신도

2008년 주제 :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평신도

② 주제 성구

1) 총 주제 성구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신 28:1)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행 10:36-38)

2) 2008년도 주제 성구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딤전 6:18-19)

③ 주제 해설

I. 서론

교회역사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사람이 일한 결과가 아니라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결과였다. 초대교회사를 비롯해 한국 초기교회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하셨다.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사람을 움직이신 것이다. 성령께서 지시하셨고, 사람을 만나고 찾아가게 하셨다. 따라서 오늘의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다하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열매 맺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대과학기술 문명과 산업화 시대가 나타내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영적인 삶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II. 본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保惠師) 성령은 우리 삶을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성령은 우리의 인격 속에 예수의 인격과 삶이 나타나게 하신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의 죄된 본성과 욕망을 통제할 수 없다.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켜 능력 있는 삶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많은 영성전문가들이 21세기를 영성의 시대라고 진단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가, 참선, 명상 등을 통해 일종의 영적 현상들을 경험을 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21세기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이 현대인들에게 대체종교욕구를 갖게 만들었다. 세상은 영성을 찾고, 복지국가를 외치며,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지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진정한 영적인 삶은 불가능하다.

토저(A.W. Tozer)는 “현대인의 삶의 문제는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모난 인격이 다듬어지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심령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 인격적이신 성령이 오시면 위로와 치유, 변호, 중인이 되어주시고 용기를 주신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인간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인류 역사상 과학 기술은 뇌보한 시대가 없었다. 더 새롭고 좋은 것을 발견하고, 발명해서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왔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삶은 공허하며 무엇인가에 의존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돈에 의존하는 사람, 알코올과 니코틴에 의존하는 사람, 휴대전화에 의존하는 사람, 이메일에 의

존하는 사람, 건강식품에 의존하는 사람 등 다양한 것에 의존해서 살아간다.

인간의 행복과 올바른 삶을 실현하는 길은 성령의 능력에 있다. 성령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의 영성을 실천하게 하신다. 성령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자신의 재물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리스도인은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까지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교제해야 한다(행 2:42-44, 4:34-37).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영성이다.

III. 결론

한국교회가 선교 상황이 점차 나빠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 곳에서 감지할 수 있다. 초기 한국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민족의 등불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기독교에 대한 사실들이 왜곡된 가운데서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 한국교회가 영적 각성을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영적 권위를 회복, 시대의 예언자 역할로 희망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때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평신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주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중점 실천 목표

- 1)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회개하는 평신도
- 2) 영적 각성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평신도
- 3)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모범을 보이는 평신도
- 4)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증인되어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평신도

2. 국위원 및 이사

1) 사회평신도국 위원

위원장	박영준		
위원	연회	교역자	평신도
	서울	양총재	장석구
	서울남	이종진	이학구
	중부	정옥성	김진열
	경기	정명기	현명자
	중앙	김정권	안명구
	동부	원종국	심인섭
	충북	김종문	김형순
	남부	허복수	설동무
	충청	최운석	서충효
전문위원	유영설, 문형배, 김임술		

2) 사회복지재단 이사

이사장	신경하		
이사	연회	교역자	평신도
	서울	윤병조	홍성호
	서울남	김산복	최은영
	중부	천무엽	강희춘
	경기	이승우	최이성
	중앙	노수우	김임술
	동부	이상운	한주석
	충북	전광석	박영련
	남부	전찬식	이춘우
	충청	고창수	박병희
	삼남	신완철	강영희
	복지시설	원용철	
감사	이광호		정하모

3. 업무구분

부서	업무
총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평신도국 정책 개발 2. 지방 총무 지도력 개발 3. 평신도단체 유기성 극대화 4. 임직원 전문 교육훈련 5. 평신도단체 기능 확대 6. 희망프로젝트 7. 국위원회 8. 정책자문위원회 9. 사회문제대책위원회 10. 컨설팅위원회
평신도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신도주일 성수 2. 감리교인 생활실천운동 3. 평신도단체 활성화 정책 개발 4. 평신도단체 임원 연합 연수 5. 차세대 지도자 양성 6. 평신도단체 지방활성화 7. 평신도 프로그램 연구 8. 평신도부 업무 실무
사회봉사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봉사단 조직 및 전국사회봉사단대회 2. 사회봉사 특별프로그램 3. 사회봉사 및 복지정책 4. 사회복지기관 지원 5. 교역자 보건주일 성수 6. 초교파 연합 사회복지정책 협의 7. 불우이웃돕기 및 재해기금 모금 8. 사회봉사부 업무 실무
사회복지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하시설 관리지도 2. 법인회계 및 제반 행정과 문서관리 3. 사회복지시설 설치, 상담, 수탁업무 4. 봉사활동인증센터 운영 5. 원로원관리 및 원로목사 복지실 관리 6. 사회복지재단 이사회 등 회의업무 7. 사회복지재단 발전연구 업무

4. 발간 자료

1) 2007년 발간 자료

번호	구분	제목	내용	비고
1	공과	평신도 월례회공과	남선교회, 청장년선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거나 모임을 가질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평신도국 연도별 주제에 맞춰서 공과를 발간한다. - 2008년 제목 :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평신도” - 발간부수 : 5,500부	매년
2	자료집	평신도주일 자료집	전국 각 교회 및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들에게 평신도 주일 성수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양식들을 제공하여 평신도주간과 주일을 올바로 지키도록 돋는다.	매년
3	리플렛	감리교인 생활수칙	감리교인들이 바르고 신실한 믿음생활을 사회생활 속에서 적용하도록 ‘감리교인 생활수칙’을 제정하여 보급해 감리교회 평신도들이 수칙을 지키도록 돋는다.	2007

2) 기존 발간 자료

번호	구분	제 목	내 용	비고
1	자료집	사회복지편람	2001년 현재 감리교 사회복지시설 현황	2001
		사회복지시설 안내서	2005년 현재 감리교 사회복지시설 현황	2005
2	공과	평신도 월례회공과	2007년 제목 : “영적 각성으로 거듭나는 평신도” 2006년 제목 : “세계감리교회와 함께 가는 평신도” 2005년 제목 : “웨슬리의 후예, 평신도” 2004년 제목 : “빛이 되는 사람들” 2003년 제목 : “믿음은 이렇게”	매년
3	영상물	사회평신도국 사업홍보영상	사회평신도국 주요 사업실적(2002-2006) 보고 및 2007년도 사업계획소개	2006

5. 각 부 정책

평신도부

· 부장 박은애 권사

1 업무 추진 방향

사회평신도국 2008년도 주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평신도”로서 지난 한해 영적 각성과 훈련을 통하여 변화받은 평신도들이 신실한 감리교인으로서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고자 한다. 2007년 감리교인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감리교인 생활수칙’을 제정하여 공포하였으므로 2008년에는 감리교인 생활수칙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동방안을 세우고 추진하여 감리교인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다. 또한 지난 2007년 10월 제 1기 39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평신도대학을 2008년에는 권역별(3-4개)로 개설하여 더욱 많은 평신도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2 현황

1) 평신도단체 및 지방 사회평신도부총무 조직 현황 (2007년 11월 현재)

연회	지방수	조직				미조직			
		남선 교회	여선 교회	청장년 선교회	사회평신 도부총무	남선 교회	여선 교회	청장년 선교회	사회평신 도부총무
서 울	13	13	13	13	13	-	-	-	-
서울남	14	14	14	12	14	-	-	2	-
중 부	29	29	29	23	29	-	-	6	-
경 기	25	25	25	19	24	-	-	6	1
중 앙	19	19	19	14	19	-	-	5	-
동 부	23	23	23	18	23	-	-	5	-
충 북	14	14	14	9	13	-	-	5	1
남 부	19	19	19	10	19	-	-	9	-
충 청	21	21	21	18	21	-	-	3	-
삼 남	21	21	21	14	21	-	-	7	-
계	198	198	198	150	196			48	2

③ 주요업무

1) 평신도 주일 지키기

평신도 주일 지키기는 평신도들이 자신의 신앙과 소명의식을 새롭게 인식하여 평신도 신앙의 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회 행사의 실제적인 주관자가 되어 평신도로서의 위상을 높여 가는 신앙실천운동으로 2008년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의 한 주간을 평신도 주간으로 지키고 그 주간이 끝난 2008년 6월 1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킨다.

2) 평신도 교육 교재 발간

남선교회와 청장년선교회가 월례회나 모임을 가질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주제별로 공과를 발간하고 있다. 2008년도 공과는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 ①성령의 능력으로 성품 훈련하기 ②영성으로 새로워지는 가정 ③영성으로 바로 세우는 생명윤리 ④영성으로 현대사회를 이끌어가는 평신도라는 내용으로 영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엮고 있다.

3) 평신도대학 권역별 운영

2005년 5월에 평신도대학을 개설하여 2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2007년 10월 제 1회 졸업자 39명을 배출하였다.

2008년도에는 평신도대학을 몇 개 권역별로 개설하여 평신도들이 평신도대학을 통하여 배우고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서 신실한 감리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

구분	1 교시 (13:00~13:50)	2 교시 (14:00~14:50)	3 교시 (15:00~15:50)	4 교시 (16:00~16:50)
1학기 (2008년 5,6월)	평신도신학(I)	상담학	기독교와 문화	영성신학
2학기 (2008년 9월)	평신도신학(II)	이스라엘 역사	평신도지도자론	기독교교육
3학기 (2009년 5월)	가정사역(I)	감리교회사	교리와 장정	성막론
4학기 (2009년 9월)	가정사역(II)	웨슬리신학	환경신학	전도사역

4) 감리교인 생활수칙 실천

감리교인들이 생활 속에서 신실하고 바른 복음적인 삶을 실천함으로써 영성을 회복하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생활수칙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동 방안을 마련하여 감리교인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다.

5) 평신도지도자 영적대각성을 위한 훈련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감당하는 평신도지도자들에게 평신도운동이 바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영적인 훈련을 함으로써, 평신도지도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바르게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면서, 교역자와 평신도의 협력 관계를 이루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나눔과 섬김의 사명까지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감리교회 부흥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

6) 평신도 선교단체 임원 연합 연수

평신도 3개 선교단체인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의 임원 연합연수를 통하여 전국 단위의 평신도 3개 선교단체가 상호 정보교환 등 유대관계를 새롭게 하여 사회평신도국의 정책 수행에 협력하고 단체간의 사업교류와 협력으로 목적 사업의 효율을 높이게 한다.

7) 평신도 단체장 협의회

본부와 평신도선교단체가 사회평신도국을 중심으로 감리교의 평신도 운동을 협력해 나가고, 3개 선교회의 연대사업과 정책사업을 개발하여 감리교회의 평신도 선교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한다. 장정외 평신도단체도 필요시 협의회를 구성하여 친목 및 평신도의 단합을 도모한다.

8)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 지도력 개발

사회평신도국이 정책을 개발하고 감리교 평신도들이 나아가야 할 좌표를 설정하며, 그의 실천을 위한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들의 지도력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9) 평신도 차세대 지도자 양성

감리교의 미래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평신도지도자를 어떻게 배양하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별히 세계선교와 세계감리교회를 이끌어 갈 뿐 아니라 통일을 준비하며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키워 복음 사역을 평신도들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10) 평신도 선교단체 지방 활성화 정책 개발

현재 청장년선교회가 조직되지 않은 미조직 지방의 청장년선교회 지방연합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 조직의 활동을 강화시키고 연회연합회의 사업도 활성화 시킨다.

11) 좋은 만남(결혼중매센터) 및 후원회 운영

사회평신도국은 결혼중매센터인 [좋은 만남]을 통하여 결혼 적령기에 있는 교회의 젊은이들이 신앙을 가진 이성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신실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기독교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돋는다. 또한 [좋은 만남] 사업을 돋는 후원회를 조직하여 많은 교회 젊은이들이 건강한 기독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하도록 한다.

12) 세계감리교협의회 및 국내·외 평신도 지도력 교류

한국 감리교회는 에큐메니칼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감리교 평신도들은 국내에 있는 기독교 산하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력을 계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 모임에도 적극 참여하여 한국감리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교회를 위하여 공헌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4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위원	비고
평신도선교단체장협의회		조명동, 임성이, 박선규	
평신도단체장협의회	박경진	조명동, 임성이, 박선규 성봉희, 조중행	평신도 연합사업 협의

5 정책소고

“평신도지도자 육성 방안”

박은애 권사

I. 서론

1) 개요

감리교회의 미래가 평신도들의 바른 신앙생활과 복음전도에 달렸음 절감하고 사회평신도국에서는 평신도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평신도대학’을 지난 2006년 5월에 감리회 본부에 개설하여 제 1기 졸업생 39명을 지난 2007년 10월에 배출하였다. 평신도대학은 우수한 전문 강사진으로 학문적인 신학체계와 복음을 통한 실천적인 삶을 위한 교육과목과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학습하고 평신도지도자들이 감리교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졸업생들에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지방에서 거리, 시간상 수혜받지 못하는 지방 평신도들을 위하여 권역별 2-3개의 평신도대학을 개설해 많은 평신도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리라 본다.

2) 설립 목적

- ① 감리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평신도신학을 정립한다.
- ② 평신도지도자들에게 배움의 터전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③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차세대 지도자를 배양한다.

II. 본론

1) 평신도대학 개설

- ①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분리하고 강좌를 개설한다.

가. 감리회 본부 :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중부연회, 경기연회, 중앙연회

나. 원주 : 동부연회, 충북연회

다. 대전 : 남부연회, 충청연회, 삼남연회

② 교육기간

평신도대학은 2년(4학기)제, 총 16주(학기당 4주, 주 1일 4시간 강의) 수업을 원칙으로 하

며, 지역 여건상 수업 방식은 달리할 수 있다.(집중교육 등)

③ 지원자격 : 세례교인 이상 모든 평신도 (연령, 학력 제한 없음)

④ 입학신청서 : 첨부 양식 참조

⑤ 학생모집

가. 연회와 지방의 협력을 받아 평신도대학 학생을 모집한다.

나. 지방 감리사, 사회평신도부 총무, 개체교회에 평신도대학 학생모집 요강 및 모집 공문을 발송한다.

⑥ 커리큘럼

본부 사회평신도국의 제 1회 평신도대학 커리큘럼을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과목은 변경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 제 1기 평신도대학 교육과목

평신도신학 I / II, 상담학, 기독교와 문화, 영성신학, 이스라엘역사, 평신도지도자론, 기독교교육, 교리와장정, 환경신학, 감리교회사, 가정사역 I / II, 웨슬리신학, 성막론, 전도사역

⑦ 교육강사

본부 사회평신도국의 제 1회 평신도대학 교육 강사를 가능한 재 임용하며, 시간 관계상 강의가 어려울 경우 거리를 감안하여 지역내의 전문 강사를 섭외한다.

2) 평신도대학 활성화 방안

평신도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평신도대학 졸업자에게는 평신도 과정고시 과정의 면제해주는 등 교육 혜택이 주어져야 많은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연수원과 협의하여 교육훈련 과정을 발전 개발시켜 나가 신실한 감리교인을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III. 결론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평신도 수련회와 각종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모두 영성에 중점을 두고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감리교회를 다니고 감리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웨슬리의 영성, 감리교회의 역사, 평신도신학, 전도사역과 같은 구체적인 신앙실천과 감리교회와 감리교인으로서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강의들은 부재하였다.

감리교인으로서 필요한 교육과목을 총제적으로 집중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다면 평신도들은 진정한 감리교인, 신실한 감리교인으로 다시 거듭나 차세대 평신도지도자로 성장할 것이며, 모든 평신도들이 웨슬리의 사회복지 영성을 생활에 실천해 나간다면, 감리교회가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갈 것이며, 감리교회는 또 한 번의 부흥 성장을 이룩할 것이다.

평신도대학 입학신청서

성명 : (한글) _____

(한자) _____

사진

성별 : 남, 여

주민등록번호 : _____

자택주소 : _____

전화 : (자택) _____ (핸드폰) _____

E-mail : _____

출석교회 : _____ 연회 _____ 지방 _____ 교회 _____

직분 : _____

위와 같이 평신도대학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

사회봉사부

· 부장 선철규 권사

① 업무 추진 방향

사회평신도국 사회봉사부는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가 ‘사회봉사 일체화’를 이루고, 감리교회와 감리교인들이 웨슬리의 사회복지 열정을 이어 받음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의 곁에서 나누고 섬기는 봉사의 삶을 통해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하여 인정받는 감리교회가 되는데 목적을 두고 사회봉사정책을 마련하여 연회와 지방에서 사회봉사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협력해 가고자 한다. 특히 2007년에는 희망프로젝트 사회봉사일체화의 일환으로 희망봉사단을 조직하기 위해 ‘희망봉사단 규칙’을 제정했으며 영남선교대회 시 ‘전국 희망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여 전국에 ‘희망봉사단’을 각인시킬 수 있었으므로 2008년에는 ‘희망봉사단’의 지방 조직과 운영의 극대화를 위해 연회와 협력하여 자원봉사 훈련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② 현황

2007.11 현재

구분	모금금액	비고
수해피해돕기	82,029,290원	남·북한수해피해(6교회, 5가정, 1기관)
불우이웃돕기	51,707,470원	불우환자 5명, 불우가정 1세대 홀사모장학금, 사회복지시설 38개소 등 지원
합 계	133,736,760원	

③ 주요 업무**1) 컨설팅 팀 운영**

교회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을 갖고 교회를 위하여 시설설립과 운영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감리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운영한다. 여기에서는 사회복지 사업을 통하여 교회와 지역사회가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며 교회의 선교사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돋고, 제반 자료를 감리교 홈페이지

이지에 올려 이용토록 한다.

2) 전국 희망봉사단 운영

① 자원봉사자 교육

전국 희망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나 희망봉사단 운영과 사업을 계획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연회와 공동주관하여 연회별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연회와 지방의 희망봉사단 활성화를 기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감리교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시민의식을 갖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도록 돋는다. 교육 커리큘럼은 감리교 사회봉사 역사 및 자원봉사자 기본이론, 지방 및 개체교회 우수사례 등으로 편성하여 개인과 지방개교회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희망봉사단 후원회 운영

‘전국 감리교 희망봉사단’의 발전을 돋기 위한 후원회를 구성하여 희망봉사단조직과 권역별 자원봉사학교 개설, 희망봉사단 사례연구 사업에 관한 연구와 후원 협력체계 구축하여 감리교 희망봉사단 사업을 돋도록 한다.

3) 자원봉사 꿈나무 영성훈련

감리교 청소년들에게 봉사 마인드를 갖도록 영성프로그램을 개발해 매년 여름방학 기간 중 청소년·소녀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시설에서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4) 기술 자원봉사 실시

사회평신도국에서는 청장년선교회와 연계하여 기술봉사단을 조직하고 장애인, 독거노인, 국민기초생활보호자 등의 주택을 수리해주는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연회는 청장년선교회 연회연합회와 협력해 연회내 불우이웃의 주택을 수리해주는 기술봉사활동을 한 차례 이상 실시함을 권장한다.

5) 교역자 보건주일

자신의 몸을 돌볼 시간적 여유나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교역자를 위하여 사회평신도국이 정책을 세우고 지방 사회평신도부가 교역자 건강검진 실시사업을 주관하도록 하며, 2008년 9월 7일을 교역자 보건주일로 지킨다.

6) 사회문제대책위원회 운영

천재지변 및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재난과 재해를 비롯한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 사회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감리교인이 되어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가 되도록 한다.

7) 불우이웃돕기 · 재난재해돕기 – 창구일원화

사회평신도국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불우이웃들과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재해를 당하여 고통을 받는 교회와 이재민을 도와주기 위한 지원금 모금을 신속하게 전개한다. 또한 불우이웃과 재해재난 돋기 모금 창구는 사회평신도국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재해피해 집계 및 모금운동과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8) 노인복지 종합센터 설립

우리나라는 이미 평균수명 80세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노인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장수한다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때 의미가 있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 감리교회도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고 고령화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여야 한다. 사회평신도국은 건축부지가 마련되면 노인복지 종합센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실비요양센터, 전문요양센터 등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9) 노인대학협의회 지원 육성

① 노인대학협의회 임원회 운영

노인대학협의회 임원회를 운영하여 감리교회 소속 기관과 교회에 속해있는 노인대학의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을 연구하고 이를 보급하며, 분기별 지도자(강사) 세미나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한다.

② 노인대학 지도자(강사) 세미나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의 가장 큰 애로점은 강사를 섭외하는 일이다. 년 2회 노인대학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하여 개교회의 내부 인적자원들에게 전문 강사훈련을 시킴으로 노인대학의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을 준다.

10) 사회봉사 사업 홍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사회봉사 사업을 하고 있는 감리교회들의 선한 일들을 알리고

홍보하여 감리교회에 대한 사회복지 인식을 높이고 복음전파에도 기여한다.

11) 초교파 연합 정책 개발

사회복지 초교파 연합기구의 회원으로 참여하여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결정에 연대하여 대처하고, 중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정보도 상호 교류한다.

4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위원	비고
사회문제 대책위원회	박영준	양총재, 장석구, 이종진 이학구, 유영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 재난돕기 폭설, 태풍 수해, 해외 재해 지원 등· 불우이웃돕기 불우한자, 불우이웃, 사회복지시설, 북한어린이 돋기 등
컨설팅 위원회		유영설, 문형배, 김임술 조명동, 임성이, 박선규 조남범, 이홍철, 김영동 권영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정책 사업 협의· 국 발간 자료 집필· 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자문 역할 : 위탁서류 양식(감리교 홈페이지)· 노인복지종합센터 설립기획(안)
노인대학 협의회	소화춘	송민섭, 신성부, 이성구 최완규, 강정혜, 송석안 박상규, 권영규, 김호수 윤화정, 이용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리교회의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노인대학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대학협의회 임원회- 노인대학 지도자(강사) 세미나- 노인대학 강사 및 정보 공유 (2007 11월 현재 126교회)

5 정책소고

“희망봉사단 활성화를 위한 교육방안”

선철규 권사

I. 서론

1) 개요

감리교회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희망봉사단 조직도 중요하지만 조직을 구성하는 회원들의 마음가짐과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봉사단 기존 회원이나 조직의 확대 및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지도자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훈련과정이 필요하다.

몇몇 연회에서는 연회본부 차원에서 자원봉사 발대식을 갖고도 별다른 성과와 활동없이 조직이 와해되는 것은 자원봉사단의 조직관리가 되지 않았고, 봉자자에 대한 관리 즉, 자원봉사 희망영역의 사회복지시설과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지속적인 자원봉사자 양성이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희망봉사단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실질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목표

- ① 연회와 지방에서 ‘감리교 희망봉사단’을 조직하고 발대식을 개최하도록 한다.
- ② 연회와 사회평신도국이 협력하여 ‘희망봉사학교’를 개설하여 희망봉사단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례 및 자원봉사 훈련교육을 통해 희망봉사단원을 양성한다.
- ③ 1교회 1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홍보한다.
- ④ 1기관(속회) 1가정 돋기 등 자원봉사의 활동 영역을 넓혀 간다.
예) 독거노인가정(집수리, 반찬봉사, 안부전화, 말벗 등)
- ⑤ 희망봉사단의 건전한 봉사활동을 통해 전도환경을 조성하여 선교의 효과를 거둔다.

II. 본론

연회와 지방, 개체교회에서 희망봉사단을 조직하고 그 구성원인 봉사자원을 발굴하고 훈련시키는 것은 봉사단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조직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가능하도록 연회 본

부와 지방 임원, 개교회 담임목사, 사회봉사 부장 등 감리교인의 자원봉사의 이해와 희망봉사단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희망봉사학교 개설

본부 사회평신도국은 희망봉사학교를 연회가 개설할 수 있도록 협력해 간다. 그러나 희망봉사단이 조직되어 잘 운영이 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연회는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① 연회 희망봉사학교 조직

- 교장 : 연회 감독
- 학감 : 연회 총무
- 사무총장 : 교육복지국장 (희망봉사단 규칙 참조)

② 개설 장소 : 연회 본부

③ 수강생 모집 : 연회 감독이 명의로 감리사, 지방 임원, 평신도단체장, 지방 개체교회에 공문을 발송한다.

④ 입학원서 제출 : 희망봉사학교 수강 희망자는 첨부한 입학원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⑤ 교육 커리큘럼 : 사회평신도국은 자원봉사 기본 교육, 봉사단 운영과 사례 등 희망봉사학교 커리큘럼을 마련해 연회가 자원봉사학교를 개설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커리큘럼 예)

- 정부의 사회복지정책과 방향
- 웨슬리와 사회봉사
- 희망봉사단 조직과 운영사례
- 자원봉사의 이론과 실제(역할 사명)
- 대인관계 기술 및 의사소통훈련
- 사회복지분야별 문제와 자원봉사 이해(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 자원봉사 활동 사례
- 기타 필요과목

⑥ 강사 선정 : 감리교 사회복지전문가를 희망봉사학교의 교육 강사로 활용한다.

⑦ 수료자 : 희망봉사학교 수료자에게는 연회 희망봉사단장(연회 감독) 명의로 희망자원봉사자 교육수료증과 희망봉사단원증을 교부한다.

⑧ 기타 : 정부 인정교육기관과 협력을 연계하여 자원봉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안을 모

색한다.

2) 자원봉사자 관리

- 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원봉사인증센타 설립을 인가받아 자원봉사자를 등록 관리하도록 한다.(자원봉사 교육 및 봉사시간 관리 등록)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② 희망봉사학교 자원봉사 교육 이수자는 첨부의 희망봉사단 회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민봉사(지역 환경미화 등), 재가봉사(지역 무의탁 노인 등), 재해봉사 등으로 봉사가능(본인 희망) 분야에 따라 배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봉사가 중요함. (클라이언트의 믿음과 신뢰감 유지)

3) 자원봉사 활동 실시

① 희망봉사학교 교육 참석

개체교회 교역자와 평신도는 연회에서 개설하는 희망봉사학교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는다.

-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희망봉사단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는 자원봉사 사업을 모색한다. (지자체에 가면 사회복지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있다. 사회복지 담당자는 지역의 국민기초생활법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의 실태와 실생활을 잘 알고 있다. 소년 소녀 가장이 많은지, 독거노인이 많은지, 장애인이나 편부모 가정이 많은지 알 수 있으므로 지역의 기초자료를 파악해야 한다)
- ③ 사회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는 기관이나 교회를 방문하여 벤치마킹과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교회의 봉사활동 내역 등)
- ④ 지방과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과 교회의 여건에 맞는 사회봉사 사업을 선택한다. (1교회 1사회복지시설 운영/1기관(1속회) 1가정돕기 실시)

III. 결론

현대 한국교회에서 평신도사역의 중요성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평신도 사역의 중심이 교회중심에서 교회와 사회를 잇는 교량적 매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비쳐지고 사회가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 실천적 방법론에서 벽에 부딪히거나 한계를 느껴 포기하는 경향을 보게 된다. 희망봉사학교를 통하여 사회복지실천적 방법을 습득하고 사회복지사업 및 자원봉사 활동을 연회와 지방과 개체교회가 하나되어 실천해 나간다면 감리교회

는 또다시 한국의 사회복지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교회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나눔과 섬김의 삶을 통하여 사회봉사의 무한 바다에서 사회복지시설과 자원봉사라는 희망의 방주를 띄워 힘들고 지쳐있는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평안을 준다면 감리교회는 한국 사회에 희망의 상징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희망봉사학교 입학원서

성명 : (한글) _____

(한자) _____

사진

성별 : 남, 여

주민등록번호 : _____

자택주소 : _____

전화 : (자택) _____ (핸드폰) _____

E-mail : _____

출석교회 : _____ 연회 _____ 지방 _____ 교회 _____

직분 : _____

위와 같이 희망봉사학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

감리교 희망봉사단 회원 신청서

No.

성명			출석교회				
주민등록번호	-		교회직분				
실제생년월일	(양, 음)		연령	만 세			
성별	남() 여()		소지자격증				
최종학력							
연락처	e-mail						
	전화			핸드폰			
	주소	(우: -)					
직업	공무원() 교사() 주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원)생()						
	회사원() 자영업() 군인() 서비스업() 기타()						
봉사활동경험	무, 유 (내용:)						
봉사교육이수현황	무, 유 (내용:)						
희망활동분야	지역사회봉사		보건의료	환경보전	교통질서	노력봉사	
	학습·교양지도	공공기관	문화예술	재해재난	재정봉사		
	소비자보호	체육여가	상담봉사	범죄예방	외국인지원		
	사회복지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기타()					
		특별히 봉사하고 싶은 내용()					
봉사활동 가능시간	매일(), 주()회, 월()회, ()요일, 기타() 봉사가능시간:						
<p style="text-align: center;">상기 본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연회, 지방) 감리교 희망봉사단 회원으로 등록하여 감리교 희망봉사단 규칙을 준수하고, 회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를 신청합니다.</p>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지방) 감리교 희망봉사단장 귀하			

사회복지부

· 부장 김일환 목사

① 업무 추진 방향

감리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 연구와 복지목회 포럼(대회 또는 엑스포)을 실시하고, 산하시설의 법인 유대감과 일체감을 위한 직원훈련과 시설지도를 통해 감리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며, 연회 자체의 원로원 건축을 유도하고 재정 자립도가 약한 연회들을 위하여 본부 주도의 원로원 건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② 현황

1) 복지 시설 수 69개

2) 기본재산

대지	21,286.69 m ²	5,456,538,130원
건물	22,216.85 m ²	13,789,639,100원
기타(임야, 전, 종교용지)	154,367.220 m ²	6,121,996,320원
전세금		65,000,000원

원로원 38세대(독신주택 12, 부부주택 26) 총 56명(남자 26명, 여자 30명)

③ 주요 업무

1) 기본재산 및 편입재산 관리

편입된 기본재산의 철저한 기록과 유지 관리 및 편입재산의 신속한 처리와 관리를 한다.

2) 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업무

복지시설 설치지원 및 위탁시설 신청과 로비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입을 추진한다.

3) 복지사업 상담

교회, 개인, 시설들의 복지사업상담의 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을 한다.

4) 시설지도관리 및 감사

시설의 투명하고 질 높은 운영과 서비스 제공과 법인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년 1회 이상 시설지도 관리를 강화하고 철저한 감사를 확대한다.

재산출연이 없는 무인가 시설을 재산출연을 한 인가시설로 유도한다.

5) 홈페이지 관리 및 정보교류 활성화

홈페이지활용의 극대화를 통해 산하 시설 간 정보교류 및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새로운 복지사업과 새로운 복지지원 정보 교류를 활성화 한다.

6) 봉사활동 인증센터 운영관리

사회복지재단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인증을 교단장 명의로 발급하고 봉사자 관리를 한다.

7) 성탄절현금의 십일조 모으기 운동

열악한 시설 지원을 위해 개체교회의 성탄절 현금 중에서 십일조 모으기 운동을 연간 1천만원 이상을 목표로 모금한다.

8) 원로원 관리

인천 주안5동의 원로원 38가구(독신: 12가구, 부부세대 26가구)의 관리 및 입소 및 퇴원 및 시설 유지보수 관리와 원로원 위문을 연계한다. 또한 설날을 기해 감독회장의 원로원 위문을 실시하고 년 2회 원로원 소풍을 지원한다.

9) 원로목사 복지실 관리(신규업무)

서울 종로 하나로회관 907호의 원로목사 복지실을 관리한다.

10) 시설대표자협의회

시설 간 업무협력 및 정보교류를 위해 년 1회 9월 중에 연례 회의를 실시한다

11) 분사무소장 회의

분사무소 효율적인 운영 모색을 위해 2월 중에 가진다.

12) 사회복지교회연합운동 협력사업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종교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분야 교회 및 종교 연합활동에 적극 협력한다.

13) 직원교육

직원의 능력강화를 위한 교육을 년 1회 실시하고 법인 사무국의 직원연수는 필요시에 실시한다.

14) 민원 처리

시설과 관청이 요청하는 년간 약 1,000여건의 민원 처리를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한다.

15) 전문분야별 대표자회의

효율적, 전문적 정보교류 및 정책수립을 위해 전문분야별 모임을 실시한다.

① 종합복지관 관장 회의 3월, 9월

② 어린이집 시설장 회의 2월, 10월

③ 노인복지시설장 회의 3월, 9월

16) 감리교사회복지의 날 행사(9월 21일)

감리교복지재단 산하 시설 직원들의 감리교 소속 의식을 강화시키고 우수시설과 우수 직원을 법인이사장이 표창하고 이를 통해 전 감리교회에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성을 확대 인식시키기 위해 시설과 연계하여 앞으로 매년 법인설립일인 9월 21일이 있는 주간 중에 축제, 우수시설 및 우수직원 표창, 각 시설의 복지사업 전시 등의 내용으로 실시한다.

17) 운영위원장 회의(1월)

시설의 운영위원장 간의 정보 교류 및 법인운영체계 이해강화,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매년 11월 중순에 실시한다.

18) 감리교사회복지목회 포럼(7월)

감리회의 사회복지사업의 방향을 강구하고 감리교사회복지재단의 사회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한다.

19) 원로원 증설

연회별로는 연회 원로원 건축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본부 차원의 원로원 건축을 추진한다.

20) 정부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한 대책

정부의 사회복지법인에 이사의 1/4이상의 공익이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에 대하여 교단적인 차원과 종교계 차원에서 협력하여 대책을 수행한다.

21) 이사회

년 6회 정기 및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정책 및 업무를 처리한다.

22) 열악한 시설 지원

성탄절 현금의 십일조모으기 등 후원금으로 열악한 시설을 지원한다.

23)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에 대한 대책을 교회연합운동 연대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한다.

4 위원회

5 정책소고

“민원서비스 향상 방안”

김일환 목사

복지시설의 직원들의 주요역할은 사회복지 내담자들에게 만족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직원들의 친절하고 긍정적인 서비스가 내담자들에게 만족을 제공한다. 복지시설들이 내담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1) 직원의 태도

① 친절하고 공손한 전화 받기나 응대

민원과 상담은 전화를 통해 많이 수행된다. 전화 민원은 보지 않고 소리로만 전달되므로 직원자신은 친절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상대방은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따라서 전화를 통해 민원을 접수받고 처리하는데 직원들은 음성에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직접 대면하는 민원도 공손하고 친절한 응대를 필요로 한다.

② 신속 정확한 행정처리

민원의 만족한 처리는 신속 정확한 처리에서 이루어진다. 직원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직원 훈련

직원의 친절하고 공손하며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태도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해 개선된다. 직원이 담당한 업무에 대한 분야의 훈련, 직원의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훈련 등을 통해 질높고 만족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행정실무의 개선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소들을 보완해야 한다.

① 철저한 시설 지도관리

서비스의 현장인 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관리하여 개선해 나가는 일이다. 건물의 유지보수, 직원의 근무상황과 태도, 서류정리 및 행정 사무능력, 시설의 환경, 직원들의 복지, 서비스의 제공 등을 최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지도 관리하는 일이다.

② 정보나눔센터의 운영활성화

법인이나 산하시설의 인터넷을 통해 정보나눔, 인사교류, 새로운 정보의 제공, 네트워킹 등을 활성화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매뉴얼(제규정 및 민원안내) 제공

법인사무국이나 시설의 각 규정이나 민원처리안내서 또는 프로그램 안내서를 제공하므로써 서비스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일이다.

④ 민원신청방법의 다양화

민원신청의 방법을 전화, 팩스, 우편, e-mail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다양화 함으로 서비스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다.

⑤ 업무 위임

업무처리에서 신속 정확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결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 위임을 통해 민원을 처리할 때 만족할 서비스가 될 것이다.

⑥ 선 처리 후 승인 방식 도입

민원이 법인 자체가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행정의 편의를 두어 선 처리하고 후 결재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처리하게 되면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며 만족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 된다.

사무국



재산관리부

회관관리부

은급부

재단회계부

민원부

총무 인사



총무 김영동 목사

우리 하나님께서 베풂시는 은총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신실한 사람들,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가 되도록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감독님들과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감리회의 온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지난 한 해 동안 부족한 교제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신실한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소중한 교형교제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의 좋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부산 영남 선교대회를 통하여 조윤제 장로님이 기증한 부산 장유면소재 2천 평은 영남선교대회 기념 교회, 복지시설 등 감리회의 좋은 시설로 채워져 갈 것입니다. 본부 기본재산인 회현상가가 재개발 계획에 들어 좋은 가격으로 매도되었고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제주선교를 위한 건물을 본부 기본재산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유지재단에 편입된 각 교회 부동산 중에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던 사안들이 공익법인에 편입된 개체교회 재산임을 인정받아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는 개정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분주한 대선정국이 지나면 좋은 소식이 되어 오리라 기대됩니다. 교회 건축할 때 부담하게 된 기반시설부담금은 우리의 요구인 100% 경감조치에 미치지 못하는 50%를 경감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다.

특히 2007년 10월 입법의회에서 개정된 본부 구조 변경으로 사무국 본부서무행정부와 본부 회계부가 행정기획실로, 사회복지법인부가 사회평신도국으로, 장학재단이 교육국으로, 일영 샬롬유스호스텔과 입석교육원이 연수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사무국은 그 규모가 꼭 절반인 재산관리부, 재단 회계부, 은급부, 민원부, 회관관리부로 은급과 유지재단, 그리고 재산 관리와 종식을 담당하는 단출하고 탄탄한 국으로 재편되었습니다.

2007년 입법의회에서 개정된 법안 중에 그간 본부 부담금 1% 중에 0.5%만 본부에서 쓰고 나머지 0.5%를 각 연회사업지원비와 교역자양성비로 지원하고 그에 따라 모라라는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부 기본재산 수익금에서 가져다 쓰던 구조와 제도를 바꾸어 본부 부담금 1%를 온전히 본부에서 쓰고 그 대신 본부 기본재산 수익금에서 가져다 쓰던 0.5%에 해당되는 금액을 선교목적에 합당한 연회사업지원비와 교역자양성비로 바꾸어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비과세 될 수 있는 법인세 계산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줄뿐만 아니라 명실공이 금년부터 개체교회 부담금으로 본부가 살림을 경영하게 되어 개체교회에 대해 직접적인 관심과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을 수 없는 제도로 정비되었습니다.

특별히 2007년은 교역자 은급재단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준비된 신은급제도가 연회별 공청회를 거쳐 금년 입법의회에서 입법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기금고갈이라는 그간의 불신을 말끔하게 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은급부에서는 2005년 기금운용을 통하여 3억원의 이자 수익을 내었고, 2006년에는 10억원, 그리고 금년 2007년에는 26억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런 결과로 이제는 무조건 불신하려는 구태를 털어 버리고 본부 직원들이 깨어 있고, 열정을 가지고,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장기간동안 연구하고 실천하며 쌓아올린 전문가적인 실력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고 잘 준비한 신은급제도의 발 빠른 정착을 위한 은급재단의 모든 노력에 감리회 전 회원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참여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 업무 개요

돌이켜 보니 지금 본부 사무국은 희망의 발전소인 생산자의 자리요 땀 흘려 일해야 하는 농부의 자리임을 실감한다. 모든 비판과 판단은 말뿐인 ‘너’에 대한 것이고, 내일을 준비하는 창조적인 일과 오늘 함께 해야 할 실천과 협력은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자기 자신인 ‘나’로부터 시작될 뿐임을 깊이 깨닫는다. 부족한 교제와 사무국 직원들은 부족하고 작지만 2008년 새해에도 ‘나’로부터 시작될 뿐인 새 창조의 자리에서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여전히 성실하게 희망의 발전소에서 열심히 일하는 생산자로, 열매를 풍성히 거두어들일 수 있는 거친 들판의 농부들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무국의 부서별 업무 개요는 다음과 같다.

재산관리부는 개체교회 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 되는 법적 제도를 통하여 5천 8백여 감리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유지재단 이사회를 통하여 개체 교회의 재산취득 편입, 처분전환, 수용, 담보제공, 교환, 건축에 이르는 모든 재산관계 업무가 신속한 민원서비스로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등기권리증 관련업무, 보육시설 설치운영 신청 등 서울시 정관변경 허가 관련업무, 주무관청 연계 업무, 법인세 계산 및 소송관련 업무 등 각종 재산관련 세무, 법률 민원업무를 담당하며 새해에도 망실재산 및 잠재적 재산 찾기, 미편입 재산조사 파악 및 종합부동산세, 기반시설부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원부는 건축관계, 등기관계 서류처리 및 형질 지목변경, 각종(소속증명서, 아동센터 신청, 정기사용신청 등) 제 증명 서류 발급, 각종 교회 세금고지서 발송, 세입과 오납·환부 업무, 전국교회 우편물 접수·발송 및 교회자동차 업무처리, 재단 등본·인감 신청교부 업무

등등을 담당하고 있다. 민원부는 새해에도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원의 전산화와 민원절차의 간소화를 부단히 추구해 갈 것이다.

회관관리부는 광화문의 감리회관, 여의도의 정우빌딩 11층, 제주선교센터, 금촌 부동산 등 본부기본재산을 효율적으로 임대사업, 유지보수 등 최선의 운영관리를 하고 있다. 회관 건물이 노후화 되면서 낡은 시설의 적절한 교체를 통하여 첨단 시설의 건물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여 건물의 쾌적한 환경으로 공실이 없는 임대운영을 하고 있다.

재단 회계부가 금년 입법의회에서 본부 회계부서와 나뉘어짐에 따라 재단 회계부는 수익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어 수익 극대화에 치중하는 한편, 기업회계 기준과 세법에 의한 투명한 회계처리와 연회별 수익사업 회계 담당 및 재단 회계부 직원의 수익사업 회계와 비영리 목적사업 회계의 구분 회계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날로 강화되는 국가 세무정책에 앞서서 대비하고, 더욱 공정하고 튼튼한 본부 재단 살림의 근간을 유지해 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은급부는 2007년 입법의회에서 입법제정 통과되고 총회실행위원회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의하여 공포된 신은급제도의 정착을 위해 각 가지 홍보와 설명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될 것이다. 또한 은급기금의 탈법적인 지출을 막기 위한 위장 사역자 조사권이 신 은급법에 의하여 은급부에 부여되었고, 교회실태 조사위원회가 은급부에 속할 수 있게 되는 등 위장 사역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권이 은급재단 이사회에 부여되어 실제적인 법제화에 따른 후속 업무를 착실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새해에는 미자립 교회와 초기 젊은 목회자들이 열악한 경제 환경을 극복하고 신 은급제도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할 새로운 수입 창출을 위해 건실한 수익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07년도에 26억 원의 이자수익을 낸 것처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힘 쓸 뿐만 아니라 뜻있는 교우들과 은퇴교역자들과 교회들이 은급기금에 유산과 뜻이 담긴 재산을 기부하는 분위기를 새롭게 신장시켜 나갈 것이다.

신 은급법은 전문적인 시각과 보험 지식과 기법으로 3년간 잘 연구하고 개발하여 준비된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이해되지 않고 알수록 더 잘 이해되고 참여하고 싶은 좋은 제도이다. 기존의 은급제도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형평성과 공익성을 유지하고 그 위에 40세 이하 젊은 목회자들에겐 보다 좋은 장래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현장 목회 중에 당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보장도 되는 신 은급제도에 대하여 동역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 은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친절하게 원하는 어느 곳이든지 직접 또는 인터넷 메일로, 홍보전단으로, CD 안내영상으로 찾아가 설명하고 안내 할 것이다.

2. 국 위원 및 이사

1) 유지재단 이사회

이사장	신경하		
이사	연회	교역자	평신도
	서울	윤연수	장현수
	서울남	김충식	방재걸
	중부	서명섭	최한오
	경기	백문현	김영길
	중앙	전용재	이기영
	동부	김명기	조남호
	충북	이돈하	심태우
	남부	곽성영	임재봉
	충청	현상규	이기선
	삼남	금성대	강완용

2)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일고		
위원	연회	교역자	평신도
	서울	김영현	정남규
	서울남	권영남	민명식
	중부	신기식	최종만
	경기	안희선	김봉중
	중앙	권상덕	김상래
	동부	김영원	박용하
	충북	박희권	윤옥계
	남부	이원준	정찬완
	충청	구자선	전윤
	삼남	이종일	최기용

3) 은급재단 이사회

이사장	신경하		
이사	연회	교역자	평신도
	서 울	황광민	김창년
	서울남	심재호	조인호
	중 부	박인환	오철환
	경 기	최승균	한상수
	중 앙	이광석	최영수
	동 부	임홍만	서권호
	충 북	최경환	이현택
	남 부	김용우	정윤재
	충 청	유완기	김동환
	삼 남	박종호	김광성

3. 업무 구분

부서	업무
총무	사무국 사무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의 총괄, 직원의 지휘 통솔
재산관리부	1. 기본재산 편입, 처분, 담보제공에 관한 업무 2. 예치금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3. 행정처분의 불복신청에 관한 업무 4. 기본재산의 소송, 세금에 관한 업무 5. 기본재산 관리권 명의변경에 관한 업무 6. 기본재산 전산관리에 관한 업무 7. 등기필증 관리에 관한 업무 8. 재산편입증명서 발급 업무 9. 주무관청에 관한 업무 10. 유지재단이사회,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운영
회관관리부	1. 감리회관 임대 및 시설관리 업무 2. 감리회관 주차관리 및 용역회사 관리 업무 3. 정우빌딩 임대 관리

부서	업무
은급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은급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업무 2. 감리연금 가입 유도 및 관리 업무 3. 원로목회자 관리 및 지원 업무 4. 전국 교회관련 기록 및 부담금 수납 관리 5. 전 교역자 인사기록 및 관리 업무 6. 보유 부동산 임대 및 시설관리 업무 7. 재단 회계 및 세무 업무 8. 재단 예산편성 및 집행 업무
재단회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단 회계 및 세무 업무 2. 재단 예산 편성 및 집행
민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 신축, 증축, 착공, 사용승인 신청관련 업무 2.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 산림훼손 관련 업무 3. 토지 및 기본재산 사용 승낙 관련 업무 4. 전기 및 소방시설 검사신청 관련 업무 5. 소유권보존, 증축, 경정, 멸실등기에 관한 업무 6.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기에 관한 업무 7. 각종 증명서, 법인서류 발급업무

4. 발간 자료

5. 각 부 업무

재산관리부

· 부장 강만득 장로

① 업무 추진 방향

개체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 중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과세됨에 따라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아 개체교회가 과중한 세금을 물고 있는바, 개체교회별로 구분 과세하도록 하는 세법개정과 부목사, 전도사주택에 대하여 과세되고 있는 세금문제에 대해 모든 세금이 비과세되도록 하는 세법개정을 타교단과 연대하여 추진한다.

재산관리상 발생하는 법률, 등기, 세금문제 등에 관한 직원들의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교회들의 민원신청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체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는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2 현황

1) 기본재산편입 (2007년 11월 20일 현재)

연회 구분	토지		건물	편 입 교회수
	면적(m ²)	필지	면적(m ²)	
본 부	1,889,016.48	267	94,375.37	
서 울	1,368,251.56	1,420	417,948.85	196
서울남	2,270,917.60	938	335,600.10	173
중 부	2,472,243.25	2,252	538,440.57	468
경 기	699,687.17	1,170	282,767.18	319
중 앙	919,918.94	879	193,821.08	271
동 부	2,509,178.41	1,749	235,694.24	471
충 북	697,281.48	772	125,178.41	244
남 부	1,248,578.97	1,026	219,108.68	286
충 청	1,104,420.89	1,256	214,248.44	414
삼 남	722,976.46	1,227	188,703.86	417
합 계	15,902,471.21	12,956	2,845,886.78	3,259

3 주요 업무

1) 기본재산편입

① 절차

- 개체교회가 재산을 매입하거나 중여받아 유지재단에 편입하려면, 기본재산 편입신청서(유지재단 소정양식)에 의하여 첨부서류를 구비하고 동 신청서에 당해 교회 담임자, 관리부장, 당해지방 감리사의 날인을 받아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 유지재단은 즉석에서 등기에 필요한 일간서류를 작성, 교부한다. 교회는 유지재단이

작성해준 서류를 가지고 법무사를 통하여 편입등기를 한다.

② 세금 문제

- 편입시 발생하는 세금은 등록세(교육세), 취득세(농특세)이며, 편입재산을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비과세되나, 부목사, 전도사 사택은 과세되며, 중여로 편입한 재산도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 편입재산을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채권매입의무도 면제된다.

③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다른 경우 건축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사용용도와 일치하도록 변경해야 한다.

2) 기본재산처분전환

① 절차

- 개체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을 처분하려면, 기본재산처분전환신청서(유지재단 소정양식)에 의하여 첨부서류를 구비하고 동 신청서에 당해교회 담임자, 관리부장, 당해지방 감리사, 연회감독의 날인을 받아 유지재단에 제출한다.
- 해당연회의 유지재단이사에게 재산처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 유지재단은 이사회와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데 필요한 일련서류를 작성 교부한다.

② 처분요건

- 처분대금을 건축비로 사용할 경우(건축주가 유지재단이어야 한다.)
- 처분대금을 부동산 매입비로 사용할 경우(매수자가 유지재단이어야 한다.)
-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조성(취득)시 발생한 부채변제(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세금문제

- 재산처분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이며, 처분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후 3년 이상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 중여로 편입한 재산을 3년 이상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다가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는 물론 편입당시 면제 또는 비과세 되었던 중여세, 등록세, 취득세도 추징된다.

3) 기본재산담보제공

① 절차

- 개체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려면, 기본재산 담보제공신청서(유지재단 소정양식)에 의하여 첨부서류를 구비하고 동 신청서에 당해교회 담임자, 관리부장, 당해지방 감리사, 연회감독의 날인을 받아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 해당연회의 유지재단이사에게 담보제공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 유지재단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대출받는데 필요한 일건서류를 작성 교부한다.

② 담보제공요건

- 대출금을 건축비로 사용할 경우(건축주가 유지재단이어야 한다.)
- 대출금을 부동산 매입비로 사용할 경우(매수자가 유지재단이어야 한다.)
-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조성(취득)시 발생한 부채를 변제할 경우(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

4) 기본재산 관리권명의 변경

- 개체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처분하지 않고 감리교회에 처분, 증여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관리권명의변경신청서(유지재단 소정양식)에 의하여 첨부서류를 구비하고 동 신청서에 당해교회 담임자, 관리부장, 당해 지방 감리사, 연회감독의 날인을 받아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 이사회의결을 받아 재산의 관리권을 매수 또는 수증하는 교회명의로 변경한다.

5) 이자 소득세 환급

- 교회가 재정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였다가 인출할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교회가 이자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면 관할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을 받아 예금주를 기독교대한감리회○○교회로 하여 예금을 해야 한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을 받으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소정양식)를 작성하고 교회규약과 담임목사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회관관리부

· 부장 조병추 권사

① 업무 추진 방향

광화문빌딩의 설비 시설을 보수하고 임차인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인상 추진을 하여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대·수익 증대를 위하여 장·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정우빌딩도 리모델링하여 주변 빌딩과 차별화를 두어 임대료를 인상하고 수익증대에 전력한다. 금촌묘지는 사용자 주소 확인과 확인되지 않은 묘지를 파악하여 장기적인 관리대책을 세운다.

② 현황

1) 광화문빌딩

① 총면적

- 토지 : 4,166.60m²(1,260.39평)
- 건물 : 49,938.81m²(15,104.97평)

② 충별소유

- 지하 1층 : 주식회사 동화면세점
- 1층, 2층 : 동화투자개발 주식회사, (재)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 3층-11층 : 동화투자개발 주식회사
- 12층 : (재)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 13층-20층 : (재)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③ 소유자별 면적

구분 소유자	건물면적		토지면적		소유비율(%)
	m ²	평	m ²	평	
동화투자개발	23,059.420	6,975.47	1,924.12	582.05	46.18
동화면세점	4,321.860	1,307.36	360.63	109.09	8.66
소 계	27,381.280	8,282.83	2,284.75	691.14	54.84
감리회유지재단	20,171.838	6,101.98	1,683.17	509.16	40.39
감리회은급재단	2,380.690	720.16	198.65	60.09	4.77
소 계	22,552.528	6,822.14	1,881.82	569.25	45.16
합 계	49,938.810	15,104.97	4,166.57	1,206.39	

※ 광화문빌딩 임대 평수 : 총3,887.3평(16층 본부 및 13층 기관 사용분 제외)

④ 광화문빌딩 층별 소유현황

단위 : m², ()은 평형임

층별	전유부분	공유부분	합계	대지권	소유자
지하 2,3,4,5층					1)동화투자 51.11% 2)감리회관 40.39% 3)은급재단 4.7% 4)동화면세점 3.8%
지하 1층	2,646.93	1,674.93	4,321.83	360.63	(주)동화면세점
1층	503.70	486.76	990.46 (300)	82.62	1)동화투자 990.46분의 595.594(180) 2)감리회관 990.46분의 394.866(120)
2층	933.04	901.63	1,8347.67 (555)	153.09	1)동화투자 184.67분의 1,103.248(334) 2)감리회관 1,834.67분의 731.422(221)
3층	1,186.14	1,171.35	2,380.69	198.65	동화투자개발(주)
4층	1,209.34	1,171.35	2,380.69	198.65	
5층	1,209.34	1,171.35	2,380.69	198.65	
6층	1,209.34	1,171.35	2,380.69	198.65	
7층	1,209.35	1,171.35	2,380.70	198.65	
8층	1,172.54	1,171.15	2,380.69	198.65	
9층	1,209.35	1,171.35	2,380.70	198.65	
10층	1,209.34	1,171.35	2,380.69	198.65	
11층	1,209.34	1,171.35	2,380.69	198.65	
12층	1,209.34	1,171.35	2,380.69	198.65	(재)기독교대한감리회교역자은급재단
13층	1,209.35	1,171.35	2,380.70	198.65	(재)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14층	1,209.34	1,171.35	2,380.69	198.65	
15층	1,209.34	1,171.35	2,380.69	198.65	
16층	1,209.34	1,171.35	2,380.69	198.65	
17층	1,209.34	1,171.35	2,380.69	198.65	
18층	1,209.34	1,171.35	2,380.69	198.65	
19층	1,209.35	1,171.35	2,380.70	198.65	
20층	1,209.35	1,171.35	2,380.70	198.65	
합 계	25,791.84	24,141.97	49,933.81 (15,104.97)	4,166.57 (1,260.39)	

※ 광화문 임대평수는 총 4,122.3평(16층 본부 및 13층 기관 사용분 제외)

2) 정우빌딩

① 토지 : 264.20평방미터(79.92평)

건물 : 1,900.29평방미터(574.83평) ※ 임대평수는 총 657.7평

3) 금촌부동산

① 토지 : 1,151,427.00평방미터(348.306평)

③ 주요 업무

- 1) 광화문빌딩 임대 및 임대료, 관리비, 주차비 징수
- 2) 광화문빌딩 용역관리회사 관리 감독
- 3) 광화문빌딩 입주사의 민원 접수 및 조치
- 4) 광화문빌딩 시설(설비)물 보수 및 유지 관리감독
- 5) 정우빌딩 11층 임대 및 임대료 징수
- 6) 금촌부동산 민원 처리 및 묘지 사용자 인적사항 파악

은급부

· 부장 김영주 목사

① 업무 추진 방향

새로 마련된 은급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교역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은급기금의 탈법적 지출을 막기 위한 위장사역자 조사 및 제재를 위해 노력하며 미자립교회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한 교역자 지원을 위한 새로운 수입 창출을 위해 수의사업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힘쓴다.

② 현황

1) 수납현황

구분	입금기간	입금액(원)	비고
2006년 은급부담금	2006. 12월 말	1,135,632,742	책정액 8,503,115,000원 중 94.5% 수납
	2007. 10월 말	6,901,959,780	
	소 계	8,037,592,522	
2007년 은급부담금	2007. 10월 말	138,015,118	책정액 9,110,110,000원 중 1.5% 수납
2004교역자부담금	2004. 12월 말	1,272,213,264	4,580명, 약 61.5% 납부
	2005. 12월 말	3,285,059,071	
	2006. 12월 말	309,818,211	
	2007. 10월 말	102,192,297	
	소 계	4,969,282,843	
2007교역자부담금	2007. 10월 말	470,672,510	약 526명 납부

2) 은급금 지급현황 (2007년 1월~11월말 현재)

구 분	11월 현재인원	월평균지급액	연지급액(예상)	평균목회연한
원로목사	765	585,509,475	7,049,699,650	30
협동전도사	1	250,000	3,000,000	10
공상퇴회자	4	2,331,818	27,950,000	23
원로목사 미망인	150	59,442,614	716,862,500	31
별세교역자 미망인	163	41,913,864	502,835,000	20
순교·납치 미망인	1	500,000	6,000,000	40
합 계	1,084	689,947,771	8,306,347,150	

③ 주요 업무

1) 신(新)은급제도 및 규정안 마련

정책협의회, 운영위원회, 이사회 및 전국 순회 공청회를 거쳐 마련한 신(新)은급제도 규정안이 제 27차 총회 입법의회를 통과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됨.

2) 기타

- 기금 운영 : Fund 상품을 위한 기금 관리로 이자 수입의 확대
2005년 - 307,786,846원, 2006년 - 957,428,572원, 2007년 10월 말 - 2,693,137,909원
- 수의사업 전개
삼성070 인터넷전화 보급 사업을 통해 약간액의 수입이 매월 확보되고 있음.
- 허입 · 은퇴 관련 업무 처리
- 광화문 빌딩 12층, 하나로 빌딩 8층 임대 사업
2007년 10월 말 - 광화문 빌딩 12층 : 690,732,373원
- 하나로 빌딩 8층 : 159,226,656원
- 은급주일 성수 등

5 정책소고

“신(新)은급제도 해설”

김영주 목사

I. 新은급제도 시행의 필요성

1)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① 인구고령화

현재 우리 교단은 국가보다도 빠른 고령화 진전으로 인하여 전체 교역자 중 고령화 교역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대한민국 VS 기독교대한감리회 고령화 비교〉

구분	대한민국	기독교대한감리회	비고
고령화	2018년	2007년(現 17%)	65세↑ 14%↑
초고령화	2026년	2021년(21% 예상)	65세↑ 20%↑

② 교세의 저성장 추세

우리 교단은 꾸준한 교세의 성장을 유지해 오고 있으나,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추세 등의 요인으로 교세의 저성장 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향후 은급부담금을 부담 할 현교역자 및 개체교회의 은급재원 기반을 약화시켜 은급부담금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2) 수급구조의 불균형

현은급제도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써 교역자들의 은급부담금 납입액과 무관하게 연금액이 확정되는 확정급여형(DB)의 부과방식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납입과 수급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해 2017년에 은급기금의 고갈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연금 VS 은급제도 운용 방식 비교〉

구분	납입/수급	재정운용
국민연금	확정급여형	부분부과방식
은급제도(現)	확정급여형	부분부과방식

위와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수급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해 향후 은급제도는 운영 자체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의 은급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은급재원은 곧 고갈될 수밖에 없다.

新은급제도의 개선사항 중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을 바로 연금재정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연금제도의 근간을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여 항구적으로 기금 고갈을 방지함으로써 이에 대한 불신을 해소함은 물론 세대 간 부양 및 소득 재분배 효과는 균등부분(교회은급부담금)에 한정돼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 재정이 안정되고 세대 간 형평성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은급재단에서는 現은급제도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보다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은급재원의 고갈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보다 안정적으로 은급 지급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新은급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II. 新은급제도 시행 안내

1) 新은급제도의 시행 원칙

① 경제적 효율성

新은급제도에 참가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단순 재분배적인 제도로는 효율적일 수 없다. 세대 간 상황에 맞는 재정운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모든 교역자가 호응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매몰원가(Sunk cost)의 인정

『제도 개혁은 곧 미래급부를 삭감한다』라고 주장하지만 현재의 은급제도를 지속하는 것이 급부 삭감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新은급제도는 은급기금과 교역자의 연령대별 월납입액을 구분하여 재정운용을 하는 시스템으로 과거에 발생한 부채와는 상관이 없으며, 매몰원가는 미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③ 탈정치화

은급제도는 결코 정치적 축구공이 아니다. 임시방편적인 행정 처리는 설 땅이 없는 것이다. 新은급제도 역시 現은급제도의 모순을 정확히 진단하고 단순히 은급기금의 고갈 시기를 연장시키는 것이 아닌 안정적인 은급기금의 운용을 위한 百年之大計이다.

④ 투명성 & 개방성

新은급제도는 간단하고 쉽게 이해 가능하다. 모든 세대의 교역자들은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든 은급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은급시스템의 규모가 얼마이고 은퇴 시 은급을 얼마나 받

을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급되는 수단은 무엇인지 등 해당 교역자 자신에 맞는 新은급 재정운용 현황 및 수령 가능 연금액을 확인하게 됨으로써 新은급제도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고취하게 될 것이다.

⑤ 재무적 건전성 확보

다른 사람의 비용으로 어떤 그룹을 보조할 여지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新은급제도의 재정운용기법인 확정급여형(DB) 부과방식과 확정기여형(DC) 적립방식의 적절한 혼합방식에 의한 재정운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연령대별 교역자들의 월납입액은 철저히 적립에 의해 운용되고, 은급기금은 모든 교역자의 공적부조를 위한 기금으로 분리 운용함으로써 상호보완의 역할을 하는 재무적 건전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2) 新은급제도 내용

① 新은급제도 운용 방식

구분		납입/수급	재정운용
개선案	51세 이상	확정급여형	부분부과방식
	41세~50세	혼합형	부분적립방식
	40세 이하	확정기여형	적립방식

② 新은급제도 개선 내용

연령	인원	시행案	재원	비고
40세 이하	1,687	新은급제도 운용	기준금액 월 20만 원 이상	교회지원액
41세~50세	2,868		최소금액 월 10만 원 이상	1/2 이상 지원
51세 이상	2,350	기존은급제도 운용	은급기금	교역자부담금 납입
기은퇴교역자	633			

③ 교역자 연령대별 운용안

가. 51세 이상 교역자

- 51세 이상의 교역자들은 기존의 은급제도를 이용, 지금의 형태 그대로 은급을 운용한다.
- 교회부담금 및 교역자부담금은 그대로 납입합니다.
- 연금액 지급 기준 : 기존 은급과 동일

$$\text{수령연금액} = \text{목회} 1\text{년당 } 2\text{만 } 5\text{천원}$$

나. 41세~50세 교역자

- 新은급으로 전환하고 기준금액 월 20만 원 이상(최소금액 월 10만 원 이상)을 감리연금 월 납입액(단, 교회지원액 1/2 이상 지원)으로 납입한다.
- 교회부담금은 그대로 납입하고 교역자부담금은 납입을 중지한다.

$$\begin{aligned} \text{수령연금액} &= \text{新은급연금액} + \text{은급기금보조금} \\ &+ \text{은급기금지원 } 20\text{만 원(은급기금지원 시기 이후)} \end{aligned}$$

- 은퇴시기별 은급기금지원 시기

은퇴시기	65세	66세	67세	68세	69세	70세
기금지원	2033년	2034년	2035년	2036년	2037년	2038년

다. 40세 이하 교역자

- 월 20만 원 이상(최소금액 월 10만 원 이상)을 감리연금 월납입액(단, 교회지원액 1/2이상 지원)으로 납입하고 기존은급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
- 연금액 지급기준 : 新은급연금액

$$\text{수령연금액} = \text{新은급연금액} + \text{월 } 20\text{만 원(은급기금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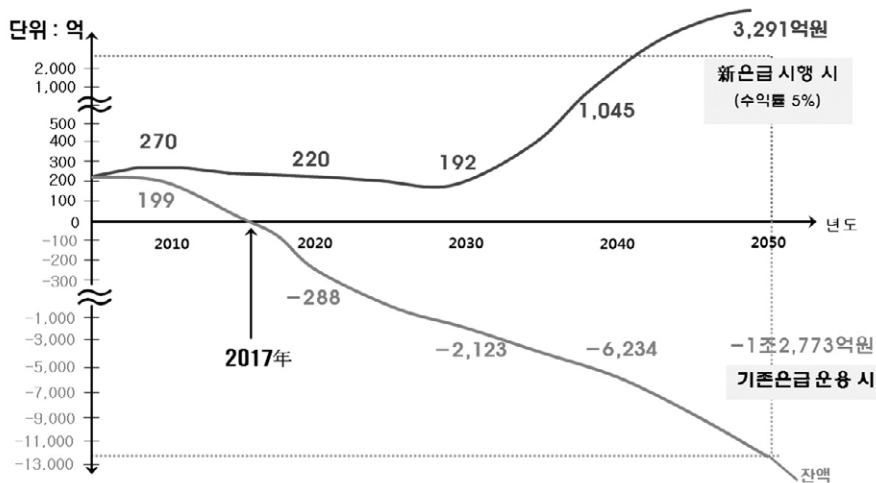
④ 新은급제도 안내(연금방식)

구분	감리연금	감리변액연금	비고
상품형태	공시이율형(부부형)	주식안정자산배분형(부부형)	
가입대상	50세 이하 교역자	40세 이하 교역자	
만기 / 납기	65세~70세 만기/전기납	70세 만기/65세납	
계약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은급재단		
주피보험자	교역자		
수익자	납 입 기 간 : 은급재단 / 연금수령기간 : 교 역 자		
월납입액	기준금액 월 20만 원 이상(최소금액 월 10만 원 이상)		
연금지급방법	매월 균등 분할형		
연금지급시기	본인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주피보험자 10년 보증지급)		배우자 50%
위험보장	납입기간 중 사망시 1,000만 원(장해시 1,000만 원*장해율)		
운용사	미래에셋생명(주)		

III. 新은급제도의 시행 효과

현재 본 교단의 은급제도는 국내 어느 교단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추세, 저금리를 비롯한 금융환경변화 등으로 향후 은급기금 재정의 악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때 新은급제도의 시행은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안이며 그 시행에 따른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은급기금의 안정적 운용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은급을 운용할 경우 2017년 기금의 적자가 발생하고, 2020년 -288억원, 2030년 -2,123억원을 거쳐 2050년에는 -1조2,7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하지만 新은급제도의 시행을 통해 이러한 적자를 상쇄하고 2040년 1,045억원, 2050년에는 3,291억원의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재정적인 안정은 은급금 중액지급, 미자립교회 지원사업, 개척교회 지원사업 등 감리교단 전체의 오랜 숙원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교역자의 은퇴 후 노후 생활 안정

현재의 은급제도 하에서는 2017년 이후에는 기은퇴교역자 뿐 아니라 새로이 은퇴하게 될 교역자들도 은급의 지급을 보장 받을 수 없다.

설령 지급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은급기금의 한정된 재원으로 은급금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新은급제도로의 전환은 은급지급액을 지속적으로 상향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고 자연수 명의 증가에 따르는 안정적인 종신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新은급제도 전용 감리변액연금을 가입할 경우 은급금은 더 커질 수 있다.

新은급제도의 주관사인 미래에셋의 변액수익률은 시장평균수익률을 훨씬 상회하여 업계 수위를 달리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변액연금이 일반연금에 비해 수익률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금융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일선에서 목회에 전념하는 교역자의 노후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교역자의 삶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로, 이러한 기본권조차 보장되지 않은 채, 목회에 전념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다. 新은급제도는 모든 교역자의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목회활동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전체의 안정적인 선교 및 부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재단회계부

·부장 이희명 권사

① 업무 추진 방향

2008년도 본부회계부는 제 27회 입법총회에서 결의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통합회계에서 재단회계부와 본부회계부로 나누어짐에 따라, 재단회계부는 수익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에, 수익사업에 전념하여 수익극대화에 치중하는 한편,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에 의한 투명한 회계처리 및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연회별 수익사업 회계 담당 및 재단회계부 직원의 수익사업 회계와 비영리 목적사업회계의 구분회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날로 강화되는 국가 세무정책에 대비하며 공정한 재단 살림의 근간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② 현황

- 재단회계부는 크게 수익사업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되며, 목적사업회계는 유지재단 비영리회계, 은급재단 비영리회계로 구성되고, 수익사업회계는 재단수익사업회계, 출판국회계, 은급재단의 광화문 빌딩과, 하나로 빌딩회계 등이 해당된다.

2) 재단회계 구성비

단위 : 천원

구분	과목	금액	구성비(%)	비고
수입부	1. 임대료 수입	4,068,000	61.9	
	2. 관리비 수입	1,692,000	25.7	
	3. 주차비 수입	204,000	3.1	
	4. 기타 수입	600,000	9.3	
	수입계	6,564,000	100.0	

구분	과목	금액	구성비(%)	비고
지출부	1. 인건비	658,019	10.0	
	2. 일반관리비	2,922,981	44.5	
	3. 비품기기	30,000	0.4	
	4. 고유목적사업비 (연회사업지원비) (교역자 양성비) (재단비영리지원비) (사회복지재단지원비)	2,903,000 (2,053,000) (480,000) (200,000) (170,000)	44.2	
	5. 예비비	50,000		0.9
	지출계	6,564,000		100.0

③ 주요 업무

- 1) 예산편성 - 기본재산관리위원회 및 유지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심의 편성함
- 2) 결산업무 -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에의거 결산지침 및 절차에 따른 결산업무
 - ① 재단수익사업(감리회관, 정우빌딩, 회현상가, 출판국, 기독교타임즈)
 - ② 전국교회 법인수익사업 결산 총괄
 - ③ 재단비영리 회계
- 3) 세무회계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및 유지재단, 전국교회 통합관리
 - ① 수익사업 및 재산양도 법인세 총괄납부
 - ②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 ③ 지방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주민세) 등
 - ④ 본부 임직원의 연말정산 및 원천세 통합납부
- 4) 대보험 관리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각사업장 통합관리
- 5) 원가관리 지도 분석 및 경영분석 - 출판국 및 기독교타임즈
- 6) 급여계산 - 매월 25일 지급함
- 7) 자금관리 - 금융권을 통한 효율적 자금관리
- 8) 내부회계감사 - 수시로 전표 및 증빙서 점검
- 9) 감사수검 - 1년에 2회 정기감사 준비 및 수검
- 10) 업무관련 세법 및 기업회계기준 교육

1 업무 추진 방향

교회건축시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고액이어서 건축하는 교회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종교시설은 공익성을 인정하여 기반시설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령개정을 타고단과 연대하여 추진한다.

우편, 전송, 전화민원처리를 확대하고, 교회들의 제반 민원신청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 분석을 통하여 교회들이 유지재단에 수회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원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2 현황

1) 민원처리 (2007. 1.1~6.30)

구분	업무내용	건수
1	건축(신축/증축/신고/대수선/용도변경)관계	331
2	건축물 멸실 관계	45
3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50
4	토지형 질변경 허가/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	76
5	전기사용신청	66
6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공부방	61
7	약식명령 관계(건축)	2
8	재개발, 재건축 및 임대관계	28
9	세입과오납 및 환급관계	49
10	지방세 감면서류	264
11	부동산사용승인 관계	25
12	소유권보존, 증축 및 기타 등기	151
13	제증명 관계	393
14	자동차관계(자동차폐차 · 매매신청건/자동차관련고지서)	98
15	증명서 발급(인감, 등본, 소속증명서)	1,926
16	민원서류 접수(각 시, 구, 군 공문/교회공문)	1,511
17	민원서류 발송(각 시, 구, 군 공문)	568
합계		5,644

③ 주요 업무

1) 교회건축

개체교회가 유지재단명의로 건축을 하려면, 건축허가에 대한 각서(유지재단 소정양식)에 의하여 첨부서류를 구비하고 동 신청서에 당해교회 담임자, 관리부장, 재무부장, 당해지방 감리사, 연회감독의 날인과 설계자, 공사시공자의 날인을 받아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유지재단은 교회가 관할 행정관청에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할 때까지 제반서류에 교회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하도록 사용인감계를 발급한다. 유지재단을 수차례 방문하여 날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지게 되었다.

2)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개체교회가 담임자 또는 교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물을 유지재단에 편입 하려면,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기 전에 건축주를 유지재단으로 변경해야 등록세, 취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유지재단의 날인을 받고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3) 건물멸실

개체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건물을 사정에 의해 철거하려면,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신청서(유지재단 소정양식)에 의하여 첨부서류 구비하고 동 신청서에 당해교회 담임자, 관리부장, 당해 지방 감리사, 연회감독의 날인을 받아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에 유지재단의 날인을 받아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4) 보육시설 설치, 운영 신청

개체교회가 유지재단명의로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을 설치, 운영 하려면, 보육시설 등 운영신청서(유지재단 소정양식)에 의하여 첨부서류를 구비하고 동 신청서에 당해교회 담임자, 관리부장, 재무부장, 시설장의 날인을 받아 유지재단에 제출 해야 한다.

5) 지적민원

개체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토지를 필요에 의하여 합병, 분할, 지목변경하려면 동 신청서에 유지재단의 날인을 받아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6) 소유권보존 등기

개체교회가 유지재단명의로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면 건축물대장등본을 유지재단에 팩스(02-399-4323)로 보내 주면 유지재단에서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회로 우송한다.

교회는 법무사를 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출판국



기독교세계부

출판부

총무 인사



총무 김광덕 목사

주님의 은총이 국내외 선교현장에서 땀흘려 복음의 씨를 뿌리는 동역자 여러분과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07년은 “경영정상화의 해”로 목표를 삼고 쉼 없이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첫째 100%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으로 세상의 어떤 기업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출판국으로 새 출발했으며 둘째,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위해 직원들의 업무를 조정하여 정기간행물팀, 단행본과 교재팀, 판매 및 미수금 수납팀으로 구성하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워 훈련하며 기초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74년 역사의 「기독교세계」는 내용을 쇄신하고 지면을 늘려 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결산 2,500만원 미만의 미자립교회(전국 2,700여 교회)는 무료로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기독교세계」의 기관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위상을 정립하는 일이었으며, 앞으로 원로목회자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까지 보급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5만부 이상 판매되는 「하늘양식」은 한국 기독교계 최고의 가정예배서로 자리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겨울이면 교도소와 학교, 병원에서 「하늘양식」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나은 「하늘양식」 2008년 판을 제작하기 위해 지난 일년 동안 목사님들의 주옥과 같은 설교문과 웨슬리 어록, 사자성어 등을 새롭게 추가했고 판형을 크게 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재와 절기별 묵상자료집을 발행했고, 감리회 정체성을 위해 웨슬리 영성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도서를 출판했습니다. 특히 교재는 감리교회의 내일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명이기에, 교육국과 연계하여 앞서나가는 교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경영으로 수익창출과 더불어 수익을 고유목적에 더 투자하여 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이 되고자 합니다.

하지만 미수금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10억 원에 이르는 미수금은 대부분 「기독교세계」, 「강단과목회」, 「신앙과교육」 등 잡지 미수금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08년은 “성장의 해”로 준비할 것입니다. 2007년은 9월말 통계로 매출과 수금실적이 전년대비 9%성장하였습니다. 2008년 역시 창조적인 전략과 경영쇄신 그리고 직원들의 인화단 결과 헌신된 충성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신뢰를 회복하므로 자랑스러운 감리교회 희망이 되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출판국은 독서를 통해 신앙을 성장시키고 웨슬리 영성을 회복 계승하여 감리회의 전통을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책만 읽어도”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더불어 “웨슬리 독서아카데미”와 “웨슬리 문서선교 씨앗회원”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출판국의 4대 경영전략은 ① 믿음경영 ② 가족경영 ③ 책임경영 ④ 선교경영이며 이를 토대로 매일 아침 기도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판국의 경영은 본부예산과 별도인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며, 임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좋은 책을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감리교회의 희망이 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출판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책, 좋은 교재를 만들어 널리 보급하여 내일의 감리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1. 업무 개요

출판국의 업무는 감리회의 기관지, 교재,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과 보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는 일이다.

출판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기관지인 「기독교세계」, 목회자 전문 잡지인 「강단과 목회」,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신앙과 교육」 등 정기간행물을 편집 제작 보급하는 업무이다. 또한 가정예배서인 「하늘양식」을 연 1회 발행하는데, 가정예배서로는 기독교 내 최대 판매부수를 올리고 있다.

둘째는 교육국에서 집필한 교재의 출판과 보급이다. 금년도 교재로는 교회학교 부문에 영유아부 교재를 새로 발간했으며, 아동부 교재를 개정하였고, 청소년 교재와 여름성경학교 교재를 발간하였다. 일반교재로는 「속회공파」와 「사순절 및 강림절 묵상집」을 발간하여 보급하였으며, 장년부 교재로는 교회임원교육교재 시리즈와 새신자들을 위한 교재, 임원고시 문제집, 세례문답집, 세례문답해설서, 사경회 교재 등을 발행하고 있다.

셋째는 단행본으로 웨슬리 영성을 계승하기 위한 서적, 감리교회 신학을 정립하는 서적, 감리교회의 사회원리를 고찰할 수 있는 서적 등을 발행한다. 개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서연구와 제자교육 및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전문서적과 평신도들의 신앙을 고양시킬 수 있는 서적을 발간하고 있다.

또한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수첩〉, 교회전도용 〈전도지〉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지난 영남선교대회 시 출판국에서 제작, 무료보급한 전도지는 큰 반향을 일으키며 좋은 성과

를 얻었다. 영업부는 발행된 서적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판매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출판국 도서의 유통은 매장판매, 인터넷거래 그리고 서점을 통한 판매인데 서점은 위탁거래 서점 63개를 포함한 280여 서점을 통해 보급하고 있다. 또한 독자관리와 미수금 수금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다.

출판국은 도서 발행과 보급뿐만 아니라 독서운동을 통해 신앙의 성숙과 건전한 기독교문화 보급에 힘쓰는데, 이를 위한 “책만 읽어도” 운동은 153만 감리교회 독서운동으로 출판국이 만들어가는 희망 프로젝트이다. 신앙과 교양서적 그리고 웨슬리 영성이 깃들인 서적들 소개하고 보급하여 감리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의 신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희망의 감리교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는데 “웨슬리 독서아카데미”와 “웨슬리 문서선교 씨앗회원” 운동이다. “웨슬리 독서아카데미”는 웨슬리 독서운동 지도자를 훈련하는 프로그램이며, “웨슬리 문서선교 씨앗회원”은 양질의 책을 기획하여 많은 감리교인들이 읽게 하려는 프로그램으로 2008년 실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국 위원 및 이사

위원장	김기택		
위원	연회	교역자	평신도
위원	서 울	김동걸	문 억
	서울남	안성옥	유용준
	중 부	신용대	한재룡
	경 기	이세원	이익주
	중 앙	최재화	김원석
	동 부	김한구	김정수
	충 북	문성대	최길원
	남 부	정일왕	박병재
	충 청	진재복	문용찬
	삼 남	안영명	장경출
전문위원		박현식	

3. 업무 구분

부서	업무
총무	출판, 경영, 인사 및 관리 총괄
기독교세계부	1. 월간 「기독교세계」의 편집 출판 보급 2. 격월간 「강단과 목회」의 편집 출판 보급 3. 「하늘양식」 편집 출판 보급 4. 광고 수주
출판부	1. 출판물 기획, 편집, 출판 2. 각종 교회교재 출판 3. 서점관리 및 영업 4. 구독자관리, 사무, 전산업무 5. 출판서적의 유통 판매 및 수금 6. 감리회 독서운동 전개

4. 발간 자료

신간도서 및 교재 발행 (2007.1-12)

번호	구분	제목	내용	기타
1	성경학교 교재	하나님의 멋진 세상	유치부 학생용 외 11종	환경교재 활용, 연도 명기 안함
2	영유아교육 교재	영유아부 짹꿍 예수님	1, 2학기 교사용	CD 포함
		영유아부 가정에 보내는 편지	1, 2학기 학부모용	CD 포함
3	아동교육 교재	주님의 기도 (개정판)	학생용	
		사도신경	학생용, 교사용	
4	청소년교육 교재	파워 크리스천	파워스톰 시리즈 8	
5	일반 교육 교재	속회공과	성인 교육 교재	1권(지도자 매뉴얼 교육국 제공)
		세례문답집	세례예비자 교육용	
		세례문답해설서	세례문답의 해설서	
6	북상 자료	사순절을 살면서	사순절 북상집	판매용 외 인터넷에 서 무료 다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장립절 북상집	

번호	구분	제목	내용	기타
7	정기간행물	월간 「기독교세계」	감리교회 교단지(정보 공고 및 소식)	미자립교회에 무료 보급 (매월 2,700부)
		격월간 「강단과 목회」	목회자료집(설교)	11~12월호 전국 무료 보급
		월간 「신앙과 교육」	교회교육 자료집	교육국 기획편집
8	단행본	웨슬리안 리더십(러벳 H. 워즈)	웨슬리안 리더십 소개	
		귀로 듣다가 눈으로 뵈오니 (김홍규)	욥기 강해서	
		감리교회 신학 (클라이버, 마르쿠바르트)	감리교회의 신학 해설	
		나무명상(고진하)	묵상집	
		기독교, 사회와 소통하기(유경동)	감리교회 사회원리 고찰	
		종이 십자가(신성학)	헝가리 선교 이야기	
		존 웨슬리의 일기 (개정판/나원용번역)	존 웨슬리의 일기	
		부흥(최선순)	28일 새벽기도 말씀교재	
		하나님, 부자되고 싶어요! (김병삼)	크里斯천의 경제생활 지침서	
		안심하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양총재 목사 설교집	
		물밀듯 불일 듯 (한국 웨슬리선교회)	설교집	
		기독교영성(유기종)	팔복의 영성	
9	전도지	감리교회, 7천만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감리교회 전도지	영남선교대회 시 전국교회 무료배포
10	달력	성화달력	2008년 감리교회 달력 교회력 및 절기수록	
		성물달력		
11	가정예배서	2008 「하늘양식」	설교, 기도문, 존웨슬리 어록 및 사자성어	관형 확대
12	목회수첩	2008 목회 다이어리	일력, 월력 및 교회력 수록	
13	서식 및 중서류	세례증서 외 11종	각종 중서 및 케이스	
14	도서목록	도서출판 kmc 도서목록	역대 발간물 수록	
		교회학교 교재 목록	교회학교 교재 수록	홍보용

5. 각 부 정책

기독교 세계부

· 부장 손인선 목사

① 업무 추진 방향

기독교세계부의 업무는 월간지 「기독교세계」와 격월간지 「강단과 목회」 및 「신앙과 교육」, 「하늘양식」을 발행하는 것이다.

기관지 「기독교세계」의 업무는 본부 정책의 홍보와 정책시행과정을 연회 및 개체교회에 알린다. 이 외에 신학의 경향과 목회정보 및 선교현장의 보고와 건강한 기독교문화를 보급하는 것에 주력하며, 개체교회와 총회의 소통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관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모든 교회와 기관, 원로목회자들에게 보급하는 것을 목표하며 2007년도는 미자립교회 2,700여 교회에 무상공급을 실행하였다. 「기독교세계」는 감리회의 역사며 미래의 희망의 감리교회를 열어가는 기관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강단과 목회」는 목회자들에게 신선한 목회자료와 설교자료를 공급하는데, 웨슬리 전통을 지키며 감리회 고유의 영성 회복을 통해 개체교회 강단이 건강해지고 교회의 참모습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집하고 있다.

연 1회 발행하는 「하늘양식」은 가정과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매일 묵상집으로서 웨슬리 영성 가운데 성화를 향한 경건 훈련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다.

② 현황

	발행부수	비고
기독교세계	6,300(월간)	미자립교회 무료보급
강단과 목회	2,200(격월)	격월간 발행
신앙과 교육	1,900(월간)	2008년부터 격월간으로 제작
하늘양식	50,000(년간)	가정예배용 판매와 선교용 후원

③ 주요업무

1) 「기독교세계」 편집

- ① 총회가 결정한 정책 홍보와 본부의 정책실현과정 전달
- ② 국내 선교단체와 개체교회의 선교활동 보도와 선교의 바람직한 방향제시, 선교현장 보도를 통한 선교의 활성화.
- ③ 신학과 현장의 만남과 건전한 신학을 토대로 건강한 감리교회 신앙 형성
- ④ 건강한 기독교 문화가 사회에 창달되도록 교회 문화프로그램 발굴과 소개
- ⑤ 기독교적 공동체의식 배양과 건강한 웨슬리 신앙생활의 모범 소개
- ⑥ 웨슬리 성화를 위한 경건운동인 웨슬리 독서운동 전개
- ⑦ 교회와 현장의 소리가 총회에 전달되게 하는 열린 공간의 운용

2) 「강단과 목회」 편집

- ① 목회 아이디어와 교회 프로그램 자료 제공
- ② 바른 설교 방법론 소개 및 설교자료 제공
- ③ 건강한 감리교회 강단을 위해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와 설교자료 제공
- ④ 절기의 의미와 설교자료 제공
- ⑤ 모범 기도문 등으로 감리교회 예배와 강단의 통일성과 일체감 형성

3) 「하늘양식」 편집

- ① 전국 목회자의 은혜로운 설교 모음
- ② 웨슬리 어록 발췌 · 수록, 웨슬리 영성이 깃든 가정예배서로 편집
- ③ 일일 사자성어 등으로 지식과 교양의 함양

4) 기타 업무

- ① 「기독교세계」를 미자립교회(경상비 결산 2,500만 원 미만)에 무료 보급하고, 원로목회 자와 해외선교사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 연구
- ② 「기독교세계」를 감리회 모든 회원교회와 기관이 구독하도록 독자를 늘려가며, 광고수입의 확대로 수입 증대
- ③ 정기간행물의 정기구독자 수를 늘려가고 만성적인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여 본부와 개체교회의 상호신뢰 형성

- ④ 「하늘양식」 원고 응모로 우수작 선정과 초교파적 판매전략 강구
- ⑤ 고유목적 사업 등 수익 재투자로 감리교회의 내일을 준비

4.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위원
기독교세계	이희준	권오준, 김기택, 윤정미, 이규화, 이민재 이선중, 이희영, 최상용
강단과 목회	허원배	김병삼, 박희권, 배남진, 이성민, 이천진 전계남, 전용재, 전정길, 정진권
하늘양식	김남철	구자경, 금성대, 박상철, 우병설, 이 철 안승철, 정연수, 한영제, 한정석

5. 정체 소고

“월간 「기독교세계」의 정체성 확립”

손인선 목사

1933년도에 창간된 월간 「기독교세계」는 한국 교계의 잡지로는 1906년 창간된 ‘경향잡지’(가톨릭), 1922년 창간된 성결교의 ‘활천’에 이어 세 번째다. 잡지의 역사적 측면에서도 그 가치가 출중한 「기독교세계」는 한국 감리교회의 자랑이다. 본 소고는 지나온 세월 「기독교세계」의 역할을 돌아보며 평가하고, 변화하는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희망의 감리교회를 위한 기관지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체성 확립을 이루어 보고자 한다.

1) 역사 속의 「기독교세계」 의의

「기독교세계」는 감리교회의 궁지이며, 한국 감리교회의 발자취를 그대로 담은 보고(寶庫)이다. ‘감리회보’로 1933년 1월호부터 창간되어 75년 동안 한국 사회와 감리교회의 슬픔

과 기쁨의 역사를 같아해 온 기관지로서의 「기독교세계」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첫째는 공보와 홍보의 기능으로 총회의 정책을 개체교회에 전달하고, 교역자의 인사공고 및 재단사무공고와 아울러 선교와 봉사 사업을 내외에 홍보했다. 둘째는 교육기능으로, 감리교회의 신학을 현장에 소개하고 총회의 선교, 교육 및 평신도 정책을 목회자와 평신도에게 알리는 기능을 수행했다. 셋째는 보도기능으로 개교회, 지방, 연회 그리고 총회의 소식을 취재 보도하는 정보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

2) 기관지로서의 역할을 위한 보급 확대 정책

「기독교세계」의 발행부수는 2005년 5,300부(월평균) 2006년 4,500부(월평균)였으나 2007년은 6,300부(월평균) 발행하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정책으로 미자립교회(경상비 결산 2,500만 원 미만) 2,700여 교회에 무료로 보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세계」는 교단의 기관지로서 미자립교회 뿐만 아니라, 원로목회자(760여명), 감리교계통의 학교와 기관을 포함하여 모든 회원에게 무상으로 보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담금을 내는 회원 교회는 교단지를 받아볼 권리가 있다.

둘째, 총회는 총회의 정책을 홍보하고 본부의 활동을 기관지를 통해 회원 교회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미 2006년 제 27회 총회 시 제 4분과 홍보출판정책 연구위원회에서는, “「기독교세계」는 본부에서 제작비를 지원하고 미자립교회는 무상으로 공급한다.”(총회회의록 125쪽)라고 결의하여 상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았으나, 본부 재정이 확보되지 못해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3) 「기독교세계」의 전망과 정체성

① 총회와 개교회를 잇는 ‘교통기관’ (1호 편집후기에서)의 역할이다. 총회에서 제정된 정책을 연회와 개체교회에 보급하고, 그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을 소상히 알리는 것이 「기독교세계」의 첫 번째 과제다. 이로써 감리교회의 모든 교회가 일치된 통일성으로 그 영향력을 극대화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사명과 목표는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

② 감리교회의 모습을 지켜가는 ‘우리 것 지킴이’의 잡지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세계」는 예전과 설교 등 목회커리큘럼을 제공하는 목회전용 잡지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신학과 교회현장의 소개를 통해 바람직한 감리교회상을 정립해야 한다. 특히 웨슬리의 신학과 영성과 목회는 우리가 회복하고 계승하며 우리의 것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우리의 뿌리다.

③ 목회자와 평신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신앙인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목회자들 간의 동질성 회복과 일체감을 이루어내고, 평신도들에게 더욱 충실한 신앙생활을 안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건전한 기독교문화를 창출해내야 한다.

④ 발전하는 잡지가 되어야 한다. 더 알찬 내용으로 지면을 채우고, 이 시대 독자들에게 읽기 좋고 보기 좋고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기획과 편집과 디자인을 발전시켜야 한다. 담당자들에 대한 전문교육이 이루어지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과 컨설팅도 필요하다.

⑤ 기관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독교세계」가 되어야 한다. 총회의 이념과 정책을 충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목회자들의 작은 소리를 들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평신도 지도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편집되어야 한다. 이 셋을 아우르기 어렵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듯이 이 셋이 융합하는 곳에 「기독교세계」의 정체성이 확립될 것이다. 또한 정치와 이념에 대한 시각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로 빚어내는 정체성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것에 정체성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

출판부

· 부장 정현범 목사

1 업무 추진 방향

출판부는 감리교회 출판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각종 문서의 출판 보급을 통해 감리교 신앙을 고양하고 건전한 인격도야를 위해 힘쓰고 있다.

교회가 수행하는 선교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회교육이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며, 교회의 지도력의 성숙을 돋고, 교인의 신앙 성숙과 기독교적 인격 도야에 힘쓰고, 새로운 학문과 문화를 익히며, 기독교 문화의 발전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출판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구독료 미납으로 인한 미수금의 많은 누적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2008년에는 미수금 회수와 구독자 확대를 통한 재정적 안정을 통해 희망의 감리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2 현황

출판물 입고현황

구분	제목	구분	제목
교재	2007년강림절묵상집(신)	교재	짝꿍1분기설교자료집(재)
	2007년사순절묵상집(신)		짝꿍2분기설교자료집(재)
	2007년여름-유년부학생용(신)		짝꿍3분기설교자료집(재)
	2007년여름-유초등부교사용(신)		짝꿍5분기설교자료집(재)
	2007년여름-유치부교사용(신)		짝꿍소년부1분기학생용(재)
	2007년여름-유치부학생용(신)		짝꿍소년부2분기학생용(재)
	2007년여름-지도자매뉴얼(신)		짝꿍소년부5분기학생용(재)
	2007년여름-찬양율동집(신)		짝꿍소년부6분기학생용(재)
	2007년여름-청소년부교사용(신)		짝꿍유년부1분기교사용(재)
	2007년여름-청소년부학생용(신)		짝꿍유년부1분기학생용(재)
	2007년여름-초등부학생용(신)		짝꿍유년부4분기학생용(재)
	2007년여름-포스터(신)		짝꿍초등부1분기교사용(재)
	2007년여름-CD, DVD(신)		짝꿍초등부1분기학생용(재)
	감리교신앙생활(재)		짝꿍초등부2분기학생용(재)
	사경회1년급학생용(재)		짝꿍초등부5분기학생용(재)
	사경회2년급학생용(재)		짝꿍초등부6분기교사용(재)
	사경회3년급학생용(재)		짝꿍초등부6분기학생용(재)
	사경회4년급학생용(재)		짝꿍초등부7분기교사용(재)
	사경회5년급학생용(재)		파워스톱1후 엠아이(재)
	사경회특별반3년급(재)		파워스톱2사용설명서(재)
	사도신경아동부교사용(신)		파워스톱3문화.com(재)
	사도신경아동부학생용(신)		파워스톱4꿈(재)
	영유아부1학기교사용(신)		파워스톱5예수를 만난 사람들(재)
	영유아부1학기학부모용(신)		파워스톱6예수를 찾아서(재)
	영유아부2학기교사용(신)		파워스톱7예수 코드(재)
	영유아부2학기학부모용(신)		파워스톱8파워 크리스천(신)
	유치부짝꿍1학기학생용(재)	단행본	감리교회사(재)
	유치부짝꿍2학기교사용(재)		감리교회신학(신)
	유치부짝꿍3학기교사용(재)		교육목회세우기-교육목회자용(재)
	유치부짝꿍3학기학생용(재)		교육목회세우기-학습자용(재)
	주님의기도아동부교사용(재)		교육목회실천(재)
	주님의기도아동부학생용(재)		귀로 듣다가 눈으로 뵈오니(신)
	주님의기도학생용개정판(신)		기독교, 사회와 소통하기(신)

구분	제목	구분	제목
단행본	나무명상(신)	기타 출판물	2008년 목회수첩(신)
	물밀듯 불일듯(신)		2008년 속회공과(신)
	미주한인감리교회백년사(재)		2008년 하늘양식(신)
	부흥-인도자용(신)		감리교홍보책자(재)
	부흥-학습자용(신)		결혼증서내지(재)
	사진으로 따라가는 존 웨슬리(재)		결혼케이스(재)
	새로운 창조(재)		교리와 장정(2005)(재)
	새로운 탄생(재)		사진내지(재)
	안심하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신)		사진내지-유아(재)
	예배를 확 바꿔라(재)		세례내지(재)
	예수님의 사람 1(재)		세례문답집(재)
	예수님의 사람 2(재)		세례케이스(재)
	웨슬리신학 다시보기(재)		세례케이스-아동(재)
	웨슬리안 리더십(신)		예문1(재)
	웨슬리의 뿌리(재)		예문2(재)
	위대한 영성가들(재)		유아세례내지(재)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재)		유아세례케이스(재)
	제자-교사용(재)		이수증(재)
	존 웨슬리의 생애(재)		임명장(재)
	존 웨슬리의 일기 개정판(신)		임명장내지(재)
	종이십자가(신)		임명장케이스(재)
	하나님, 부자 되고 싶어요(신)		장로고시문제집(재)
	한국감리교회의 역사1(재)		전도지(만남)(재)
	한국감리교회의 역사2(재)		전도지(믿음)(재)
기타 출판물	153만 전도지(신)		전도지(약속)(재)
	2007 도서목록(신)		전도지(행복)(재)
	2008년 감리교회 달력-성물(신)		집사증서내지(재)
	2008년 감리교회 달력-성화(신)		

③ 주요업무

1) 단행본(도서출판 kmc)

교회성장과 세계선교에 이바지하고, 제자화된 평신도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는 신앙서적을 발행한다. 그동안 꾸준히 발행해온 23권의 존 웨슬리 책 외에 감리교회 정체성을 위한 존 웨슬리 전문서적 출판에 주력한다. 또한 존 웨슬리의 1페니 도서처럼 대중성 있는

내용과 가격대로 독자를 확보한다. 특별히 외국 번역서적에 머물지 않고 국내의 책들을 세계로 알리는 일에도 힘쓸 것이다.

- ① 목회 및 신학도서 : 성서강해, 목회자료와 리더십 향상을 위한 도서 발간
- ② 감리교회 역사 : 감리교회 인물 시리즈. 아펜젤러를 시작으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인물 시리즈를 연중 발간
- ③ 존 웨슬리 :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에 관한 심도 깊은 책 계속 발간
- ④ 평신도 독자 확보 : 좀 더 읽기 쉬운 내용으로 평신도 독자층을 확보
- ⑤ 감리교회 정체성을 담은 전도지와 책을 계속 보급하며, 외국서적을 번역 발간하는 데 안주하지 않고 국내의 좋은 책도 역으로 세계교회에 알리는 일을 시도.

2) 교재

교육국이 기획하고 출판국이 발행하는 교회학교 교재는 항상 시장조사를 하고 교회 형편에 맞는 낮은 가격대의 교재를 출판 판매하기 위해 노력한다. 2009년 새 교재 발간을 앞두고 기존 교재의 출판부수를 조정하며, 새로운 교재 발행 시 당위성과 판매상황을 고려하도록 한다.

- ① 영유아부 교재 : 영유아부 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
- ② 아동부 교재 : 새 교재 발간을 위한 준비작업, 짹꿍시리즈 발간 부수 조정
- ③ 청소년부 교재 : 파워스톰 시리즈 완간
- ④ 여름성경학교 교재 : 4월 발간 예정
- ⑤ 절기 묵상집 : 사순절을 살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등 연중 2권 발행
- ⑥ 장년부 교재 : 교회임원교육교재, 새신자교육교재 등 개정판 출간을 목표로 진행

3) 절기상품

- ① 「속회공과」: 1권의 속회공과를 발행(10만부), 교육국과 협력하여 세미나 등 속회부흥을 위한 지원, 홈페이지와 기타 매체를 통해 지도자 매뉴얼 제공. 매년 10월 말 1회 발행.
- ② 「하늘양식」: 년 1회 11월초 발행. 일반용 3만부, 교회판 2만부. 「하늘양식」을 통한 가정예배 회복에 주력.
- ③ <목회수첩> : 년 1회 11월초 발행(5,500부)
- ④ 달력(2종) :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담은 내용으로 매년 11월 발행

4) 전도상품 및 홍보물 제작

- ① 희망 전도지 : 감리교회의 10가지 자랑을 담은 153만장의 전도지를 제작하여 영남선교 대회 시 전국교회에 무료배포. 많은 교회의 의견을 담아 좀더 새롭고 선교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전도지를 기획 제작
- ② 상품 : 전도용품 및 성물 기획 제작

5) 나눔 정책

① “책만 읽어도” 운동

책 읽는 크리스천이 되기 위한 153만 감리교회 책읽기 운동으로 출판국이 1년간 진행. 흥천한서교회를 비롯하여 교회별로 ‘책만 읽어도’ 독서운동을 시작. 운동지침- 1) 모든 교인들이 교회에서 제공한 독서노트를 사용. 2) 한 주간 한 권의 도서를 추천. 3) 모든 기관마다 독서 책임자를 세움. 4) 존 웨슬리에 대한 도서를 필독. 5) 교회의 모든 시상품을 도서로 함. 6) 모든 목회자와 임원들은 감리교회의 정체성 있는 도서를 필독. 7) <책만 읽어도> 독서운동을 시작한 교회는 단체구입 시 KMC도서를 50%에 드림. 8) 교회별로 독후감을 선별하여 교회별로 개인별로 시상하고 「기독교세계」에 게재.

특별히 “책만 읽어도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웨슬리 독서아카데미

웨슬리 독서운동 지도자를 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존 웨슬리의 독서관을 계승하여 감리교회 안에서 경건독서운동을 일으키고, 웨슬리안으로서 경건독서운동을 전개할 방법론을 훈련하며, 글쓰기 훈련을 통해 목회칼럼이나 교재를 쓰는 데 그 집필능력을 향상시킨다.

· 웨슬리 문서선교 씨앗회원

양질의 책을 기획하여 많은 감리교도들이 읽게 하려는 제도로, 존 웨슬리의 독서관을 계승하여 문서로 선교하는 제도이고, <책만 읽어도> 후원제도이며, 재정 확보로 단행본(도서출판 kmc) 출판과 보급을 활발하게 하는 제도이다.

② “감리교회 교재 사용하기 캠페인”

‘깊은 샘 · 뿌리 깊은 나무’ 인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희망을 만드는 출판국이 전개하는 캠페인이다. 타교단이나 선교단체의 공과가 교회 성장에 유익하다면 얼마나 교회 성장을 보장할 것인가? 혹 조금은 늦은 걸음일지라도 자랑스러운 존 웨슬리와 한국 감리교회의 전통, 신학, 정체성, 자랑과 긍지를 가르치기 위해 감리교회 교재 사용을 적극 권하고 있다.

4. 위원회

5. 정책 소고

‘도서출판 KMC 홍보를 통한 감리교회 희망 심기’

정현범 목사

박세리 선수가 십여년 전 미국 LPGA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했을 당시 삼성의 로고가 들어간 박세리 선수의 모자를 통한 삼성의 광고 효과는 대략 2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의 공식 스폰서 계약이 끝남에 따라 기존의 나이키에서 아디다스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금액이 더욱 올라갈 전망이다. 인기 스포츠에 이토록 고액의 광고를 하는 이유는 기업광고로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곧바로 매출신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독교 출판에서도 마찬가지다. 기독교 출판사로 널리 알려진 두란노와 규장, 그리고 홍성사 등은 높은 인지도로 기독교인들에게 잘 알려져서 그 출판사에서 새로운 도서가 나오면 기본적인 독자층이 형성되어 있어 판매되고 있다. 이제는 ‘도서출판 KMC’도 자기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곧바로 판매 신장으로 이어져 현재의 30% 안팎으로 사용되는 교회학교 아동부 교재인 짹궁 예수님 등 교재의 판매와 「하늘양식」, 「속회공과」, 그리고 단행본 도서의 판매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판매 증가로 인한 영업 이익을 교재 개발 등에 재투자하여 감리교인들에게 양질의 교재와 도서를 보급하여 감리교회를 섬기며 이러한 일을 통하여 감리교인들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고 개교회의 부흥과 발전으로 이어지게 한다.

‘도서출판 KMC’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먼저 희망전도지를 계속해서 기획하고 출판하여 감리교회에 보급한다. 8.23 영남선교대회를 앞두고 감리교회 인물 중심으로 만든 희망전도지는 감리교회의 자랑스런 인물 중심으로 편집되어 많이 보급되었고 지금도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빛낸 교회와 교육사업 등을 소개하는 보다 좋은 희망전도지가 나와야 한다. 3.1운동의 제암리교회, 유관순과 매봉교회, 최용신의 샘골교회 등 민족의 인물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 사업으로 감리교회 학교인 이화, 배재, 배화, 목원, 협성대학교 등을 소개하는 희망의 전도지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국 420여개 되는 기독서점에 도서출판 KMC 코너를 확충하여 도서의 판매 홍보와 판매증가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또한 153만 전체 감리교인이 읽을 수 있는 양서를 기획 출판하여 보급해야 한다. 전체적인 출판시장 규모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 그리고 기독 출판시장은 더욱 작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서도 희망은 있다. 흔히 책이 잘나가기 위해서는 재미와 감동이라는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재미만 있고 감동이 없으면 무게가 없어 너무 가볍고, 반대로 감동만 있고 재미가 없으면 너무 무겁다. 그러나 재미와 감동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잘 갖추어도 그 책을 홍보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책을 출판한 출판사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면 아무리 좋은 책이 나와도 판매는 저조할 것이다.

‘도서출판 KMC’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일은 감리교인들에게 궁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일이며 또한 판매 증가로 영업의 이익을 통한 나눔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수원



제 1연수부(일영)

제 2연수부(입석)

원장 인사



원장 정용치 목사

지난 27차 총회를 통해 연수원이 독립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단적인 오랜 숙원이 이뤄진 것이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려는 총회원들의 의지적 결단이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연수원은 타 교단이 갖지 못한 탁월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불합리한 본부구조로 인하여 제 기능을 다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아 왔는데, 이러한 제약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전

전이라고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조직체계를 갖고 그 기능이 확대되는 것과 더불어 연수원의 역할과 책임도 무거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일영에 위치하고 있는 제 1연수원과 입석에 위치하고 있는 제 2연수원의 시설을 위한 운영과 관리의 무거운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하나같이 낙후된 기존 시설들의 퇴락으로 인한 보수가 불가피하므로 필연적으로 소요될 경비를 어떻게 염출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주어졌고, 뿐만 아니라 제한된 시설로 다수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수 시설 확장 문제도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희망 프로젝트 제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영성 수련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숙의를 할 때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드웨어(hardware)로서의 시설 보수나 신축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software)로서 연수원의 본래 설립 목적에 부응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동안 제 1연수원과 제 2연수원에서 시행해 왔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책임도 주어졌습니다. 이미 총회 결의로 입법화 된 정회원 연수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에 더 많이 관심해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의 의무적인 교육 훈련도 그 업무의 중대성을 감안 할 때,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행한 것은 제 1연수원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엠마오 가는 길” (Walk to Emmaus) 영성 훈련의 활성화로, 회를 거듭할수록 목회자들과 평신도지도자들에게 많은 영적 도전을 주고 있으며 훈련에 참가한 이들이 속한 교회들의 건강지수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수원뿐만 아니라 감리교회와 나아가 한국 교회 전체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엠마오 가는 길”이 주로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라면 청소년을 위한 영성 훈련 프로그램인 “크리슬리스(Chrysalis)” 역시 기대할 만한 프로그램으로 금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 2연수원에서는 “산돌학교”가 입법 총회를 통해 공인된 교단 학교로서의 그 위상을 인정받게 되어, 학교 운영자들을 고무시켰을 뿐 아니라 심기일전하여 보다 건강한 교육을 위해 매진할 것을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의 위상이 위축되고 있는 차제에 우리 감리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자각하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상을 정립하여 희망을 주는 기관으로 우리 연수원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수원은 지역교회와 지도자들과 차세대 젊은 지도자들을 신앙적으로 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모든 동료 목회자들과 교회의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 업무 개요

본원은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기관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지도자들의 영성훈련과 지도력 개발을 도모하며, 감리교회가 역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리교회의 전반적인 과제를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 2007년에는 정회원연수교육과 영성훈련 프로그램인 ‘엠마오 가는 길’을 규모와 재정적인 면에서 안정화하고 목회자 부인을 위한 신학 교육원을 운용하는 일들을 중심으로 진행해 오면서, 감리교회의 리더십과 영성계발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교육훈련원과 살롬 유스호스텔을 통합하여 감리교연수원의 위상과 역할을 명실상부하게 회복시키는 귀중한 성과를 얻게 되었다. 이상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2008년의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첫째로, 감리교회 연수교육제도를 발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동안의 연수교육이 목회자 중심의 의무적 과정이었다면 향후로는 평신도와 여성과 젊은이들을 아우르고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는 명실상부한 연장교육제도로 정착시켜 가도록 힘쓸 것이다.

둘째로,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가는 것이다.

체계적인 영성수련을 위해서는 현재 일영과 입석에 확보하고 있는 시설에 수도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해야 하고 산돌학교의 경우도 기숙사 시설을 조속히 증축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일을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실현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셋째로, 새로 통합된 연수원의 조직과 업무를 조속히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교육훈련원과 살롬 유스호스텔이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프로그램 업무 뿐 아니라 시설관리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동안 노정되어 온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조직과 업무를 속히 안정화 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 국 위원 및 이사

1) 교육국 국위원회

운영위원장	최승일
운영위원	연회대표 10인(교역자 5인, 평신도 5인)
전문위원	3명

3. 업무 구분

부서	업무
원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연수원 대표연수원 제반업무 총괄유스호스텔 제반업무 총괄
제 1연수부(일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정회원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장로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평신도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영성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ul style="list-style-type: none">‘엠마오 가는 길’ (Seoul Walk to Emmaus)에 관한 업무젊은이 영성수련 프로그램(Chrysalis)에 관한 업무목회자 부인을 위한 신학교육원에 관한 업무감리교회 위탁 교육훈련 업무영성공동체 개발 및 영성수련원 설립사업에 관한 업무유스호스텔 재산관리 업무시설관리 및 임대사업에 관한 업무<ul style="list-style-type: none">재산 및 시설의 관리와 회계 및 운영 업무유관기관과의 행정업무유스호스텔 수익사업에 관한 업무청소년수련 지도 업무유스호스텔 단체급식소 운영 업무각급학교 수련시설 사용 계약 및 임대업무각 교회 및 단체 수련시설 사용계약 및 임대업무
제 2연수부(입석)	<ol style="list-style-type: none">대안교육에 대한 연구 및 산돌학교 운영에 관한 업무청소년 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신앙과 성품향상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지역 연대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건강교실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시설관리 및 임대사업에 관한 업무

4. 발간 자료

1) 2007년 발간 자료

번호	구분	제목	내용	비고
1	자료집	2007년도 정회원연수교육 자료집(B)	Belt-B 과정 자료집 교회행정, 기독교교육, 목회학	
2		목회자 부인을 위한 신학교육원 강의자료집(제 4기 1학기)	기독교교육, 구약개론, 상담학, 심리학개론, 신약개론, 예배학	
3		목회자 부인을 위한 신학교육원 강의자료집(제 3기 3학기)	설교학, 한국교회사, 종교사회학, 상담학, 선교학, 감리교신학	
4		2007년도 정회원연수교육 자료집(A)	Belt-A 과정 자료집 전도학, 예배학, 설교학	
5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엠마오공동체 간증집	

2) 기존 자료

번호	구분	제목	내용	비고
1	자료집	2006년도 정회원연수교육 자료집(A)	Belt-A 과정 자료집 전도학, 예배학, 설교학	
2		2006년도 정회원연수교육 자료집(B)	Belt-B 과정 자료집 목회행정, 기독교윤리, 교회사	
3		새신자 정착과 치유 목회 상담	심방전도사들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역 이해를 위한 세미나용 자료 모음집	
4		웨슬리 전통과 포스트모던교회의 설교	목회자들에게 포스트모던에 설교를 어떻 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교육하기 위한 세미나용 자료집	
5		하나님의 목회	영성목회, 성장과 교육목회, 실천목회 등 을 통하여 목회현장에서 생각해야 할 목 회의 본질을 지적한 감리회 목회자 전문 교육 시리즈	
6		어두움에 빛을 세상에 생명을	정회원연수교육 및 목회대학원자료	
7		수련목회자 영성 수련회 자료집	수련목회자들을 위한 영성수련회 자료집	
8		폭력 극복과 에큐메니칼 운동	폭력극복 운동과 에큐메니칼 운동 활성화 를 위한 교육훈련 자료집	
9		가정회복과 심방사역	가정회복과 심방사역에 대한 심방전도사 들의 안목을 넓혀주기 위한 심방전도사 세미나 자료집	

번호	구분	제목	내용	비고
10	자료집	교육 목회 세미나	교회학교 성장을 통해 교회 부흥을 도모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하는 교육목회 세미나 자료집	
11		복지사회와 새 목회 패러다임	정회원 연수 교육과 목회 대학원 연구 자료집	
12		현장 목회의 길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은 현장목회 측면에서 재조명한 강의집.	
13		제 3회 수련목회자 영성수련회 자료집	수련목회자를 위한 영성수련회 자료집	
14		전문 목회 세미나	바른 예배를 위한 성만찬 예배의 의미와 새로운 모색을 수록	
15		청년을 새롭게	기독청년 교육 훈련 지침을 위한 연구 자료집	
16		양육과 치유사역의 새 패러다임	심방전도사 사역 세미나용 자료집	
17		노인 복지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노인 복지 목회를 위한 세미나 자료집	
18		변혁기의 목회 정체성	변혁기에 목회자들에게 목회의 정체성을 재고하게 하는 정회원 연수과정과 목회대학원 자료집	

5. 각부 정책

제 1 연수부(일영)

· 부장 김용택 목사

1 업무 추진 방향

1) 감리교회 지도력(Leadership)의 균형있는 계발이다.

① 지성과 영성의 균형 -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두들 끓주린 자들처럼 새로운 정보를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의 실상은 마치 홍수 때 정작 마실 물을 얻지 못해 고통당하는 형국과 같다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영적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우리가 취하는 정보의 가치와 효용이 달라진다고 할 때, 지도력에서 지성과 영성의 조화는 매우 중요한 가치일 것이다. 이를 위해 제반 연수교육에서 학습과 영성훈련이 균형있게 실시되도록 할 것이다.

② 목회자와 평신도의 균형 - 이 시대의 교회지도력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 중의 하나가 조화와 협력의 파트너십(Partnership)일 것이다. 지금까지 주로 목회자의 리더십에 주목해 왔다면 이후로는 목회자리더십의 파트너인 평신도들의 지도력을 계발함으로써, 같은 차원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 교회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회, 교회의 임원들을 위한 연수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갈 것이다.

③ 세대 間의 균형 - 성인들에 대한 연수 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한 리더십 훈련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UMC와 협의하여 젊은이들의 영성훈련 프로그램인 CHRYSLIS를 도입할 것이며, 미국을 비롯한 WMC 소속국가의 젊은이들과 교류연수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다양한 경험과 국제적인 견문을 갖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웨슬리 영성수련의 道場 마련이다.

① 웨슬리 영성수련원의 모범 마련 - 웨슬리 영성훈련을 체계화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모범적인 영성수련원이 마련되어야 하는 바, 일영연수원이 확보하고 있는 기존 수련시설에 채플 등의 수도시설을 증축하여 웨슬리 영성수련원의 전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

② 연회별 웨슬리 영성수련원 설립방안 모색 - 웨슬리 영성훈련의 기회를 개체교회로 까지 확산시켜가기 위해서는 일영연수원의 시설만으로는 제한적이므로, 현재 개체교회가 관리하고 있는 기도원이나 수련시설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각 연회별로 1곳을 선정하여 ‘웨슬리 영성수련원’(가칭)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영성훈련의 과정과 내용은 연수원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가고자 한다.

③ 사이버(CYBER) 영성수련원 운영 - 인터넷 시대에 걸맞게 연수원 홈페이지에 사이버 영성수련원을 운영하여 일상생활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생활영성훈련의 場이 되게 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웨슬리 영성수련의 기반을 조성해 갈 것이다.

2 현황

1) 정회원 연수교육 이수자 현황

2006년도							2007년도				
1차(A)	2차(B)	3차(A)	4차(B)	5차(A)	6차(B)	계	1차(통합)	2차(통합)	3차(A)	4차(B)	계
82	88	94	80	57	69	470	613	87	18	27	745

2) 엠마오 가는 길(Seoul – Walk To Emmaus) 경험자 현황

구분	인원	참여교회	직분별							
			목회자	전도사	사모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청년
8기(남자/청년)	25	12	3	2			2	1	2	15
9기(여자/청년)	42	20		2	4				2	34
10기(여자)	41	14	1	2	4	2	19	11	2	
11기(남자)	39	20	12	2		7	9	9		
12기(여자)	36	20			8	1	20	7		
13기(남자)	41	30	17	2		9	8	3	1	1
14기(여자)	40	22		1	4	1	9	17	5	3
15기(강서)	34	33	2	2	22		1	5		2
16기(남자)	38	24	11	3	11	3	9			1
17기(여자)	42	17		1	2		20	10	3	6
계	378	212	46	17	55	23	97	63	15	62

3) 2007년도 목회자 부인을 위한 신학교육원 등록 현황

봄학기			가을학기		
2기	3기	계	3기	4기	계
23	23	46	23	49	72

③ 주요 업무

1) 정회원연수교육

목회자가 자기성찰과 학습의 기회를 갖고 동료 목회자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현행 정회원연수교육을 모든 목회자가 정기적인 연수교육을 통해서 학습과 노동과 기도훈련을 경험하는 진정한 의미의 수련으로 발전시켜 가야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웨슬리 영성수련의 일환으로 매번 영성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과 같이 연회가 있는 해에는 정회원연수교육에 참석하는 이들이 적어서 교육수요가 격년으로 집중되는 불균형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회별 격년제 연수교육방식’ 등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갈 것이다.

2) '엠마오 가는 길' (Walk To Emmaus)

이 프로그램은 지역교회 평신도지도자들을 훈련시켜 개체교회의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그들의 영성과 지도력을 계발하여 지역교회 목회자들의 좋은 협력자가 되게 하고, 나아가 사회 속에서 모범적인 크리스챤으로 살아가게 함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하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과정은 철저한 헌신과 겸손한 봉사, 그리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발굴과 양육의 정신, 또한 매사에 균형과 협력을 이루는 건강한 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교역자와 평신도지도자간에 건전한 파트너십이 요구되는 이때에 이러한 정신과 태도는 매우 바람직한 영향을 교회에 끼치게 될 것이다. 특별히 평신도 연수교육이 제도화되고 있는 때에 지방회, 개체교회 임원연수의 일환으로 적용하여 광범위하게 활용할 것이다.

3) '청년 엠마오 가는 길' (크리슬리스–Chrysalis)

지난 2007년 1월 청년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WALK가 두 차례 시행된 것을 시작으로 청년과 청소년들에 대한 영성훈련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고, 신앙의 다음 세대에 대한 대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0월 미국 UMC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청소년 영성훈련 프로그램인 CHRISALYS를 도입하기 위하여 미국연수를 실시하였다. 2008년 3월에는 UMC 다락방파의 조인식을 위한 봉사자 합동수련회와 7월의 두 차례 남,녀 Walk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 CHRISALYS를 본격화함으로써 감리교 지도력의 세대별 균형도 이루어갈 것이다.

구분	일시	장소	대상	인원	비고
Chrysalis팀멤버세미나	3/24~25	일영연수원	팀멤버	40	
청년엠마오(Chrysalis)	7/20~23		청년(남자)	36+50	
	7/27~30		청년(여자)		

4) 목회자 부인을 위한 신학교육원

자기개발과 지도력 확립을 위하여 공부하기 원하는 목회자 부인들을 대상으로 문을 연 신학원은, 신학대학의 정규 과목을 거의 모두 학습하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였으며, 그 분야 최고의 교수들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교회 현장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강의하고 있다. 모든 과정을 필한 졸업생들에게는 졸업장과 심방전도사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으며, 2007년 가을학기부터는 감리교신학대학 목회상담센터의 전문상담커리큘럼을 교양과목에 접목하여 상담사자격을 갖추는 과정이 시행되고 있어 개체교회 목회 리더십의 강화와 감리교 여성

리더십 개발에 좋은 통로가 되고 있다.

구분	일시	학기	과목	인원	비고
봄학기	3/24~27	3기 4학기	생명신학, 목회행정, 상담학 신약신학, 현대신학, 목회상담	17명	
	4/28~5/1		조직신학, 기독교윤리, 상담학 세계교회사, 영성신학, 여성신학	43명	
	5/26~29	4기 2학기			
가을학기	9/29~10/2	4기 3학기	설교학, 한국교회사, 종교사회학 상담학, 선교학, 감리교신학	43명	
	10/27~30		기독교교육, 구약개론, 상담학 심리학개론, 신약개론, 예배학	50명	
	11/24~27	5기 1학기			

5) 감리교 영성훈련체계 수립과 웨슬리 영성수련원 건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교단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웨슬리신학자, 영성훈련관계 전문가, 교단의 지도자들과 함께 논의하여 감리교 영성수련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가칭 웨슬리 영성회복운동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영성운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고자 한다. 또한 연수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사이버(CYBER)영성수련원을 운영함으로써 영성운동이 일상화되고 표준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현재의 일영연수원에 수도시설을 증축하여 영성수련의 요람을 모범적으로 건설하고 이를 연회별로 확대시켜가는 일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연구하여 웨슬리 영성회복운동이 전 감리교회적으로 일어나도록 노력할 것이다.

4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위원
정회원연수교육 운영위원회	조경열	장연희, 고신일, 김영선, 김의중, 김종복, 김한구, 김홍기 박노권, 안승철, 여성훈, 이선균, 이성우, 이용윤, 함영석
엠마오 가는 길(S-WE) 운영이사회	원방현	정용치, 이선균, 권영규, 송규의, 허태수, 김래현, 김영훈 김대연, 김효승, 고완균, 한상훈, 유경희, 김성수, 김지영 김현미

5 정책소고

“젊은이들을 웨슬리의 영성으로 세워가기 위한 방안”

(참조 - “What is Chrysalis?”, Sharlyn DeHaven Gates, Upper Room Books, 2003.)

김용택 목사

I. 서론

그동안 장단기발전위원회 제 1분과의 주제를 따라 ‘감리교 영성회복운동’에 대해 관심해 오면서,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요구는 우리의 다음 세대인 청년, 청소년들을 웨슬리 영성으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형성되어가는 청소년, 청년의 시기에 영향력 있는 영성훈련을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고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크리스챤 리더들을 배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미연합감리교회 다락방(UMC Upper-Room)에서 실시하고 있는 CHRY SALIS(이하 ‘청년엠마오’)는 이런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영성훈련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간절한 바람과 준비로 2008년에는 우리 한국감리교회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린다. 기쁜 마음으로 소개하며 이 땅의 젊은이들을 웨슬리 영성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CHRY SALIS란 무엇인가?

청년엠마오(Chrysalis)는 교파와 인종을 초월하여 젊은이들을 위해 마련된 국제적인 에큐메니칼 영성훈련 프로그램이다. 이 영성훈련은 고등학생을 위한 Chrysalis Flight와 대학생, 청년들을 위한 Chrysalis Journey로 나뉘어 있다. ‘엠마오 가는 길’(이하 Walk to Emmaus)처럼 청년엠마오는 참가자들이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크리스천 제자도에 관한 15개의 토크(말씀)를 듣고 응답(토의 발표)하며, 성찬의식을 포함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등 72시간 동안 기독교 영성훈련을 하도록 짜여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마다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청년엠마오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다. 그들 중의 다수는 청년엠마오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또 다른 이들은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는 통찰력을 발견하기도 하며, 심지어 몇몇은 청년엠마오를 통해 목사의 소

명을 받기도 한다.

청년엠마오 기간 동안에, 참가자들은 소그룹에서 만나고, 토의하고, 함께 기도하며 배운다. 그들은 후속모임(Next Steps group이라고 한다.)인 소규모 영적 지원 그룹에 속함으로써 그들의 청년엠마오를 계속 이어가도록 권면 받는다. 이 그룹의 멤버들은 제자도의 여성이 계속되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맡겨진 여러 가지 영적인 책임들을 위해 서로 돋는다. 3일 이벤트와 후속모임(Next Steps groups)은 모두를 다시금 새롭게 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 젊은 크리스천 지도자들을 강하게 세워 간다. 그들은 미래에 뿐만 아니라 오늘의 지도자들인 젊은 사람들이다.

UMC 다락방 청년엠마오 담당자들은 미국, 코스타리카,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영국, 남아프카 공화국, 독일,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하여 전 세계 230개의 지역에서 매년 거의 2만 명의 젊은이가 청년엠마오를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청년엠마오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1984년에, 다락방은 영적갱신과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인 엠마오 가는 길의 청년부문(youth counterpart)으로 청년엠마오를 시작하였다. Walk to Emmaus는 1949년에 스페인에서 시작하였던 로마 가톨릭의 Cursillo(꾸르시요)운동의 응용이다. 최초 Cursillo 지도자들은 기독교신자 환경으로 그들의 살고 일하는 환경을 변화시키도록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기 위하여 그들의 기독교 신앙의 단기 훈련 코스(Cursillo de Cristianidad)를 계획하였다.

3) 청년엠마오의 목적은 무엇인가?

청년엠마오는 크리스천 젊은이들의 영성을 세워가기 위한 교회의 노력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적이고 경험적인, 기독교 신앙과 행동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젊은이들에게 제공한다. 3일의 여성 동안 청년엠마오 참여자는 크리스천 공동체를 이룬다. 그들은 예배와 성찰, 체계적인 가르침과 소그룹 대화, 창조적인 표현과 연극, 기도, 그리고 광범위한 청년엠마오와 엠마오 공동체에서 제공되는 매일매일의 이벤트들을 통하여 살아 있는 그리스도를 경험한다. 결과적으로 젊은이들은 오늘의 세계에서 크리스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함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들을 훈련하며 영적으로 성장한다.

청년엠마오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하시는 역동적인 친밀감을 맛보게 하고,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함께 성장하게 하며,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유일하고도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젊은이들에게 도

전을 준다. 3일의 경험 후에, 청년엠마오는 그들이 받은 사랑을 나누도록 격려한다. 즉 교회와 젊은 그룹과 학교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행동하고, 후속 모임과 전체 청년 엠마오 공동체의 gathering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한다. 청년엠마오는 젊은 사람들의 영적인 삶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4) 왜 이름이 CHRYSALIS인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고대 크리스천 심볼인 나비는 Chrysalis의 중심 메타포를 제공한다. 나비의 생명 사이클을 생각해 보자. 그러면 Chrysalis가 젊은 사람들을 변화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으로서 영적 성장의 여정을 훌륭하게 나타낸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유충으로 생을 시작하는 나비는 번데기 단계 동안에 의미 있는 무엇인가가 되도록 낡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놀랄 만한 변화를 거친다. 비슷하게 그리스도인 변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낡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경험하며 (첫째 날의 초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동기를 부여 받아 새로운 자아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둘째 날의 초점), 마침내는 소외된 세상과 화해하고, 사랑이신 하나님 사역에 기꺼이 동참하는 지체된 동역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앞으로 나아간다(셋째 날의 초점). Chrysalis는 젊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17)라고 기록했을 때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해하고 또한 경험하도록 도와준다.

5) CHRYSALIS EVENT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날은 참가자들이 하나님에 어떻게 유일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들 각각을 창조하였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어떻게 하나님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새 생명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더 깊은 수준으로 알아 가도록 한다. 어떻게 그들이 옛 자아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첫날에 참가자들이 왜 유충(Caterpillar)이라고 불리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한다.

둘째 날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희망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날은 개인한 새 생명을 준비하기 위해 나비의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 중요한 시간인 고치 단계(the chrysalis)를 강조한다. chrysalis stage는 성장하는 때이고, 고치 밖으로 탈출하기 위해 예비하는 때이며, 날기 위해 준비하는 때이다. 마찬가지로, 둘째 날에, 참가자들은 그

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준비하는 강한 제자들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도와 학습 같은 중요한 도구들에 대하여 배운다.

셋째 날은 성령의 권능에 초점을 맞춘다. 이 날은 참가자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며 기독교적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날도록 격려 받음으로써 나비(Butterflies)라고 불리는 날이다.

6) 청년엠마오에는 누가 참석할 수 있나?

Chrysalis Flight는 고등학교(15-18세) 학생들을 위해 있다. Chrysalis Journey는 대학 나이 젊은 사람들(19-24세)을 위해 있지만 대학생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대학에 다니지 않는 같은 또래의 청년들도 Chrysalis Journey에 참가할 수 있다.

바람직하기는, 교회 청년활동에 적극적인 이들로서, 이후 젊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이들, 캠퍼스 사역 헌신자들, 다양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일치된 경험을 필요로하는 젊은 크리스찬 지도자들, 청년부 지도자들이 우선적인 대상이라 할 수 있다.

7) 후속모임(Next Steps group)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첫째로, 모든 그룹 멤버가 그들의 기도생활을 돌아보고 지난주에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어왔고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경험했는지를 나눈다. 둘째로, 그룹 멤버는 그들의 학습 시간이 어떠했는지,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키워 나갔는지를 돌아보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 힘 있게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눈다. 세 번째, 그룹 멤버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나눈다. 그때 각 사람은 다음 한 주 동안 교회의 목회를 돋고 참여하기 위한 계획도 함께 나눈다. 모임은 기도로 끝낸다. Chrysalis Flight 또는 Journey를 아직 경험하지 않고 있었던 청년도 자유롭게 Next Steps 모임에 참가해도 좋다.

8) 청년엠마오는 교회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

최근에 많은 교회는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염려한다. 소그룹들은 자원이 모자라고, 목회와 선교를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도 부족하다. 아직도 일반 회중들은 생명력과 열정이 부족하다. 어찌할 것인가?

엠마오 가는 길처럼, 청년엠마오는 지도자들을 개발하고, 그들의 믿음을 깊게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부름에 그들의 감각을 예민하게 일깨우도록 하기 위해 디자인되었다(마 5:13-14). 성령은 젊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일으키고, 그들

이 그리스도가 제공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해 청년엠마오를 사용하신다. 이 영적 간증은 젊은 사람들이 예배와 각종 봉사와 소그룹공부에 출석하는 것처럼 성장과 봉사를 위한 열정을 회복하고, 참된 희망을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얻을 때, 교회 공동체 전체는 사명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분별력을 공유하고 그들이 살아있으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젊은이들이 참가하도록 권유하고 싶어 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자주 청년엠마오 젊은이들이 예배, 성경학교, 성경공부, 미션프로젝트들, 그 밖의 많은 활동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젊은이는 미래의 지도자들이라고 자주 말한다. 그 말이 진실인 한, 하나님 또한 젊은이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바로 지금 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 또한 깨달아야 한다.

9) 어떻게 청년엠마오는 관계를 회복시키는가?

청년엠마오는 국제적이고 다문화적이며 초교파적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분열과 미움의 장벽을 허물어뜨린다. 청년엠마오는 모든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배우고 경험할 장소를 제공한다. 그것은 다른 종파와 다양한 경쟁관계에 있는 문화의 젊은이들이 함께 만나고 관용을 배우고 서로를 위해 사랑할 기회를 갖는 자리이다.

청년엠마오는 젊은 이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를 돋는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상처 입은 마음속으로 넘쳐흐르는 용서의 경험만큼 감미로운 위안은 어디에도 없다. 탕자의 이야기와 같이 많은 젊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먼 나라”로 방황해왔다 는 것을 느낀다. 그들은 본래,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들이 집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두 팔을 벌려 그를 맞아들이고, 큰 기쁨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시작이며, 두 번째 기회인 것이다! 젊은이들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내적 갈망을 깨닫고 또 그렇게 할 기회를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 청년엠마오는 이러한 젊은이들에 대해 애정을 품고 있고 신실한 사랑의 방법으로 기간 내내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엠마오는 젊은이, 그들의 부모, 그리고 다른 어른들 사이의 화해를 돋는다. 대부분의 젊은이는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이해되는 것을 원한다. 그들은 상호 존중과 성실한 돌봄이 있는 어른들과의 거짓 없는 관계를 바란다. 젊은 사람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청년엠마오에서 어른들과 함께 일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연합을 발견하면서 “세대차”는 좁혀 진다.

이런 종류의 화해는 가족을 넘어서 교회와 학교와 공동체에게로 확장된다. 젊은 사람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이 누구며 누구의 것이냐에 관해 확증될 때, 그들은 자연스럽 게 어른들에게 접근하는 것에 솔선하고, 친밀감을 표현한다. 뿐만 아니라 청년엠마오는 같은 또래의 청년들에게 문화적, 교파적 차이를 넘어 다른 멤버들과 함께 배우고,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첫 번째 확장공간과 시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청년엠마오는 사랑과 봉사로 일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직접 경험하려는 청년들에게 확실한 기회를 제공한다.

III. 결론

비록 청년엠마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용서 안에서 새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니지만, 그것은 확실히 오늘날 성령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임에 분명하다.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매년 청년엠마오를 통해 영적 회복을 얻는다. 청년엠마오를 통해 우리는 이사야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사 40:31)

청년엠마오는 젊은 사람들이 그들의 날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빛어지는 곳으로,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는 통로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난다.”고 할 수 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 방황하는 이때, 웨슬리 영성으로 잘 짜여진 72시간의 훈련인 청년엠마오를 통해 그리스도의 힘 있는 제자로 다시 설 소망을 발견하며 2008년에는 정책적으로 힘을 쏟아 젊은이들을 웨슬리 영성으로 세워 가고자 한다.

제 2 연수부(입석)

· 부장 이은재 목사

① 업무 추진 방향

2008년도 입석 제 2연수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연수원 위상 변화에 따른 업무조정과 시설 보수이다. 입법의회를 통해 연수원의 위상이 달라짐에 따라 입석교육원도 제 2연수부로서 새로운 위상 속에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시설 확장 및 노후 시설 보수는 연차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시급하면서도 지속적인 과제이다.

산돌학교는 5년 과정의 중고통합 교과과정이 완성되며, 교단학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안정화의 단계로 들어갈 것이다. 기숙사 등 현재의 부족 시설 확보가 당면과제이다.

교육 및 영성프로그램은 임락경 건강교실, 몸비우기 영성수련회, 산돌학교 국토순례, 교사수련회, 그리고 공동주관 프로그램으로 감리교 평화생명수련회(고난함께), 청년평화캠프(MYF), 나눔선교회 청소년연합수련회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② 현황

산돌학교

학생	1학년 23명	계 97명
	2학년 24명	
	2학년 19명	
	3학년 18명	
	4학년 13명	
교사	정교사 14명	계 24명
	휴직 2명	
	강사 8명	
기타직원	부장 외	계 7명

③ 주요 업무

1) 산돌학교의 교단 위상 확보와 홍보

입법의회를 통해 연수원법이 개정됨으로써, 입석교육원은 제 2연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 교육에 집중하여 대안교육 연구와 산돌학교 운영을 주요업무로 하게 되었다. 산

돌학교가 감리교회의 학교로서 법적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좀 더 충실하게 안정화가 이루어 지리라 기대된다. 교단 내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산돌학교의 위상을 확보해 갈 것이다.

2) 시설보수

제 2연수원의 시설보완은 감사위원회의 상시적인 지적사항이며 숙원사업이다. 제 2연수원의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산돌학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모금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2008년 초까지 1억 5천만 원을 약정하고 감리회 본부에 약정 현금서와 함께 현재 약 5천만 원을 현금하였다. 이를 Seed-money로 하여 적극적인 모금사업을 통해 필요한 시설을 확보해 갈 예정이다.

3) 산돌학교

① 산돌학교는 우리 감리교회가 세운 한국 기독교 최초의 본부 종립 대안 학교로서, 존 웨슬리가 남긴 신앙과 교육실천에서 새로운 신앙 및 교육적 의미들을 발견하고 이를 우리의 대안학교에서 새로이 구현하고자 한다. - 웨슬리는 “참된, 살아있는 신앙”을 추구하는 “실천적 신학”과 비범한 교육실천의 사례를 남겼는바, 이 모두는 (현대적 해석을 통하여) 우리가 모색하려는 새로운 학교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② 또한 “생명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독교 대안학교”로서 작은 구도자를 길러 내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대화를 통한 인격적 만남으로 삶을 배우는 학교로, 얼과 윗과 몸이 하나되는 전인격적 통전적인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③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만드는 학교 교육과정으로 참여 교육을 실현하며, 기본적인 덕성과 성품에서 조화를 이루게 하고, 국제 이해와 통일교육으로 평화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④ 각 교과간의 통합 및 프로젝트식 수업으로 통합교육을 이루며, 학부모들과도 학교의 교육 이념을 공유하고 교육 활동에 관심과 참여를 갖게 함으로써, 삶과 교육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넓혀가는 학부모 교육에도 힘쓸 것이다.

4) 교육 및 영성프로그램

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영성프로그램과 공동주관하는 청소년 영성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계획할 것이다.

② 산돌 학생들을 위한 청년엠마오(Chrysalis) 프로그램을 도입하려 한다.

③ 교사, 학부모,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열린 예배를 시도해보려 한다. 가

능하면 정례화 할 예정이다.

- ④ 교사들의 영성수련과 관계소통을 위한 연수회를 정례화하여 시행한다.

4 위원회

1) 산돌학교이사회

이사장	신경하
당연직 이사	연수원운영위원장(부이사장), 연수원장, 교육국 총무, 사무국 총무 교장(제 2연수부장), 대표 교사

2) 산돌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병학(남양주YMCA) 사무총장
위원	이은재(교장), 한선헤(대표교사), 서형준(교목), 강혜인(교사/서기) 민마디(학생대표), 김다산(남학생기숙사생장), 남기상(학부모대표) 장인순(1학년학부모대표), 김동규(2학년학부모대표) 김종락(4학년학부모대표), 양종석(수사모회장)

5 정책소고

“산돌학교, 교육의 희망을 열어가는 감리교대안학교”

이은재 목사

‘희망’은 미래지향적이며, 미래의 주인공은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이다. 따라서 감리교회의 희망프로젝트는, 필연적으로 청소년의 교육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감리교대안학교인 산돌학교는 2008년도에 5년차를 맞이하며 5년의 중·고 통합 교육과정의 한 짜이클을 완성하게 된다. 또한 금번 2007년도 입법의회를 통해 산돌학교의 법적인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

다. 제 2연수원의 교육시설을 확충·보충하기 위한 기금을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모금하고 교단에 1억 5천만 원을 약정하고 현재 5천만 원을 현금하였다. 감리회 본부와의 유기적 관계가 더 공고하게 되는 이 시점에, 본 소고를 통해 왜 감리교회가 대안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는지, 또 이를 통해 감리교회는 어떻게 청소년들과 이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지를 함께 공유하고, 산돌학교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한 건설적이고 보완적인 대안들을 함께 찾고자 한다.

1) 왜 감리교회는 대안학교를 만들었는가?

산돌학교 설립에 철학적·교육학적 틀을 제시하였던 감리교신학대학의 송순재 교수는 감리교대안학교의 설립이유를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참된, 살아있는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적 영성교육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① 우리의 대안학교는 “참된, 살아있는 교육”을 위한 기독교 신앙의 본래적 과제와 그 사회적 책임에 따른 것이다. 입시와 살인적 경쟁구도로 끊임없이 심화되고 있는 교육적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정당한 관점과 가치관이 심히 왜곡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공교육의 자기 혁신과 쇄신을 위한 노력과 어깨를 함께 하여,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으로부터 싱싱한 생명력이 흘러넘치도록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다른” 교육을 추구하려 한다.

② 우리의 노력은 공교육의 그 마땅한 본령이 어때야 함을 밝히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공교육 안에는 부재한 요소, 즉 기독교 종교적 가치와 관점을 정당하게 구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현 공교육 체제 안에서는 정당한 뜻에서 종교와 영성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평준화 제도 도입 이후 기독교종립학교는 종종 그 특성을 서서히 상실해 왔다. 우리는 교육행위에 있어 국가가 통제하는 지평을 넘어서서 나타나는 초월의 영성을 모색하기 위한, 종교적 자유에 대한 특별한 요청이 필요함을 확인한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혼의 교육학”이라 부를 수 있겠다.

2) 산돌학교 교육과정의 특징

감리교대안학교가 추구하는 교육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유

우리는 전통적 기독교종립학교와는 달리 자라나는 인간에 대한 보다 다른 인간학적 인식과 관점에 입각하여 한다. 전통적 학교들이 타락한 인간의 어두운 면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면서 엄격하고 권위주의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본래 자유롭고 창조적인 존재임을 밝히면서 그러한 원천적 가능성을 지향하는 교육을 구현하

려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의 교육은 통제와 교도, 지시와 감독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그들의 창조적 자유가 발현되도록 도우려 한다. 하지만 이 자유는 결코 방만한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과 하나님, 이웃과 사회 문화적 과제에 묶여 있는 책임적 자유를 의미한다. 이 자유는 어린이와 청소년들 삶에 내재한 자유에 대한 근대 교육학적인 통찰과 일정부분 관련되는 개념이자, 아울러 19세기 중엽에서 20세기 초엽 사이 기독교대안교육에서 추구했던 방향이기도 하다.

② 통전성(統全性)

우리 교육은 통전성을 지향한다. 이는 근대 교육이 어느 한 쪽을 강조하다 상실한 삶의 전체적 양상을 회복하자는 것이요, 성서가 말하는 참된 인간적 삶의 원형을 회복하자는 깊이에서이다. 첫째, 인간의 발달을 전체적으로 또한 전면적으로 - 머리, 가슴, 손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 인식하고 그 발달을 돋는다는 뜻이다. 둘째 통전성이란 인간을 그가 속한 환경 전체 - 타인, 사회, 그리고 우주 자연 전체와 영적 세계 - 와의 연관구조 속에서 이해하고 그 발달을 돋는다는 뜻이다. 셋째, 통전성은 항상 개성(個性), 즉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에 내재한 고유한 성격과 발달의 법칙을 교육의 출발점이요 최종 과제로 삼는다. 이런 뜻에서 자기 발견을 위한 추구와 타자들과의 어울림을 위한 과제 실현에 역점을 두려 한다. 사회성과 양심, 다양한 미적 체험과 예술 활동, 놀이와 체육, 모험과 여행, 대화와 참여 같은 주제들을 강조할 것이다.

③ 통전적으로 재구조화된 교육과정

우리 교육의 지향점이 통전성이라면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도로서 교육과정은 역시 통전적 구조를 갖추도록 한다. 이는 다만 교과 중심적인 것으로 끝나는 전통적 방식을 넘어, 교과와 교과가 서로 연관되도록 전체적으로 엮어내고, 이론과 실천이 연계되도록 하고, 인격과 교과내용이, 교사와 학생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학교와 세계 및 우주 전체가 서로 엮어지는 구조를 의미한다. 교육과정은 다만 교사가 가르치기 위한 과정을 구상하는 작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일체의 환경과 의미맥락 속에서, 그 스스로 삶을 유의미하게 체험하기 위한 삶의 공간을 의미한다.

④ 깨달음

학습은 다만 지적 전수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특별한 내적 인식, 즉 오랫동안 “궁리”(窮理)하여 도달하는 “깨달음”(覺)을 목표로 한다. 많은 지식을 가르치지 않으려 하나, 적당한 지식의 경로에 들어가 그 요체를 파악하기 위해 씨름하고 매달리고 궁구하는 태도를 배양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학습 구조는 자기의 내면세계, 즉 영혼의 세계를 하나님께로 열기 위한 뜻도 가진다. 이는 이미 존 웨슬리의 가르침에서 볼 수 있듯, 양육과

회심, 성화와 완전이라는 오랜동안의 영성적 순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감리교적 전통에 서서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이를 비판적으로 넘어서서 현대의 유의미한 기독교 종교교육적 연구 성과들을 도입할 것이다.

⑤ 감리교적 특성이 잘 살아있는 기독교종교 및 영성 교육

우리는 존 웨슬리가 남긴 신앙과 교육실천에서 오늘날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만한 신앙 및 교육적 유산들을 발견하고 이를 우리의 대안학교에서 새로이 구현해 보려 한다. 웨슬리는 “참된, 살아있는 신앙”을 추구하는 “실천적 신학”과 비범한 교육실천의 사례를 남겼는 바, 이 모두는 (현대적 해석을 통하여) 우리가 모색하려는 새로운 학교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⑥ 한국인의 혼과 몸에 맞는 토착화된 교육

우리는 이러한 신학적, 교육학적 노력을 한국인의 얼과 혼을 바탕으로 추구하려 한다. 한국인의 심장으로 느끼고 한국인의 혼으로 깨달은 기독교적 진리와 교육적인 진리가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모국어와 한국인의 철학, 예술, 삶의 형식들에 녹아난 교육·문화적 전통들 중 의미 있는 것들을 기독교적 전승과 서구 교육적인 모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 있게 해석해냄으로써 오늘날 우리 새로운 교육적 노력이 우리 정서와 몸에 맞고 또 새롭고 창조적인 것이 되게 하려 한다.

⑦ 생태와 생명, 평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

우리의 대안 교육적 노력은 현 세계의 주도적 흐름인 경제세계화적 교육방향, 돈과 맘몬이즘, 경쟁과 지배, 착취와 종속의 교육을 온 몸으로 거부하며, 오히려 성서와 진정한 교육이 중언하는 생명을 살리고, 더불어 사는 생태와 평화적 가치를 추구하려 한다.

⑧ 우리가 희망하는 인간상 “작은 구도자”

이상에서 우리가 희망하는 인간상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작은 구도자”라 할 수 있다(빌 3:12-21). 하나님의 우주 안에서 생명적 진리를 추구하고 이를 발견하며 이를 이웃과 더불어 체화해낼 수 있는 인간을 말한다. 다만 “작은” 이란 형용사를 붙인 것은 아직은 어리기 때문이요, 자라나야 할 뜻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로되, 이는 아울러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우리는 스스로를 “작은 자”로 인식하고 발견하려 한다. 그래서 우리의 학교공동체는 “작은 형제”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스스로를 작은 자로 발견함으로써 평민의식을 갖추게 되고, 이웃과 형제가 되고, 우주와 자연 만물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생태적이며 민주적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작은 자는 추구할 것이며 추구하는 자는 스스로를 마땅히 작은 자로 발견할 것이다.

3) 향후전망과 효과

① 산돌학교는 현재 4학년까지 총 80여명이 공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5개 학년이 완성되어 학생 100여명, 교사 20여명이 확보될 것이다. 5개년의 교육과정도 완성된 형태를 갖출 것이다. 특히 2007년 11월에 4학년 학생들이 인도로 떠나는 2~3개월의 해외이동수업은 전체 커리큘럼에 새로운 도전과 전망을 제공해 줄 것이다.

② 산돌학교는 역사가 짧다. 또한 기독교 종립 대안학교라는 특성 때문에 대안교육 현장에서는 염려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 수십 개의 미인가 대안학교 중에서 산돌학교는 톱클래스로 인정받는다. 2007년도에 이어 2008년도에도 미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는 서류 및 현장 심사에서 모두 A를 받았다. 이를 통해 감리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③ 산돌학생들은 5년의 교육과정에서 일반학생들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한다. 두 차례의 해외이동수업, 직업선택을 위한 도제수업이나 인턴경험, 교차적인 교사의 지도와 멘토링, 다양한 주제수업과 생활수업,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예술교육, 절기에 따른 수업들, 학생동아리 활동, 지속적인 영성수련, 노동수련, 국토순례 등등. 이렇게 자라난 친구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삶의 가치는 사회의 모범이 될 것이다. 각 대학에서 대안학교 출신자들에 대한 특례입학을 늘려가는 것은 이들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④ 현재 산돌학교의 재정은 경상비에서 일정부분 자립을 이루고 있다. 물론 교사의 인건비가 공교육의 교사들에 비할 수 없지만, 감리회 본부의 시설에 대한 지원과 개 교회의 직간접적인 지원은 산돌학교의 안정화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입법의회를 통해 산돌학교가 감리회의 학교로 위상이 확보되면서 더 많은 지원과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⑤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고 독특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매년 열리는 <산돌 작은 음악회>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고, 지난해 5월에는 남양주 YMCA, 수동주민자치회의와 공동주최로 반딧불이 축제를 열어 수동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연계하는 기초를 놓았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산돌학교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으며 긍정적인 평가가 늘어나고 있다.

⑥ 산돌학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모금한 1억5천만 원을 씨앗으로 제 2연수원 시설을 확충·보수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제 2연수원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노후화된 제 2연수원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보수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행정기획실



총회행정부
기획홍보부
역사전산부
서무행정부
본부회계부

실장 인사



실장 유희용 목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비서실장의 직임을 맡은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본부 생활 10년의 경험을 살려 감독회장님과 10개 연회 감독님들을 잘 보필하여 섬기고자 열심히 땀 흘려 일했지만 돌이켜보면 적지 않은 보람과 함께 부족한 점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늘 제 머릿속에는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의 모습과 “희망”이 어떻게 삶의 현장 속에 녹아들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좀 더 신뢰받는 비서실,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비서실로 독창성,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을 가지고 현장과 함께 할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고 일해 왔습니다.

특히 영남선교대회가 목표 이상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숨어서 보좌한 일과 전국의 소외된 지역을 돌며 “희망”的 씨앗을 뿌린 일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희망대심방은 모두 10차례 시행되었는데 전라남도 해남 땅끝 마을로 시작하여 금강산 온정리마을, 대전 외노센터, 금산 노숙자 자활센터, 벤엘의집, 노숙자 무료급식, 수해를 당한 평창 수항교회, 농촌선교훈련원, 음성 농민교회, 울릉도 희망의 쌀 전달, 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 외국인노동자 뺑굽기, 부산샘터교회,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방문, 김천충만교회 건축현장, 구미·왜관·대구지역 교역자 격려, 평택 외국인선교교회등 주로 어렵고 힘든 교회와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희망의 복음을 전파하고 약간의 격려와 아울러 해당지역 교역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2007년에 치러진 희망대심방은 ‘4년 전임제’의 특성을 살려 주로 주말과 주일에 현장을 돌아보고 연회와 지방과도 유기적인 연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점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밖에 제27회 총회 입법회의가 은혜 중에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신은급법과 본부 구조개편 등이 통과되어 감리교 발전에 초석을 다진 것과, 6차례의 감독회의를 통해서 감리교의 발전을 도모한 일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은 개신교, 나아가 한국 종교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감리교회의 위상이 한껏 높아진 해였다고 자부 합니다. 물론 ‘4년제 전임감독’ 이신 신경하 감독회장께서 항상 그 중심에 계셨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개신교를 이끌고 가는 교단장협의회 상임회장으로 한국교회 부흥 100주년 기념대회를 7월4일 상암경기장에서 모든 교단이 하나되어 성대하게 치러내었으며, 부활절 연합예배, KNCC 교단장회의 등을 이끌면서 지도력을 발휘하여 한국개신교 및 종교계 전체에 감리교의 이미지를 강하게 인식시키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2008년은 감독회장의 임기 마지막해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3년보다 가장 중요한 한 해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마무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입법회의에서 본부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비서실이 폐쇄되고 대신 행정기획실로 확대 개편된 것은 실장으로서 감독회장 임기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보좌하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의 총회행정 업무와 기획홍보, 역사전산업무에다가 새롭게 본부 회계업무와 서무행정 업무가 추가 되어 막중한 업무와 그에 따른 책임이 무겁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기획실의 직원도 실장과 부장5명, 서기 및 사무원이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행정기획실의 2008년도 업무의 초점은 효율성과 정확성, 그리고 공정성과 투명성에 맞추려고 합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제28회 총회가 열립니다. 2회 총회는 향후4년 동안의 감리교의 미래를 가름 할 중요한 행사인 만큼 철저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와 정책총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전산관리와 역사자료, 각종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국, 연회, 지방까지 감리교회의 모든 조직과 행정이 대내외적으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화합과 조정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회계업무와 인사행정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긍정할 수 있는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행정기획실에서는 감독회장의 임기 마지막해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위와 같은 원칙과 목표를 세우고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감독회장님을 모시고 전직원이 일심 단결하여 감리교회를 섬겨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가름합니다.

1. 업무 개요

지난 제27차 총회 입법회의 에서는 본부 구조개편안을 통과시켰다. 그중의 하나가 기존의 비서실을 행정기획실로 바꾸고 확대개편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이 공포된 2007년11월26일부터 비서실은 본부조직에서 사라지고 행정기획실이 탄생되었다. 업무의 내용도 기존의 총회행정부, 기획홍보부, 역사전산부 이외에 서무행정부와 본부 회계가 추가되어 업무내용에서나 업무량에서 엄청난 변화와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게 되었다. 아울러 임직원의 숫자도 실장을 비롯하여 부장 5명, 서기 및 사무원5명(계약직 포함)으로 증가되어 사무실도 이미 확장을 마쳤다.

먼저 행정기획실의 업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감독회의 행정에 관한 사항
- ② 총회 및 입법의회의 행정에 관한 사항
- ③ 감독회장에 대한 비서업무
- ④ 감리회 역사자료 수집 및 관리, 정보화 사업, 목회자와 교회 정보 관리, 인터넷 서버 운영 업무
- ⑤ 감리회 정책과 사업에 대한 기획 업무, 각국 정책업무의 조율, 업무 협조 및 홍보에 관한 업무
- ⑥ 감리회 본부의 인사와 서무 행정에 관한 사항
- ⑦ 감리회 본부의 재정운영과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 ⑧ 각국 및 각 연회와의 행정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 ⑨ 행정상의 대内外적 업무 연락에 관한 사항
- ⑩ 각국에 속하지 않은 행정사항

특히 2008년도에는 제28차 행정총회가 열리고 그 앞전에는 연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가 있는 해이다. 행정기획실에서는 이를 총괄하여 운영해야하는 부서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행정총회에서는 글자그대로 감리교회 미래를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입안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며 감독 및 감독선거가 한치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고 은혜스럽게 끝날 수 있도록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공명정대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한편 2008년도에는 역사자료 수집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으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산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각종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고 각종 서류와 서식을 통일하여 업무의 간편화를 도울 뿐만아니라 인사와 서무행정에도 공정성을 기하여 누구에게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서무인사 행정이 되도록 힘써나가겠다.

회계업무 또한 행정기획실로 업무가 이관 되었는 바,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효율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운영하겠다. 예를들어 예산의 효율적인 조정을 통하여 한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할 뿐 아니라 항목을 이탈하여 집행된다거나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되는 일이 없어야겠다. 또한 전체 예산을 수립하고 운영함에 있어 예산위원회와 협력하여 사안의 경증을 따져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행정기획실에서는 감독회장님의 초교단적인 활동을 적극 보좌하여 그동안 쌓아

온 감리교회의 위상이 더욱 견고해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10개 연회와 200여개 지방은 물론, KNCC등 에큐메니칼 단체, 3개 신학대학, 성서공회, 찬송가공회, 기독교서회, 교계신문 및 방송국등과도 긴밀한 유대 관계 속에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다. 이 외에도 2008년에는 장단기 발전위원회의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며, 칠골교회 건축사업, 철원 교회 복원사업, 영남선교대회 후속사업, WMC 후속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각국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

2. 국 위원 및 이사

1) 감독회의

의장	신경하
위원	김기택 한정석 김승현 최승일 박영준 김남철 김일고 이기복 강환호 피정식

2) 제27회 총회 실행부 위원회

위원	연회	당연직(감독)	선출직	
			교역자	평신도
	서 울	김기택	김진호 이승호	신수복 이태영
	서울남	한정석	고수칠 김국도	한준길 이정행
	중 부	김승현	이종복 이규학	변종칠 안충수
	경 기	최승일	최호순 한정호	박수남 이규화
	중 앙	박영준	배정길 권혁구	한일동 박용국
	동 부	김남철	박상혁 박거종	김광용 안준일
	충 북	김일고	김기웅 심현익	김광태 권영석
	남 부	이기복	이찬복 박영태	이일호 김상수
	충 청	강환호	김영칠 김영호	안봉기 이근영
	삼 남	피정식	구동태 최타권	박 건 김태수
	미주특별		한기형 조동삼	최종혁 정용복
	총회 정·부서기		김종훈 김진열	
언권위원	감사		이문기 이진수 권오준 이복규 이광호	신성부 송기영 정하모 최동한 심기택
	단체장		조명동 임성이 박선규	표석은 안현아

3. 업무 구분

부서	업무
실장	1. 행정기획실 업무 총괄 2. 감독회장 비서업무 총괄 3. 감독회의 및 행정에 관한 사항
총회행정부	1. 총회 및 입법의회의 행정에 관한 사항 2. 총회실행부위원회 업무 3. 총회 및 입법의회 분과위원회(총회 회의록 검사, 장정개정) 업무 4. 총회 특별위원회(선거관리, 장정유권해석, 장정연구) 업무 5. 비서(행정 보좌) 업무
기획홍보부	1. 감리회 정책과 사업에 대한 기획업무 2. 각국 정책 업무의 조율 3. 각국 업무 협조 4. 홍보 및 대 언론 업무 5. 감리회본부 특별위원회(장단기발전) 업무 6. 비서(정책 및 문서 보좌) 업무
역사전산부	1. 정보화 사업, 목회자와 교회정보 관리, 서버운영(도메인, 서버, 네트워크, 홈페이지관리) 업무 2. 감리회 역사자료 수집 및 관리, 역사정보자료실 관리 업무 3. 감리회본부 특별위원회(역사보존위원회) 업무 4. 총회 행정분과 위원회(정보전산) 업무 5. 역사자료, 기념사업, 순교순직자사업 지원 6. 비서(정보 및 자료 보좌) 업무
서무 행정부	1. 본부 각 국 및 연회와의 행정업무 2. 본부 임직원 인사,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3. 본부 행사의 기획과 운영 업무 4. 대외문서 수발, 배부, 보관 및 통제의 업무 5. 각종 증명서 및 감독회장 추천서 발급 업무 6. 기독교대한감리회 직인 및 감독회장 직인 관리 업무 7. 본부 감사위원회, 예산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8. 본부 내규 보관 및 개정에 관한 업무 9. 본부 물품구매 및 연회보고서 발행 업무 10. 총회 특별위원회(교역자 수급 및 고시, 행정조정, 재판) 업무 11. 각 국에 속하지 않은 행정사항
본부 회계	1. 본부 회계 및 세무회계 2. 유스호스텔 및 교육원 회계 3. 사회복지재단 회계 4. 장학재단 회계 5. 예산편성 및 결산

4. 발간 자료

1) 2007년 발간 자료

구분	제목	내용	비고
1 포스터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이미지, 3대 목표, 10대 우선사업	전국교회 보급
2 자료집	2007년도 수련목회자 오리엔테이션	교육자료	수련목회자 배포 2007. 3. 22
3 팜플렛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감리교 소개 팜플렛(영문)	외국 손님 안내용
4 자료집	존웨슬리회심 269주년 자료집	자료집	전국교회 배포 2007. 5.
5 자료집	제1회 순교자기념주일 예배자료집	예배 특강 자료	전국교회 배포 2007. 6. 24
6 회의록	제26회 총회 회의록	회의 내용	입법의회 회원 배포
7 자료집	제27회 총회 입법의회 회의 자료집	회의 자료집	입법의회 회원 배포 2007. 10. 24
8 단행본	개정개역판 성경문제집(수정판)	교육자료	2007. 10. 31 발행
9 단행본	기독교대한감리회 백서	장단기발전위원회 보고서	전국교회 배포 2007. 12.
10 단행본	2008 정책자료집	자료집	전국교회 배포 2007. 12.

2) 기존 발간 자료 (2001년~2006년)

구분	제목	내용	비고
1 자료집	위대한 감리교회 건설을 위한 감리회 임원대회	회의자료	전국 지방 임원 배포 2001. 4. 2
2 자료집	위대한 감리교회 대표	회의자료	참석자 배포 2001. 6. 4
3 자료집	제24회 입법의회 회의자료집	회의자료	입법의회 회원 배포 2001. 10
4 회의록	제24회 총회 회의록	회의내용	총회대표 배포 2001. 12
5 단행본	교리와 장정(2001년판)	장정	판매용 2002. 3
6 회의자료	수련목회자 지도지침	교육자료	지도목사 배포 2002. 5
7 자료집	2002 Asian Methodist Council	소개자료	AMC 참가자 배포 2002. 6
8 팜플렛	제25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공보	후보소개	총회대표 배포 2002. 9. 18
9 자료집	제25회 총회 회의자료집	회의자료	총회대표 배포 2002. 10. 25
10 단행본	한국감리교인물사전	인물사전	전국교회 배포 2002. 10
11 팜플렛	한국감리교회사(영문)	역사	외국 손님 안내용 2002. 10
12 자료집	제25회 입법의회 회의자료집	회의자료	총회대표 배포 2003. 10
13 회의록	제25회 총회 회의록	회의내용	총회대표 배포 2003. 12
14 회의록	제25회 입법의회 회의록	회의내용	총회대표 배포 2004. 2

	구분	제목	내용	비고
15	단행본	교리와장정(2003년판)	장정	판매용 2004. 3
16	팸플렛	제26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공보	후보소개	총회대표 배포 2004. 8. 9
17	자료집	제26회 총회 회의자료집	회의자료	총회대표 배포 2004. 10. 26
18	포스터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이미지, 3대 목표, 10대 우선사업	전국교회 보급
19	영상물	목사님, 우리 목사님	임원대회 영상물	
20	팸플렛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감리교 소개 팸플렛(영문)	외국 손님 안내용
21	자료집	제26회 총회 입법의회 회의자료집	회의자료	입법의회 회원 배포 2005. 10. 25
22	자료집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광복 60주년 기념 예배 자료	전국교회 보급
23	영상물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광복 60주년 기념 예배 자료	전국교회 보급
24	단행본	2005 본부정책자료집		전국교회 배포 2005. 11
25	자료집	수련목회자 오리엔테이션	수련목회자 지도	수련목회자 배포 2005. 3. 9
26	자료집	재판법 세미나	장정의 재판법 강의록	연회 총무, 심사, 재판위원 배포 2005. 6. 27
27	회의록	제26회 총회 회의록	회의내용	총회대표 배포 2005. 12
28	단행본	2006 본부 정책자료집		전국교회 배포 2005. 11
29	단행본	교리와 장정(2005년판)	교리와 장정	판매용 2006. 1. 10
30	영상자료	WMC 특별기도주일 영상물		전국교회 배포 2006. 3
31	단행본	감리교회의 입장에서 본 이단 문제	이단문제	전국교회 배포 2006. 4. 25
32	자료집	교회 재판법 세미나	장정의 재판법 강의록	연회, 총회심사, 재판위원 2006. 5
33	소책자	이준열사 순국 99주년 기념주일	예배 자료집	2006. 6
34	소책자	The Korean Methodist Church	영문 홍보책자 (80쪽)	WMC 대회용 2006. 7
35	단행본	제27회 총회 감독 선거공보	후보소개	선거권자 배포 2006. 9
36	자료집	제26회 입법의회 회의록	회의록	입법의회 회원 배포 2006. 10
37	단행본	개정개역판 성경문제집		수련목회지원자 배포 2006. 10. 20
38	자료집	제27회 총회 회의 자료집	회의자료	총회대표 배포 2006. 10. 26
39	단행본	2007 본부 정책자료집		전국교회 배포 2006. 12

5. 각 부 업무

총회행정부

· 부장 합영석 목사

① 업무 추진 방향

제27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그동안 비서실의 3부서(부장3인) 체제에서 행정기획실로 5부서(부장 5인) 체제로 확대 개편한 바 총회행정부, 기획홍보부, 역사전산부, 서무행정부, 본부회계부로 분리하게 되었다. 이에 총회행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장정에 의거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정확과 형평에 맞게 행정업무를 추진하려고 한다.

② 현황

③ 주요 업무

- 1) 총회 및 입법의회의 행정에 관한 사항
- 2) 총회 실행부위원회 업무
- 3) 총회 및 입법의회 분과위원회
 - ① 총회 회의록 위원회
 - ② 장정개정위원회
- 4) 총회 특별위원회 업무
 - ①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 ② 장정유권해석위원회
 - ③ 장정연구위원회
- 5) 비서 업무 - 행정 보좌

4 위원회

1) 총회

위원회	위원장	위원	
		교역자	평신도
공천 및 건의안 심사위원회 (40명)	박의웅	전치호 서영승 조남수 박용학 박명홍 이천식 조남일 송윤면 이영우 박인관 정윤희 민석기 현상기 전종근 이성영 박인호 이영복 박재홍 고근섭	이은한 배영자 김영화 서우원 조오길 조규달 박영훈 송옥섭 이종관 김윤선 김석권 고명진 김일대 이효성 윤대의 유건근 이태성 김순태 이재열 김석중
총회 회의록 검사위원회 (10명)	장석재	임준택 진인문 방인순 유광조	오계수 권승달 조영흠 김태성 윤용실
장정유권해석 위원회 (20명)	권용각	강승진 정영기 이경옥 전용춘 장시천 조문행 전계남 주원장 석준모	김광이 박현덕 김인석 최현범 하상준 류승민 이병찬 최영선 현병국 김관배

2) 입법의회

위원회	위원장	위원	
		교역자	평신도
공천 및 건의안 심사위원회 (20명)	오봉근	장준익 신기식 김문조 최충남 최상록 김만오 이찬복 김규세 정양희	임성이 이학구 박철수 백승훈 이기영 안준일 이효성 임재봉 현병국 김관배
장정개정 위원회 (23명)	김진호	김충식 권용각 한정호 권혁구 권오서 이대욱 정문식 강석봉 하재철 조성근 김영현	김창년 신성부 이우정 한명석 김임술 이기종 송소진 설동무 전 윤 유재국 임성이

3) 총회특별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위원	
		교역자	평신도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41명)	장동주	윤강모 김태식 김문철 박광수 박기서 황요한 진인문 손귀하 양기모 김종현 한순동 김종홍 장명찬 윤바울 이무영 김용국 서석근 조동희 오용교 박수석	임성이 고용성 김돈식 이기조 조갑미 유재성 백준현 이웅재 유용관 최문섭 고병렬 강태성 김태성 박수웅 이대우 오종탁 지규근 최경섭 이승만 정혁동

4) 감리회본부의 특별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위원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36명)	김남철	이용원 김종훈 양총재 임정덕 임홍재 금성호 강천희 박인환 정옥성 진항섭 김대일 박용태 이정원 노수우 전용재 방인순 권오서 박상혁 이병우 임복만 김광명 방인석 전성성 전종근 강석봉 강일남 박선태 장석재 박종호 금성대 김홍기 임동원 나형석 김두범 원형수

5 정책소고

“장정개정 절차의 새로운 제안”

합영석 목사

1) 장정 개정의 역사

1884년 미국감리교회의 한국 선교를 기점으로 출발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1924년 ‘교회 진흥방침연구회’를 중심으로 교회 합동을 추진키로 하여 1930년 11월 18일 남북 감리회 대표 22명으로 합동전권위원회를 구성, 마침내 1930년 12월 2일 ‘기독교조선감리회’ 창립 총회가 서울 정동에서 열려 초대총리사로 양주삼 목사를 선출하고 한국 감리교회의 ‘자치교회 시대’를 열었다.

1930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제1회 총회에서는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조선적 교회’의 3대 원칙을 선포하면서 신앙 및 신학 원리로 8개조 “교리적 선언”과 16개조 “사회신경”을 채택하였고, 모든 의회 구성을 평신도와 성직자 동수로 하여 평신도의 역할을 중대시켰으며, 여성 성직의 문호를 개방하여 1931년 연합연회에서 한국 최초로 여선교사 14명이 목사 안수를 받는 등 자치교회로서 스스로를 다스리고 가르치기 위해 “교리와 장정”을 처음으로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리와 장정”의 개정 역사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총회명	장정개정연도	장정출판연도	시무감독
제1회 총회	1930.12	1931.	양주삼 총리사
제2회 총회	1934.10	1935.	양주삼 총리사
제3회 총회	1938.10	1939.	김종우 감독
제4회 총회 통합총회	1949. 4	1950.	김유순 감독
제7회 총회	1954. 3	1955.	류형기 감독
제8회 총회	1958. 9	1959.	김종필 감독
제9회 총회	1962. 7	1963. 7.10	이환신 감독
제10회 총회	1966, 1967.3	1967.11.30	변홍규 감독
제12회 총회 특별총회	1974.	1975.12.31	김창희 감독
제13회 총회	1978.	1980. 4,20	김지길 감독 외
제13회 총회 특별총회	1980.		
제14회 총회 특별총회	1981. 4.	1981. 7.15	오경린 감독회장
제15회 총회 특별총회	1983. 9.	1983.12.	서병주 감독회장
제16회 총회 특별총회	1985.10.	1985.12.20	김봉록 감독회장
제17회 총회	1986.10.	1988.	장기천 감독회장
제18회 총회	1988.10.		
제18회 총회 임시총회	1989. 2.	1990. 7.20	최종철 감독회장
제18회 총회 특별총회	1989.10.		
제19회 총회 특별총회	1990.10.	1991. 7.20	곽전태 감독회장
제20회 총회	1992.10.	1993. 2. 1	표용은 감독회장
제20회 총회 특별총회	1993.10.	1994. 1,20	
제21회 총회	1994.10.	1995. 2,28	김선도 감독회장
제21회 총회 입법의회	1995.10.	1996. 3. 5	
제22회 총회 임시입법총회	1997. 1.	김홍도 감독회장	
제22회 총회 입법의회	1997.10.		1998. 2,20
제23회 총회 입법의회	1999.10.	1999.12.13	이유식 감독회장
제23회 총회 임시입법의회	2000. 8.	2000. 3. 2	
제24회 총회 입법의회	2001.10.	2002. 7. 2	장광영 감독회장
제25회 총회 입법의회	2003.10.	2004. 3,20	김진호 감독회장
제26회 총회 입법의회	2005.10.	2006. 1,10	신경하 감독회장

2) 장정개정의 절차와 문제점

현재 장정을 개정할 수 있는 곳은 입법의회이며, 입법의회에 장정개정안을 상정하는 방법은 다음의 3가지 경우만이 가능하다.

첫째,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발의하는 개정안

둘째,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는 개정안
 셋째, 4개 이상의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는 개정안

그런데 이상의 세가지 방법 중 현실적으로 둘째와 셋째 방법은 심히 어렵다.

또한 최근 입법의회시 장정 개정에 있어 개정안의 심의, 가결 상황을 보면 중요한 핵심부분은 대체로 부결이 많고 자구수정 등의 것은 가결이 많았다.

제27회 총회 입법의회시 개혁적인 법안은 부결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입법의회 회원들의 노력 및 보수화로 보다 개혁적인 개정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또한 장정개정위원회가 감리회 전체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3) 장정개정의 절차에 관한 새로운 제안

사회의 법이나 제도가 교회보다 앞서 나가고 합리적이라면 우리도 교회의 법이나 제도를 고집하기보다는 사회의 법이나 제도의 장점을 발췌하여 교회에 수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절차를 살펴보면

첫째,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후 본 회의에 상정하는 의원입법 절차와

둘째, 관계기관에서 법률안을 입안한 후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후 본 회의에 상정하는 정부입법 절차가 있다.

우리도 이 제도를 적용하여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창구를 장정개정위원회 중심에서 더 넓혀야겠다.

예를 들면 첫째, 총회 및 총회실행부위원회, 총회 각 분과위원회(상임위원회), 입법의회 각 분과위원회(상임위원회), 각국 위원회, 연회 및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상정한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격인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장정개정위원회는 각 법률안의 상, 하위 법률과의 모순, 충돌, 관계법률과의 불균형 등을 조정, 심의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되 제안자의 제안 설명에 이어 찬반토론 후 가부를 물어 입법의회에서 결의한다.

〈장정개정 절차 비교〉

현 재		새로운 제안	
1	여론 수렴	1	여론 수렴
		2	해당 의회 및 위원회에서 개정안 초안 작성, 상정
2	장정개정위원회 개정안 초안 작성, 상정	3	장정개정위원회 접수
3	장정개정위원회 개정안 심의	4	장정개정위원회 심의
4	장정개정위원회 의결	5	장정개정위원회 의결 (이때 장정개정위원회는 법률 입안은 하지 않고, 다만 상정된 개정안에 대하여 각 법률의 상, 하위 법률과의 모순, 충돌, 관계 법률과의 불균형 등을 조정한다.)
5	입법의회 상정, 심의	6	입법의회 상정, 심의
		7	법률안 정리 (실무적으로 전문위원에게 위임)
		8	비서실 접수
		9	법률 공포안 재가 (감독회장)
6	법률 공포	10	법률 공포
7	효력 발생	11	효력 발생

기획홍보부

· 부장 송병구 목사

① 업무 추진 방향

기획홍보부는 크게 정책업무와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교회와 장정〉(235단, 제135조 5항 / 2005년 판)은 기획홍보부 업무를 “감리회 정책과 사업에 대한 기획업무, 각국 정책업무의 조율, 업무 협조 및 홍보에 관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감독회장 정책 보좌업무로서 감독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부 차원의 정책을 기획하고, 각국의 정책 업무를 조율하며, 각국의 필요업무에 대해 협조한다. 또 장단기발전위원회를 통해 감리회의 장기적 전망과 단기적 프로젝트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본부 정책자료집〉과 〈백서〉를 통해 발표되며, 감독회장의 목회서신, 행정서신, 말씀과 각종 정책발표에 반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장단기발전위원회 내 소위원회의 연구 활동을 상

시적으로 집행하고, 매월 정책자료집 TF, 10대 실천과제 TF를 통해 업무를 조율, 통합하고 있다. 또한 홍보업무로서 감리교회의 일상적 홍보와 언론기관 보도서비스 제공, 각국 홍보 업무 지원, 기타 영상을 제작과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은 존 웨슬리 회심 270주년으로 감리교회와 감리교인에 대한 정체성을 강화하고, 또 ‘희망 프로젝트’의 제2차년도를 맞아 감리교회의 대내적 통합과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 9개 분야의 사업을 전개하며, 특히 감리교회 회장 개발과 이미지 통합(Church Integration) 및 표준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제28회 총회와 함께 향후 4년의 정책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현황

③ 주요 업무

1) 정책기획업무

① 정책기획

- 10대 실천과제 1항에 대한 연구 및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감리교회의 비전(2007년 영남신교대회 발표)을 분야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고유 브랜드를 개발한다(희망프로젝트 1-1).
- 정책의 기초가 되는 통계업무의 정확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춘다.
- 정책업무를 위해 필요한 채널(분야별 소그룹)을 확보한다.
- 문서보좌의 심층화를 위해 연구협조체제(도서, 연수, 인력풀 등)를 갖춘다.

② 업무조율

-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3대 정책방향과 9개 분과 업무를 조율한다.
- 본부 정책 태스크 포스를 정례화(매월 1주 수요일)하여, 업무를 조율하고, 협조한다.
- 10대 실천과제 점검 및 평가를 정례화(매월 3주 수요일)한다. 4차년도의 성과를 정리한다.
- 2008년 8월에 본부 정책협의회를 열고, 2009년도 본부 정책자료집을 발간한다.

2) 홍보 및 대 언론 업무

① 홍보

- 감리교회의 기본 홍보 전략과 홍보 지침(매뉴얼)을 마련한다.

- 본부 내 포스터, 영상물, 자료집, 리플렛 등을 규격화하여 내적 통합기능을 강화한다.
- 감리교회 전체의 이미지 제고를 한다. 인물과 특성화된 선교영역 발굴, 다양한 교회와 사회의 의제를 개발하여 감리교회를 널리 홍보한다.
- 본부를 비롯한 전체 감리교 기관과 개체교회에 이르기까지 홍보자료를 개발하고, 홍보 세미나를 통해 훈련하며, 홍보인력을 네트워크화 한다.

② 대 언론 업무

- 이미지 선교와 대 언론 및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교계 및 일반 언론에 대한 감리교회 차원의 홍보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한다.
- 대외 홍보용 자료(인물, 교회, 미담, 모범, 역사, 사건 등)를 발굴한다.
- 홍보시스템(기자관리, 행사예고, 보도자료, 사진서비스, 기자초청세미나, 기획광고 등)을 각국과 연회, 현장과 협력하여 체계화한다.

3) 특별위원회 지원 업무

① 장단기발전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 장단기발전위원회의 연구 작업을 지원하고, 필요한 연구외주를 집행한다.
- <백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연구소위원회를 운영하여 매뉴얼을 개발한다.
- ② 철원제일교회 복원을 위한 위원회를 지원한다.

4) 감독회장 정책 보좌와 비서 업무

① 감독회장의 정책업무를 보좌한다.

② 비서업무

- 감독회장에 대한 의전사항을 관리한다.
- 감독회장 명의의 대내외 문서작성을 기획한다.
- 감독회장 저술 및 홍보자료를 수집, 정리한다.

5) 특별기획 업무

감리교회 회장 개발과 이미지 통합(Church Integration) 및 표준화 작업(정책소고 참조)

4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위원		
		연회위원	연구위원	당연위원
장단기발전	권오서	김진두 전준구 최현영 최선길 전용재 김학중 윤형노 정양희 고신일 김홍규 유광조 홍은파 황대성 조경열 유영완	김영민 조은하 김종복 김종훈 문상욱 박정훈 박상칠 차홍도 임영택 천무엽	본부임원 연회 총무(3인) 평신도단체장(5인)

* 장단기발전위원회는 제 27회 총회 입법의회의 장정개정에따라 정수가 18인으로 축소되어 2008년 1월 제 8차 위원회에서 위원조정이 될 것임.

5 정책소고

감리교회 휘장 개발과 이미지 통합(Church Integration) 및 표준화 작업

송병구 목사

감리교회의 정체성과 전통을 이미지화 하여 5,825교회의 일체감과 153만 감리교인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대외적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앙적 상징과 통합적 휘장(로고) 개발을 추진한다.

1) 배경

① 1934년 기독교조선감리회 제2회 총회에서 ‘무궁화 휘장’ (십자가를 둘러싼 무궁화와 이를 한글과 영문 이름으로 원형 테를 두른 모양)을 사용할 것을 결의하였고, 그동안 사용되다가 1959년 이후 자취를 감추어 현재 사용되지 않는다.

② 현재 사용하는 ‘방패형 휘장’은 1953년 존 웨슬리 탄생 250주년 기념 벳지에서 비롯한 것으로 반세기 이상 감리교회기를 비롯하여 모든 공적자료와 개체 교회까지 다양하게 사용해왔다. 물론 개체교회 고유한 로고 사용이 병행되고 있다.

③ 따라서 휘장 사용에 대한 법적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 휘장에 대한 개선요청이 있다.

바람직한 것은 감리교회의 신앙고백, 역사와 정통성, 미래지향적 비전을 담아내어,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일체감을 부여하는 통합이미지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06년 본부 정책협의회에서는 효과적인 이미지선교(Image Evangelism)를 제안하였고, 27회 총회 장단기발전위원회에서는 2008년에 통합휘장을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2) 방법

① 감리교회에 대한 호감과 인식을 높이는 것은 전도전략에 필수적이다. 인터넷 시대에 어린이와 청년층에게, 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친근감 있게 접근하고, 자랑스럽게 내세울 감리교회의 ‘대명사’들을 발굴하는 것은 긴급한 과제이다. 여기에는 기독교 상징, 신학적 이해, 미적 감각, 대중적 친근감, 미래지향성 이미지가 두루 담겨야 한다.

② 이를 위해 휘장 개발과 함께 감리교회의 이미지 통합 및 표준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본부를 중심으로 전문가 그룹이 추진하면서, 현장교회와 감리교인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즉 필요성과 수용성 등을 여론조사, 홈피 Poll, 공모, 공청회 등을 통해 실시하여 공동적인 관심사가 되도록 이끌어 낸다.

③ 휘장의 결정을 입법화하여 모든 감리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특히 청 표장등록과 상품개발 등을 공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휘장의 범위는 본부에서 개체교회까지 현판, 외벽용 동판, 간판, 배너, 목회자 가운과 스타일, 교회차량, 현수막, 기념품, 상패, 기념품, 봉투, 각종 행정문서 서식 등에 응용하도록 실용화한다. 휘장에 대한 디자인 활용, 고유색상, 문자도안(logotype)도 함께 실시한다.

3) 효과

① 감리교회 상징화 작업은 우리 내부의 일체감과 외적 경쟁력에 대한 관건이 된다. 특히 휘장을 비롯한 통합 이미지(CI) 작업은 소속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선정과정과 응용화를 통해 감리교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할 것이다. 전국 감리교회의 단일한 휘장사용과 통합 이미지 작업을 통해 교계와 사회적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감리교회 전도와 홍보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② 이러한 기대치는 계속하여 감리교회의 브랜드화, 즉 감리교회 역사인물 발굴과, 좋은 교회와 목회자의 지명도 높이기, 자랑스런 평신도 소개, 구체적인 사회적 역할과 연대, 복지 및 구제사업, 박물관, 건축물, 기념사업, 영상물 제작과 도서발간, 인터넷 등 다양한 아젠다 개발과 이벤트를 통해 홍보가치를 높임으로써, 보다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감리교회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전산부

· 부장 조병철 목사

① 업무 추진 방향

행정기획실로 조직이 개편과 역사자료실의 자료 이전이 두 차례 진행됨에 따라 역사자료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한 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회 역사자료 수집 및 관리, 감리회 정보화 사업, 목회자와 교회 정보관리, 인터넷 서버운영에 관한 업무는 변함없이 진행하여 감리교회의 역사자료를 찾아내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과 본부 네트워크 운영, 감리회 홈페이지의 유지 및 관리업무가 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본부 특별위원회 업무로서 성직위원회와 총회 정보전산위원회의 지원업무를 맡고 있다.

또 이번 역사보존위원회의 신설로 인해 감리교회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고조하면서 연구, 관리, 유지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역사정보 자료실의 유품 및 도서 및 자료가 9,100여건이 넘고 총 부수 만권이 넘어가는 실정이므로 역사자료보존을 위한 공간 마련이 신속하게 준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② 현황

1) 역사자료관리

① 역사정보자료실 운영

16층 - 열람실 123.9m²(45), 13층 - 서고 37.5m²(14)

② 도서 및 자료목록 : 총 9,200건의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http://kmcpeople.com/history/index.html>

③ 도서 열람 및 대여관리

2) 정보전산관리

① 서버실(16층-2.5m²)

② 도메인관리 : kmc.or.kr 공식

kmcweb.or.kr 허브용

kmcpoll.or.kr 선거관리

kmcmision.or.kr 선교국

kmcedu.or.kr 교육국

kmcmall.co.kr 홍보출판국/도서판매 쇼핑몰

kmcpension.or.kr 은급재단

kmcwelfare.or.kr 사회복지재단

③ 네트워크 관리 : 70대 컴퓨터의 유무선 네트워킹

④ 감리교 주소록 관리

⑤ 홈페이지 관리

③ 주요 업무

1) 역사자료업무 – 역사정보자료실 관리

① 감리교회 역사자료의 발굴

- 문서자료 발굴 및 보존
- 영상자료 발굴 및 보존
- 감리교 지도자 유품 발굴 및 보존
- 역사자료 디지털 작업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② 순교순직자 및 기념사업 지원

- 한서, 탁사, 아펜젤러, 유관순, 최용신 등 기념사업회 지원
- 순교순직자 선정 사업 지원(유적지 관리지원, 유품 발굴)
- 감리교회 순교자 발굴 및 자료 개발
- 순교자 기념주일 자료집 발간(6월 4주)

③ 역사정보자료실의 운영

- 개체교회사 문의 상담
- 역사자료 검색 및 확인
- 역사자료 열람실 제공 및 지원서비스

④ 기타 사업

- 감리교회 역사 세미나 개최
- 감리교회 유적지 순례 행사 및 자료 제공
- 감리교회 역사자료 영인본 및 단행본 출판 지원
- 감리교회 개체 교회사 자료 발굴 지원
- 감리교 역사박물관 설립에 대한 연구
- 역사자료의 디지털화 작업

2) 정보전산업무

① 감리교회 행정전산화

- 감리교회 목회자관리 행정 전산화(연회공동망 구축)
- 감리교회 통계표 전산화
- 연회정보화관련 위원회 세미나
- 본부, 연회 사무자동화 기기 운영교육

② 감리교회 주요 홈페이지의 일원화 및 통합화 작업

- 감리회본부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각 국 홈페이지 통합서비스
- 감리교회 허브사이트 운영(kmcweb.or.kr)
- 교역자를 위한 웹BBS 서비스 제공

③ 홈페이지의 운영 활성화 방안

- 다양한 언어로 인터넷 선교에 대한 연구
- 홈페이지 리모델링(영,중문)
-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
- 초기 감리교 자료의 제공
- 초신자를 위한 신앙 가이드
- 본부 도메인 및 네트워크 관리

④ 감리교회 역사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총회, 연회, 감독회의 등 주요 회의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 역사자료(사진, 영상, 음성)의 데이터베이스(역사자료실)
- 기독교세계(감리회보, 감리교생활, 기독교세계)자료의 데이터베이스

3) 비서 업무

① 감독회장의 사진, 자료 보존 및 관리

② 감독회장 정보자료 제공과 보좌

4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위원
정보전산	박희권	김일배 김진홍 안봉기 이민상 강만득 박종철 최승균 박병욱 노정선
역사보존		신설

5 정책소고

“감리회본부 정보체계관리에 관한 소고”

조병철 목사

1) 행정 정보체계의 의미

① 정보화 사회에서의 본부 행정전산화

토플러는 자신의 책인 ‘제3의 물결’에서 농업시대 공업시대를 이어서 정보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측하고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제3의 물결이라고 명명했다. 이러한 정보사회란 무형의 지식과 정보가 유형의 재화나 에너지 보다 사회나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중시되는 사회를 말한다. 즉, 정보 사회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정보 및 정보처리수단과 정보능력이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체제적 변화를 초래한 사회를 말한다.

이와 같은 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증가하는 정보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관리함으로서 과거에 불가능하게 보였던 인간의 판단능력과 정보처리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이는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본부행정의 집행을 위해서 감리교회 정보의 체계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란 단순히 언어로서의 정보수집이 아니라 행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 자료, 사진, 동영상을 포함하는 광의의 정보를 의미한다.

② 본부 행정 정보체계의 개념

행정 정보체계란 행정의 개념과 정보체계의 합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행정은 정치 체제(총회 및 각 위원회, 본부)을 배경으로 한 정책의 형성 및 구체화를 위한 합리적인 시스템이며 정보체계란 본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개발한 물리적 요소와 절차의 집합으로 인간과 기계의 종합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즉, 행정 정보체계는 일반적으로 사람, 컴퓨터, 운영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제도적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수집, 처리, 보관, 전달, 이용하여 의도하는 정책이나 효율적인 행정을 시행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적절한 정보체계는 본부 임직원과 정보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이룩할 수 있다. 행정인은 정보체계의 잠재력을 인식해야 하고 정보관리자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기관이나 시설의 정보체계에 있어서는 정보체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관이나 시설인 역사정보자료실의 운영에도 참여하여 협력을 통한 계획수립이 되어야 한다.

③ 본부 행정 정보체계의 의의

본부 행정의 주체나 객체에 관계없이 기관에서 나타나는 행정현상에 초점을 두고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의 다양한 욕구, 복잡한 사회구조,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보의 수요가 점차 가속화 되고 있다. 더구나 현대의 정치, 행정현상은 국제화, 개방화, 다양화, 무한경쟁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는 양과 질은 더욱 확대되고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보체계의 활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부의 행정 정보체계는 감리회의 정책 혹은 행정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한 수단으로 각 연회의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본부 조직内外의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 사용, 생산하는 종합적인 유기적인 실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연회와 지방의 정보체계를 통해서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 기능의 유기적인 연결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정책수립이나 행정관리를 위한 일반 행정 업무수행에 유용한 정보를 수집, 정리, 관리하고, 적시에 객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일련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2) 정보체계의 분류,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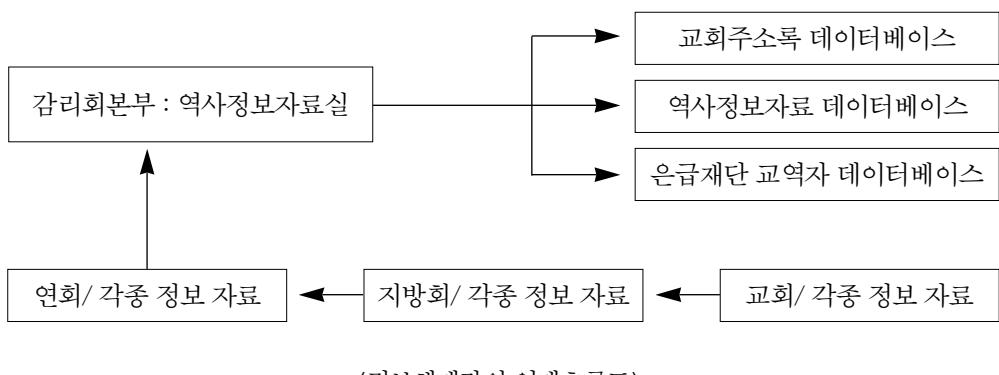
① 자원의 분류

현재 감리교회의 정보체계의 자원인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수집, 처리, 보관, 전달, 이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본부 행정 문서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관성있는 문서관리가 필요하다. 각 국과 연회는 자료에 대한 분류를 통해 각종 자료가 언제 어떻게 유통되고 처리되고, 폐기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 각 문서에 대한 분류는 박스 파일링 시스템(Box Filing System)을 통해 분류하거나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일관성을 가지고 준비한다.

각 문서에는 정확한 번호를 할당하고, 매년마다 각 박스를 확인하여 보관문서 혹은 보존 문서로 처리하고, 보관 기간을 명시하여 보관된 자료는 데이터베이스로 처리한다. 영구보존 할 문서 및 자료는 각종 총회, 연회, 지방회의 회의록, 실행회의록과 중요 위원회 회의록, 통계표, 연간 전체 행사에 대한 결과보고와 사진 및 영상 자료, 송·수신 공문 등이다. 기타 모든 문서는 1년, 3년, 5년의 보존 기간을 정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보존여부를 결정한 후 보존 자료 외에는 폐기한다.

② 문서 전달 체계

감리교회의 행정시스템에 따라 모든 주요자료는 총회인 감리회본부에서 관리한다. 각 연회, 지방회의 회의록(실행위원회 회의록 포함)과 통계표는 매년 2부씩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회는 지방회에, 지방회는 연회에, 연회는 감리회본부 역사정보자료실에 제출한다. 총회소속 기관은 따로 받지 않고 역사정보자료실을 이용함으로써 모든 문서의 이중적 수납 및 자료수신처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 또한 현재 은급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역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연회의 교역자 신상카드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성직위원회와 서무행정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매월 교역자 임면공고를 기독교세계에 공지하고 역사전산부에 제공한 자료를 교회주소록과 은급재단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함으로써 매월 업데이트하도록 한다. 개교회의 화보나 교회사는 2부를 제공받아 역사정보자료실에서 관리하고, 은퇴교역자들의 문서를 수납하여 역사문서로 보존한다.



3) 감리회 본부의 행정 전산화

① 컴퓨터의 도입과 인력조정

현재 역사자료 유지를 위한 역사자료비 및 정보전산을 위한 전산업무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인건비로 인해 예산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지, 필요한 실무 인력이 충원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적자원과 인건비 예산이 확보될 필요가 있으며 각 연회와 본부간의 정보체계의 원활한 흐름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본부 행정전산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1) 설치비용의 확보 2) 직원의 업무 능력의 향상 3) 통합적 본부운영 체계화가 우선되지 않고서는 값비싼 시스템을 적절하게 이용하기 어려워 사장시킬 수 있는 현실이므로 아직은 시기상조라 하겠다.

② 기관의 자료관리

문서에 대한 분류는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박스 파일링 시스템(Box Filing System)을 통해 분류하거나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일관성을 가지고 준비한다. 박스 파일링 시스템(BFS)은 분류되어 있지 않은 자료나 문서를 일관성있게 체계화하여 분류하는 작업이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모든 문서를 대분류, 중분류로 하여 분류명을 기획하여 대분류에는 ABC...로, 중분류는 1,2,3,...으로 분류하고, 소분류로 문서 이름을 포함해서 박스파일링 처리한다.

③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현재 교회주소록 데이터베이스, 역사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교역자 데이터베이스(은급재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하늘양식의 입력 작업을 마쳤으며 2006에서 2007년 하늘양식은 감리교회에 한하여 무상지원서비스를 시작했으며 1970년부터 1999년 기독교세계 입력 중이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터넷 상에서 감리교회의 역사자료의 일환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지만 감리교회의 전반에 아직 정보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체계화가 어려운 형편이다.

서무행정부

· 부장 김동진 목사

1 업무 추진 방향

감리회 본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면서 동시에 총회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정의 중심이기에, 본부 행정부 업무의 두 주류는 본부 임직원들의 신앙과 영성생활에 대한 지원이요, 본부 행정과 임직원들의 인사, 복지행정에 대한 관리업무이다. 본부 임직원들의 신앙과 영성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도회와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본부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행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뿐 아니라, 전체 감리교회 내의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현황

감리회 본부 임직원 명단

2007. 12. 20 현재

감독회장	신경하	
선교국	총무 이원재 부총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선교부 : 태동화(부장) 금혜경 사회농어촌환경부 : 신복현(부장) 이상수 해외선교기획부 : 선교사 관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영주(부장) 한미령(과장) 남수현*(부서 미결정) 오세경*(세계선교협의회 후원 파견) 웨슬레전도학교 : 권정학* 300만전도운동 : 국은진* 희망 프로젝트 : 유 석*
교육국	총무 김두범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행정부 : 이승미 장년교육정책부 : 황건원(부장) 차세대교육정책부 : 이용윤(부장) 손복선* 교육교재부 : 이화식(부장) 최임선* 신앙과교육 : 이소현 홍은경*
사회평신도국	총무 엄마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신도부 : 박은애(부장) 이명숙 사회봉사부 : 선철규(부장) 한수연 사회복지부 : 김일환(부장) 박현희 이사은*
사무국	총무 김영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관리부 : 강만득(부장) 이남희 조은희 김진경 송소진* 회관관리부 : 조병추(부장) 신종수(과장) 정 선 은급부 : 김영주(부장) 조윤숙 김경미 재단회계부 : 이희명(부장) 이윤남 김미영 민원부 : 안지홍(과장) 김에스더 윤광식*
출판국	총무 김광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독교세계부 : 손인선(부장) 임명주 김혜진 출판부 : 정현범(부장) 박영신(과장) 김은희 성민혜 민명희 한보현 김홍준 윤옥숙* 이은숙* 강성윤*
연수원	원장 정용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연수부(일영) : 김용택*(부장) 조진수(과장) 오수미 서은미 김재인 유창현 조주환 김현진 이순옥* 장경숙* 배영실* 제2연수부(입석) : 이은재(부장) 강명옥 신혜경* 김소라* 서계숙* 김명자*
행정기획실	실장 유희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총회행정부 : 함영식(부장) 박선행 이선주* 기획홍보부 : 송병구(부장) 이상지* 역사전산부 : 조병철(부장) 이선미 사무행정부 : 김동진(부장) 김경희* 본부회계부 : 권홍식(부장) 서우영

* 표는 계약직원임

감리회본부의 조직은 행정수반 감독회장을 비롯하여 선교국, 교육국, 사회평신도국, 사무국, 출판국 등 5개 국이 있고, 연수원, 행정기획실로 조직되어 있다.

감리회 본부의 임원은 감독회장을 비롯하여 각 국의 총무, 행정기획실장, 연수원장 등 8명이며, 직원은 부장 21명, 과장 4명, 서기 21명, 사무원 8명, 기능사 5명으로 총 임직원은 67명(2007.12.13현재)이며, 계약직원은 25명이 근무하고 있다.

행정부의 업무는 본부의 행정, 본부와 연회와의 행정사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본부 임직원들의 영성생활 및 인사와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③ 주요 업무

1) 직원교육 및 신앙 강화 업무

본부의 조직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이므로 본부 임직원들의 영성생활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행정부는 본부 임직원들이 바른 신앙관으로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영성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① 본부임직원 직무교육 실시

본부직무교육의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신규채용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에 더불어 기존 직원의 연수교육을 통해 새로운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연봉제 시행에 따른 임직원의 인사고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할 시대적 요구를 감당하고 직원의 업무 실적을 분석하여 신상필벌을 통해 기강을 확립하며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② 영성훈련

교육훈련원에서 실시하는 Walk to Emmaus 프로그램에 본부 직원들이 참여하여 영적재충전의 기회를 삼는다.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킴으로, 본부 업무의 궁극적 목표인 그리스도의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③ 아침기도회와 신년기도회

아침기도회는 본부 업무의 시작이요 가장 중요한 일과의 하나다. 기도와 말씀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 본부 임직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매일 자각하며 감리교회를 위해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주기적으로 외부 강사를 초대하여 아침예배가 지루하지 않고 신선한 독창성을 지니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유도고 있으며, 연초에는 한 주간 동안 특별새벽기도회를 개최하여 한해의 업무시작으로 삼는다.

④ 본부 행사의 기획

시무예배, 종무예배, 이취임식, 현판식 등 본부 내의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으며, 정

부(노동청)의 의무적 시행방침에 따라 성희롱에 관한 직원의 고충과 상담 기구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통하여 밝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마련할 예정이다.

2) 정직하고 효율적인 행정

행정이란 정책을 세우고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과정의 모든 절차다. 그러므로 행정이 바르고 정직하면 감리교회가 신뢰를 받는다. 또한 효율적인 행정은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뿐 아니라, 본부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편리함을 주게 되어 변화하며 희망을 주는 본부가 된다.

① 민원행정업무

본부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발급하는 민원업무는 각종 신분증명서, 소속증명서, 추천서 등을 발급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하며 친절한 민원행정이 되도록 힘쓰고 있다.

가. 감리교회 표장등록 출원

2006년 6월 “기독교대한감리회”라는 명칭의 사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위해 감리회 로고와 함께 특허청에 업무표장등록을 출원하여 1년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마침내 2007년 8월16일 등록이 결정되었다. 이제는 “기독교대한감리회”라는 이름을 감리회 소속의 교회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최근 선교지역에 교단을 알 수 없는 감리교회란 이름의 교회가 난립하면서 지역 목회자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참고로 장로회(통합)의 경우, 교단 로고만 표장등록을 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외국인 선교사 종교비자 발급업무

우리 사회에 이주노동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지역 개체교회는 이주노동자들의 선교와 교육을 위해 자국 선교사를 요청하고 있어, 종교비자 발급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국내 체류 선교사들의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② 본부행정 업무

임직원들의 근무상황 점검, 임직원들의 건강검진 업무, 인사위원회, 상별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감독회장 직인 관리와 본부 문서 수발 및 통제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 외에 본부 예산위원회 및 예산감수위원회와 총회재판위원회, 연회보고서 출판 업무를 맡고 있다.

가. 감사위원회

연 2회 상하반기로 실시되는 본부 감사위원회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나. 정책협의회 및 행정협의회

본부 정책수립을 위해 연1회 개최되는 본부 임원 부장 정책협의회와 연회-본부 행정협

의회를 기획하고 있다.

다. 내규 관리와 개정

제27회 총회 입법의회시 개정되어 공포된 장정개정안에 따라 본부도 각 국 부서간 조직에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러므로 본부 내규도 여기에 맞게끔 개정해야 할 것이다.

라. 행정제도의 연구와 개선

본부 내규를 4년 전임감독제와 장정에 맞게 개정 할 뿐 아니라 본부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행정관리를 위해 내규를 연구하고 개선한다. 또한 본부와 연회의 행정과 제도에 관해 총회행정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연구 개선하고 발전시킨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제도, 교회 통계표 및 각종 보고서에 대한 연구와 개발, 감리사 지도지침서, 연회보고서의 통일화와 지방 및 연회회의록의 형식 통일안을 마련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효과적인 감리교회의 행정 시스템을 연구 개발한다.

마. 총회재판위원회

총회행정부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이관 받아 수시로 있는 총회재판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한다.

4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위원	
		교역자	평신도
총회심사		장춘익 전찬영 김창수 유광조 류제상	이창수 안규운 안재엽 이대우 김정웅
총회재판		이경호 최병희 홍순욱 오세영 석준복	석경환 한종섭 김무진 노정선 지영모
총회특별심사		김종수 임문선 신청웅 김남수 임종구	가재환 김선철 박철수 윤진호 김동학
총회특별재판		권오서 이종현 이규환 황병원	황용배 이기영 송현순 박순희 이호영 이현곤
총회행정재판		김여일 김홍수 함영환 이수배 홍선기	윤태웅 서정인 권용환 진동석 박중석
총회행정조정		공효순 현성은 방효천 기수철 최병남	이해선 정하룡 박달선 윤용실 주춘식
감사	이복규	이문기 이진수 권오준 이복규 이광호	신성부 송기영 정하모 최동한 심기택
예산		한정호 김종훈 박영태	이정행 변종칠
인사, 징계			

5 정책소고

“행정의 효율성 재고를 위해서 해야 할 일”

김동진 목사

I. 서론

2007년 10월 27일 제27회 총회 입법의회시 개정되어 공포된 장정개정안에 따라 본부도 각 국 부서간 조직에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다. 서무행정부가 사무국에서 행정기획부로 옮기게 된 것은 단순히 업무의 이관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단지 감리회본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감리회 전체의 맞는 행정부의 역할 제고가 있어야 한다.

II. 본론

먼저 행정의 효율성 재고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통계자료와 서식의 정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단행정의 기초자료인 통계표의 부정확성은 교단 정책에 지장을 초래하고, 행정의 혼란을 가져오며, 비능률과 불신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곧 감리회의 불신이며 부흥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번 은급이사회에서는 통계표를 불성실하게 보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교회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과 더불어 소위원회를 두어 직접 방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통계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년 동안 비교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분석하며, 각 교회들이 경상수입뿐만 아니라 입교인수 등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모든 교회와 지방, 연회가 적극 호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연회와 지방회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개 교회와 목회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담임 목회자는 교회 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목회 현장의 현황이 통계표에 그대로 담겨지도록 정직하고 진실하게 작성하고 보고해야 한다.

특히 재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은 오래 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다. 부담금과 연관된 항목은 실제 재정보다 축소하여 보고하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교회와 교회, 목회자와 목회자, 그리고 평신도들과 세상으로부터의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어떤 노력도 모두 허사가 될 것이다.

또한 이명 교인이나, 장기 결석자 내지는 낙심자의 교적정리를 미루어 실제 교인보다 부풀려진 자료가 통계에 반영되는 것도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두 번째는 서식의 일원화와 규격화를 이루도록 한다.

내규를 점검해서 오래전에 만들어져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개폐지 한다든지, 미래 지향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통해서, 각종 문서와 서식을 통일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은 서무행정부에서 주관하되 본부 각 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본부는 연회와 지방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식 중에서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것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통일시켜야 한다.

세 번째는 전산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나라는 IT분야에서 초일류 국가다. 전자정부가 출범한지도 오래 되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 납세행정 등이 모두 전산화 되었다. 기업에서 종이 결재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현실인데도 우리는 아직도 공식문서를 전자 메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다. 빠른 시일 내에 교회나 목회자들은 인터넷이나 전자우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컴퓨터를 설치할 여력이 없는 교회들을 지원하여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상호소통을 원활히 하여 신뢰도를 높여지기를 바란다.

III. 결론

이상과 같은 현안들을 해결하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부행정부부터 솔선수범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며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 조직 개편을 통해 본부 임직원들의 의욕이 고취되어 있고, 시대적인 요구가 요구되는 때에 변화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원한다.

본부회계부

· 부장 권홍식 권사

① 업무 추진 방향

금년 장정개정으로 말미암아 본부부담금 1%를 본부예산으로 사용하고 연회사업비 및 교역자양성비는 수익사업인 유지재단의 이익금으로 지출하게 되었다. 또한 10년 만에 본부회계와 재단회계가 분리됨으로 인해 본부회계는 비영리회계로서 고유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되었다.

본부회계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각 국 회계를 도입하고 더존 G7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합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자 한다. 또한 본부부담금을 현재 각 교회나 지방회 회계에서 연회를 경유하여 입금되던 것을 이제 직접 본부회계로 입금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하고자 한다.

또한 조금은 개선되었지만 정직한 통계표 작성으로 책정된 정직한 부담금을 통해 하나님의 사업이 크게 확장되기를 소원한다.

② 현황

본부회계부 조직은 본부회계 및 각국 회계, 유스호스텔회계, 입석연수원회계, 사회복지재단회계, 장학재단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회계부가 재단 및 본부회계로 분리됨에 따라 1992년도 작성된 회계규칙 및 예산관리규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고 국 회계의 도입을 위해 회계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쉽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또한 각 계정과목별 조견표를 작성하여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③ 주요 업무

- 1) 예산편성 - 각국 위원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심의 편성함.
- 2) 결산업무 - 미결산계정을 정리하고 결산지침 및 절차에 따라 결산업무를 함
- 3) 예산통제 - 조견표대로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예산이 초과되지 않도록 통제함
- 4) 세무회계 -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를 납부함
- 5)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6) 급여계산 - 매월 25일 지급함
- 7) 부담금 수입 - 연회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수납함
- 8) 미수금 관리 - 부담금 등 미수금 내역서를 통지하여 수납함
- 9) 자금관리 -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함
- 10) 내부회계감사 - 수시로 증빙서등 점검하여 사고예방을 함
- 11) 감사 수검 - 1년에 2회 정기감사를 수검함

5 정책소고

“본부회계의 각 국별 회계프로그램 도입”

권홍식 권사

I. 서론

본부회계는 1997년 장정개정으로 인해 각 국 회계 및 유지재단회계를 비롯한 전체 재단회계를 통합운영 하였으나 이번 27차 입법총회의 장정개정으로 인하여 본부회계와 재단회계가 분리 되었다.

현재 예산이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되었고 각 국 정책뿐 아니라 선교대회 및 총회위원회의 신설 등으로 회계단위가 복잡하고 타과목으로 예산 전용 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국별 회계를 두고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한다.

II. 본론

1) 현행 문제점

- ① 각 국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일정한 금액을 가지급하여 회의 등 지출이 끝난 후에 정산하는 방식이므로 항상 미정리계정이 발생한다.
- ② 각 구별 회계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예산의 통제가 용이하지 않고 지출된 내역을 수기로 작성하고 있고 필요시 본부회계에 요청하는 형편이다.
- ③ 정책연구비등이 다른 과목으로 전용되는 경우가 많다.
- ④ 통합회계로 인해 전표 등 자료가 본부회계부에서 보관하고 있어 자료를 신속하게 볼 수 없고 감시를 받을 시에도 상당히 불편하다.

⑤ 예산집행내역과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2) 각 국 회계프로그램 도입

- ① 회계 프로그램 (NEO - G7) 설치비용으로 15,000,000원을 예산 배정 받아 각 국 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② 각 국별 1인씩 국 회계담당 및 프로그램 전담자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③ 2008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3) 기대효과

- ① 상시정보를 확보하여 예산관리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
- ② 수기로 기장하던 장부기장 생략함
- ③ 가지급금 등 미정리 계정 최소화 및 사고 예방대책 실시
- ④ 사전 감사기능으로 중빙서등 정구 용이
- ⑤ 회계교육 실시로 업무능력 향상

III. 결론

이상과 같이 본부회계에 각 국별 회계 도입 및 프로그램설치로 더욱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 매뉴얼 제정 및 사전 교육을 통해 시스템이 구축되고 원활하게 사용하여 적정하게 운용되는 본부회계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3부

통계자료와 문서

기초 통계자료
연합기관 파송 현황
본부 주요업무 일정
2005~2007년 주요문서

기초 통계자료

1. 종교인구 현황

1) 종교별 인구 비율 추이

	1985년		1995년		2005년	
	인구(천)	구성비(%)	인구(천)	구성비(%)	인구(천)	구성비(%)
총 인 구	40,420	100.0	44,554	100.0	47,041	100.0
종교 있음	17,203	42.6	22,598	50.7	24,971	53.1
· 불 교	8,060	19.9	10,321	23.2	10,726	22.8
· 개신교	6,489	16.1	8,760	19.7	8,616	18.3
· 천주교	1,865	4.6	2,951	6.6	5,146	10.9
· 유 교	483	1.2	211	0.5	105	0.2
· 원불교	92	0.2	87	0.2	130	0.3
· 기 타	213	0.5	268	0.6	247	0.5
종교 없음*	28,216	57.4	21,953	49.3	22,070	46.9

* 종교없음에는 종교미상 포함

2) 2005년 연령별 종교 분포 비율

연령별	불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	종교없음
0~4세	11.6	18.0	8.6	1.0	60.9
5~9세	14.5	21.4	10.6	1.1	52.4
10~14세	16.9	21.5	11.6	1.1	49.0
15~19세	18.7	19.3	11.8	1.1	49.1
20~24세	19.7	18.7	12.2	1.2	48.3
25~29세	18.9	17.1	10.2	1.3	52.5
30~34세	18.4	17.5	9.7	1.4	53.2
35~39세	20.8	17.9	10.0	1.4	50.0
40~44세	24.9	17.6	10.8	1.4	45.4
45~49세	28.5	17.9	11.8	1.5	40.4
50~54세	31.1	17.9	12.2	1.6	37.3
55~59세	32.4	17.6	11.7	1.8	36.5
60~64세	33.9	16.8	11.0	2.1	36.2
65세 이상	32.3	17.5	11.2	2.5	36.5

2. 교단별 기초 통계 현황

교단	교회수	교인수	교단장	총회사무실	기준년도 · 출처
구세군대한본영	572	117,524	전광표	02-720-9494	2003 · 기존자료
기독교대한감리회	5,825	1,534,504	신경하	02-399-4300	2007 · 본부제공
기독교대한복음교회	50		전병호	02-762-7529	2007 · 국민일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5,948	745,275	백장흠	02-501-7080	2007 · 총회제공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93	1,133,935	김종남	02-720-6832	2007 · 한기총제공
기독교한국루터회	40	4,946	엄현섭	02-3789-7431	2007 · 한기총제공
기독교한국침례회	2,637	800,437	김용도	02-2683-6693	2007 · 총회제공
대한성공회	118		박경조	02-738-8952	2007 · 성공회 HP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1,679	501,036	김성천	02-592-0433	2007 · 총회제공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2,055		고창곤	031-382-6386	2007 · 한기총제공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7,476	2,648,852	김영태	02-741-4298	2007 · 총회제공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10,128	2,716,851	김용실	02-559-5600	2007 · 한기총제공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정통)	2,816	861,098	백금흠	02-584-6885	2007 · 한기총제공
예수교대한성결교회	1,240	255,960	신화석	02-725-7079	2007 · 한기총제공
한국기독교장로회	1,566	337,327	임명규	02-3499-7600	2007 · 총회제공
한국정교회	7		소티리오스	02-365-3744	2007 · 정교회 HP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CCK) 회원교단중에서 주요교단을 추린것임.

3. 2007년도 교세 현황

선교국 · 국내선교부(2006.12)

구분 연회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미주특별	합계
지방수	13	16	29	25	20	24	14	20	21	21	13	216
교회수	354	385	909	670	535	618	363	515	577	581	318	5,825
입교인	118,812	83,054	152,878	72,277	50,311	58,583	26,391	54,924	53,727	34,955	13,112	719,024
세례인	28,173	10,375	23,985	11,346	7,447	7,720	3,646	9,195	7,154	8,702	2,312	120,055
세례아동	18,370	10,080	20,570	11,306	6,162	7,739	3,654	6,688	6,162	5,831	2,180	98,742
원입인(성인)	47,768	94,078	118,618	20,454	21,968	25,264	11,515	23,087	16,649	11,446	2,093	392,940
원입인(아동)	39,256	18,327	38,964	19,530	15,507	15,595	8,328	15,605	17,583	13,545	1,503	203,743
교인수	252,379	215,914	355,015	134,913	101,395	114,901	53,534	109,499	101,275	74,479	21,200	1,534,504
정회원	602	623	1,248	715	542	639	334	579	602	541	320	6,745
준회원	98	74	133	89	66	63	34	69	52	71	31	780
담임서리	5	9	18	19	11	19	23	20	12	30	9	175
수련서리 (기관포함)	26	33	36	19	16	4	4	20	10	4	9	181
협동회원	2	1	5	0	0	1	1	1	0	0	0	11
원로목사	122	76	125	69	39	61	25	56	70	41	22	706
국외거주	78	19	18	43	83	35	10	30	8	8		332
교역자수	933	835	1,583	954	757	822	431	775	754	695	391	8,930
경상수입	141,756,197,651	146,551,565,797	240,017,783,453	133,850,820,112	87,754,075,080	56,633,455,473	22,531,811,667	36,952,884,863	45,293,114,550	35,620,463,675	\$24,580,000	946,962,152,321 \$24,580,000

4. 대륙별 파송 선교사 현황

선교국 · 선교사관리부(2007.9)

지역	나라명	인원	선교사 현황										비고	
			교역자				평신도				전문인			
			남	여	남(명)	여(명)	남	여	남(협)	여(협)	교사	의료	컴퓨터	
동남아시아 (72)	말레이시아	32	15	3				13					1	
	싱가폴	15	7	1				7						
	인도네시아	25	13					11				1		
	계	72	35	4	0	0	0	31	0	0	0	1	1	
동북아시아 (223)	대만	11	5	1				5						
	몽골	13	6					6			1			
	일본	26	17	2				7						
	중국	173	76	13	1			9	67	1	4	1	1	
	계	223	104	16	1	0	9	85	1	4	2	1	0	
필리핀 (65)	필리핀	65	31	3				1	29				1	
	계	65	31	3	0	0	1	29	0	0	0	1	0	
인도차이나 (61)	태국	17	10		1			0	6					
	캄보디아	22	11	1				2	8					
	베트남	10	5					5						
	미얀마	8	4					4						
	라오스	4	2					2						
	계	61	32	1	1	0	2	25	0	0	0	0	0	
서남아시아 (85)	네팔	13	5					2	3	1			2	
	방글라데시	10	4	2					4					
	스리랑카	15	8					1	6					
	인도	43	20	4				1	16		1	1		
	파키스탄	4	2						2					
	계	85	39	6	0	0	4	31	1	1	1	2	0	
중동 (27)	이스라엘	3	1	1					1					
	터키	6	2	1					3					
	바레인	1	1											
	이집트	5	3						2					
	모로코	4	1	2					1					
	요르단	1		1										
	U. A. E	2	1						1					
	알제리	5	3						2					
러시아 (21)	계	27	12	5	0	0	0	10	0	0	0	0	0	
	러시아	21	9	1				2	9					
	계	21	9	1	0	0	2	9	0	0	0	0	0	
중앙아시아 (27)	카자흐스탄	8	3					1	4					
	키르기즈스탄	5	2		1				2					
	우즈베크스탄	4	2						1				1	
	타지키스탄	6	2					1	3					
	아제르바이잔	4	2	1					1					
	계	27	11	1	1	0	2	11	0	0	0	1	0	
아프리카 (50)	남아공	10	5						5					
	모잠비크	4	2						2					
	말라위	5	2						3					
	에티오피아	1						1						

아프리카 (50)	토 고	2	1					1					
	캐 냐	13	6					7					
	탄자니아	13	3	1			2	6			1		
	세 네 갈	2	1	1									
	계	50	20	2	0	0	3	24	0	0	1	0	0
오세아니아 (31)	뉴질랜드	7	4					3					
	호 주	13	8	1			1	3					
	마 샬	1			1								
	괌	2	1					1					
	사 이 판	1	1										
	피 지	7	3	1				3					
중남미 (20)	계	31	17	2	1	0	1	10	0	0	0	0	0
	도미나카	5	2	1				2					
	쿠 바	2	1					1					
	자 메 이 카	2	1					1					
	아르헨티나	2	1					1					
	페 르	2	1					1					
	브 라 질	2	1					1					
	칠 레	4	2					2					
북 미 (12)	과테말라	1						1					
	계	20	9	1	0	0	0	10	0	0	0	0	0
	미 국	6	4		1			1					
	멕 시 코	2	1					1					
동유럽 (21)	캐 나 다	4	2					2					
	계	12	7	0	1	0	0	4	0	0	0	0	0
	루마니아	11	5				1	5					
	헝 가 리	2	1					1					
	우크라이나	2	1					1					
	불가리아	2	1	1									
	몰 도 바	2									2	컴퓨터	
유럽 (36)	슬로베니아	2	1					1					
	계	21	9	1	0	0	1	8	0	0	0	0	2
	독 일	16	16										
	영 국	12	12										
	프 랑 스	2	2										
	이 태 리	4	2	1				1					
	네 델 란 드	1	1										
14개 지역	오스트리아	1	1										
	계	36	34	1	0	0	0	1	0	0	0	0	0
	69개국	751	369	44	5	0	24	288	3	5	4	6	3
미주지역	미주지역	391											미주연회교역자
	22개국	54											해외지방교민목회자
총 계	14개 지역 / 84개국 / 1,196명												
비 고	# 한인목회자만 사역하고 있는 4개 나라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①아일랜드 ②스위스 ③파라과이 ④스페인												

5. 2007년 연회별 교회학교 현황

교육국 · 교육교재부(2006.12)

연도	구분	서울 (13)	서울남 (14)	중부 (29)	경기 (23)	중앙 (19)	동부 (23)	충북 (13)	남부 (20)	충청 (21)	삼남 (12)	호남 (9)	합계 (196)
영아부	학교	2,304	2,058	3,195	1,517	1,248	1,040	897	1,425	1,038	376	466	15,564
	교사	365	435	585	248	183	159	131	222	226	75	77	2,706
유치부	학생	6,315	5,060	10,406	5,981	4,385	4,400	2,003	4,177	4,479	2,006	1,692	50,904
	교사	1,137	1,001	1,922	1,019	672	655	286	608	651	319	278	8,548
유년부	학생	7,317	6,126	14,546	7,948	6,091	6,051	3,030	5,740	6,691	2,753	2,905	69,198
	교사	1,104	1,018	2,282	1,317	943	842	467	935	1,232	436	392	10,968
초등부	학생	8,305	6,847	16,910	8,045	6,798	6,343	3,194	6,545	7,076	3,293	2,325	75,681
	교사	1,138	1,136	2,306	1,361	946	873	489	1,011	1,241	498	312	11,311
소년부	학생	5,453	3,297	6,087	3,871	2,641	2,681	1,445	2,220	2,351	1,562	1,059	32,667
	교사	643	529	881	612	309	365	249	372	351	266	148	4,725
중등부	학생	7,527	6,887	12,848	6,603	4,989	5,296	2,655	5,766	4,851	2,499	1,855	61,776
	교사	881	890	1,555	791	547	576	293	535	499	302	220	7,089
고등부	학생	7,137	5,491	9,241	4,836	3,675	3,468	2,027	4,705	3,209	1,826	1,238	46,853
	교사	892	813	1,207	600	448	419	214	426	413	243	154	5,829
청년부	학생	13,663	12,646	17,210	8,169	5,484	5,364	3,242	7,635	4,365	2,625	2,014	82,417
	교사	833	686	650	391	253	250	322	402	347	174	136	4,444
청장년부	학생	4,669	4,933	10,565	4,929	5,874	3,937	3,017	5,111	2,998	1,692	1,264	48,989
	교사	189	130	524	299	104	208	65	337	249	124	39	2,268
장년부	학생	12,167	16,186	30,291	13,448	12,086	12,156	7,169	12,771	11,196	3,543	3,450	134,463
	교사	437	422	1,000	451	220	485	172	509	633	313	106	4,748
노년부	학생	2,426	1,964	5,962	2,205	1,585	3,606	1,630	3,510	3,186	1,206	846	28,126
	교사	68	63	173	91	96	96	38	224	104	84	17	1,054

6. 계통학교 현황

1) 중·고등학교

교육국·차세대교육부(2007.11)

학교명	교장	교목	주소	전화
경일고	윤동섭	김현주	경기 안산시 선부동 1053	031-403-5551
경화여중	최진복	우종억	경기 광주시 송정리 52-1	031-768-8237
경화여고	최진순	김정석 강태욱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52-2	031-768-8331
광성중	이인순	허광열	서울 마포구 신수동 91-20	02-703-3456
광성고	최준수	김신원	서울 마포구 신수동 91-20	02-711-2563
대신중학교	이원경	서정식	대전시 서구 복수동 283-1	042-585-5905
대신고등학교	이석주	서정식	대전시 서구 복수동 283-1	042-585-5901
덕신고	김건중	이태형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243	032-933-2975
매향여중	임광수	김학석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10	031-254-8022
매향여정고	최영관	강영옥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10	031-251-4347
문영여고	육근선	박성환	서울 관악구 봉천4동 1695	02-873-3622
문영여중	육근선	이경진	서울 관악구 봉천4동 1695	02-873-3617
배재중	김진기	신영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313	02-3426-4604
배재고	김현수	장운석 박성중	서울 강동구 고덕동 313	02-441-8101
배화여중	김주남	김은철	서울 종로구 펜운동12	02-736-4491
배화여고	전민자	이기성	서울시 종로구 펜운동12	02-724-0311
삼일중	정태경	최리균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10	031-255-3133
삼일상고	이정근	송호진 김경진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6-1	031-257-3182
삼일공고	리강인	김학규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0-22	031-250-2428
서울관광고	김홍배	곽호원	서울 관악구 봉천9동 1694	02-874-3101
서울여상	한상국	박성환	서울 관악구 봉천4동 1695	02-873-3614
서울예고	서영님	조환기 김은주	서울 종로구 평창동 217	02-395-0243
성신여중	이건화	최종혁	서울 성북구 돈암동 173	02-928-4588
성신여고	서병무	최종혁	서울 성북구 돈암동 173	02-928-4588
성일고등학교	동정환	김세환	전북 익산시 황동면 황동리 615	063-856-4854
송도중	추광기	박영근	인천시 중구 답동 40	032-772-9383
송도고	박상수	조희영	인천시 남구 옥련동 산18-1	032-832-3412
안양상업고등학교	김진원	송상면	안양시 만안구 안양 6동 541-33	031-441-4634
영란여중	홍홍기	이대길	서울 종로구 망우1동 220	02-2209-0299

학교명	교장	교목	주소	전화
영명중	오대현	유혜종	충남 공주시 중동 318	041-853-9783
영명고	오대현	유혜종	충남 공주시 중동 318	041-853-9783
영화여정보고	김정연	이광선	인천시 동구 창영동 36	032-764-7921
예원학교	김문범	김정수	서울 중구 정동1-45	02-752-3306
온양 한울중	이종남	차은혜	충남 아산시 권곡동 409	041-549-1226
온양 한울고	박우승	김향아	충남 아산시 권곡동 409	041-540-1226
이천 양정여중	홍덕종	김성광	이천시 관고동77	031-633-7804
이천 양정여고	홍덕종	하은용	이천시 관고동77	031-633-7803
이화미디어고	이영옥	이천진	서울 중랑구 망우1동 220	02-2209-0299
이화여고	정창용	이종용 이평일	서울 중구 정동 32	02-756-7612
이화외고	장덕희	강봉석	서울 중구 순화동 1-1	02-319-2983
이화여대부속 이화부속중	강순자	이현숙	서대문구 대신동 47	02-392-2062
이대여대부속 이화·금란고	강순자	이희인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113	02-362-8263
인덕공고	강범석	최철기	서울 노원구 월계동 산 76	02-902-2782
재현중학교	권원혁	김의태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129-1	02-932-4816
천성중	임상수	김봉환	천안시 유량동 393-20	041-551-7450
천안정보고	박준구	배영복	천안시 신당동 98	041-551-6512
청신여중	김기명	강석구	충남 청양군 청양읍 백천리 178	041-943-2760
태광중	황득규	최한영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63	031-611-5635
태광고	최종일	최한영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63	031-611-5635
파주중	추현진	신성훈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산83-1	031-953-5131
파주공고	이영순	김중배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산83-1	031-953-5131
팔봉중	송국범	윤성민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산 27	041-662-6006
팔렬중	허명구	신학복	강원 홍천군 내촌면 동창길 363	036-435-6324
호수돈여중	김종혜	김형일	대전시 중구 선화1동 349-10	042-221-5290
호수돈여고	이현구	주금섭	대전시 중구 선화1동 349-10	042-221-2614
영화초등학교	심원기	이광선	인천시 동구 창령동 36	032-764-5131
산돌학교	이은재	조영훈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357	031-511-3295
한국관광고	김성렬	황인천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40-3	031-662-5111

2) 대학교

학교명	총장	교목	주소
감리교신학대학교	김외식	이은재	121-701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31
목원대학교	이요한	안승병 이광주 손삼권	302-729 대전시 서구 도안동 800
협성대학교	최문자	유성준 이호성 이광선	445-745 경기 화성군 봉담읍 상리 81
연세대학교		남재현 한인철	120-749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이화여자대학교	이배용	손운산 정용석	120-750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1
배화여자대학	김정길	전병식 김언영	110-735 서울 종로구 필운동 12
안산1대학	김득중	김재중 노현수	425-701 안산시 일동 752
배재대학교	정순훈	장춘식 이성덕 김병태	302-707 대전시 서구 도마2동 439-6
남서울대학교	공정자	최태수 문시영	330-707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21
인덕대학	김락배	구완서	139-749 서울 노원구 월계동 산 76
혜천대학	백영철	김형남	302-715 대전 서구 복수동 333

7. 감리교 신학원 현황

교육국 · 교육행정부

신학원	원장	연회	학제	주소	전화번호
감리교 서울신학원	조규준	서울남	3년제	152-887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90-25 신도림제일교회	02-2637-3926(겸)
감리교 중앙신학원	변승근	중앙	3년제	480-856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23-1	031-876-9394 031-877-3927 (팩스)
경기신학원	박영모	경기	3년제	442-81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26-1 동수원 교회	031-215-5967 031-215-6001 (팩스)
남부신학원	곽성영	남부	3/4 년제	학교)대전 서구 가장동 52-2대전중앙교회 사무실) 대전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402-나호(301-730)	042-256-9580
대구신학원	신완철	삼남		701-825 대구시 동구 신천3동 171-15	053-753-9395 053-753-9398 (팩스)
동부신학원	김남철	동부	3/4 년제	220-160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604-24	033-734-9451 033-734-9454 (팩스)
춘천분원	한 균		3년제	200-853 춘천시 동면 장학리 791-9	033-241-5621
서울감리교 신학원	배동윤	서울	3년제	110-778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94-27 태화빌딩	02-2003-5757 02-2003-5758 (팩스)
인천성서신학원	이호문	중부	4년제	402-070 인천시 남구 문학동 400-1	032-428-8660
충북신학원	김일고	충북	3/4 년제	360-814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61-46 에덴 교회	043) 256-6534 043-256-6081 (팩스)
충주분원	소화춘			380-062 충북 충주시 교현2동 766-5 충주제일교회	043) 843-3233 043-843-3236 (팩스)
한국감리교신학원	김병삼	중앙	3년제	463-82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93	031-706-1140 031-706-1141 (팩스)
호남신학원	오세창	삼남	3년제	570-973 전북 익산시 부송동 716 영생교회	063-834-0088 063-834-0070 (겸)
충청신학원	현상규	충청	3년제	340-800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59-1	041-334-1691 041-333-4901 (팩스) 041-634-5610 (팩스)
LA성서신학원	최충수	미주	3년제	1230.S Hobart BL. LA CA900006	323-737-3838

학교명	이사장	원장	주소	전화
감리교신학원 목회아카데미	신경하	이호문	인천시 남구 문학동 400-1	032)427-8661

8. 사회봉사 및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회평신도국·사회봉사부(2007.11.30)

구분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개별 복지재단	개체교회	기타	계
지역사회복지관	10	7	2	4		23
노인복지시설	27	1	6	12	3	49
여성복지시설	6	1	1	4	1	13
장애인복지시설	5	8	9	3		25
청소년복지시설	1	1	1	8	6	17
아동복지시설	1		5	3		9
재가복지시설		1				1
노숙자/부랑인	1		1	2	1	5
자활시설	3	2				5
외국인노동자				1	2	3
노인대학				126		126
보육시설	7	3	6	160		176
공부방 (지역아동센타)	1	2		168		171
어린이도서관				33		33
기타(푸드,급식)	7	2		3		12
합계	69	28	31	527	13	668

* 2006년(559개소)에 비해 시설수 109개 증가 함.

연합기관 파송 현황

1. 연합기관 이사 및 위원 파송 현황

No	기관	인원	임기
1	한국기독교연합사업 유지재단 이사	3명	4년
	총회회원	39명	2년
	임원회 임원	2명	1년
	실행위원회 위원	12명	2년
	프로그램위원회 위원	35명	2년
2	대한성서공회 이사	1명	3년
3	한국찬송가위원회 위원	5명	4년
4	학교법인 삼일학원(협성대학교) 이사	2명	4년
5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 이사	10명	4년
6	학교법인 감리교학원(목원대학교) 이사	1명	4년
7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	2명	4년/2년
8	한국기독학생총연맹	2명	2년
9	학교법인 이화학원 이사	1명	4년
10	학교법인 배재학당 유지이사	4명	4년
11	대한기독교교육협회 위원	12명	3년
12	재단법인 대한기독교서회 이사	4명	4년
13	CBS 이사	3명	4년
14	사회복지법인 감리회태화복지재단 이사	7명	3년
15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이사 및 위원	10명	2년
16	대전기독교 연합봉사회 이사	2명	3년
17	가정생활위원회 위원	8명	2년
18	기독교 TV 이사	9명	3년
19	경목과 경찰중앙협의회 총대	6명	1년

2. 연합기관 이사 및 위원 파송 명단

기관	인원	성명	임기	기간	비고
한국기독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연합사업 유지재단이사	3명	이요한	4년	2005.06.22~2009.06.21
			문 억	4년	2006.03.08~2010.03.07
			안희군	4년	2006.03.08~2010.03.07
	총회대표	39명	신경하	2년	2006.11~2008.10
			김기택	2년	2006.11~2008.10
			이종복	2년	2006.11~2008.10
			정지강	2년	2006.11~2008.10
			이원재	2년	2006.11~2008.10
			엄마리	2년	2006.11~2008.10
			전용호	2년	2006.11~2008.10
			김종훈	2년	2006.11~2008.10
			정상복	2년	2006.11~2008.10
			공효순	2년	2006.11~2008.10
			김의중	2년	2006.11~2008.10
			김영주	2년	2006.11~2008.10
			박영천	2년	2006.11~2008.10
			정명기	2년	2006.11~2008.10
			이상윤	2년	2006.11~2008.10
			허원배	2년	2006.11~2008.10
			조경열	2년	2006.11~2008.10
			황문찬	2년	2006.11~2008.10
			김영진	2년	2006.11~2008.10
			장석재	2년	2006.11~2008.10
			방원철	2년	2006.11~2008.10
			안승철	2년	2006.11~2008.10
			김영대	2년	2006.11~2008.10
			박신진	2년	2006.11~2008.10
			서호석	2년	2006.11~2008.10
			윤병조	2년	2006.11~2008.10
			표순환	2년	2006.11~2008.10

기관		인원	성명	임기	기간	비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회대표	39명	최은영	2년	2006.11~2008.10	
			유춘자	2년	2006.11~2008.10	
			임성이	2년	2006.11~2008.10	
			최병천	2년	2006.11~2008.10	
			연상준	2년	2006.11~2008.10	
			이은영	2년	2006.11~2008.10	
			박경양	2년	2006.11~2008.10	
			정병한	2년	2006.11~2008.10	
			권승길	2년	2006.11~2008.10	
			박만규	2년	2006.11~2008.10	
			송병구	2년	2006.11~2008.10	
			신복현	2년	2006.11~2008.10	
	임원회임원 및 감사	2명	김기택	1년	2007.11~2008.10	부회장
			임성이	1년	2007.11~2008.10	감사
	실행위원회위원	12명	김영주	2년	2007.01~2008.12	
			김의중	2년	2007.01~2008.12	
			김종훈	2년	2007.01~2008.12	
			박영천	2년	2007.01~2008.12	
			서호석	2년	2007.01~2008.12	
			이원재	2년	2007.01~2008.12	
			이은영	2년	2007.01~2008.12	
			정상복	2년	2007.01~2008.12	
			조경열	2년	2007.01~2008.12	
			최은영	2년	2007.01~2008.12	
			표순환	2년	2007.01~2008.12	
			황문찬	2년	2007.01~2008.12	
	프로그램위원회 위원 (35명)	신앙과직제	조경열	2년	2007.01~2008.12	
			박영천	2년	2007.01~2008.12	
			심광섭	2년	2007.01~2008.12	
			김영대	2년	2007.01~2008.12	

기관		인원	성명	임기	기간	비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프로그램위원회 위원 (35명)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	4명	임정덕	2년	2006.11~2008.10	
			황문찬	2년	2006.11~2008.10	
			박신진	2년	2006.11~2008.10	
			신복현	2년	2006.11~2008.10	
	양성평등	4명	문재황	2년	2006.11~2008.10	
			태동화	2년	2006.11~2008.10	
			이규화	2년	2006.11~2008.10	
			김순영	2년	2006.11~2008.10	
	화해·통일	4명	이종복	2년	2006.11~2008.10	
			정지강	2년	2006.11~2008.10	
			김성복	2년	2006.11~2008.10	
			송병구	2년	2006.11~2008.10	
	정의·평화	4명	정상복	2년	2006.11~2008.10	
			정명기	2년	2006.11~2008.10	
			김영주	2년	2006.11~2008.10	
			진광수	2년	2006.11~2008.10	
	생명·윤리	4명	이정배	2년	2006.11~2008.10	
			권종호	2년	2006.11~2008.10	
			박성용	2년	2006.11~2008.10	
			유경동	2년	2006.11~2008.10	
	청년학생 선교연구	4명	이용윤	2년	2006.11~2008.10	
			이은영	2년	2006.11~2008.10	
			연상준	2년	2006.11~2008.10	
			성낙범	2년	2006.11~2008.10	
	문화영성	4명	허원배	2년	2006.11~2008.10	
			방원철	2년	2006.11~2008.10	
			하정완	2년	2006.11~2008.10	
			함석우	2년	2006.11~2008.10	
	지도력개발	2명	김종훈	2년	2006.11~2008.10	
			윤병조	2년	2006.11~2008.10	
	현장	1명	이상윤	2년	2006.11~2008.10	

기관	인원	성명	임기	기간	비고
대한성서공회 이사	1명	이종복	3년	2005.05.01~2008.04.30	
한국찬송가위원회 위원	5명	백형부	4년	2006.03 ~ 2010.02	공과
		안종원	4년	2006.03 ~ 2010.02	감사
		이보철	4년	2006.03 ~ 2010.02	
		이천진	4년	2006.03 ~ 2010.02	
		엄문용	4년	2006.03 ~ 2009.02	총무
학교법인 삼일학원 (협성대학교 등) 이사	2명	신경하	4년	2005.01 ~ 2008.03.08	
		권혁구	4년	2006.03.25 ~ 2010.03.25	
학교법인 감리교 신학원 이사	10명	신경하	4년	2006.05.18 ~ 2010.05.17	
		김충식	4년	2005.07.01 ~ 2009.06.30	
		박거종	4년	2005.07.01 ~ 2009.06.30	
		신동일	4년	2005.07.01 ~ 2009.06.30	
		이규학	4년	2005.07.01 ~ 2009.06.30	
		장동주	4년	2005.07.01 ~ 2009.06.30	
		장현수	4년	2005.07.01 ~ 2009.06.30	
		한봉수	4년	2005.07.01 ~ 2009.06.30	
		한정호	4년	2005.07.01 ~ 2009.06.30	
		현상규	4년	2005.07.01 ~ 2009.06.30	
학교법인감리교학원 (목원대)이사	1명	김창수	4년	2004.02.05~2008.06.18	2007.12.18 현재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	2명	소화춘	4년	2004.02.25 ~ 2008.02.24	이사
		박상혁	2년	2006.03.01 ~ 2008.02.28	원주기독병원 의료위원회
한국기독학생총연맹	2명		2년	2007.11~2009.10	
			2년	2007.11~2009.10	
학교법인 이화학원 이사	1명	조영준	4년	2007.06.02 ~ 2011.06.01	이사장
학교법인 배재학당 유지이사	4명	조세제	4년	2007.06.05 ~ 2011.06.04	
		최세웅	4년	2007.05.15 ~ 2011.05.14	
		조영준	4년	2007.05.22 ~ 2011.05.21	
		황방남	4년	2007.05.15 ~ 2011.05.14	

기관	인원	성명	임기	기간	비고
대한기독교교육협회위원	12명	신성철	3년	2007.02.24~2010.02.24	
		정영기	3년	2007.02.24~2010.02.24	서기
		황문찬	3년	2007.02.24~2010.02.24	실행위원
		박경진	3년	2007.02.24~2010.02.24	
		백형부	3년	2007.02.24~2010.02.24	실행위원
		문충웅	3년	2007.02.24~2010.02.24	
		김인환	3년	2007.02.24~2010.02.24	
		안종원	3년	2007.02.24~2010.02.24	부회장
		임영훈	3년	2007.02.24~2010.02.24	
		조재복	3년	2007.02.24~2010.02.24	실행위원
		김영진	3년	2007.02.24~2010.02.24	
		표석은	3년	2007.02.24~2010.02.24	
재단법인 대한기독교서회 이사	4명	정지강	4년	2006.03.22~2010.03.21	
		김영주	4년	2007.04.25~2011.04.24	
		이요한	4년	2005.02.15~2009.02.14	
		박은규	4년	2007.04.25~2011.04.24	
CBS 이사	3명	김정태	4년	2006.12.14 ~ 2010.12.13	
		권오서	4년	2007.07.11 ~ 2011.07.10	
		장현수	4년	2005.07.02 ~ 2009.07.03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이사	7명	신경하	3년	2005.12.04 ~ 2008.12.04	
		가홍순	3년	2007.10.12 ~ 2010.10.12	
		김기택	3년	2007.10.12 ~ 2010.10.12	
		신동일	3년	2007.10.12 ~ 2010.10.12	
		강승진	3년	2007.10.12 ~ 2010.10.12	
		정문식	3년	2005.12.04 ~ 2008.12.04	
		최은영	3년	2005.12.04 ~ 2008.12.04	
한국기독교 사회봉사회 이사 및 위원		김고광	2년	2008.02 ~ 2010.02	
		김종순	2년	2008.02 ~ 2010.02	
		김종훈	2년	2008.02 ~ 2010.02	
		이정일	2년	2008.02 ~ 2010.02	

기관	인원	성명	임기	기간	비고
한국기독교 사회봉사회 이사 및 위원	10명	조경열	2년	2008.02 ~ 2010.02	
		이기우	2년	2008.02 ~ 2010.02	
		김일환	2년	2008.02 ~ 2010.02	
		양희만	2년	2008.02 ~ 2010.02	
		안희군	2년	2008.02 ~ 2010.02	
		서호석	2년	2008.02 ~ 2010.02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 이사	2명	이종현	3년	2007.02.10 ~ 2010.02.10	
		이기복	3년	2007.02.10 ~ 2010.02.10	
가정생활위원회 위원	8명	신경하	2년	2006.03 ~ 2008.02	
		김진호	2년	2006.03 ~ 2008.02	
		전용철	2년	2006.03 ~ 2008.02	
		신현주	2년	2006.03 ~ 2008.02	
		임준택	2년	2006.03 ~ 2008.02	
		김광연	2년	2006.03 ~ 2008.02	
		김기택	2년	2006.03 ~ 2008.02	
		김영동	2년	2006.03 ~ 2008.02	
기독교TV 이사	9명	신경하	2년	2006.11.14~2008.10	
		박광식	3년	2007.03~2010.03	
		최병철	3년	2005.03.28~2008.03	
		한정석	3년	2007.11~2010.10	
		한광남	3년	2007.03~2010.03	
		한정호	3년	2007.03~2010.03	
		김충식	3년	2005.03.28~2008.03	
		김영훈	3년	2007.03~2010.03	
		감경철	3년	2007.03~2010.03	
경목과 경찰중앙협의회 총 대	6명	백동현	1년	2008.01 ~ 2008.12	
		김영동	1년	2008.01 ~ 2008.12	
		이원재	1년	2008.01 ~ 2008.12	
		박만호	1년	2008.01 ~ 2008.12	
		김영준	1년	2008.01 ~ 2008.12	
		유인덕	1년	2008.01 ~ 2008.12	

본부 주요업무 일정

선교국

교육국

사회평신도국

사무국

출판국

연수원

행정기획실

1월

선교국	국내선교부		사회농어촌환경부	해외선교기획부·선교사관리부
	M-project 정리 및 자료집 발간 미자립교회 최저 생활비 지원 예산 수립 공문 발송 군종사관후보생 집체교육 에자회 대학장학금 전달식 웨슬리 전도학교 전도교재 발간	감리교사회선교협의회 정책협의회 및 수양 정의·평화위원회 설립 예배 선교국위원회 사회분과 정책 협의회 다문화가정 실태조사	2007년도 선교사보고서 자료집 발간 2008년도 상반기 선교사 자격 인준 서류심사 2008 감리교세계선교대회 준비(1월~3월) 중남미선교사대회 및 쿠바 목회자 세미나(1월 14일 주간) 선교사 재배치 제도 확립	
교육국	교육행정부	장년교육부	차세대교육부	교육교재부
	계통학교 이사회 중등학교교목수련회 장학이사회	속회연구원이사회 사경회정책위원회 4차원성지세미나	학원선교회 청년정책협의회 국가인증수련회	교과과정위원회 교재편찬위원회
사회평신도국	공통	평신도부	사회봉사부	복지법인부
		평신도단체연합 신년하례회 평신도단체장협의회 (6개)		어린이집원장회의 시설감사
출판국	공통	출판부	정기간행부	
		단행본 「예수영성」 단행본 「왜 그들의 교회는 성장하는가?」 단행본 「화정교회 이야기」 「영남선교대회 화보집」 세례문답집·세례문답해설서 어린이 영상 설교집	『강단과목회』편집위원회 『기독교세계』발행 배포 2008 「하늘양식」원고정리	
사무국		행정기획실	연수원	
재산관리부 임시이사회		제11차 희망대심방(5-6, 한려지방) 제7차 감독회의(10-11) 장단기별전위원회 재구성	제1 연수부 (일영)	정회원 연수교육(A) 엠마오 가는 길 # 19(여)
			제2 연수부 (입석)	몸비우기, 건강교실, 고난 평화캠프 신들학교 교사계획연수 산돌학교 교사평화워크
비고				

2월

선교국	국내선교부		사회농어촌환경부	해외선교기획부·선교사관리부
	지방별 전도대 발대식 거행 각 연회 미자립 대책위원회 모임 전도우수자 간담회	병원선교위원회 정책협의회 각 지방 선교국총무 사회선교 정책 설명회 다문화가정 사역교회 순회 토론회	2008년도 상반기 선교사 자격 인준위원회, 2008년도 하반기 선교사 자격인준 면접심사 2008 감리교세계선교대회 나라별 대표자회의 중국선교사 가족 수련회(11일 ~15일, 필리핀 세부) 해외선교 미 참여교회 조사	
교육국	교육행정부	장년교육부	차세대교육부	교육교재부
	계통학교 교목회 계통학교교장회의	사순절묵상집 양육정책위원회 4차원 성지순례	청년목회이수자연장 교육 청소년 정책위원회	계절학교 정책위원회 음악위원회 유아교육정책위원회
사회평신도국	공통	평신도부	사회봉사부	복지법인부
	정책자문컨설팅 위원회	평신도선교단체장 협의회	노인대학 지도자 세미나	원로원 감독회장 위문
출판국	공통	출판부	정기간행부	
		단행본 「깨달음의 신앙」 단행본 「웨슬리 속회의 뿌리」 사순절묵상집, 교사교육교재	「하늘양식」 편집위원회 「기독교세계」 발행 배포 「기독교세계」 편집위원회 「강단과목회」 발행 배포	
사무국		행정기획실	연수원	
재산관리부 임시이사회		총회실행부위원회(1) 시카고 평화포럼(25-28) 제12차 희망대심방	제1 연수부 (일영)	엠마오 가는 길 # 20(남)
			제2 연수부 (입석)	건강교실 학부모 미래배움터 산돌학교 수료식 산돌학교 개학식
비고				

3월

국내선교부		사회농어촌환경부	해외선교기획부 · 선교사관리부	
선교국	지방 전도대 활동 시작	생명선교윤리위원회 설립 예배 농촌선교위원회 정책협의회 에큐메니칼 기관 실무자 연석 회의	대외선교협력위원회 일본 감리교 교역자 연수회 2008 감리교세계선교대회 개최 동원 및 설명 선교사 파송예배(상반기) 연회 참석 파송선교사 영접	
교육국	교육행정부	장년교육부	차세대교육부	교육교재부
	교육국위원회 몽골후례대학이사회 성직위원회	청장년정책위원회 사경회공청회	청년관 관장협의회 청소년 교재개발 위원회	교재편찬을위한공청회 율동위원회 아동교육정책위원회
사회평신도국	공통	평신도부	사회봉사부	복지법인부
	사회평신도국위원회	노인대학수강생모집 좋은만남후원회	자원봉사꿈나무영성 훈련 준비모임	종합복지관장 회의 정기이사회 분사무소회의
출판국	공통	출판부	정기간행부	
	국위원회	「사진명상집-십자가」발간 기획 단행본 「희망」 파워스톰 9권	「하늘양식」자유원고 모집 「기독교세계」발행 배포	
사무국		행정기획실	연수원	
재산관리부 정기이사회 재산관리부 임시이사회		제13차 희망대심방 제8차 감독회의(6·7) 장단기발전위원회	제1 연수부 (일영)	엠마오 가는 길 # 21(여) 감리교 목회자 부인 신학 교육원 청년엠마오 준비 세미나
			제2 연수부 (입석)	산돌학교 입학식
비고	· 연회개최 : 서울연회(25-27), 서울남연회(27-28), 경기연회(26-27) 중앙연회(27-28), 충북연회(25-26)			

4월

선교국	국내선교부		사회농어촌환경부	해외선교기획부·선교사관리부
	미자립교회 자료집 발간 군목파송 예배 웨슬리 전도학교 전도훈련	장애인선교주일 성수 장애인선교한마당 다문화가정 온누리안 케어시스템 정착 설명회	2008 감리교세계선교대회(연1회/격년 주관) 2008년도 선교사주소록 제작(Up-date) 한국문화소개프로그램(상반기) 실시	
교육국	교육행정부	장년교육부	차세대교육부	교육교재부
	대학교목수련회	사경회정책위원회 임원교육교재수정 장년부 부흥전략회의	청소년지도사아카데미	프로그램개발위원회 교재편찬위원회
사회평신도국	공통	평신도부	사회봉사부	복지법인부
		평신도주일자료집 발송		운영위원장 회의 노인복지시설관장 회의
출판국	공통	출판부	정기간행부	
		단행본 「하나님은 부르지 않아도…」 후반기 발행도서 기획 및 점검	『기독교세계』발행 배포 『강단과목회』발행 배포	
사무국		행정기획실	연수원	
재산관리부 임시이사회		미]UMC총회(23-5.1) 제14차 희망대심방	제1 연수부 (일영)	엠마오 가는 길 # 22(남) 감리교 목회자 부인 신학 교육원
			제2 연수부 (입석)	산돌학교 밭 분양식
비고	· 연회개최 : 중부연회(8-9), 동부연회(9-11), 남부연회(1-3), 충청연회(3-4), 삼남연회(10-11)			

5월

	국내선교부	사회농어촌환경부	해외선교기획부·선교사관리부	
선교국	웨슬리 회심 270주년 특별행사 교회개척 성장학교 개최 군목단 수련회 예자회 7주년 기념예배	감리교 에큐메니칼 정책포럼 환경선교위원회 정책협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한마당	선교사복지위원회 지역별 선교사대회 개최 선교사훈련정책 세미나	
	교육행정부	장년교육부	차세대교육부	교육교재부
교육국	전국교육국 총무협의회	목회자속회컨퍼런스 제자세미나	청년교재개발위원회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
	공통	평신도부	사회봉사부	복지법인부
사회평신도국	전국 지방사회평신도부 총무정책협의회	평신도대학(1학기)	자원봉사꿈나무영성 훈련 준비모임	임시이사회
	공통	출판부	정기간행부	
출판국	국위원회 상반기 점검 및 하반기 계획 수립	단행본 「남대천과 교회」 2008 여름성경학교교재 발행	「기독교세계」발행 배포	
	사무국	행정기획실	연수원	
재산관리부 임시이사회		제9차 감독회의(8-9) 본부 임직원 소풍(29-31) 제15차 희망대심방 장단기발전위원회	제1 연수부 (일영) 제2 연수부 (입석)	정회원 연수 교육(B) 감리교 목회자 부인 신학 교육원 엠마오 가는 길 # 23(여) 산돌학교 우리 땅 밟기 건강교실
비고	· 연회개최 : 미주특별연회(6-8), 서부연회(22)			

6월

선교국	국내선교부		사회농어촌환경부		해외선교기획부 · 선교사관리부
			환경선교주일 성수 감리교 환경선교대회		2008년도 상반기선교보고서 접수 2008년도 상반기선교사의 예상사역단계 분석 2008년도 상반기 나라별 선교사회 보고서 접수 한인교회 선교정책 세미나
교육국	교육행정부	장년교육부		차세대교육부	교육교재부
	중등학교교장수련회 장학이사회	노년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차세대부흥전략회	지역별여름성경학교 강습회 교재편찬위원회
사회평신도국	공통	평신도부		사회봉사부	복지법인부
	정책자문컨설팅위원회	평신도주일(6월1일)		노인대학협의회 임원회	시설직원교육
출판국	공통	출판부		정기간행부	
		단행본 「존 웨슬리의 저술」 단행본 「불멸의 선교사 아펜젤러」 사경회총서 개정판 파워스톰 10권		「기독교세계」발행 배포 「강단과목회」발행 배포 「하늘양식」2차편집위원회	
사무국		행정기획실		연수원	
재산관리부 임시이사회		아시아감독회의(21-23, 싱가포르) 아시아감리교협의회(24-47, 말레이지아) 제16차 희망대심방		제1 연수부 (일영)	정회원 연수 교육(B) 정회원 연수 교육(A) 엠마오 가는 길 # 24(남)
				제2 연수부 (입석)	산돌학교 단오제 야외예배 산돌학교 반디불이축제
비고					

7월

선교국	국내선교부	사회농어촌환경부	해외선교기획부 · 선교사관리부
		농촌-도시 사랑나눔 청년선교 체험수련회	2008년도 선교사지원자 집중 훈련 실시(1주간) 수련선교사 40시간 자원봉사 실시 집중훈련 및 자원봉사 이수증 발급 후원교회 및 후원단체 정책 포럼
교육국	교육행정부	장년교육부	차세대교육부
	신학정책위원회	감리교애창복음송가 장년부흥전략회의	국가인증수련회 유학생대회
사회평신도국	공통	평신도부	사회봉사부
			복지법인부 자원봉사꿈나무영성 훈련 리더모임 잔원봉사꿈나무영성 훈련 실시 보건주일 공문
출판국	공통	출판부	정기간행부
		단행본 「겨울의 은총」	「기독교세계」발행 배포 「하늘양식」입찰
사무국		행정기획실	연수원
재산관리부 임시이사회		제10차 감독회의(10-11) 제17차 회망대심방 장단기발전위원회	제1 연수부 (일영) 제2 연수부 (입석)
비고			

8월

선교국	국내선교부		사회농어촌환경부	해외선교기획부 · 선교사관리부
	신임군목 차량지원금 전달 웨슬리 전도학교 차세대지도자 전도훈련		농촌-도시 사랑나눔 자매결연 교회 연합수련회 교정선교회 교도소 예배	지역별 선교사대회 개최 2008년도 하반기 선교사인준 공고 선교사훈련정책위원회
교육국	교육행정부	장년교육부	차세대교육부	교육교재부
	심방전도사교육정책	목회자 복세미나	청년관 관장협의회 국가인증수련회	아동부·홍·전략회의
사회평신도국	공통	평신도부	사회봉사부	복지법인부
	정책자문컨설팅위원회	평신도월례회공과	노인대학 지도자 세미나	임시이사회
출판국	공통	출판부	정기간행부	
	2008 서식류 제작기획	2008 달력, 목회수첩 기획	『기독교세계』발행 배포 『강단과목회』발행 배포	
사무국		행정기획실	연수원	
재산관리부 임시이사회		제18차 희망대심방	제1 연수부 (일영)	엠마오 가는 길 # 25(여)
			제2 연수부 (입석)	산돌학교 개학식
비고				

9월

	국내선교부	사회농어촌환경부	해외선교기획부·선교사관리부	
선교국	중앙연회, 동부연회 여건적 미자립교회 세미나 웨슬리 전도학교 신학대학별 전도훈련	농촌선교주일 성수 감리교 직장인선교 활성화 정책협의회	2008년도 하반기 선교사 자격 인준 서류심사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 지역별 선교사대회 개최 한국문화소개프로그램(하반기) 실시	
	교육행정부	장년교육부	차세대교육부	교육교재부
교육국	교육국위원회 몽골후례대학이사회	강림절목상집 노년목회컨퍼런스	청소년 리더십학교 차세대부흥전략회의	프로그램개발위원회 어린이 강림절목상집
	공통	평신도부	사회봉사부	복지법인부
사회평신도국	사회평신도국위원회	평신도대학(2학기)	보건주일(9월7일) 기술자원봉사실시	복지의날(대회) 행사 시설대표자협의회
	공통	출판부	정기간행부	
출판국	2008 단행본 제작 기획 파워스톰 11권	『기독교세계』발행 배포 『장단과목회』발행 배포		
	사무국	행정기획실	연수원	
재산관리부 정기이사회 재산관리부 임시이사회	제11차 감독회의(45)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25) 장단기발전위원회	제1 연수부 (일영) 제2 연수부 (입석)	정회원 연수 교육(A) 엠마오 가는 길 # 26(남) 감리교 목회자 부인 신학 교육원 산돌학교 한년별이동수업 산돌학교 단기해외이동 수업	
비고				

10월

선교국	국내선교부		사회농어촌환경부	해외선교기획부·선교사관리부
	종교개혁 490주년 기념 특별 행사 군인교회 전담목회자 집체교육 웨슬리 전도학교 전도훈련		KNCC 교회일치위원회 교회 일치 포럼 장애인선교위원회 정책협의회	2008년도 하반기 선교사 자격 인준위원회 2008년도 하반기 선교사 자격 인준 면접심사 선교사 파송예배(하반기) 지역별 파송교회 및 파송단체 기도회
교육국	교육행정부	장년교육부	차세대교육부	교육교재부
	본부 정책위원회	평신도속회컨퍼런스 해외한인교육정책	청소년지도사아카데미 프로그램위원회	교사교육정책위원회 새교재 편찬 감수
사회평신도국	공통	평신도부	사회봉사부	복지법인부
	연회별 사회평신도부 총무정책협의회	평신도선교단단체 연합수련회		복지목회포럼 임시이사회
출판국	공통	출판부	정기간행부	
	신년계획 수립 2008 절기상품 입찰	『NIB주석』발간기획	『기독교세계』발행 배포 『강단과목회』발행 배포	
사무국		행정기획실	연수원	
재산관리부 임시이사회		재일대한기독교총회 (13-15, 오사카) 제28회 총회(29-31)	제1 연수부 (일영) 제2 연수부 (입석)	엠마오 가는 길# 27(여) 감리교 목회자 부인 신학 교육원 산돌학교 신입생모집 (서류전형,면접) 산돌학교 가을운동회
비고	제5회 감독회장배 어린이 축구대회(2-3) 어린이 WMC대회(2-5)			

11월

	국내선교부	사회농어촌환경부	해외선교기획부 · 선교사관리부	
선교국	충청연회, 남부연회 여건적 미자립교회 세미나 웨슬리 전도학교 전도훈련	감리교 농촌선교 한마당 감리교생명농업인대회	2008년도 선교사 주소록 제작 2008년도 성탄선물 발송 작업 2009년도 선교사 달력 제작 한인교회 선교정책 세미나	
	교육행정부	장년교육부	차세대교육부	교육교재부
교육국	교육국위원회	속회공과편찬	청소년교재 편찬 청년교재편찬	새교재편찬위원회 <u>프로그램위원회</u>
	공통	평신도부	사회봉사부	복지법인부
사회평신도국	연회별 사회평신도부 총무정책협의회	월례회공과 배부	불우이웃돕기 모금공문	불우이웃돕기 모금공문
	공통	출판부	정기간행부	
출판국	국위원회	2008 달력, 목회수첩, 속회공과 강림절 묵상집, 장로고시문제집, 감리교임원 지침	『기독교세계』발행 배포 『하늘양식』발행 배포, 교회판 제작	
	사무국	행정기획실	연수원	
재산관리부 임시이사회		본부정책협의회 제12차 감독회의(6-7)	제1 연수부 (일영)	정회원 연수 교육(B) 엠마오 가는 길 # 28(남) 감리교 목회자 부인 신학 교육원
			제2 연수부 (입석)	산돌학교 학교체험
비고				

12월

선교국	국내선교부	사회농어촌환경부	해외선교기획부 · 선교사관리부	
	군선교대회	광화문 크리스마스-소외된 이웃과 함께	2008년도 선교보고서 접수(출입 국확인서 포함) 2008년도 하반기선교사의 예상사 역단계 분석 2008년도 하반기 나라별 선교사 회 보고서 접수, 사역통계조사 2008년도 행정서류 마감 정리 2008년도 위원회 총회 정리 마감	
교육국	교육행정부	장년교육부	차세대교육부	
	연합기관장연석회의	속회공과설명회	차세대 부흥전략회의 아동부-부흥전략회의	
사회평신도국	공통	평신도부	사회봉사부	
		평신도단체장협의회 (6개)	복지법인부 불우이웃돕기모금 정기이사회	
출판국	공통	출판부	정기간행부	
		표준 기도집 시리즈 1,2,3 파워스톰 12권	『기독교세계』발행 배포 『강단과목회』발행 배포	
사무국		행정기획실	연수원	
		『2009 본부정책자료집』발간	제1 연수부 (일영) 엠마오 가는 길 # 29(여)	
			제2 연수부 (입석) 산돌학교 겨울잔치 산돌학교 방학식	
비고				

2005~2007년 주요문서

① 제26회 총회 감독회의 영적각성 선언문

감리교회의 영적 각성을 열망하며

“이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누리도록 하소서”
(아펜젤러 선교사의 기도)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올해로 선교 1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전해진 복음은 어둠 속에 빠져 있던 이 민족을 밝혀주는 참 빛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앞세워 한국의 초대교인들은 전도와 기도에 힘썼으며 민족계몽과 나라의 주권을 보존하기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교회는 나라를 빼앗기고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그리하여 한국 감리교회는 한국 사회 속에 뿌리를 내리며 성장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축복으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지나온 역사의 그늘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과 민족 앞에 잘못하였던 일들을 우리는 회개합니다. 감리회가 자립 60주년 선언문에서 고백한 바와 같이 일제의 압제 속에서 신사참배에 굴복하였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정권의 불의와 강압에 항변하지 못했고, 교회가 분열과 다툼으로 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교회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민족과 사회 앞에 머리를 숙이는 바입니다.

오늘날 도덕적 기초가 흔들리고 대립과 갈등 속에서 사분오열되어 있는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들 자신의 허물과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점차 제도화되어 가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심을 깨닫습니다. 오늘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한국 감리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철저한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능력을 다시금 회복하고, 구령열에 불타 전도하고 참 도덕성을 회복하는 이 영적 각성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호 12:6).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를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르고 감리교회는 생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그리고 지난 역사 속에서 감리교회가 영적 각성운동에 앞장서 온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과 10개 연회 감독된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 대각성운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바입니다.

1. 감리회의 지도자 된 우리 감독들부터 경건한 생활에 힘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심한다.
2. 우리는 매사에 절제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소박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분부대로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 새로운 감독상을 수립한다.
3. 우리는 감리회의 올바른 전통을 계승하며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본부와 연회의 행정을 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한다.
4.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일체감과 유대성을 확립하기 위해,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어 어려움 속에 있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돋는 데 앞장선다.
5.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한 건전한 사회 문화를 수립하는 일과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화해의 증거자가 되는 일에 솔선수범한다.

이러한 우리의 결심과 함께 이제 모든 감리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하며 당부합니다.

1. 선교 120주년을 맞이하여 영적 대각성운동의 불길이 감리회의 온 교인, 개교회, 지방 회, 연회 그리고 본부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합시다.
2. 전도와 봉사에 앞장서서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함께 이루어지는 건강한 감리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3. 우리의 삶 속에서 올바른 도덕성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를 이루는 일에 앞장섬으로써 민족과 사회에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로 거듭나도록 합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의 감 독 회 장	
서 울 연 회	신 경 하
서울남연회	윤 연 수
중 부 연 회	김 충 식
경 기 연 회	이 규 학
중 앙 연 회	최 호 순
동 부 연 회	권 혁 구
충 북 연 회	박 거 종
남 부 연 회	이 돈 하
충 청 연 회	곽 성 영
삼 남 연 회	현 상 규
	장 동 주

2 2005 임원대회 결의문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호 12:6)

부활의 희망이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임원 된 우리는 2005년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2005 임원대회’를 열었다.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를 주제로 거룩한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하려는 900여명의 임원들은 선교 120년의 역사를 반성하고, 교회와 민족을 향한 소명을 새롭게 다짐하였다.

임원대회는 우리 자신이 바로 ‘희망의 청지기’ 임을 자각하는 자리였다. 또한 한국 감리교회가 다시 일어나 희망을 주는 교회로 거듭나야 할 시대적 소명을 일깨운 기회였다. 지금은 영적으로 각성할 때이며, 감리교회의 영적 부흥을 모색할 시기이다. 우리는 존 웨슬리의 영적체험으로 출발한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영혼구원과 사회구원를 이루어 가야 한다.

우리가 희망을 외치는 이유는 분명하다. 오늘의 교회가 우리 사회와 역사 속에서 참 희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룩한 교회가 신뢰를 잃고, 존엄을 상실한 것은 먼저 교회의 책임자요, 임원 된 우리들의 잘못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권위의 상실과 도덕성 부재를 회개한다. 영적으로 각성하여 나날이 새로워지고, 모든 감리교회가 든든히 서 가며, 세계로 나아가는 감리교회는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희망의 방향이다.

‘2005 임원대회’는 희망의 광장이었다. 역사반성을 통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와 모범을 찾았고, 현실진단을 통해 교회 간신의 방향을 모색했으며, 비전 찾기를 통해 희망의 청사진을 마련하였다. 무엇보다 우리는 나 자신이 먼저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고백한다. 그리고 연회와 지방, 개체교회와 감리교인의 구체적인 결단 속에서 희망을 이루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05 임원대회’에 참석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실천을 다짐한다.

1. 우리는 희망이 선포된 이 시기에 감리교회의 임원됨을 감사하며, 희망을 나누는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 우리는 영적각성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연회와 지방, 개체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영적 각성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3. 우리는 300만 총력전도운동의 결실화에 적극 동참하며, 지방마다 전도운동에 헌신 할 것을 결의한다.
4. 우리는 세계감리교대회(WM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온 교회가 동참하며, 교인마다 천원 현금에 참여할 것을 결의한다.
5. 우리는 청소년 교육이 미래가 아닌 현재의 과제임을 명심하여, 교회학교 부흥과 청소년 평화세상만들기를 위해 힘쓸 것을 결의한다.
6. 우리는 미자립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나눔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7. 우리는 회개의 열매인 제도개선과 갠신을 통해 감리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소외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한국 사회와 교회의 희망과 모범으로 거듭날 것을 결의한다.
8. 우리는 정의와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해 힘쓰고,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5월 12일
2005 임원대회 참가자 일동

③ 제19차 WMC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결의문

Resolution for Reconciliation and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서울에서 열린 제19차 세계감리교대회는 화해와 평화를 위한 세계감리교회의 성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의 이 대회는 지난 60년 동안 온전한 평화를 얻지 못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의 지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

우리는 모든 인간과 피조물들과 고통의 땅에서 함께 하시어 왔고 일하시어온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과 희망을 담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화해의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에게 내밀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세계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화해를 선포하는 화해자로서 부름을 받았다 (고후 5:18-20).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역을 시작으로 다른 개인들과 다른 가족들과, 다른 교회들과 다른 민족들과의 화해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한반도는 화해와 평화가 절박하게 필요한 세계 분쟁지역들 가운데 하나이다.

한반도의 비극적 분단은 우리 자신들로 인해 해결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갈망한다.

전쟁의 역사는 엄청난 사상자와 계속적인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위협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긴장을 강화하고 한반도를 심각하게 위협하였기에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기독교인의 헌신을 더욱 새롭게 하고 있다.

이제, 세계감리교협의회는 132개국 7천만 감리교인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1. 우리는 화해와 평화의 중재자가 되고, 화해와 평화를 향한 정부와 국제기구들의 노력 을 지지한다.
2. 우리는 한국의 평화적 통일의 옹호자가 되고, 갈라진 민족의 재결합을 촉진하는 WCC(세계교회협의회)와 미교회협의회(NCC-USA)의 초교파적 노력에 동참한다.

우리는 남북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1. 우리는 광범위한 남과 북사이의 협조와 협력을 통한 모든 평화적 통일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2. 민간 지원과 정부가 하는 모든 종류의 교류 프로그램은 계속되어야 한다.
3. 인도주의적 지원 프로그램들은 증가되어야 한다.
4. 평화로운 일치를 향해 우리를 이끄는 상호이해와 협조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이 UN에서 제시한 원칙들을 존중하고 평화적 협조를 통한 해결을 찾도록 촉구한다. 우리는 핵과 다른 대량학살무기의 개발을 반대하고 그러한 위협의 개발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우리는 한국 교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교회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사랑을 나누고 세계평화에 봉사하는 공동체임을 확인해야 한다.
2. 한반도에서 교회들 사이에 미래를 위해 큰 희망을 제시해온 지난 20년간 남북한 교회의 협력 프로그램은 계속되어야 한다.
3. 한반도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전 세계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우리는 한국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희망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지지한다.
2. 우리는 한국 민족의 권리와 관심을 다른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관심보다 상위에 둘 것과 한국 민족이 화해와 평화 그리고 정의를 성취하는 데 동반자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세계감리교협의회 총회(WMC Council Meeting)

2006년 7월 19일 대한민국, 서울

4 제19차 WMC 세계감리교회협의회와 칭의교리에 관한 공동 선언문

공동 선언문

1. 루터교 세계연맹과 로마 가톨릭교회의 공식적인 승인을 거쳐 1999년 10월 31일 동반 교회로서 “루터교와 로마 가톨릭교회에 의한 공식적 공동성명서”에 서명함으로써 “칭의 (Justification) 교리에 관한 공동선언”을 확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칭의교리의 기본 진리에 대한 공동 이해를 명확히 하면서 로마 가톨릭과 루터교 사이의 실질적인 합의는 16세기 서방 교회 안에서 분열의 주된 이유인 신학적 논쟁에 관련해서 볼 때 많은 부분 합의에 이르렀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2. 세계감리교협의회 안에 소속된 우리 교회들은 이러한 동의를 큰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칭의교리의 공동선언(JDDJ 15~17항)에서 소개된 일반적인 칭의의 이해가 감리교의 교리와 부합한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특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삼위일체적 접근으로 다음 항에 설명하는 것에 사의를 표명합니다.

15. 신앙 안에서 우리는 모두, 칭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役事)라고 확신합니다. 성부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세상을 보내셨습니다. 칭의의 기초와 전제는 성육신,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성부의 뜻에 일치하는 성령을 통해 공유하는 그리스도 그 자신이 우리의 의(義)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느 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되고, 성령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선한 사역을 예비하게 하시고 부르시어 우리의 맘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16.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러한 구원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의로워 질 수 있습니다. 신앙 그 자체는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을 선물입니다. 그분은

성도의 공동체에서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일하시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완성으로 이끄시어 삶을 개신하도록 성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17. 우리는 또한 칭의의 메시지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관한 신약의 증언들의 핵심을 향해 이끌어 준다는 확신을 나누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죄인된 자로서 우리의 새로워진 삶이 하나님이 선물로 나누어 주시는 용서와 개신하는 자비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주며, 이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받을 뿐, 결코 어떤 방식으로도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3. 우리는 루터교와 로마 가톨릭이 종교개혁 시기 이후로 그들 사이에서 분쟁이 되어온 칭의의 교리 안에 있는 중대한 문제들 중에 일부를 함께 이야기 한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참고: JDDJ 19, 22, 25, 28, 31, 34, 37항) 게다가 루터교와 로마 가톨릭이 칭의 문제에 있어서 각자의 입장에 대한 선언문 20-21, 23-24, 26-27, 29-30, 32-33, 35-36, 38-39항의 설명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칭의 교리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강조가 두 교회와 그리고 감리교를 구분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 감리교 운동은 루터와 다른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웨슬리 형제들이 칭의를 이해했던 것처럼 항상 칭의의 교리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크게 의존해 왔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서방의 초대교회의 보편적 전통에 속한 칭의교리의 요소를 항상 포용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칭의 교리가 독특한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루터교와 로마 가톨릭 사이에서 이루어진 “칭의 교리의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동의”(JDDJ 40항)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언어, 신학적 정교함과 강조의 남은 차이점”에 관련하여 비교해 볼 때, 감리교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4.1 존 웨슬리의 의하면 원죄에 대한 교리는 본질적인 그리스도교의 교리입니다. 인간 본성의 타락은 스스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타락의 파괴적인 결과는 선행은총의 보편적인 유용성에 의해 상쇄되었습니다.(설교문 85,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한 노력, III. 4)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행(先行)적 활동에 근거한 것입니다. 웨슬리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조력한다(assist)”는 것이지 인간의 응답을 “강요(force)”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교문 63, 복음의 일반적 전파, 11 항).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과 세상으로 하여금 화해를 이루

어 왔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해를 돋도록 위임받고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고린도후서 5:20)

4.2 죄의 용서와 의를 이루는 것, 칭의와 성화 사이의 깊은 연관성은 칭의에 관한 성경의 교리 중에서 감리교적 이해에 있어서 언제나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존 웨슬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의 이중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칭의로 우리는 죄의 허물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회복됩니다. 성화로 우리는 죄의 능력과 뿌리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설교 85, II.1) 하나님과의 친교를 이루는 구속적인 용납과 우리 삶의 창조적 개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입니다.

4.3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롬 4:16) 받는 구원이라는 바울의 말은 감리교 운동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웨슬리 형제와 그 친구들이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의 해방시키는 복음을 체험한 이후 하나님의 선교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삶 안에서 구원하고 구속하며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역사에 투신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교 신앙은 언제나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갈 5:6)입니다.

4.4 믿음이나 사랑 둘 다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에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인 우리에게 부어짐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실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4.5 감리교의 가르침과 설교, 예식과 친양에 보면 은총의 신학은 우리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확증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다는 약속도 담겨 있습니다. 감리교신학은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롬6:22)라고 한 바울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또는 “완전한 성화”(살전 5:23 참조)의 교리를 발전시켜 이를 감리교 가르침의 핵심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 교리는 감리교 운동의 역사 속에서 다른 해석들이 있어 왔지만 감리교의 가르침에 있어서 다섯가지 요소는 언제나 명확합니다.

- a) “완전한 성화” 또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마 22:37-39; 요일 2:5 참조)입니다.
- b)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하나님께만 속한 절대적인 완전이 아니라 “무지, 실수, 나약함, 유혹에서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웨슬리설교 40, “그리스도인의 완전”)
- c) 비록 우리 전 존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다고 할지라도(롬5:5) 이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이자 우리 인간의 공로나 업적은 아닙니다.
- d) 죄를 정복하리라는 소망으로 인해 죄의 권세에 의해 다시 타락하거나 사로잡힐 위험에 대해 부인하거나 경시해서는 안됩니다.
- e) 하나님의 은총으로 칭의되고 성화된 이들은 전 생애 기간 동안 유혹과 죄와 투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 가운데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의 세력을 깨뜨리셨다는 복음의 약속으로 힘을 얻습니다. 비록 칭의된 이들의 삶 안에 “옛 아담의 이기적 욕망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JDDJ 28항)이 계속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의로 지배”(롬5:21)합니다.

4.6 감리교인들에게 율법과 복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관한 표현입니다. 생명과 행복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신30:15~20) 당신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이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우리 인간은 자력으로 이 길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했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깨닫게 합니다(롬3:21 참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가운데 계시되고, 표현된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비록 율법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단죄할 아무 권한도 없지만 사랑의 계명에 요약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인도하는 긴요한 길잡이로 남아 있습니다.

4.7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은 언제나 감리교 설교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소유의 확실성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관계성의 신뢰입니다. 그 관계성은 “은총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특히 성서를 연구하고 성찬에 참여

함으로써 사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은총을 전달하기 위한 외적 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롬8:16)라는 성령의 중언에 의해 확신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의 삶 속에 있는 평화와 기쁨의 근원입니다. 웨슬리적 표현으로 “거룩성”과 “행복함”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4.8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갈5:6)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에서 얻는 모든 선(善)의 근원으로 보입니다. 경건 생활과 자비의 사역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삶 속에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사역은 또한 하나님의 선교영역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한 목회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들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동역자”(고전3:7)로서 성도들을 돋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입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일하라”는 설교에서 존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빌 2:12) “하나님이 일하시니 너희도 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너희도 일해야만 한다.”(설교 85, III. 2)고 했습니다.

5. 우리 감리교 신자들은 이러한 합의에 기초하여, 루터교회와 몇 나라의 감리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교회에 속해 있음을 서로 인정하고 강단과 제단의 온전한 친교를 선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깊은 희망은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칭의교리에 대한 우리의 공동 이해를 선언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루터교회들과 또 로마 가톨릭 교회와 더욱 친밀한 관계성을 갖도록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동 선언

이 성명서에서 세계감리교협의회와 그 소속 교회들은 루터교 세계연맹과 가톨릭교회를 대표하여 1999년 10월31일 아우스부르크에서 서명한 “칭의교리에 관한 공동선언문”의 가르침에 근본적으로 교리적 동의를 선언한다.

“칭의교리에 관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하는 동반 교회들은 세계감리교협의회와 그 소속 교회가 발표한 앞의 성명서를 함께 환영한다. 이 성명서는 “칭의교리에 관한 공동선언문”에서 표현된 칭의교리의 기본 진리들에 대한 합의를 감리교도 동의한다는 선언이며 표명이다.

칭의교리의 기본 진리들에 대한 공유된 선언을 수립하면서, 우리 세 교회는 신학연구와 교육, 설교에서 칭의에 대한 공동 이해를 더욱 깊이 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가톨릭교회, 루터교회와 감리교회는 현재의 성취와 실행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뜻으로 온전한 친교와 세상을 향한 공동 증언을 위한 노력의 일부로 간주한다.

제 19차 세계감리교대회
2006년 7월 23일 대한민국, 서울

5 제27회 총회 시국성명

현 시국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입장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모인 제27회 총회 회원들은 현 시국이 휴전 이후 가장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이라는 것과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팽배해 있음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한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을 봄으로 실천하였던 감리교 신앙 선배들의 자랑스런 전통을 이어 받고자 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이 사회를 향하여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고자 한다.

1. 북핵문제에 대하여

한반도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며 평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우리는 1991년에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핵무기는 폐기되어야 하며 북한은 조속한 시일 내에 6자 회담에 복귀하고 북미대화를 병행하여 모든 문제가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UN의 결의를 지지하며 아울러 전쟁을 도발할 어떤 요건들도 배제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2.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하여

전시작전권을 갖는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북한이 무모한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논의는 적절치 않으며 국가 안보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시작전권 환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해야 함을 밝힌다.

3. 북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대한민국이 고도의 산업화를 이루어 선진국대열로 진입해 가며 민주화를 꽂피우고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북한의 상황과 인권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우리는 북녘의 형제자매들에 대하여 깊은 연민과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성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실제적인 신앙의 자유를 비롯하여 북한 동포의 인권이 개선되기를 소망한다

4. 사학법 재개정에 대하여

어떤 경우라도 사학비리는 척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하여 본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며 회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학교의 설립이념을 훼손하는 현 사학법은 재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감리교 계통학교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여 건전 사학육성의 이정표를 제시할 것을 천명한다.

5.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하여

한반도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강대국의 이익이 침예하게 교차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그러나 강대국의 패권주의로 인하여 우리의 자주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결코 용납 할 수 없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및 독도 침탈시도에 대하여 규탄 하며 현 정부는 국가주권과 국토 수호를 위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6. 도덕성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의 사회 혼란과 갈등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며 영성과 도덕성 회복을 위하여 영적대각성 실천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선언한다.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속하는 부패성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한다. 우리 감리교회는 이제 부패없는 투명한 사회 건설을 위해 앞장 설 것이며 선진국대열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하여 한국사회에 희망을 주도록 할 것을 다짐한다.

2006. 10. 27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7회 총회 총대 일동

⑥ 2007년 연회 · 신실한 사람들 – 감리교회의 세 가지 약속

신실한 사람들 – 감리교회의 세 가지 약속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영적각성 100주년의 해를 맞아 그 실천의 일환으로 하나님 앞과 세상을 향하여 세 가지 약속을 제정하였습니다.

일찍이 제26회 총회 감독회의에서는 ‘감리교회 영적각성 선언문’을 발표하였고, 제27회 총회와 실행부위원회에서는 ‘목회자 윤리강령’과 ‘감리교인 생활수칙’, ‘사회규약’을 제정하여 2007년 국내외 11개 연회를 통해 천명하게 되었습니다.

100년 전 영적각성운동이 회개와 생활의 변화를 통해 영적 능력을 회복하고 당시 조선사회를 변화 시켰듯이, 이제 우리 5,700교회, 150만 감리교인은 ‘세 가지 약속’과 실천을 통해 “신실한 사람들”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목회자윤리강령’은 8,500여명의 감리교회 교역자들이 함께 고백하고 지키려는 성직자의 기본 윤리입니다. ‘감리교인생활지침’은 150만 감리교인의 영성생활과 생활윤리를 제시하였으며, ‘사회규약’은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감리교회의 대사회적 책임과 약속을 담았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의 언약갱신의 전통과 성화의 신앙정신에 따라 늘 스스로를 개선하고 갱신해 왔습니다. 이제 세 가지 약속의 실천을 통해 나날이 새로워지고, 든든히 서가며, 세계와 세상으로 나아가는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세가지 약속의 원문은 www.kmc.or.kr 통합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 윤리강령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들은 세속화와 물질주의가 만연한 이때에 우리 자신의 사역과 생활을 성찰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 겸손히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모든 성도 앞에 신실한 본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목회자 윤리강령을 선언한다.

1. 우리는 목회자로서 참된 믿음과 깊은 영성 그리고 신실한 모습으로 경건하게 살아간다.
2. 우리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위임받은 사역을 위해 성실하게 헌신한다.
3. 우리는 목회자 가정이 먼저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 한다.
4. 우리는 자랑스런 감리교회의 목회자로서 감리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신실하게 섬긴다.
5. 우리는 같은 소명을 받은 동역자로서 일체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동료 목회자들을 돋고 격려한다.
6.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로서 청렴하고 검약한 삶을 살아 교회의 덕이 되도록 노력 한다.
7. 우리는 성숙한 시민이요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 위에 바로 서도록 기도하며 헌신한다.

우리는 목회자 윤리강령을 마음속에 새겨 최선을 다해 이를 실천할 것이며 만약 이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감리교회의 장정에 따라 어떠한 규제나 견책도 감수할 것을 염숙히 다짐한다.

감리교인 생활수칙

기독교대한감리회 150만 감리교인들은 신실한 사람으로 거듭나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땅에 희망을 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감리교인 생활수칙을 제정하여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염숙히 약속한다.

1.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경건생활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지체의 하나로서 서로 밭들고 협력하며, 직분에 따라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한다.
3.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공동체로 여겨 가정예배에 힘쓰고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하며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도록 힘쓴다.
4. 우리는 정의롭고 진실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돋고, 그늘진 곳에 사랑의 빛을 비추며, 소금처럼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5. 우리는 자연과 생명체를 사랑하고 조화로운 삶을 위해 자원을 절약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며, 환경보호에 헌신한다.
6.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정직하게 행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찬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선다.
7.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화해와 평화가 넘치는 인류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사회규약

기독교대한감리회는 1930년 제1회 총회 출범과 함께 사회신경을 제정하여 사회를 향한 기독교적 원리와 신앙 윤리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신학에 기초한 감리교회의 실천 규범으로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발전해 왔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우리 사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회규약을 결의한다.

1.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전하는 ‘자연공동체’를 위해 헌신한다.
2.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가정공동체’를 위해 헌신한다.
3.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고 섬기는 ‘복지공동체’를 위해 헌신한다.
4.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정의와 평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다.
5. 우리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화해와 통일공동체’를 위해 헌신한다.
6.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미래공동체’를 위해 헌신한다.
7.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을 따라 이 사회에서 ‘성화공동체’를 이루는데 헌신한다.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의 비전”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영적대각성 100주년의 해에 8.23 영남선교대회를 맞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감리교회의 비전을 선언한다.

선교 123년 역사 속에서 한국감리교회는 이 민족 위에 희망의 빛으로 존재하였다. 이 빛은 개항과 근대화의 시기에는 희망의 여명으로, 민족의 암흑기에는 희망의 등대로, 성장과 부흥의 시대에는 희망의 영적 동력으로 역할을 감당해 왔다.

그러나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는 개신교인 감소라는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개신교회 쇠퇴는 사회적 신뢰상실을 넘어, 본질적인 위기를 진단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그동안 교회는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성장 하였다. 그럼에도 성장제일주의와 물질중심주의에 사로잡혀 복음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요청에도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였다.

한국기독교의 위기는 우리 감리교회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지금은 잘못을 회개하고, 영적으로 각성할 때이다. 1903년 하디 선교사의 자복과 100년 전 이준 열사의 탄식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복음의 순수함을 되찾아야 한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히 13:8)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을 이 시대에 참되게 증언하기 위해 경건히 무릎 끓고, 겸손히 엎드려야 한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섬김의 영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

웨슬리영성에 기초한 감리교회의 신앙전통은 희망을 잃은 한국사회와 능력을 상실한 교회를 부흥시킬 소중한 영적 유산이다. 이를 계승해 온 기독교대한감리회 5,825 교회, 153만

감리교인은 다시 “신실한 사람들”로 고백하고,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로 거듭나고자 한다.

우리는 나날이 새로워지고, 든든히 서 가며, 세계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9 가지 비전을 선언한다.

나날이 새로워지는 감리교회

1. 우리는 웨슬리의 영적회심으로 시작한 감리교회로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것을 선언한다.
2. 우리는 영적각성의 실천으로 목회자윤리강령, 감리교인생활지침, 사회규약을 성실히 지킴으로서 신실한 사람들로 살아갈 것을 선언한다.
3. 우리는 민족복음화의 지평에서 영남지역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감리교회 낙후 지역 선교를 위해 앞장 설 것을 선언한다.

든든히 서 가는 감리교회

1. 우리는 21세기에 맞는 교회 성장을 지향하고 전도운동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감리교인 300만명 시대를 열어 갈 것을 선언한다.
2. 우리는 소외된 이웃과 현장에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성숙한 교회상을 정립하고 교회마다 사회봉사와 복지운동을 위해 헌신할 것을 선언한다.
3. 우리는 어린이와 청년 세대를 위한 전도와 교육에 집중 투자하고, 다음세대와 함께 젊어져 가는 열린 감리교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선언한다.

세계와 세상으로 나아가는 감리교회

1. 우리는 세계선교를 위한 교회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계교회의 일치와 협력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을 선언한다.
2. 우리는 지방과 교회에서 희망봉사단을 조직하여 지역사회 봉사, 환경과 생명, 생활문화 개선을 위해 힘쓰며, 지도력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3.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앞장서고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명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출입 교계기자 명단

행정기획실 · 기획홍보부(2007.12.10)

신문					
종합 일간	국민일보 kmib.co.kr	강주화	150-968 영등포구 여의도동 12번지 국민일보 편집국 종교부 5층	(02)7819-411 011-9762-9997	F.02)7819-410 coin77@hanmail.net
교단 주간	기독교타임즈(기감) kmctimes.co.kr	곽 인	100-101 중구 대평로1가 648 감리회관 13층	(02)399-4387 010-8979-6379	F.02)399-4397 mercykwak@hanmail.net
	한국기독공보(예장통합) kidokongbo.com	신동하	110-740 종로구 연지동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2	(02)708-4713 017-810-4209	F.02)708-4720 sdh@kidokongbo.com
	기독신문(예장합동) kidok.com	박민균	135-283 강남구 대치1007-3 총회회관	(02)559-5920 017-742-4314	F.02)557-9653 min@kidok.co.kr
	한국성결신문 kehcnews.co.kr	편집부	135-839 강남구 대치동890-56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본부	(02)3459-1159	F.02)501-7093 windvoic@hanmail.net
	침례신문 bpnews.co.kr	최치영	152-102 구로구 오류2동 115-1	(02)2681-9703 011-9748-1321	F.02)2681-9706 bpress21@bpnews.co.kr
	기하성총회신문 www.kagtetimes.com	홍순현	110-102 서울시 종로구 평동 222 총회회관 401호	(02)720-6839 016-342-0709	F.02)720-7724 hsh342@naver.com
교계 주간	기독교신문 gidoknews.co.kr	민성식	133-869 성동구 행당동319-36	(02)2295-8884 016-231-2084	F.02)2292-4042 byonghyo@komet.net
	기독교연합신문 igoodnews.net	공종은	138-848 서초구 방배3동981-13	(02)585-2751 011-9724-0134	F.02)585-6683 jekong@igoodnews.net
	크리스챤연합신문 cupress.com	지미숙	110-736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903호	(02)765-3022 017-366-2548	F.02)3675-2965 cupress2@hanmail.net
	연합공보 iyeonhap.com	조승원	100-855 중구 장충동2가 186-210 파라다이스 빌딩	(02)2263-1843 019-322-1528	F.02)2263-2370 jsw7215@iyeonhap.com
	들소리신문 deulsoritimes.co.kr	양승록	110-460 종로구 연건동 195-21	(02)3676-3082 016-219-7231	F.02)3676-3087 deulsori@chol.com
	교회연합신문	김성수	110-460 종로구 연건동 195-19 교회연합신문	(02)747-1490 017-350-6894	sunysis@naver.com
	크리스챤신문 cypress.net	이재호	110-740 종로구 연지동 136-56 811호	(02)3673-0123 016-703-2931	F.02)3673-0125 jjclub@yahoo.co.kr

방송				
극동방송 febc.net	김용환	121-707 마포구 상수동 89	(02)320-0304 011-9055-1566	F.02)320-0339 hisever@febc.net
기독교방송 cbs.co.kr	고석표 (TV뉴스부)	158-701 양천구 목동917-1	(02)2650-7813 016-288-1585	F.02)2653-3100 spko@cbs.co.kr
기독교TV cts.tv	양화수	156-052 동작구 노량진2동 27-2	(02)6333-1096 010-7579-2268	F.02)6333-1101 hsyang@cts.tv
CGN TV www.cgntv.net	장진아	140-240 용산구 서빙고동 CGN빌딩 별관 보도보부	011-9036-1216	janga3@onnurimall.com

인터넷 방송					
구굿닷컴(뉴스미션) googood.com	이동희	150-726 영등포구 여의도동 148 극동빌딩 4층	02)761-7565 010-3124-0423	F.02)761-7071 dong423@newsmission.com	
뉴스앤조이 newsnjoy.co.kr	이승규	110-850 종로구 효제동 227-1 대광빌딩 203호	02)744-4116 010-5134-7546	F.02)747-4115 hanseij@newsnjoy.co.kr	
당당뉴스 dangdangnews.com	송양현	120-012 서대문구 충정로 27가 1847 3층	02)393-4002 011-9972-0603	F.02)362-4081 song-1002@hanmail.net	
에큐메니안 ecumenian.com	박기훈	110-736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508호	02)765-9749 018-216-0811	F.02)744-2748 webmaster@ecumenian.com	

중앙언론 종단 출입기자단

방송			
KBS	02)781-4430	150-790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방송공사 18	F. 02)781-4409
MBC	02)789-0862	150-728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문화방송	
SBS	02)2113-4264	158-725 양천구 목1동 920 SBS방송센터	F. 02)2113-4289
YTN	02)398-8363	100-998 중구 남대문로5가 6-1 와이티엔빌딩	F. 02)398-8369

종합일간				
연합뉴스	정천기 이준삼	02)398-3887	110-140 종로구 수송동 85-1	F. 02)398-3691
경향신문	김석종	02)3701-1210	100-702 중구 정동22 경향신문사	F. 02)723-7665
동아일보	윤영찬	02)2020-0672	110-715 종로구 세종로 139 동아미디어센터	F. 02)2020-0324
문화일보	김종락	02)3701-5176	100-723 중구 충정로 1가 68번지	F. 02)738-9666
서울신문	김성호	02)2000-9192	100-745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F. 02)2000-9199
조선일보	김한수	02)724-5370	100-756 중구 태평로1가 조선일보사건물 61	F. 02)724-5308
중앙일보	백성호	02)751-5604	100-759 중구 순화동 7 중앙일보사빌딩	F. 02)751-5619
한겨례	조연현	02)710-0654	121-750 마포구 공덕1동 116-25 한겨례신문사	F. 02)710-0650
한국일보	남경욱	02)724-2320	110-792 종로구 중학동 한국일보사건물 14	F. 02)734-0642
한국경제	서화동	02)360-4295	100-791 중구 종림동 441 한국경제신문사 빌딩	F. 02)360-4356
매일경제	한배선	02)2000-2367	100-728 중구 필동1가 30-1번지 매일경제신문사빌딩	F. 02)2000-2369

2008년 본부 정책자료집

발행인 | 신경하

편집위원 | 이원재 김두범 엄마리 김영동 김광덕 정용치 유희용

발행처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100-101)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4-8 감리회관 16층

편집 | 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

대표전화 | 선교국 · 399-4335

교육국 · 399-4367

사회평신도국 · 399-4347

사무국 · 399-4310

출판국 · 399-4351

연수원 · 031)855-8011

행정기획실 · 399-4300

홈페이지 | <http://www.kmc.or.kr>

제작 | 리더스 커뮤니케이션

* 비매품

